

용인시사총서 9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립도서관



EM63432

용인시 · 용인 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이

백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 ·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이

백



목 차 Contents

[권두논문]

한국도자사 연구에서 용인 서리 백자요지의 위상 / 정양모 6

[1부]

龍仁 西里窯址 出土遺物 檢討 / 田勝昌 15

發掘窯蹟을 통해 본 博築窯의 運營時期 考察 / 李鍾玟 33

라말러초 한국 자요(磁窯)의 계열과 변천 / 최 건 63

[2부]

磁器 發生問題와 日本에서의 研究의 過去와 現狀 / 기라 후미오 85

磁器發生問題と日本における研究の過去と現狀 / 吉良文男 97

高麗 靑瓷의 探索 / 林士民 107

對高麗靑瓷的探索 / 林士民 117

“唐宋 越窯 窯道具와 瓷器에 대한 初步的 認識” / 金英美 125

唐代 玉璧底의 變遷과 韓半島 해무리굽 磁器의 出現 / 朴淳發 143

9~11세기 龍仁 西里 白磁窯와 지방세력 / 김 난 옥 161

[3부]

개회사 180

축사 181

용인서리백자요지 종합토론 183

편집후기 205

이

백



권 두 논문

한국도자사 연구에서 용인 서리 백자요지의 위상 / 정양모

한국도자사 연구에서 용인 서리 백자요지의 위상

정 양 모 경기대 석좌교수

현재 용인 서리 지역에 남아 있는 고려 초기 백자요지는 우리나라 도자사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임에 틀림없다. 이번에 용인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발표는 우리나라에서 청자와 백자가 언제부터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에 대한 검토와 새로 발견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자나 백자가 언제부터 시작하는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청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통일신라시대부터인지 신라를 지난 고려초부터인지 또는 고려초를 지난 고려 성종대부터인지는 아직 명문자료나 편년자료가 발견되지 않아서 학자들간에 이견(異見)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가 청자문화의 발생 시기를 논하는 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종전까지는 한국의 청자나 백자가 언제부터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화여대박물관에는 993년의 명문이 들어간 청자인지 백자인지 구별하기 힘든 항아리가 소장되어 있다. 이 항아리에는 '993년에 최길희가 만들었다'는 명문이 남아 있고, 과거 일제시대에는 그 질이 좋은 청자이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질이 우수한 청자의 제작은 993년보다 훨씬 후대부터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중국에서 도자문화가 많이 부상되고 가마자리가 많이 조사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일본학계에서도 초기청자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청자의 발생시기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 초기청자의 발생시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지대해 졌다.

현재는 자료가 많아져서 그것들을 널리 섭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중국 측의 자료가 무궁무진하지만 그것에 조사 및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우리 나라의 초기청자 발생과 관련되는 초기청자 가마의 조사나 편년자료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점이 큰 문제이지만 우리 나라의 청자발생 시기를 연구하는데 중국의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다음분들이 발표하실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 청자의 기원은 이미 은대(殷代)·주대(周代)에 초보적인 청자 유약을 입힌 것이 발견되고, 한대(漢代)에 그

유약이 발전해서 육조(六朝)를 거쳐서 당대(唐代)에는 중국의 청자가 1차적인 고전청자로서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월주청자(越州青磁)로 발전하게 된다. 유구의 『다경(茶經)』에는 차를 마시는데 월주비색을 최고로 치고, 그 다음이 형요(刑窯) 백자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중국에 청자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월주청자가 최고이며, 후대에는 월주청자가 사방으로 퍼져서 북방의 요주요(耀州窯), 하남의 임해요(臨海窯), 중국의 유명한 여관요(汝官窯)·남송의 관요(官窯)가 되고, 용천청자까지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월주청자는 중국청자의 시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월주청자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이 한국의 초기청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남해안에는 수십개의 청자가마가 분포하고 있다. 그 가마들은 대부분이 초기청자가마로서, 그 운용 시기가 9세기인가 아니면 10세기 초반이나 후반인가에 대한 문제가 학계의 논란이 되어 왔다. 요즘은 10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보다는 9세기 중반·후반·10세기 전반·중반 정도로 좁혀져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발견된 요지의 분포지역 및 그 수는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황해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일대에 약 17내지 20기의 가마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것이 중국의 월주요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완이나 대접의 접지면은 폭이 좁지만 월주요의 많은 그릇들의 특징은 접지면이 넓다는 것이다. 접지면의 폭이 1cm에서 넓은 것은 2cm까지 분포하며, 대체로 초기청자 1식으로 동선의 경사가 완만하고 내저원각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시기가 내려가면 동선의 경사가 급해지고 굽은 굽을 파는 안굽으로, 소위 2식이라고 한다. 이것은 월주요에서 시작되어 형주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대체로 당대에 시작되었다. 굽만 같은 것이 아니라 도자기를 구우면 여러 가지 받침이 있는데, 여기에 유약을 입히는데 1200도내지 1300도로 구우면 유약이 녹으면서 자기와 받침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1250도 정도의 열을 가해도 녹지 않는 불심이 강한 흙을 받쳐 소성하면 자기와 자기받침이 쉽게 떨어지지만 불심이 약한 것을 받쳐 구우면 달라붙어서 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내화토(耐火土)라고 한다.

월주요에서는 불심이 강한 굽고 가는 밀가루 같은 흙인 내화토를 가지고 받쳐 구웠다. 우리나라의

강진이나 17-18 개의 초기청자 가마에서 만든 청자는 월주요에서 구운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구웠다. 거기에서는 1식도 있고 2식도 있다. 그러면 중국에서 과연 이것을 언제 만들었는가 문제가이다. 중국에서 이러한 1식이 만들어진 시기가 중국학계의 조사로 분명히 밝혀지면 좋지만 현재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일본 구주에 가메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무덤에서 명문이 들어있는 비나 묘지석과 같이 출토되어 적어도 편년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과거의 일본 학자들이 일훈문(日暈文)이라고 명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번역하여 해무리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옥벽저(玉壁底)라고 한다.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는 일본용어를 번역한 해무리보다는 옥벽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

가메이는 그의 논문에서 중국의 『문물(文物)』과 『고고(考古)』 잡지에 발표된 발굴조사에 대한 글을 전체를 조사했더니, 해무리굽, 소위 옥벽저는 대체로 8세기에 많이 만들어지고 9세기까지 만들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초기에는 조금 만들어지다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 경에 많이 만들어지고 9세기 후반으로 가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0세기에 가면 한두개가 보이고 있다. 즉, 이러한 옥벽저가 제일 많이 제작되는 시기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이다. 결국, 이러한 옥벽저가 한국 청자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중국에서 옥벽저가 많이 만들어져서 대량으로 수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없어지는 때인 9세기 후반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

당시의 중국의 청자 제작기술은 대단한 선진기술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릇만을 보고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당시에 중국에서 많은 청자를 제작하는 기술자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제반 도구 및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일본의 기라씨가 북한에서 발굴한 황해도 봉산군 원산리 가마에서 출토된 파편을 가져왔습니다. 원산리 출토의 파편은 내화토를 받친 점이나 그 질이 중국의 월자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비슷하다. 결국 그것은 당시에 최고의 선진기술을 가진 월주요의 장인들이 한반도에 와서 청자를 만들었으며, 그 기술을 이전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아마도 한두명의 장인이 온 것이 아니라 일군의 장인집단이 이주해온 것으로 추

정된다. 황해도에서 전라남도까지의 거의 20개의 초기청자가마들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이 단지 한두군데 가마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 가마에서 나타나는 것이 때문에 당시 선진문화의 물결이 수용되면서 상당히 많은 월주요의 장인들이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에 와서 정착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김인규의 논문에는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중국도자기를 조사해 보았더니, 월주요자는 대부분이 9세기 경의 유물이고, 10세기말·11세기·12세기가 되면 중국 청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주요는 당대(唐代)와 요대(吳代)에 가장 발전했던 가마이다. 월왕이 987년에 송 태조에 항복하면서 월주요 자기에 '태평무인(太平戊寅)'이라는 명문을 새겨서 수십만점을 공납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옥벽저 소위 해무리굽이 한 점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만일 과거 일인학자들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에서 993년 경인 10세기 말에 형편없는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하면 중국에서 옥벽저가 늦어도 9세기 후반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늦어도 8세기 후반 9세기 전반까지이다. 우리나라의 가마들 중에 중국 월주요와 같은 형식의 자기를 만들어내는 가마가 수십 개소이고, 어떤 가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파편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태평무인'의 10세기말에는 중국에서 해무리굽이 없어지는데, 한반도에서 해무리굽을 만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김인규의 논문에도 우리나라는 9세기경의 월주청자의 파편이 많이 출토되고 그 이후에는 10세기 말의 중국 자기편들이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9세기 경 중국 월주요의 장인들이 도래했을 때 월주청자가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체 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 월주청자는 세계 각지에 수출되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동남아, 일본, 우리나라 등 출토되지 않는 곳이 없다. 아프리카 후스타트 유적에서는 중국자기편이 상당량이 출토되고 있는데, 그중에 월주요 청자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후스타트 유적의 월주 청자편들을 분석해본 결과, 9세기의 월주요편과 시대가 떨어지는 10세기말과 11세기의 월주요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9세기의 월주요편에는 옥벽저가 상당량이 들어있고 10세기 말과 11세기 월주요편에는 옥벽저가 발견되지 않

았다. 아프리카 후스타트 유적에 관한 연구는 일본 학자들 중에 유명한 학자들에 의해 최신의 연구 사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후스타트 유적의 9세기에는 옥벽저가 발견되는데, 10세기 말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중국에서 옥벽저라는 것은 9세기에 많이 만들어지다가 9세기 후반에는 거의 사라진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한국식인 제2식의 아니고 중국식인 1식의 옥벽저라는 것은 중국시장에서 골동품을 갖다가 모방해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월주요는 세계 각지에 퍼져서, 이란과 이라크에서도 월주 파편이 상당량 출토되었다. 특히, 이라크 티그리스호하반의 사마라유적은 1913년에 처음 조사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몇번의 조사가 더 이루어진 곳이다. 사마라유적은 838년부터 883년까지 성을 축조해서 그 기간만 존속했고 그 이후에는 폐허가 되어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으로 상한이 838년이고 하한이 883년인 것이다. 9세기 전반부터 중반까지 걸치는 유적에서는 옥벽저가 나온다. 그 이후의 유적에서는 옥벽저가 출토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일본의 나오끼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당시 일본에서는 자기를 만들지 못했으므로 중국의 월주요자의 옥벽저를 토기로 만든 것의 시기가 10세기 초기 이후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일본학계에서도 한국에서 월주요의 영향을 받아서 해무리굽의 청자를 만들기 시작하는 시기를 9세기 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서해안 일대는 수도의 왕권이 미치지 않아서 호족들이 기반을 가지고 득세하던 곳이었다. 넓은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곡물들에 의한 부의 축적,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한 경제적인 여유로움 등으로 경주지역이 아직 토기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서남해안 지역은 장보고와 같은 세력들에 의해 청자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장보고의 중심은 청해진 완도이다. 장보고가 활동했던 시기는 820년에서 840년 사이인데, 장보고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살해된 이후에는 완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하한이 840년이 되는 완도에서 출토된 중국 옥벽저계의 청자들도 증거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미륵사에서 대종12년(853)명의 토기파편하고 같이 출토된 청자는 월주 청자로서 편년의 중요한 자료이다. 이것은 9세기 경에는 우리나라에 중국 청자가 들어왔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원산리 청자

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 유적이다. 다음에 최건선생이 발표할 제천 송계리의 사지빈신사지에 남아 있는 탑은 1022년에 세워졌는데, 탑 밑이 가마자리이다. 그 가마에서 나온 청자를 해강청자 박물관에서 조사한 결과, 해무리굽은 없고 해무리굽에서 아주 퇴화해서 상당히 시대가 내려가서 조금 유사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 탑을 조성한 시점이 가마가 없어지고 난 10년 후인지 50년 후 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탑이 세워진 연대의 하한이 1022년이므로 이미 그전에 가마가 없어진 것은 확실한 것이다. 탑의 조성전에 사찰의 건립이 있어야 하므로, 탑은 가마가 없어진 한참 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옥벽저의 청자는 1022년 훨씬 이전부터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순발선생이 성주사지 출토에서 자기와 경질도기의 공반관계를 고고학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있다. 700년부터 750년 사이에는 중국청자 및 국산청자는 발견된 것이 없다. 750년부터 850년 사이에는 경주 동국대 부근에서 발견된 장골기(藏骨器)의 뚜껑이 월주 청자의 옥벽저완이다. 경주 배리에서 골호의 뚜껑, 성주사지에서 월주와 형주의 옥벽저완이 출토되었다. 8세기 중반에서 9세기 중반 사이에 중국의 옥벽저대접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3단계는 850년에서 900년으로 9세기 중반에서 10세기까지이다. 대전 노원동에서 10세기 초의 중국식 옥벽저완이 한 점 발견되었고, 경산 임당에서 한국식 해무리굽이 발견되었다. 900년부터 950년 사이에는 상주 청리에서 양면 편병과 중국식 옥벽저완이 발견되었다. 경산 임당동에서 말기 옥벽저완이 발견되었고, 말기 옥벽저와 함께 높은 굽의 구연이 외반하는 발이 나왔다. 성주사에서 한국식 옥벽저 완이 발견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9세기에서 10세기 전반까지도 옥벽저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도자기라는 것은 오래 지니고 있다가 문힐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중국식 옥벽저와 한국식 옥벽저와의 관계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 문제이다.

이

백



1 부

龍仁 西里窯址 出土遺物 檢討 / 田 勝 昌

發掘窯蹟을 통해 본 磚築窯의 運營時期 考察 / 李 鍾 玟

리말려초 한국 자요(磁窯)의 계열과 변천 / 최 건

이

백

龍仁 西里窯址 出土遺物 檢討



田勝昌 (湖巖美術館 前任研究員)

I. 머리말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중덕마을에 위치한 백자요지는 1930년대 일본인 도자사학자(陶磁史學者) 아사카와(淺川伯教)에 의해 발견되어, 1960년대에 정양모(鄭良謨) 선생이 고려시대 초기의 요지(窯址)임을 확인하면서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80년대 호암미술관(湖巖美術館)에 의하여 세 차례에 걸쳐 발굴이 실시되면서 우리나라 자기(磁器)의 발생과 초기의 제작상황에 관련된 다양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유적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사적(史蹟) 329호로 지정되었다.¹⁾ 발굴은 부분적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유적의 범위와 건물지(建物址)가 확인되었으며 가마유구와 퇴적층(堆積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흙을 사용하여 장방형의 벽돌을 만들어 가마를 축조한 전축요(博築窯)의 존재가 최초로 밝혀지는 한편 그 위에 진흙으로 쌓아 만든 다른 형태의 토축요(土築窯)가 운영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²⁾ 퇴적층 조사에서는 크게 4개의 자연층위(自然層位)가 확인되어,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 및 발전과 변화의 계보를 고고학적 층위에 의해 밝히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서리요지의 발굴결과와 연구성과는 김재열(金載悅)·박순발(朴淳發) 선생 등에 의해 보고서와 몇 편의 논문으로 이미 발표되었다.³⁾ 이 과정에서 4개의 층위

1) 1차 발굴은 1984년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차는 1987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3차 조사는 1988년 5월 6일부터 6월 25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2) 벽돌가마(博築窯)는 진흙가마(土築窯)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부에 중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유적의 보존을 위하여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그쳤다. 3차 발굴까지 확인된 벽돌가마는 길이 40m, 폭 1.8m, 잔존 높이 1.4m 가량 되었으며, 축조에 사용된 벽돌은 7×15×32cm 내외의 장방형이었다. 진흙가마는 벽돌가마를 폐기한 후 축조하였으며, 경사면을 따라 위쪽과 아래 쪽으로 옮겨가며 30-40m 길이의 가마를 사용하다가 최후에는 이들을 모두 연결시켜 83m에 달하는 초대형 가마를 운용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3) 金載悅, 『龍仁 西里 高麗白磁窯址 發掘調査 內容 및 意義』, 『고려시대의 용인』, 학연문화사, 1998.
『龍仁 初期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 『韓國磁器發生에 關한 諸問題』,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0.
『高麗白磁의 發生과 變遷』, 『考古美術』 177호, 韓國美術史學會, 1988.
湖巖美術館, 『龍仁 西里 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 三星美術文化財團, 1987.
金載悅·朴淳發 外, 『龍仁 高麗白磁窯의 窯業變遷에 對한 試考』, 『三佛 金元龍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I』, 一志社, 1987.

4) 해무리완은 굽바닥의 모양이 둥근 해를 연상케 하는 안바닥과 주변에 원형으로 넓게 형성된 해무리를 떠올리게 하는 접지면(接地面)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모양의 굽이 있는 완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8~9세기에 주로 제작되었으며 옥벽저(玉璧底)라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의 청자가마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해무리굽 혹은 일흔저(日暈底)라 한다. 일본에서는 사육고대(蛇目高臺)라 하며 일흔저(日暈底)라고 쓰기도 한다. 해무리완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로, 중국과의 영향관계나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시기 및 특징을 비교고찰하는 데에 중요한 유물로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선해무리완은 풍인 서리의 발굴결과 해무리완이 제작되기 이전에도 자기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퇴적층[Ⅰ期層]이 확인되면서 나타난 고고학적 개념이다. 해무리굽이 제작되던 시기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제작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선(先)해무리굽층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 퇴적층에서 출토된 완을 선해무리완이라고 불러 시간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선해무리완과 해무리완은 굽이나 그릇의 형태에 일관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자기가마에서 제작된 서로 다른 형태의 완이다. 즉 해무리완이 출토되는 퇴적층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제작된 퇴적층에서 출토된 완을 선해무리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해무리완과 선해무리완에 대한 고찰은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이나 변화과정의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에서 출토된 유물의 종류와 특징이 개괄적으로 보고되었는데, 그중 관심의 주된 대상은 선해무리완과 해무리완의 제작시기와 변화과정에 관련된 것이었다.⁴⁾ 그러나 서리의 요지에서는 (선)해무리완 이외에도 다종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각각의 층위에 따라 제작시기의 선후관계나 특징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해무리완과 해무리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퇴적층위에 따른 유물의 전체적인 출토상황과 특징의 변화과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퇴적에서 출토된 몇 종류의 유물을 검토하고 다른 요지에서 발굴된 예와 간략한 비교를 시도하여, 서리요지의 성격과 특징의 일면을 밝혀보고자 한다.

Ⅱ. 堆積의 出土狀況과 特徵

가마의 좌우측에 형성된 구릉은 조사결과 거의 평지 위에 쌓여진 거대한 순수 퇴적임이 밝혀졌으며, 깊이가 최고 5~6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진 1). 퇴적의 내용물은 감발편(匣鉢片)과 가마 폐기물(廢棄物)이 대부분이었고 자기편(磁器片)은 상대적으로 소량이었지만, 유적의 규모가 커서 전체적으로 수습

(사진1) 서리요지 전경(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중덕마을)



된 유물의 양은 매우 많았다. 퇴적구릉의 조사에서 확인된 4개의 층위를 최하층인 I기층(期層)에서 최상층인 IV기층으로 각각 나누어 출토유물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변화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겠다.



(사진 2) 청자 선해무리완(I기층)

1. I 期層

폐기물 퇴적의 아래 부분에서 확인된 층으로 서리요지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퇴적의 규모는 크지만 소토(燒土)와 같은 가마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출토된 유물의 양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이곳에서는 소량의 자기파편, 기벽(器壁)의 두께가 얇은 갑발편, 그리고 가마의 축조에 사용되었던 소수의 벽돌편 등이 수습되었다.⁵⁾ 이 층에서는 해무리완이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아, 해무리완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자기의 제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장방형의 벽돌이 퇴적에서 출토되어 이 층의 자기가 벽돌가마[博築窯]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퇴적에서는 청자(靑磁)와 백자(白磁)가 함께 출토되었으며, 백자는 전체량에 30% 정도에 지나지 않아 청자의 제작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⁶⁾ 청자는 대접(大楹)·선해무리완·완(碗)·접시(楸匙)·병(瓶)이 확인되었는데(사진 2), 이중 대접이 전체 수량의 약 46% 정도로 가장 많았고 선해무리완과 완이 약 43%를 차지하였다.⁷⁾ 따라서 서리에서는 초기에 대형의 저장용기(貯藏用器)보다는 크기가 작은 식생활용이나 다도(茶道)에 사용하는 완과 같은 기명(器皿)을 주로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대형기명(大形器皿)이 다수 만들어지는 다른 층(層)의 출토양상과는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병의 경우 수량은 적지만 다른 기종(器種)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종류가 다양하며, 대부분 크기가 작은 예가 출토되었다(사진 3).

제작방법은 개개의 유물을 갑발 속에 넣어 번조(燔造)하는 갑번(匣燔)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특이하게도 선해무리완을 대접의 안바닥 위에 올려 놓고 갑발 속에서 포개구이한 예가 발견되어 주목된다(사진 4·5). 이러한 번법(燔法)을 사용한 파편에서는, 위 쪽에 놓이는 완은 형태가 단정하고 세부의 다듬새가 깔끔하며 시유상태(施釉狀態)가 고르고 일정하여 질이 좋지만, 아래 쪽에 놓

5) 퇴적의 윗쪽과 구지표에 가까운 아래쪽에서 출토된 자기파편의 모양상이 구분되기도 한다. 아래쪽에는 청자가 대부분이고, 위쪽에는 백자파편이 많아 퇴적을 a층과 b층으로 세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발굴 당시 바닥면과 퇴적층을 구분하기 위한 다소 의도적인 구분이었고 조사면적도 매우 협소하였기 때문에 a층에 청자와 백자가 공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金載悅, 『龍仁 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고려시대 의 용인』, 학연문화사, 1998, pp.216-217.).

6) 제작량에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에서도 청자와 백자를 함께 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종민, 『시흥 방산동 초기청사 요지 출토품을 통해 본 중부지역 전축요의 문명시기』, 『제43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역사학대회 조직위원회, 2000, p. 308.).

7) 기종(器種)의 수량은 출토파편의 크기가 작아 기형(器形)을 알 수 없고, 종류를 나눌 수 없는 것을 제외한 것이다. 잔편(殘片)은 분류가 가능한 파편에 비하여 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중 절대다수가 선해무리완의 구연부 혹은 몸체의 일부로 생각된다. 그러나 특정한 기종으로 단정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수량파악이 어려워 분류에서는 제외하였다.



(사진 3) 청자 병(1기층)



(사진 4) 청자 포개구이 파편(1기층)



(사진 5) 청자 포개구이 파편(1기층)

여진 대접은 곳곳에 재유를 씌운 것과 같이 유약(釉藥)이 묻쳐 있거나 흘러내려 있으며 안바닥에 포개구이의 받침 흔적이 남아 있는 등 질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청자는 대부분 갑번으로 번조되었지만, 특히 선해무리완과 같은 특정한 기종(器種)은 제작과정에서 다른 종류에 비하여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던 것이 분명하다.

이 층에서 출토된 청자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태토(胎土)를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며, 대체적으로 기벽의 두께가 매우 얇고 그릇의 표면이나 굽의 세부 등을 꼼꼼하게 다듬은 것이 특징이다. 발색(發色)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암록색(暗綠色) 또는 암갈록색(暗褐綠色)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며 병렬은 없다. 바닥에는 입자(粒子)가 고온 백색의 내화토(耐火土)를 굽집지면 4~6 곳에 나누어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백자는 대접·선해무리완·완·접시가 확인되어 그릇의 종류는 청자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사진6).⁸⁾ 선해무리완과 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3%에 달할 정도로 많으며, 전체의 형태나 세부의 특징은 청자와 동일하다. 그러나 대접은 소수만이 출토되어 청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청자에서 볼 수 있었던 병 역시 발견되지 않아 주목된다. 한편, 청자와 구분되는 또 다른 특징으

로 화형접시(花形碟匙)가 출토되는 점을 들 수 있다. 화형접시는 담청백색(淡靑白色)의 경질(硬質)로 그릇의 두께가 매우 얇고 굽의 깎음새가 정교하며 예리한데, 이러한 세부 특징은 함께 출토된 선해무리완과 대접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것은 이 층에서 출토된 백자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7). 1기층의 백자는 대부분 잡물(雜物)이 섞이지 않은 치밀질의 백토(白土)를 사용하였으며, 담청백색·미백색(米白色)·연회백색(軟灰白色) 등의 유색을 띤다.

요도구(窯道具)는 갑발과 갑발받침이 출토되었다. 갑발은 대부분 원통모양으로 기벽(器壁)의 두께가 얇고 잡물이 거의 섞이지 않은 점토질을 재료로 제작하였다. 갑발받침은 높이가 낮은 원반형과 함께 높이가 높고 두꺼운 'ㄸ' 모양(혹은 버섯모양)



8) 우리나라 청자의 발색이 당시 중국 최대의 청자제작지였던 월주요(越州窯)의 영향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백자의 발색은 형요(邢窯)와 같은 중국 북방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가마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金載悅, 앞의 논문, p.230). 이 견해는 우리나라 초기의 청자요지에서 백자를 함께 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중국으로 부터의 영향관계나 제작시기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 발견되었다(사진8).

2. II 期層

가마의 봉통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좌우측에 분포하며, 이 층에서는 갑발편과 함께 다량의 자기파편이 출토되었다. 청자와 백자가 함께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지만, I기층과는 달리 제작량은 백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서리가마의 성격이 이 층의 형성시기를 즈음하여 백자가마로 바뀌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에 비하여 출토 유물의 기종(器種)과 기형(器形)이 다양해졌고 제작량도 급증하였으며, 해무리굽완이 비로소 이 층에서부터 등장한다.

이 층에서 출토된 청자는 기존에 제작되던 것 이외에도 안바닥 중앙이 등글게 다듬어진 내저곡면(內底曲面)의 해무리완·발(鉢)·잔(盞)·호(壺)·뚜껑·잔탁(盞托) 등이 새롭게 등장하며(사진9), 해무리완은 I기층부터 제작되던 선해무리완과 공존한다. 기종이 다양해진 한편 세부의 형태를 조금씩 달리하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제작되었으며, 퇴적의 위쪽에서는 태토(胎土)에 잡물이 섞이고 시유상태(施釉狀態)도 고르지 못한 예가 나타난다. 유색은 암록 또는 암갈록색으로 이전과 유사하지만, 세부의 다듬새나 전체의 질에 있어서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백자는 발·(내저곡면)해무리완·잔·병·뚜껑·호·잔탁 등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며(사진10·11), 선해무리완·해무리완·접시·발이 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층에서 해무리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제작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선해무리완과 함께 출토유물의 주류를 이룬다.

특히, 해무리완은 대부분 내저곡면으로 굽의 직경이 크고 접지면의 폭이 넓지만, 출토품중에는 굽의 직경이나 접지면의 폭이 선해무리완과 해무리완의 중간 크기에 해당하는 예도 있어 주목된다. 한편, 이전에 제작되던 기종도 형태와 크기가 다양해지고



〈사진 7〉 백자 화형접시(1기층)



〈사진 8〉 갑발 및 요도구(1기층)



〈사진 6〉 백자 선해무리완(1기층)



〈사진 9〉 청자 해무리완 (Ⅰ기층)



〈사진 10〉 백자 해무리완 (Ⅰ기층)



〈사진 11〉 백자 잔받침 (Ⅰ기층)



제작량도 많아졌는데, 이러한 변화는 화형접시(花形楪匙)에서도 나타난다. Ⅰ기층에서는 한가지 형태만이 소량 출토되었지만, 이 곳에서는 세부의 형태와 크기를 달리하는 네 종류의 화형접시가 제작되어 관심을 끈다. 유색은 담갈색(淡褐色)이 주류를 이루며 미백색·담록색·담청색 등을 띠는 예도 있다. 해무리굽완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의 경우 굽의 형태와 질은 Ⅰ기층의 것과 대체적으로 유사하지만, 퇴적의 위쪽에서는 기벽이 두껍고 표면이 거칠게 제작된 것들이 나타나, 퇴적의 아래 쪽에서 볼 수 있는 질이 좋은 출토품들과는 대조를 이룬다.

갑발은 기벽이 얇고 크기가 작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Ⅰ기층의 출토품에 비하여 두께가 다소 두꺼워진 예도 나타나며, 드물게 측면에 지름 0.8~1.0cm 정도의 작은 원형의 구멍을 뚫은 예가 소수 출토되어 주목된다. 또한 직경이 큰 둥근 고리모양의 물레 부속구도 출토되었는데, 윗면은 편평하고 매끄럽게 다듬은 후 암록색의 유약을 씌웠지만 바닥은 작은 톱니와 같은 형태로 만들고 유약을 씌우지 않았다(사진12).

3. Ⅲ期層

갑발편과 함께 많은 양의 자기파편이 출토되었다. 청자와 백자가 공존하는데, 청자는 극소량이 제작되다가 사라지지만 백자는 제작량이 더욱 증가하였다. 백자의 경우 기종과 기형의 다양화가 크게 진전되었으며 질과 유색 등에서 이전과는 다른 확연히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청자는 기종이 더욱 단순해졌는데, 이전에 제작되던 병·잔·호·뚜껑·잔받침 등은 출토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제작된



〈사진 12〉 물레부속구 (Ⅱ·Ⅳ기층)



〈사진 13〉 백자 합 (Ⅲ기층)

다른 종류도 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태토에 잡물이 섞인 예가 많고, 전체적인 형태나 세부의 다듬새가 거칠고 조잡하다.

백자는 합·합뚜껑·장고·종지·약연(藥硯)·대발·제기(祭器) 등 대형의 그릇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며(사진13·14), 해무리완·접시·잔·호 등도 다량 제작되었다. 단일 기종으로는 해무리굽완

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는데, 내저원각(內底圓刻)이 있는 예가 대부분으로 기벽(器壁)이 사선형(斜線形)으로 경직되고 두께가 다소 두꺼워졌으며 전체적인 크기도 약간 작아졌다(사진15). 특히 퇴적의 위쪽으로 갈수록 내저원각경(內底圓刻徑)과 굽의 직경 및 접지면의 폭이 작아진 예가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이전에 제작된 해무리굽은 굽의 측면이 밖으로 살짝 벌어져 외경(外傾)하거나 혹은 직립하는 예가 대부분이었지만, Ⅲ기층의 경우 안쪽으로 살짝 오므라들어 내경(內傾)한 것이 대부분이다. 기벽의 선(線)이 곡선에서 경직된 사선으로 변화되고 그릇의 크기가 작아지며, 굽이 내경하는 등의 변화는 비단 해무리굽완에서 뿐만 아니라 함께 출토된 다른 기종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즉, 이전에는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크기가 크고 양감이 있는 예가 많았지만, Ⅲ기층에서는 직선화 경향이 뚜렷해지며 안바닥이 오목해져 원각(圓刻)이 동반되는 예가 많고 전체적인 크기도 작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편, 대접은 이전에 비하여 기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수량도 많아졌는데, 이러한 변화는 접시·잔·병·뚜껑·합·호·잔탁(盞托) 등 대부분의 기종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난다. 유색은 담갈색조가 주류를 이루지만 담청색·담록색·미백색·암갈색 등 다양하며, 어떤 것은 청자처럼 보이는 색깔을 띠는 것도 있다. 유약과 태토의 밀착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며, 반침으로 백색 내화도비점을 사용하였다. 이 층에서는 담청색의 경질백자에 선상감(線象嵌)과 면상감(面象嵌)이 있는 흑상감 파편이 출토되었다(사



〈사진 14〉 백자 대발 (Ⅲ기층)



〈사진 15〉 백자 해무리완 (Ⅲ기층)



(사진 16) 백자 흑상감파편 (III기층)



(사진 17) 백자 대접 (IV기층)

진16). 선상감의 경우 작은 호(壺)에 횡선(橫線)이 장식되어 있는 파편이 출토되었으며, 면상감은 장고(杖鼓)에 당초문(唐草文)으로 추정되는 소재가 장식된 예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면상감의 경우 태토 위에 검은 색이 나는 자토(磁土)를 두껍게 입혀 흑지(黑地, 검은 바탕)를 만든 다음, 다시 흑지면 위에 장식하려는 소재를 음각하고 그 자리에 백토(白土)를 채워 장식효과를 내는 상감기법으로, 고려시대 중기의 상감청자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라 주목된다.⁹⁾

갑발은 기벽의 두께가 다소 두껍고 표면이 거칠게 제작된 것이 대부분으로, 입자에 굵은 모래 알갱이가 섞여 있다. 이 층에서도 원반형의 갑발받침 측면에 원형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예가 출토되었다.

4. IV기층

구릉의 산쪽을 중심으로 서리요지 전면에 넓게 분포하며, 퇴적량도 많다. 이 층에서는 백자만 출토되었으며, 발·대접·완·접시·잔·합·병·뚜껑·호·반·잔탁·장고(杖鼓)·종지·약연·대발·제기 등 서리요지에서 가장 다양한 기종과 기형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진17·18). 이층에서도 대접·접시·잔·병·뚜껑·호·대발 등이 다수를 차지한

다. 유물의 다수는 태토에 모래와 같은 잡물이 소량 포함되어 있으며, 접시나 잔류(盞類)에서는 포개구이하기 위하여 굽과 굽언저리에 유약을 씌우지 않은 예가 다수 있다. 유색은 담갈색(淡褐色) 혹은 갈회색조(褐灰色調)가 주류를 이루지만, 담청(淡靑) 혹은 담록(淡綠)·연



(사진 18) 백자 약연 (IV기층)

9) 서리에서 출토된 상감백자의 파편은 고려도지의 상감기법 발생시기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흑지 백상감(黑地 白象嵌) 파편의 경우 해남 진산리 오지의 칠채백토니상감(鐵彩白土泥象嵌) 종류와 함께 초기에 나타나는 상감문의 형태로, 이러한 장식 기법은 늦어도 10세기 경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金載悅, 『高麗陶磁의 象嵌技法發生에 관한 一考察』, 『湖巖美術館 研究論文集』, 2호, 1997, pp.58-59, 79-84.).

회록색(軟灰綠色)을 보이기도 한다. 굽은 꺾음새가 거칠고 세부를 꼼꼼히 다듬지 않은 것이 많으며, 바닥에는 백색내화토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지만 접지면 곳곳이 얼룩져 있다. 한편, III기층에서 많이 출토되었던 해무리굽완은 크기가 작아지고 기형이 더욱 변화되어, 기형과 굽 형태의 여운만이 남아 있는 또 다른 작은 완으로 바뀌었다(사진19). 이외에 완이나 접시중에는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새로운 형태의 굽이 등장하였으며(사진20), 대접·접시·대발 등의 구연부 내면에는 한 줄의 음각형선을 돌려 장식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 층에서 표면에 철화장식이 있는 철화백자(鐵畫白磁)가 등장하는데, 특이하게도 대부분 장고와 같은 특별한 의식용기(儀式用器)의 표면장식에 사용되어 주목된다(사진21). 또한 대발이나 합·약연 등에 알 수 없는 다양한 기호나 문자가 음각으로 적혀 있는 파편이 발견된다.



〈사진 19〉 백자 완 (IV기층)



〈사진 20〉 백자 대접·접시 (IV기층)

갑발은 기벽이 두껍고 굽은 모래 알갱이가 섞인 것이 대부분이다. 크기는 직경 23~27cm, 높이 10~15cm, 두께 1.0~2.5cm 정도를 이루는 것이 많다(사진22). 그릇의 받침도 직경 3~4cm, 높이 5~6cm 크기의 원통모양과 직경 3.0~10.0cm, 두께 0.4~0.6cm 정도인 원반형 받침이 출토되었다(사진23).



〈사진 21〉 백자 철화장고 (IV기층)



〈사진 22〉 갑발 (IV기층)

Ⅲ. 出土遺物の 檢討

서리에서 출토된 유물중 일부는 황해도와 경기도·전라도 등의 요지에서도 동일한 기종(器種)과 기형(器形)이 발견되어, 이들의 비교와 검토를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중 선해무리완과 해무리완은 초기청자나 백자요지에서 공통적으로 제작되던 대

10) 崔健 선생은 전라남도 강진과 전국 각지의 요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무리완의 종류를 안바닥이 곡면(曲面)인 중국식(中國式)과 안바닥이 원각(圓刻)인 한국식(韓國式)의 두 종류로 대별하였다. 또한 함께 출토된 다른 종류의 기종을 함께 검토하여 해무리완을 I·II·III 유형으로 나누고, 세부의 특징에 따라 다시 A·B·C식으로 세분하였다. 이 분류에서는 중국식 해무리완을 I형으로 하여 한국식 해무리완보다 신행하는 것으로 두고, 굽의 형태를 A와 B형으로 나누어 제작지 혹은 제작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식 해무리완은 II유형과 III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들은 형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II유형의 경우 굽의 크기와 접지면의 폭 등의 차이에 의하여 A·B·C식으로 세분하였는데, A에서 C식으로 갈수록 중국식 혹은 한국식 초기의 형태에서 전체적인 크기나 세부의 특징이 점차 변화된다. III유형은 A식으로만 분류하였는데, 이것은 형태의 특징이 급격히 변화되는 해무리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리하여 보면, 해무리완은 내저곡면(중국식)에서 내저원각(한국식)으로 변화되며, 굽의 직경이 크고 접지면의 폭이 넓으며 꺾음새가 예리한 특징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직경과 접지면의 폭, 그리고 원의 전체적인 크기도 작아지며 원래의 형태에서 급격히 변화된다는 것이다(崔健 『韓國初期靑磁의 分類と 變遷』, 『東洋陶磁』 VOL.22, 1992-1994, pp45-47.). 이러한 일련의 변화과정은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용인 서리요지의 각 층위에서 출토된 해무리완의 변화상황을 검토한 결과와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사진 23) 요도구 (Ⅳ기층)

표적인 기종으로, 제작과 변화과정은 우리나라 자기제작의 개시 및 발전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한편 (선)해무리완과 동시기에 제작되었던 기종과 기형의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이 꽃모양의 장식이 있는 소위 '화형접시(花形碟匙)'라고 부르는 것이다. 화형접시는 (선)해무리완과 함께 초기청자나 백자요지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졌던 기종으로 일정 시기가 되어 제작이 중단된 종류의 하나이다.

1. 花形碟匙

서리의 퇴적에서도 각각의 층위에서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와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전라북도 고창군 용계리 요지 등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와 해남군 신덕면, 그리고 고흥 운대리 요지 등의 지표조사에서 파편이 수습되기도 하였다. 기존에는 화형접시의 형태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최건(崔健) 선생은 서리출토 유물을 근거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장식경향이 변화하며, 화형접시를 제작한 요지들은 활동시기에 있어 긴밀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¹¹⁾

서리의 퇴적에서는 Ⅰ~Ⅲ기층에 걸쳐 화형접시가 출토되었으며, 각각의 층위에 따라 세부의 형태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 주목된다(사진24). 앞장에서 서술하였듯이 각각의 층위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종이나 기형이 다르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하여 제작시기의 선후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서리에서 출토된 화형접시는 세부의 형태에 따라 크게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Ⅰ기층에서는 접시 기벽(器壁)에 장식된 0.3cm의 폭을 갖는 10개의 수직선대에 맞추어 주둥이의 가장자리에 V자형의 작은 홈을 파내어 꽃모양으로 만든 예가 소수 출토되었는데(이하 A형), 이러한 특징은 현재까지 다른 요지의 유물에서 알려진 예가 없다(사진25). Ⅱ기층에는 비교적 많은 양이

11) 崔健 선생은 "서리요지의 경우 Ⅰ기층에서 곡선적인 화형접시, Ⅱ기층에서는 직선적인 화형접시, 그리고 Ⅲ기층에서는 조잡한 직선적인 화형접시가 해무리굽 계통의 완과 함께 출토되고, 원산리 2호 1차 가마에서도 직선적인 화형접시가 선해무리굽 완과 함께 출토하여 양자간에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崔健, 「고려청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韓國美術史論壇』(창간호), 韓國美術研究所, 1995, p.282). 한편, 선생은 또 다른 글에서 "서리요지 Ⅱ기층에서 출토된 접시와 원산리 2호 1차 요지출토 접시의 화판(花瓣)은 단면이 직선적인 'ㄷ' 자형이며, 서리요지 Ⅱ기층의 위쪽부터 한국식 해무리굽완이 등장하기 때문에 단면이 'ㄷ' 자형 화형접시는 강진(康津) 청자 1B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또한 서리요지 Ⅰ기층에서 발견된 곡선적 화형접시는 강진 1A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서리 Ⅰ기층과 강진 1A유형, 원산리 1호는 동일 시기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崔健, 『韓國初期靑磁의分類と變遷』, 『東洋陶磁』, VOL.22, 1992-1994, pp.52-53.).



(사진 25) 백자 화형접시 세부 (Ⅰ기층)



〈사진 24〉 백자 화형접시 (I · II · III기층)

출토되었으며 V자형의 홈을 파낸 파편도 극소수 발견된다. 그러나 주류를 이루는 것은 기벽의 윗면 일부에만 12~13개의 짧은 수직선문대를 장식한 것(이하 B형)과 0.4~0.5cm 정도의 폭을 갖는 9개의 수직 요철문대가 있는 접시이다(이하 C형). 또한 소량이지만 9개의 수직선문대가 장식되어 있고, 저부에서 기벽이 비교적 예리한 각을 이루며 꺾여 굽에 이어지는 크기가 작아진 예도 발견된다(이하 D형). 그런데 이 유물은 II기층 위쪽과 III기층의 아래쪽에서 확인되므로, 가장 후기에 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퇴적의 층위에 따라 화형접시 제작시기의 선후관계를 정리하면 A → B·C → D의 변화과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화형접시의 변화는 화관(花瓣)의 수나 장식방법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형태나 굽의 모양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형태의 경우 A형에서 D형으로 갈수록 접시의 높이가 높아지고 구경(口徑)과 전체적인 크기가 작아졌다. 이것은 안바닥이 넓고 기벽이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던 것에서 안바닥이 좁아지고 기벽의 저부가 각이 진 형태로 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구경이 작고 안바닥이 편평한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D형과 같이 저부에 예리한 각을 주어 기벽을 꺾어 올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제작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안바닥이 좁아지고 기벽이 직선화되는 현상은 해무리굽완이 변화되고 퇴화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어서, 고려초기의 청자나 백자가 시간이 지나며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과정으로도 생각된다. 또한 굽의 형태는 A형의 경우 접지면의 폭이 매우 좁고 외반하지만, B와 C형에서는 접지면(接地面)의 폭이 커지고 직립하여 다소 둔중하게 변화되었으며, D형에서는 굽의 크기가 작아지는 한편 약간 내경(內傾)한다. B와 C형이 동일층에서 함께 출토되었지만, 앞에서 살펴본 특징을 고려한다면 변화과정은 B → C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서리의 화형접시는 A → B → C → D형의 변화과정을 거쳤으며, 제작시기의 선후관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B나 C형에 해당하는 화형접시는 용인 서



(사진 26) 청자 화형접시(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출토)

리 이외에도 원산리와 방산동의 발굴에서도 출토되었다. 원산리 출토품의 경우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A나 D형과는 확연히 구분되며 굽의 직경이 약간 클 뿐 전체적인 형태나 화판의 장식, 깃수 등으로 보아 C형과 가장 유사하다(사진26).¹²⁾ 방산동의 경우에도 B와 C형의 특징이 혼재하는 화형접시가 나타날 뿐(사진27), 현재까지 발굴된 두 곳에서는 서리에서 출토된 A형과 같은 예가 알려져 있지 않다.

지표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유물이기는 하지만,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63호와 9호 요지에서도 각각 화형접시의 파편이 발견되었다. 파편은 수량이 적고 유물의 크기도 작아 전체의 형태나 굽의 모양 등을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그 특징이 B나 C형에 가깝다.¹³⁾ 즉, A형과 같이 구연에 V자형의 홈을 파낸 예는 없으며, 몸체의 저부에서 곡면을 그리는 기벽의 형태, 비교적 넓은 안바닥, 그리고 직립(直立)하거나 다소 외경(外傾)하는 직경이 큰 굽의 모양은 서리 출토품의 경우 D형으로 변화되기 이전의 단계인 B나 C형에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라남도 고흥군 운대리 청자 2호 가마터에서도 화형접시의 파편이 수습되었는데, 전체의 형태나 꽃잎의 모양, 굽의 깎음새와 크기 등으로 보아 서리 출토품과 비교하면 C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¹⁴⁾ 이외에도, 최근 학계에 널리 알려진 전라남도 해남군 신덕리의 청자요지군에서도 다수의 화형접시가 제작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⁵⁾ 신덕리의 D와 H, 그리고 L지구로 명명된 요지 등에서 수습된 화형접시 역시, 용인 서리의 B나 C형과 그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특히, D지구에서 수습된 화형접시는 꽃잎장식의 효과를 내기 위해 기벽에 새긴 수직선문의 길이가 비교적 짧고, 접시의 높이가 낮으며 굽이 다소 외경(外傾)하는 등 B형으로 분류한 서리 출토품과 유사하다.

서리와 원산리, 방산동 요지는 화형접시 뿐만 아니라,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가마의 축조재료로 장방형의 벽돌(博)을 사용한 점이나 구조·크기, (선)해무리완 등의 출토품, 갑발과 같은 요도구에서도 일맥상통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또한 강진과 운대리, 신덕리 등의 요지에서 수습된 화형접시에서도 서리나 원산리, 방산동에서 출토된 것과 형태·장식·크기 등에서 유사

12) 황해남도 원산리의 화형접시는 2호의 1차 가마의 여섯 번째 출입구에서 좀 떨어진 모래무지 밑에서 세 개씩 가지런히 뒤집혀 포개진 채로 출토되었다. 2호 4차가마에서 '淳化三年(992)'銘 파편이 출토되었고, 3차가마에서는 고려 정종(946-949)의 출토품과 동일한 유물이 출토되어 2호가마의 개축 주기를 40년으로 보아, 이 가마는 늦어도 10세기 초부터 운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2권, 1992, p.307).

13)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pp.59-60, 158-159.

14) 국립광주박물관, 『고흥 운대리』, 全南地方陶窯址調査報告(Ⅱ), 1991, p.86, 113.

15) 國立光州博物館, 『海南 新德里 靑磁陶窯址 精密地表調査報告書』, 2000, p.53, 55, 56, 82, 97, 109.

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강진·운대리·신덕리 등의 가마는 축조재료(築造材料)로 진흙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측면에 작은 구멍이 뚫린 갑발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벽돌을 재료로 축조했던 가마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정리하여 보면, 서리 요지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화형접시의 형태나 세부 특징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어도 출토품 사이에는 선후관계(先後關係)를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서리에서 출토된 화형접시의 변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벽돌로 축조된 가마를 운영한 원산리나 방산동, 그리고 진흙가마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강진·용운리·운대리·신덕리 등의 청자요지에서 발굴되거나 수습된 파편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화형접시는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청자를 제작하던 요지에서는 가마의 축조재료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생산된 종류로, 일정한 시기 폭을 갖고 만들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의 청자요지에서 화형접시가 공통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선)해무리완 처럼 당시 유행한 기종이었다는 증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기종과 기형이 다수 제작된 배경에는 수요자(需要者)의 기호(嗜好)도 한 몫을 하였을 것이다. 용인 서리의 요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제작활동을 벌였겠지만, 위에서 살펴본 청자요지와는 다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고려시대 초기에는 가마의 갯수나 제작량에 있어서 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이들 가마에서는 공통적으로 청자 화형접시가 제작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서리에서도 청자와 백자를 동시에 제작하던 Ⅰ~Ⅲ기층에 걸쳐 화형접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리에서는 특이하게도 청자로 만들어진 화형접시의 예는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의 발굴을 통해 출토된 유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서리요지에서 청자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백자로만 화형접시를 만들었던 것은 무언가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진 27) 청자 화형접시(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출토)



〈사진 28〉 백자 잔받침 (Ⅱ기층)



〈사진 29〉 청자 잔받침(경기도 시흥 방산동 출토)

동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청자 화형접시가 다수 제작되는 것을 서리 요지에서 의식하고 있었던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서리의 요지는 점차 백자를 특화한 제작지로 변화되며, 이 과정에서 수요자의 기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가마와도 긴밀한 영향관계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적어도 화형접시가 제작되던 동안에 특정한 가마들은 지속적인 영향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선해무리완·해무리완·화형접시 등의 대표적인 기종 이외에도 서리 Ⅱ기층의 유물중에는 방산동에서 출토된 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와 크기의 잔받침이 있다. 잔받침의 형태는 금속기를 연상케 하는데, 몸체와 잔대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마무리 한 것이나 예리하게 각이 져 꺾이는 부분 등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사진 28·29). 굽은 직경이 매우 크고 높이가 낮으며, 굽안바닥을 둥글게 다듬은 것 등이 특징이다.

이들 사이의 영향관계는 전국 각지의 초기 청자나 백자가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기종 뿐만 아니라, 가마의 축조나 요도구 등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2. (구멍)匣鉢과 물레 부속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초기청자나 백자요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규모의 갑발 퇴적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가마를 중심으로 좌우 변에 다량의 갑발 등 요도구나 가마의 폐기물이 나즈막한 구릉을 이루고 있으며 퇴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갑발은 물론 드물게 물레 부속구와 같은 것이 발견되기도 한다.

서리에서는 Ⅱ기층에서부터 최상층인 Ⅳ기층까지 몇 점의 물레 부속구가 출토되었으며, 층위의 변화에 따라 크기나 형태·세부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Ⅱ기층에서 출토된 물레 부속구의 경우는 지름이 약 12.0cm인 둥근 고리모양으로 위쪽에는 2.0cm의 폭을 이루는 편평한 면이 형성되어 있으며 아래쪽은 1.3cm로 위보다 좁고, 뒷면에만 유약이 씌워져 있다. 그런데 Ⅳ기층 퇴적에서 출토된 부속구는 직경이 8.0cm 내외로 크기가 현저하게 작게 제작되어 있어,



(사진 30) 백자 물레부속구(Ⅱ·Ⅳ기층)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크기가 변화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사진30). 따라서 서리의 퇴적에서 출토된 물레 부속구의 변화양상을 볼 때, 가마에서 제작된 특정한 종류나 형태의 그릇만큼이나 부속구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뚜렷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사진 31) 청자 물레부속구(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출토)

한편, 방산동의 퇴적에서도 물레 부속구가 출토되었는데, 유물은 서리 Ⅱ기층의 것과 크기와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또한 세부의 형태나 구조뿐만 아니라 일부에만 유약을 칠하는 방법까지도 동일하다(사진31). 서리의 퇴적에서 출토된 부속구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태와 크기가 변화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방산동 출토품이 서리 Ⅱ기층의 출토품과 거의 동일한 것은 우연이라기 보다는 제작도구를 다루던 집단 사이에 무언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케 한다.

서리에서 출토된 갑발은 Ⅰ기와 Ⅱ기층의 경우 원산리 및 방산동과 같은 초기 청자요지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Ⅱ기층의 위쪽과 Ⅲ기층의 아래쪽에서는 갑발의 측면에 작은 원형의 구멍을 뚫은 예가 소량 출토되어 관심을 끈다(사진32). 갑발의 측면에 밖에서 안쪽을 향해 마치 등글고 가는 꼬챙이로 찔러 구멍을 뚫은 듯한데, 서리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구멍을 뚫은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것과 유사한 예가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의 일부 청자요지에서도 확인된다(사진33).

서리요지의 가마가 최초 전축(塼築)이었으나 이후 토축(土築)으로 변화되었던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축에서 토축으로 변화된 시기와 원인, 그리고 퇴적 유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Ⅰ기층 퇴적에서 가마를 축조하는데 사용했던 벽돌이 자기파편과 함께 출토되었으므로 이들 유물이 전축요에서 제작된 것은 분명하며, Ⅳ기층의 경우는 토축요에서 제작된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가마는



(사진 32) (구멍)갑발(Ⅱ·Ⅲ기층)



(사진 33) 강진의 구멍갑발(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수습품)

Ⅱ기와 Ⅲ기층 사이의 어느 시기에 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서리와 강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멍 뚫린 갑발의 존재이다. 서리의 Ⅰ기층과 Ⅱ기층의 일부는 물론 원산리나 방산동 등에서도 구멍 뚫린 갑발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원산리나 방산동 두 곳 모두 전축요 단계에서 요업이 중단된 곳이다. 그렇다면 구멍 뚫린 갑발의 존재는 토축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강진은 용운리 10호의 발굴결과를 실례로 토축요를 운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¹⁶⁾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구멍 뚫린 갑발은 용운리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강진에서조차 용운리 지역에서만 확인된 뿐 계율리나 사당리와 같이 상대적으로 후대에 요업활동이 전개된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보아, 구멍 뚫린 갑발은 특정시기에만 존재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리에서도 특정한 층에서만 소량이 확인될 뿐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리의 경우는 원산리나 방산동의 가마와 달리 강진과 같은 특정 가마의 영향 속에서 토축요로 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변화는 Ⅱ기층에서 Ⅲ기



(사진 34) 백자 대접·접시(Ⅲ·Ⅱ기층)

16) 鄭良謨·具一會, 『康津龍雲里青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본문편)』, 국립중앙박물관, 1996, pp.19-22.

층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일어난 것으로, 강진에서도 용운리의 일부 가마가 운영되던 때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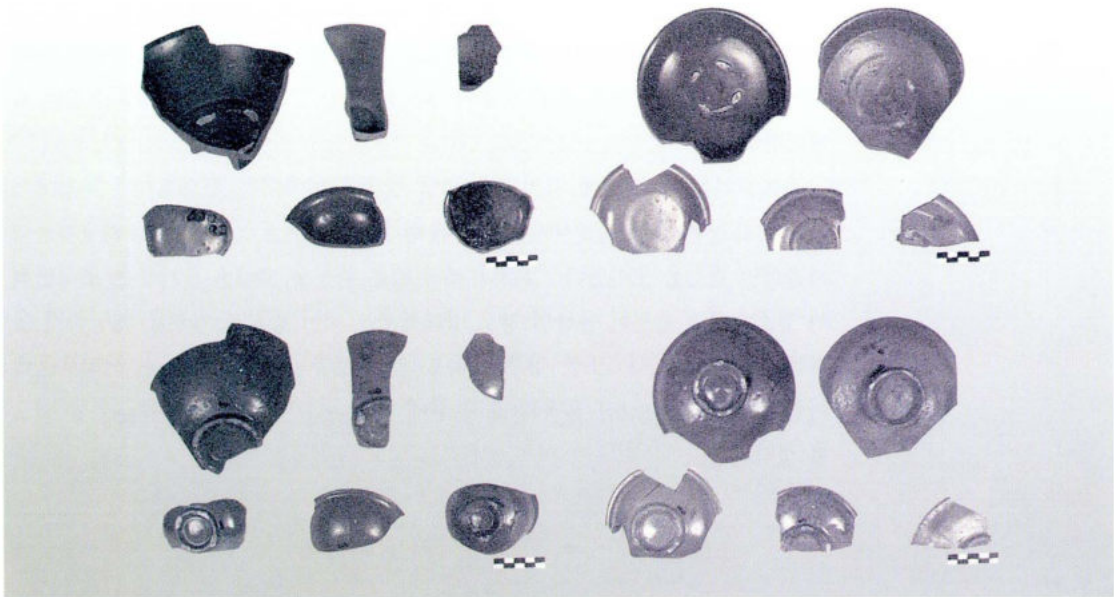
서리의 요지가 토축요로 전환되어 요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변화 후 제작된 Ⅲ기와 Ⅳ기층의 유물에서는 강진에서 제작된 청자와 형태나 세부의 특징에서 공통점이 많다. 이 퇴적에서는 대접·접시·대발 등의 구연부 내면에 한 줄의 음각횡선(陰刻橫線)을 돌려 장식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사진34), 이러한 장식은 강진의 청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Ⅳ기층에서는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는 새로운 굽의 형태가 등장하는데(사진35·36), 이러한 특징 역시 용운리와 계율리의 일부 요지에서 제작된 청자에서 확인된다(사진37). 서리의 가마는 토축요로 전환되며 강진 청자의 계통을 잇는 백자를 제작했던 것이다.



〈사진 35〉 백자 발·완·접시·잔 (Ⅲ·Ⅳ기층)



〈사진 36〉 백자 발·완·접시·잔 뒷면 (Ⅲ·Ⅳ기층)



〈사진 37〉 용운리 48호 청자 수습품(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Ⅳ. 맺음말

서리의 가마는 제작되던 자기의 종류 뿐만 아니라 가마의 축조도 전축(塼築)에서 토축(土築)으로 변화된 독특한 유적이다. 퇴적구릉에서 확인된 4개의 층위에서는 유물의 특징과 변화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층위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본 결과 Ⅰ기와 Ⅱ기층에서는 질이 좋은 백자와 청자가 제작되었으며, 기종과 기형은 원산리나 방산동에서 제작된 것과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유물중에서도 서리에서 출토된 화형접시의 변화과정을 검토하여, 다른 지역의 가마에서 출토된 것과 제작시기의 선후관계를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다른 두 곳의 가마에서는 서리 Ⅱ기층에서 출토된 B와 C형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Ⅰ기층의 A형은 현재까지 서리에서만 출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A형 화형접시의 존재로 요지가 제작활동을 벌이던 선후시기(先後時期)를 단정할 수는 없었다. Ⅲ기와 Ⅳ기층에서는 백자가 제작되었는데 이전에 비하여 기종과 기형이 다양해졌으며 질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한편, Ⅱ기층의 위쪽과 Ⅲ기층의 아래쪽에서 출토된 구멍 뚫린 갑발이 강진 용운리의 것과 유사한 것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서리의 요지가 토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강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Ⅲ기와 Ⅳ기층에서 제작된 유물중 일부에서는 강진의 것과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여 추정을 뒷받침한다.

서리요지는 세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발굴이 이루어진 곳으로, 이 과정에서 유물의 특징은 물론 제작시기의 선후관계가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모아왔다. 그러나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아온 Ⅰ기층은 조사면적이 협소하였고 출토된 유물의 양도 상대적으로 적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향후 토축요 및 출토유물과 관련해서는 서리유물에 대한 고찰과 함께 강진 용운리 요지 등에 대한 비교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發掘窯蹟을 통해 본 博築窯의 運營時期 考察

- 始興 芳山洞과 龍仁 西里 窯蹟을 中心으로¹⁾ -

李 鍾 玟 (海剛陶磁美術館)

I. 머리말

우리나라 중서부지역(中西部地域)의 전축요(博築窯)²⁾중에서 발굴을 통해 알려진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북한지역의 황해도(黃海道)평천군(平川郡)봉암리(鳳岩里)요지, 배천군(培川郡·舊 봉천군)원산리(圓山里)요지, 남한지역의 경기도(京畿道) 용인시(龍仁市)서리(西里)백자요지(白磁窯址), 시흥시(始興市)방산동(旁山洞)요지, 여주군(驪州郡)중암리(中岩里)요지가 있다.³⁾ 최근 집중된 조사로 실체가 규명되기 시작한 전축요는 한반도 초기청자의 발생과 전개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들 가마터의 발굴조사 결과들은 가마의 구조(構造)와 축요(築窯)과정, 생산기종(生産器種), 기형변화(器形變化) 등에서 많은 궁금증을 밝혀 주었다. 가마터 발굴 조사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하나의 가마조사결과를 가지고 시대양상을 추측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오류가 적지 않았다. 다행히도 최근까지 이루어진 전축요의 집중적인 발굴조사결과는 전축요의 현상을 해석하는데 있어 여러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주었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최근의 고고학적(考古學的) 성과(成果)에 힘입

1) 이 글은 2000년 12월 2일 용인시와 용인문화원이 주최한 학술대회인 '용인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 정리한 것이다.

2) 博築窯란 벽돌을 재료로 축조한 가마를 말한다. 전축요는 한반도의 중부지역인 경기도와 황해도남부, 충청남도 북부 등지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경상북도 팔공산 유역의 대구근교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상응하는 개념으로는 토축요(土築窯)가 있는데 토축요란 진흙을 주재료로 축조한 가마를 지칭하며 주로 전라남도와 같은 남서부에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한반도 초기청자를 가마의 구조와 생산양식에 따라 크게 전축요와 토축요로 구분하여 이해하려는 추세이며 그 성격을 본격적으로 정리한 논고로는 崔健「韓國初期靑磁의分類と變遷」,『東洋陶磁』, VOL. 22(東洋陶磁學會, 1992-1994.) pp. 41~64.; 崔健「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미술사연구』제 12호(미술사연구회, 1998), pp. 3~20.이 있다.

3) 『황해남도 고려자기 가마터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3(1963); 『황해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기가마터 발굴간략보고』, 『조선고고연구』2(1991); 『三星美術文化財團, 湖嶽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發掘調査報告書』(1987); 『海剛陶磁美術館, 『芳山大窯-始興市 芳山洞 初期靑磁·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2001); 『京畿道博物館, 『여주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2001).



〈사진 1〉 용인서리요지전경 (호암미술관 발굴조사)

은 중서부지역 전축요의 가마구조와 도자생산양식을 검토하여 왔으며⁴⁾ 이 논고(論考) 또한 이와 같은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고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발굴된 전축요(塼築窯)중에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자료의 접근이 용이한 용인시 서리요적과 시흥시 방산동요적의 예를 중심으로 가마유구와 출토유물의 비교를 통하여 전축요간의 상대적 운영시기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유물을 통하여 전축요의 운영시기를 추정해보고 가마터들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과 역사적 사실을 비교하여 시대배경을 추측해 보고자 한다.

Ⅱ. 가마구조(遺構) 및 출토유물(出土遺物)의 비교(比較)

남한지역에 소재한 중서부지역의 전축요중 발굴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알려진 가마터는 경기도(京畿道) 용인시(龍仁市) 서리(西里) 요지(사진 1)와 시흥시(始興市) 방산동(芳山洞) 요지(사진 2)가 있다.

이중에서 용인시 서리 요지는 발굴조사 초기단계에 토축요(土築窯)가 확인되었으나 그 아래층에서 전단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전축요(塼築窯)가 발견됨으로서 서리의 가마구조는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전환해 간 가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⁵⁾ 또한 시흥 방산동 가마에서는 축요(築窯)이후 폐요(廢窯)에 이른 전축요의 전과정이 일목요연하게 확인되어 전축요의 운영상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였다. 얼핏 이와같은 사실만 보아도 용인 서리 가마와 시흥 방산동의 가마는 일정한 부분에서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가마의 축요(築窯)상태나 출토유물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전축요의 상대적(相對的)인 선후관계(先後關係)와 제도경향(製陶傾向)들을 어느 정도나마 알 수 있을 것이다.

4) 최근 필자는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 산포한 가마의 구조와 생산양식을 각각 비교하여 그 운영시기에 관한 글을 발표한 바 있다. 拙稿, 『始興 芳山洞 初期青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塼築窯의 運營時期』, 『美術史學研究』, 228-229(韓國美術史學會, 2001), pp. 65~98.

5) 삼성미술문화재단 『용인서리 고려백자요 발굴개요』, 『삼성미술문화재단 제23기 사업보고서』, 987(1988); 삼성미술문화재단 『용인서리 고려백자가마터 3차발굴조사』, 『삼성미술문화재단 제 24기 사업보고서』, 1988(1989); 김재열, 『龍仁 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고려시대의 용인』(용인시·용인문화원, 1998), pp. 209~236.; 김구근, 『대구근교의 초기청자요지에 대하여』, 『백동가마와 초기청자』(海州陶磁美術館, 2000), pp. 37~53.

1. 가마 유구(遺構)의 비교(比較)

용인 서리의 가마터는 발굴조사 당시 83m에 이르는 토축요구(土築窯構)가 먼저 확인되었으며 전축요구(塼築窯構)는 이 가마의 하부에서 탐색구(trench) 조사를 통해 발견되었다. 발굴은 토축요의 유구파악과 함께 토축요의 보존문제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조사는 벽돌가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선에서 종료되었다고 한다.⁶⁾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발굴조사자의 논문에 의하면 용인서리의 벽돌가마는 총 3차의 발굴조사중 2, 3차의 조사과정에서 그 존재가 발견되었다고 하며 확인된 가마는 폭 1.8m, 남은 높이 1.4m, 가마길이는 약 40m에 달한다고 하였다.⁷⁾ 또한 사용된 벽돌은 7×5×32cm의 장방형 벽돌로 완형(完形)이외에 깨진 벽돌을 사용한 것도 상당수이며 요벽(窯壁)은 2열로 구성되어 있어 적어도 한차례 이상의 대대적인 개수(改修)가 있었다고 보았다.⁸⁾

그런데 이와같은 용인 서리 유적에서의 현상은 시흥 방산동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흥 방산동 가마의 경우는 2차에 걸친 가마의 대대적인 개수과정이 파악되었고 최초의 가마길이는 39.1m, 2차가마 36.5m, 3차가마 35.8m로 줄어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마의 내벽 폭은 최초의 단계가 222cm였으나 차츰 줄어들어 폐요직전의 최종단계에는 90cm까지 좁아진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산동 가마에서는 좌우측의 요벽면(窯壁面)에서 7개 석의 측면출입구가 발견되었는데 조사결과 처음에는 우측, 다음은 좌측, 다시 우측으로 출입구를 옮기면서 요업활동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방산동 가마에서는 축조시에 평균 25×20×5cm 가량의 장방형 벽돌을 주 재료로 활용하였는데 서리와 마찬가지로 완형의 벽돌은 주로 가마의 뿌리부분, 즉 초기의 축요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주로 자리하고 있었으며 보수과정에서 조성된 부분은 주로 반파된 벽돌들을 재활용한 것이 보였다.(사진 3)⁹⁾

이와같은 현상은 북한지역에서의 발굴예인 황해도 배천군 원산리 가마터의 발굴현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발굴사실을 전하는 보고서에 의하면 배천 원산



<사진 2> 시흥방산동요지전경(해강도자미술관 발굴조사)

6) 김재열, 앞의 논문(용인시·용인문화원, 1998), p. 233.

7) 김재열, 앞의 논문(용인시·용인문화원, 1998), pp. 212~213.

8) 주 7)과 같음.

9) 海陽陶磁美術館·京畿道 始興市, 『方山大窯』(2001), pp.31~43.



〈사진 3〉 전축요의 축요상태(시흥 방산동 유적)

리 2호가마의 경우 모두 3차에 걸친 보수가 있었는데 최초의 가마는 38.9m였으나 마지막 단계에는 22.4m까지 줄었고 내벽의 폭 역시 190cm에서 80~100cm로 축소되었다고 하며 가마의 옆벽면에서는 7개의 측면출입구가 확인되었다고 한다.¹⁰⁾

이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용인 서리나 시흥 방산동, 나

아가 배천 원산리의 유적을 포함한 중서부의 전축요는 축요와 운영과정에서 거의 같은 방법이 활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비록 용인 서리에서 자세한 요구(窯構)의 상태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나 이는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기술을 구사하는 기술자(技術者), 혹은 기술집단(技術集團)의 존재가 있었으며 이들에 의해 가마의 조성, 운영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준다.¹¹⁾

따라서 용인 서리의 전축요나 시흥 방산동의 가마는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운영시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거의 같은 시기에 운영된 가마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서부 지역의 전축요와 용인 서리 요구(窯構)는 큰 차이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대개의 전축요들이 유사한 운영과정을 거치면서 폐요되어 갔던 반면 용인 서리는 토축요라는 새로운 가마구조로 변환을 시도하면서 요업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¹²⁾

그러면 이러한 전축요의 폐요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조사된 유적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용인 서리의 경우에는 전축요가 토축요의 상부(上部)에 위치해 있었

10) 김영진,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기가마터 발굴 간략보고』, 『조선고고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91년 2호), pp. 2~9. ; 同著, 『우리나라 자기생신의 시원문제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91년 4호), pp. 18~28. ; 同著, 『봉천군 원산리 자기가마터』, 『조선유적유물도감』(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pp. 306~321.

11) 李鍾玟, 앞의 논문(韓國美術史學會, 2001), p. 78.

12) 이러한 현상은 용인 서리유적뿐 아니라 2001년도 후반에 발굴조사된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고려백자가마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연차발굴의 첫단계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용인 서리 삼반유적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고려초 중서부지역의 백자가마들은 청자를 집중생산한 중서부지역의 다른 가마들과는 달리 토축요로 전환된 이후까지도 요업을 지속한 공통점이 있다.

던 까닭에 전축요의 폐요단계를 자세히 알기가 어려웠다. 탐색구조를 통해 확인된 전축요의 구조를 보면 가마의 내벽폭은 1.8m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토축요로 전환된 시점을 말해주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시 말한다면 전축에서 토축으로의 전환시점에 이미 사용하던 전축요의 가마를 재정리하고 바닥을 낮추어서 토축으로 전환한 것인지, 아니면 잘 사용하던 가마를 헐어내고 요벽(窯壁)과 천정만을 흙으로 다시 쌓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의미이다. 이 관점은 토축으로의 전환시점이 일반적인 전축요의 폐요원인 발생 이후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요업중간에 외부로부터의 강한 자극에 의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¹³⁾

현재까지의 조사자료로는 어떠한 해석도 어렵겠으나 두가지 가능성은 모두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가마의 축조방식에서 같은 변화과정을 갖고 있는 여주 중앙리 요구(窯構)의 예를 참고해보자.

중앙리 가마는 발굴결과 토축요의 구조임이 밝혀졌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축요로 출발한 것이 확실하다. 그것은 폐기물층에서 장방형의 벽돌이 발견되었으며 남아 있는 가마의 굴뚝부나 측벽면 일부에서도 벽돌을 재활용한 흔적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유구는 최하층 유구까지 전면적으로 노출시킨 것이 아니어서 상태가 어떤지는 불분명하지만 주변에 다른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축요를 정비하여 토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¹⁴⁾ 그런데 가마의 개수(改修)과정을 살펴보면 번조실의 폭이 자연스럽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이는 토축요로의 전환과정에 대대적인 보수가 있었다기 보다는 축조재료를 바꾸어 자연스럽게 요업을 지속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용인 서리 가마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용인 서리 가마 역시 생산활동 기간중 전축요의 폐요원인이 특별하게 발생했다면 모를까 잘 사용하는 가마의 축조방식과 규모를 갑자기 바꾸면서 생산을 지속했다고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13)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리 출토유물을 정리한 濟寧樂荷館 田勝昌氏에 의하면 서리의 토축층은 (해운 시기부터) I기층과 II기층 사이에 변화가 감지된다고 한다. 그 근거는 강진 용운리 10호 등 초기정착요소에서 보이는 구멍뚫린 갑살이 서리의 이들 기층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리 III, IV기층의 소형유물에서 陰刻捺線帶기 발견되며 서리 II기층에서는 굵은바탕, 오목하게 각이진 서드등 굵 형태가 등장하는 것도 강진 용운리의 초기정착 가마 출토품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田勝昌氏는 서리의 경우 전축요에서 토축으로 가마구조를 전환하는 시점이 II기층과 III기층의, 사(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서리의 토축요 단계를 강진 용운리식의 토축요와 기형제각양식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일시하고 있다. 田勝昌, 『龍仁西基 出土遺物の 檢討』,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발표논문집』(용인시 용인문화원, 2000), pp.17~18, 참조.

14) 노출된 가마의 측벽면 하단부의 굴뚝부에서는 갑살과 벽돌을 재사용하고 수축한 흔적이 보이는데 스성실 크기는 굴뚝쪽에서 최대 220cm의 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박물관, 위의 현장설명회자료(2007년), p.12.

그렇다면 자세히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보다 전축요의 폐요과정이 잘 밝혀진 시흥 방산동 가마의 예에서 용인 서리 전축요단계의 폐요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방산동가마에서는 최초의 축요단계 이후 요업이 진행되면서 가마바닥에 104cm에 이르는 상당한 모래층 퇴적과 폐갑발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폐갑발층 아래에서는 마지막으로 도자기를 구웠던 흔적으로 보이는 갑발받침흔이 3열로 배열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하나의 갑발이 차지하는 면적을 약 20~25cm로 가정했을 때 최초의 축요단계에서는 가마너비에 약 7개의 갑발이 놓여질 수 있었으나 마지막 단계에는 3개밖에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협소해지고 경제성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가마내부의 진 공간에서 아궁이와 측면출입구를 제외한 다음, 평균 5개의 높이로 구성된 갑발열에 약 2개 정도의 기물(器物)이 들어갔다고 가정하여 생산량(生産量)을 산출하여 보았을 때 초기단계에는 약 6,650개 가량의 도자기가 생산되었으나 마지막 단계에는 1/3인 2,520개로 줄어든 것으로 계산 할 수 있었다.(이것은 완(碗)이나 발(鉢)을 기준으로 본 산술적 수치일 뿐이다.)¹⁵⁾

따라서 가마의 협소와 생산기반의 약화는 결국 가마를 폐요할 수 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산동 가마의 폐요는 이러한 제도상황(製陶狀況)의 악화(惡化)에서 자연적으로 기인한 것이 확실하며 이러한 모습은 배천 원산리의 경우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¹⁶⁾ 아마도 용인 서리의 전축요 폐요단계는 이와같은 과정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결국 이렇게 가마를 폐요하는 상황은 전축요, 토축요를 막론하고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보편스럽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흥 방산동이나 배천 원산리의 발굴요적(發掘窯蹟) 주변에는 유사한 시기이거나, 혹은 시기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비슷한 가마터들이 분포해 있다. 이들 주변의 가마유적들은 현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전축요간에 있을 수 있는 시기적(時期的) 선후관계(先後

15) 海陽陶術美術館·京畿道始興市, 임의 해(2007), pp. 167~169

16) 조선유적유물노경면천위원회, 『방산동 원산리 가마터』, 『조선유적유물노경』(1992), p. 303의 64면, 2층시기 가마터의 선축요 장터.

17) 방산동, 원산리, 서리 등지의 기미에서 2~4층의 가마터 분포하다. 원산동 보리면 미세로 출토되는 器類의 양식에 조후이기의 관이. 이는 이기의 선후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의 동일한 시기로 볼 수 있는 근거일 수 있다. 참고 林士民·先伯鏞 선생 논문 중 浙江省의 上林製 社, 東錢湖 등지의 越州窯 등장지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함께 운영된 가마터가 많이 있었다고 표시한 바 있다. 원축요의 양형이 선진적으로 보이며, 중서부지역의 전축요 운영양식은 이러한 점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關係) 여부를 잘 알 수 없었다.¹⁷⁾

그러나 용인서리의 경우는 하나의 요구(窯構)에서 축조재료와 규모를 바꾸어 가면서 요업을 지속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길이 약 83m, 측면 출입구 23개, 내벽면의 폭 1.2~1.5m라는 규모는 전혀 다른 축요방식에 의한 기술이었던 것이다.¹⁸⁾ 현재까지 퇴적층의 유물변화로 용인서리에서 축조방식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 단계는 퇴적 아래로부터 살펴보았을 때 Ⅱ기층 후반과 Ⅲ기층 초반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¹⁹⁾ 다른 전축요와는 달리 용인 서리 가마가 이렇게 축요방식을 바꾸면서까지 요업을 지속했던 것은 중서부 지역의 전축요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폐요상황과는 다른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다른 지역 전축요들과의 상대적인 선후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용인서리의 상한과 하한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고려해야 할 것은 용인 서리의 경우 백자중심의 가마로 이행하는 점은 중요한 특징이 되나, 타 지역 가마와 비교했을 때 규모와 폐요동기가 유사성이 있고, 서리 퇴적층 하부(Ⅰ, Ⅱ기층)에서 나타난 출토기형(出土器形)이나 기종(器形種)들의 조합 등은 서리 가마가 유별하다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서부지역의 전축요들이 큰 시점에서 보았을 때 비슷한 시기에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주는 기준이 된다. 또한 방산동이나 원산리와 같은 다른 전축요와의 상대적인 선후관계에서도 공존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가마유구간의 비교에서 유적의 선후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다음의 출토유물비교에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18) 한 가마의 길이가 80m를 넘는 예는 용인 서리의 가마가 유일하다. 전축요의 경우도 몇 차례의 보수를 통하여 가마를 운영해-가 폐야에 이른 것을 보면 용인 서리의 축요도 수 없는 보수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서부지역에서 동일한 양식의 정사를 생산했던 토축요들은 그 길이가 20m를 크게 넘지 않는다. 따라서 서리의 가마가 한번에 80m가 넘는 규모를 과연 하나의 가마로 운영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으나 일단 발굴당시의 상황을 존중하여 그대로 이해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19) 田勝昌, 일의 논문(용인시·용인문화원, 2000), pp. 17-18

20)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글로 준비 중이며 본 논고에서 자세하게 다룰 부분이 아니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2. 출토유물(出土遺物)의 비교

시흥 방산동과 용인 서리에서는 각각 수 m에 달하는 가마주변의 퇴적이 확인되었고 이들 퇴적들은 고고학적(考古學的)인 층위발굴(層位發掘)로 인하여 각 퇴적간의 상대적(相對的)인 선후관계(先後關係)와 유물의 변화상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는 방산동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층위간 변화과정을 소개하면서 용인 서리 출토유물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서로간에 어떠한 시기적 상관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시흥 방산동의 경우는 2.5~3m에 이르는 가마주변의 표준퇴적조사를 통해 발굴지역의 북쪽(가마우측)에서 11개층, 남쪽(가마좌측)에서 9개층을 확인하였다. 개략적인 선후관계는 가마의 축소과정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차가마때에는 가마북쪽에 Ⅱ-①층~⑦층, 남쪽에 Ⅱ-⑨층~⑦층까지를 퇴적으로 남겼으며 이때 측면출입구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옮기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가마를 줄여 쓴 2차가마 단계에는 남쪽에 Ⅱ-⑥층으로부터 ②층 혹은 ①층까지 퇴적이 버려졌으며 같은 양상을 보이는 퇴적이 가마북쪽의 Ⅱ-⑥층~⑤층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역시 2차가마 단계에 측면출입구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적의 마지막 단계는 거의 북쪽에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북쪽 Ⅱ-④~①층이 대체로 이 시기에 해당한다.²¹⁾ 이들은 각각 상대적 편년순으로 설정된 것이며 빠른 순서에 1차가마 시기를 Ⅰ기, 2차가마 시기를 Ⅱ기, 3차가마 시기를 Ⅲ기로 구분지워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① Ⅰ기 : Ⅰ기에 해당하는 최초의 단계에서는 북쪽퇴적에 약 1.7m가량이 폐기되었으며 남쪽 퇴적층에도 약 1m 가량이 버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체로 이들 층위에서 볼 수 있는 유물들은 방산동의 요업기간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완(碗)을 기준으로 출토상황을 보면 청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청자들은 대체로 얇은 기벽(器壁)위에 전형적인 올리브그린

21) 海明縣磁器美術館·京總道 始興市, 覽의 책(2001), pp. 48~51.

색의 유약이 씌워져 있으며 모두 얇게 시유된 모습들을 보여준다. 대표기종인 완(碗)의 경우는 모두 3종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기벽 측면선의 기울기가 낮고 굽의 높이가 낮으며 굽깎음새가 비교적 예리한 소위 '선해무리굽' 유형에 해당하는 형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도면 1의 ①, ③) 그러나 이와함께 굽을 간단하면서도 측면을 예리하게 깎아낸 유형도 있어 굽을 여러 모양으로 깎아낸 완이 함께 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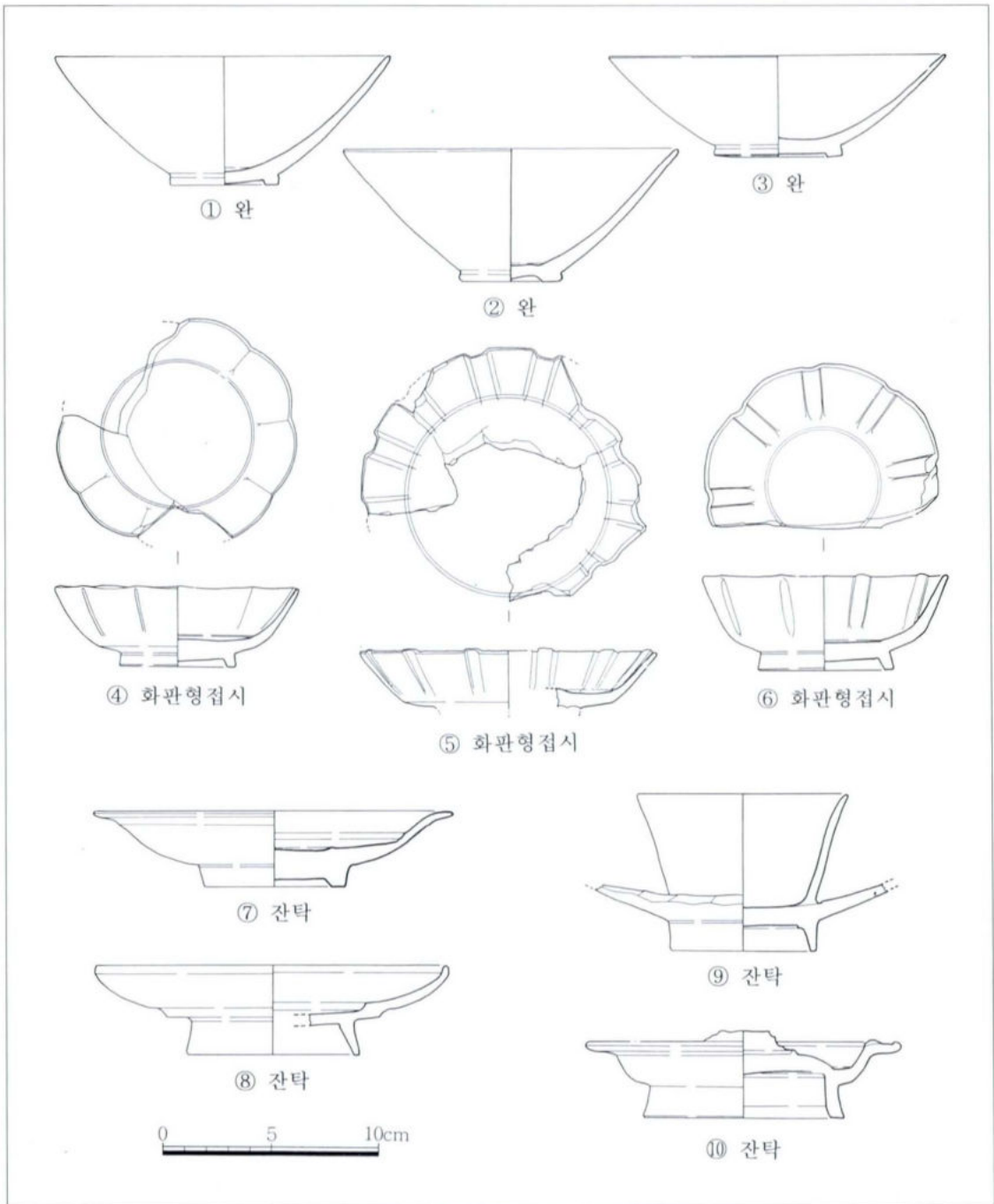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 고리형받침(집환(執環)) : 도면 2의 ⑨)과 함께 이것을 받쳐구운 절요형(折腰形) 청자접시류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으로 초기단계부터 고급청자의 제작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중에는 잔탁이 여러종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중 개체수가 여럿이 확인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잔을 올려놓는 부분이 편평하게 패이고 잔대의 끝이 살짝 수직으로 올라간 유형이 가장 많고(도면 1의 ⑧) 잔이 올려지는 부분에 마치 하나의 꺾을 붙인 것처럼 생긴 유형도 꽤 발견되고 있다.(도면 1의 ⑨) 이 중에서 내부중심이 오목하게 들어간 전자(前者)의 경우는 949년에 돌아간 3대왕 정종(定宗)의 안릉(安陵)에서도 출토된 예(사진 15)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방산동의 요업시기를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방산동의 출토유물중에서 완과 더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화판형접시(花瓣形碟匙)가 있다.²³⁾ [기에서 발견되는 가장 빠른 유형은 외부에서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표면을 등 간격으로 누른 것인데 위에서 본 단면은 마치 둥글둥글한 꽃잎을 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도면 1의 ④) 이와 더불어 내외면에 도구를 이용하여 요철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유형(도면 1의 ⑤) 또한 I기층에서 함께 출토되고 있어 이들 두 기형이 이른 시기부터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²⁴⁾ 이밖에 요도구류(窯道具類)에 있어서는 발형갑발(鉢形匣鉢)과 통형갑발(筒形匣鉢), 투구형 갑발이 함께 발견되고 있는데(도면 2의 ④, ⑤, ⑥) 수량으로는 통형갑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밖에 도자기 받침대로 사용된 요도구중에는 균형(菌形)(버섯형)의 갑발받침(도면 2의 ⑦)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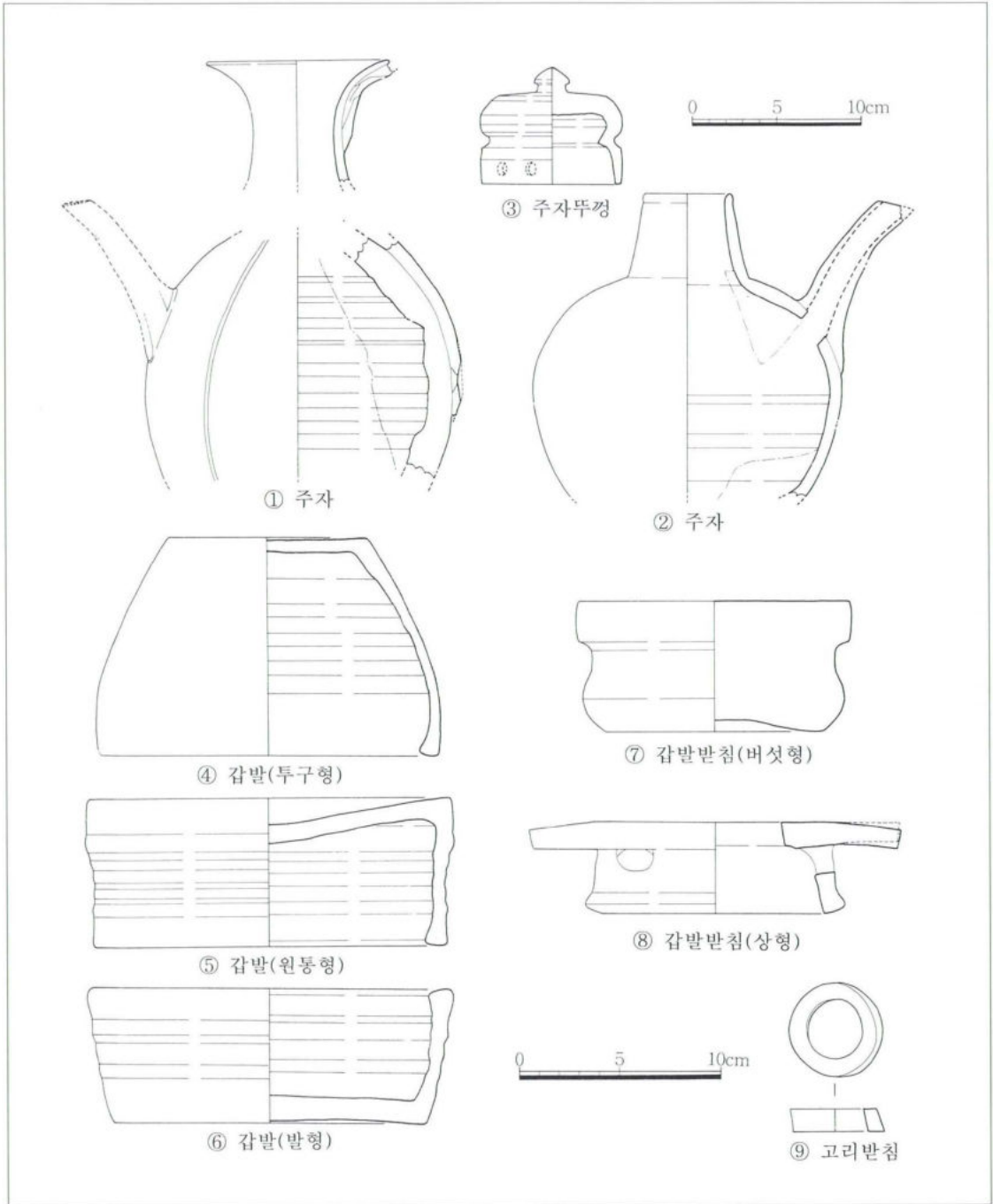
22) 굽을 깎아낸 유형에 대한 설명은 굽깎는 방법이 여러가지라는 것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며 송인 서대에서의 완의 굽형식을 말할 때 사용하는 선해무리굽이나 해무리굽 같은 다른 것이다.

23) 국내에서 花形鉢盤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으로는 張東晷, 「高麗時代 花形磁器 研究」, 『미술사연구』 제 12호(미술사연구회, 1995년), pp. 21~50. 이 있다. 연구자는 花形器皿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여 花鉢形, 美形形, 菱形, 菱花形, 菊形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초기 청사에서 흔히 일하는 호형을 화판형으로 구분하였다. 호형에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는 구분에 대하여 E-당하기 생김새는: 글지도 花鉢形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4) 초기청자중 화판형접시의 변화다정을 가장 먼저 정리한 논문으로는 崔 健, 앞의 논문(『東洋陶磁學會』, 1992-94), pp. 52~53. 이 참고가 된다.



<도면 1> 芳山河 出土 碗, 花瓣形 匙標, 盞托의 種類



〈도면 2〉 芬山洞 出土 注子, 匣鉢, 匣鉢받침, 執環(고리받침)의 種類

함께 상형(床形)받침(도면 2의 ⑧)이 사용되었으며 발형갑발의 뚜껑으로 사용된 유형으로 다리가 안쪽으로 휘었다가 밖으로 벌어진 유형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한편 발견 당시의 출토상황을 보면 포개어진 상당수의 갑발내면에 청자유약을 바른 흔적들을 볼 수 있었으며 출토된 완의 내외면에는 3~5곳에 내화토를 발라구운 흔적이 있는 예들도 있었다. 이밖에 이 단계에서는 주자(注子)(도면 2의 ①, ②)를 포함하여 수 많은 기종(器種)의 파편들이 함께 출토되어 요업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기종(器種)이 생산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②Ⅱ기 : Ⅱ기에 해당하는 퇴적층은 가마의 남쪽(좌측)에 주퇴적이 형성되어 있는데 퇴적의 최대 높이는 2.5m 가량을 이루고 있으며 같은 성격을 보이는 북쪽퇴적에서는 50cm가량이 확인되고 있다.

이 단계에 오면 전체적인 제작의 성격은 백자의 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청자의 유색은 올리브그린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출토유물을 보면 완(碗)의 경우 측면선의 경사도가 낮은 완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드는 대신, 경사도가 보다 높아진 유형의 제작이 증가하며 굽은 예리하게 깎아낸 형식이 중심을 이룬다.(도면 1의 ③) 이 단계에서 청자와 백자완의 굽중에 접지면(接地面)의 폭이 선해무리굽과 해무리굽의 중간크기쯤 되는 계통의 빈도수가 많아지며 내저면(內底面)에는 제작시에 생긴 약간의 꺾임자국(圓刻)은 아님(을 가진 예들이 함께 보이고 있다.(도면 1의 ②)

Ⅰ기와 마찬가지로 이 단계에서도 절요접시(折腰碟)와 고리형받침의 수가 많은 비중을 이루고 있으나 그 비율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것 같다. 출토유물 중 잔탁(盞托)의 경우는 Ⅰ기에서 주종을 이루는 내부중심이 오목하게 들어간 유형과 컵을 붙인 것 같은 예가 줄어드는 반면 내부중심에 패인흔적이 살짝 남아 있고 잔대끝이 외반하여 벌어진 계통(도면 1의 ⑦)이 많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화판형(花瓣形) 접시류는 Ⅰ기층과 마찬가지로의 양상을 보이나 외부에서 살짝 눌러 둥글둥글하게 표면이 형성된 계통이 줄어들고 대신 외면을 날카로운 도구로 꼭꼭 눌러 V자형의 홈을 낸 계통(도면 1의 ⑥)이 공존하기 시작한다.

요도구류(窯道具類)에서는 발형갑발(鉢形匣鉢)과 투구형갑발(匣鉢)의 사용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나 원통형갑발(圓筒形匣鉢)의 경우는 꾸준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갑발받침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데 균형(圓形)이 점차로 사용빈도가 주는 반면 상형(床形)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형식의 받침은 이전단계에서 다리가 안으로 오므라졌다가 밖으로 벌어진 형식을 보이고 있었으나 이제 다리가 수직으로 직립하여 마치 상다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도 역시 많은 양의 다양한 기종(器種)들이 발견되었으며 주자(注子)나 광구병(廣口瓶)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유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Ⅱ기에서 주목할 기타유물로는 보(簋)와 궤(簋)로 추정되는 제기(祭器)의 유형이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는 방산동의 운영기간중에 제사와 관련된 기물(器物)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었음을 생각하게 해 주는 증거가 되었다.²⁵⁾

③Ⅲ기 : 이 층위는 방산동의 마지막 요업단계에 해당하며 주 퇴적이 가마의 북쪽인 우측에 형성되어 있다. 확인할 수 있는 층위는 약 1m 가량이나 지표층과 상당부분 섞여있고 일부 교란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약간은 불안정한 퇴적층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표준퇴적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양상을 보면 백자의 제작 비율은 더욱 더 확대되어가는 양상을 보이며 청자에서는 유색(釉色)이 전체적으로 암갈색이나 녹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감지된다. 대체적인 제작성향은 전반적으로 유질(釉質)이 깔끔하지 못하며 또한 기물(器物)의 성형상태(成形狀態)나 굽꺾음새가 조잡해지는 등 질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퇴조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중 완(碗)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기벽(器壁)의 경사도가 높아지는 변화를 보이며 접지면에서는 선해무리굽과 해무리굽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 Ⅱ기에서의 굽형식이 중심을 이루고(도면 1의 ②) 이따금 해무리굽과 같은 넓은 굽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내저원각(內底圓刻)이 있거나 굽모양이 전형적인 한국식 해무리굽과는 거리가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가 되면 절요접시의 예는 간간히 확인되나 이것을 받쳐주었던 집환(執

25) 당산동에서 발견된 祭器들은 소량인데다가 형태복원이 어려워 온산리, 출토 『淳化銘』 제기들과 같은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高麗史』에는 각종 제사의 더불어 사용된 器血중에 簋와 匱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宣和奉使高麗圖經』 제 30권 「器血」 서두에는 '전대의 역사에 이르기를 東夷는 그릇에 적대를 쓴다고 하였는데 이제 고려의 土俗도 여전히 그러하다. 간을싸를 보면 예스럽게 스스럼이 자못 시람스럽고, 다른 식기들도 왕왕 飾具의 質을 지니고 있다(중략)' 라고 기재하고 있다. (간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고려도경』 고전국역총서 119, 경인문화사, 1977, p. 175). 여기서 簋는 內方外圓, 匱는 外方內圓의 용기를 말하는데 방산동 출토 품의 경우는 이러한 수평이 적합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環)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고급기종(高級器種)에 대한 번법(燔法)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또 다른 유물인 잔탁(盞托)의 경우는 I기에서 볼 수 있는 유형들이 거의 안보이는 반면 II기에서 새롭게 나타난 구연이 밖으로 벌어진 잔탁(도면 1의 ⑦)이 증가하고 있어 기형이 단순화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변화는 화판형 접시(花瓣形接匙)에서도 확인되는데 가장 빠른 유형으로 짐작되는 표면을 살짝 누른 계통은 사라지고 없으며 집게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기법(器法)을 요철형(凹凸形)으로 만든 계통과(도면 1의 ⑤), II기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V자형홈이 바깥부분에 패여진 계통(도면 1의 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요도구류(窯道具類)의 변화는 더욱 심하여 발형갑발(鉢形匣鉢)과 두구형갑발이 소량 발견되는 반면에 대부분은 원통형갑발(도면 2의 ⑤)이 중심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요상부(窯床部)에서 갑발을 받쳤던 갑발받침은 완전히 상다리처럼 생긴 모습의 상형(床形)(도면 2의 ⑧)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이 시기에 와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중에 하나는 한 갑발안에 적체하는 도자기의 수가 변화했다는 점이다. 즉, I, II기의 경우에는 한 개의 갑발안에 도자기를 평균 2개가량 넣어 번조(燔造)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화된 형태로 이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 와서 2개씩 포개구운 예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확실히 III기에 번조방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방산동에서는 많은 퇴적층이 존재하고 있으나 가마유구의 변화와 유물양식간의 상황을 볼 때 크게 3단계의 변화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 개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도자기의 제작경향은 청자가 중심이었으나 이후에 백자의 비율이 서서히 많아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② 청자의 유색은 중간단계까지 올리브그린색이었으나 퇴조기에 들어서서 암갈색이나 녹갈색으로 변화하고 있다. ③ 완의 경우 선해무리굽 중심에서 해무리굽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④ 화판형(花瓣形) 접시는 외면을 살짝 누른 것과 요철형(凹凸形)으로 누른 것이 공존하나 후기에는 요철형과 표면에 V자형의 홈을 누른 것으로 바뀌고 있다. ⑤ 절요접시(折腰接匙)와 같은 고급 기법(器法)은 고리형받침, 즉 집환(執環)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 빈도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⑥ 잔탁(盞托)에

서는 내면에 원형의 홈이 깊이 패인 예나, 통형(筒形)의 잔받침대를 올린 것들이 제작되나 후기에는 납작하면서도 구연이 외반한 잔대를 가진 유형이 많아지고 있다. ⑦ 보(簋)나 궤(簠)와 같은 祭器는 일정한 시기에 제작이 증가하였다가 줄어들고 있다. ⑧ 주자(注子)는 I기부터 III기까지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⑨ 요도구류(窯道具類) 중 갑발은 초기에 발형(鉢形)과 통형(筒形), 투구형이 함께 사용되었으나 후반기에 와서 통형갑발 중심으로 단순화되어간다. ⑩ 갑발받침은 균형(菌形)과 상형(床形)이 함께 사용되었으나 차츰 상형(床形) 위주로 바뀌어 간다. ⑪ II기까지는 한 갑발안에 평균 두 개 가량의 도자기를 포개어 굽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나 나중에는 한 갑발에 하나의 도자기를 넣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⑫ 전 기간동안 초벌편은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 4〉 「백자화관형접시편(白磁花瓣形碟匙片)」 龍仁西里 I期層出土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 외에도 방산동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요소들이 확인되고 있으나 대체로 이들이 서리 유물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핵심이 된다. 이제 서리의 퇴적층과 층위간 유물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특성을 예로 들어 방산동과의 상대적 선후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²⁶⁾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방산동의 출토유물은 용인서리에서 볼 수 있는 4개의 자연층위 가운데에 대략 I, II기층(아래로부터)의 출토상황과 가장 유사하다.²⁷⁾

그런데 용인 서리에서는 가장 빠른 양식을 보이는 I기층의 경우 다른 유적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백자화관형접시편(白磁花瓣形接匙片)〉의 존재가 알려지고 있어 서리와 방산동간의 초기 개요단계(開窯段階)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해준다. (사진 4) 이 유물은 파손되어 일부만을 알아볼 수 있는데 구연(口緣)부분은 꽃처럼 오려내었으며 제작상태가 매우 깨끗하고 경질로 되어 있어 마치 조선시대의 설백자(雪白磁)와 같은 느낌을 준다. 따라서 서리나 방산동에서 볼 수 있는 황백색의 연질백자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물의 존재는 최근 서리 I기층을 방산동이나 원산리의 개요단계보다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²⁸⁾

각 요적(窯蹟)간의 상대적인 선후관계, 특히 개요시점을 알려주는 정보가 없는 상황하에서 이러한 견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이 과연

26) 서리의 층위간 유물의 특징은 이미 많은 글에서 발표된 예가 있는 관계로 여기에서는 필요한 부분만을 소략하여 언급하겠다.

27) 김재열, 앞의 논문(용인시·용인문화원, 1998), pp. 215~223.; 田勝昌, 앞의 논문(용인시·용인문화원, 2000), pp. 11~18.

28) 田勝昌, 앞의 논문(용인시·용인문화원, 2000), p. 16. 이와같은 내용은 최근 崔健선생도 필자에게 敎示한 바 있다. 그러나 I기층의 동반출토 유물이 워낙 적은데다 이 유물 한점으로 가마간의 상대적 선후관계를 논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맞는지의 여부는 잘 알기 어렵지만 어찌했든 가마간의 선후관계는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서리의 최하층은 개요문제에 있어서 약간이라도 선행하는 퇴적층일 가능성을 반반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서리 1기층의 기타 다른 유물에서는 개요시점의 시간대가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구체적인 예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있다하더라도 그 차이는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방산동의 경우는 전축요에서 요업을 시작해서 끝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리에서는 요구조(窯構造)의 변화과정이 위치하고 있어 그 시간대가 어디쯤 되겠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리의 가마구조가 변화하는 단계와 퇴적간의 상관관계가 발굴조사에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는 연구자간에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최근에 서리의 퇴적층을 검토하여 그 변화과정을 살펴본 논문²⁹⁾에 의하면 발견된 I~IV기층까지의 퇴적중 전축요에서 토축요로의 전환은 II기층에서 III기층으로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그 시기는 강진 용운리에서 일부 가마가 운영되던 때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 근거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강진 용운리 초기청자가마에서 발견되는 구멍뚫린 갑발의 존재가 서리의 I, II기층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III층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서 찾았다. 논자(論者)에 따르면 구멍뚫린 갑발의 존재는 강진 용운리토축요의 상징품으로 결국 강진 용운리의 토축요유형이 서리에 이식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²⁹⁾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절대편년화(絶代編年化)한 최건(崔健)선생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를 10세기 초인 900년경으로 상정하고 있다.³⁰⁾ 최건(崔健)선생이 편년안을 피력하고 있는 바를 요약해보면 서리가마의 후기에 해당하는 층위인 III기층과 IV기층에는 한국식 해무리굽완과 그 변형계통이 있는데 이는 토축요의 전형을 보이는 강진의 가마요적중 한국식 해무리굽이 전성을 이루는 제 I~제 II 유형과 비슷하다고 한다.³¹⁾ 또한 새로운 편년자료로 추가한 충북 제천 송계리의 사자빈신사지탑(佛子瀕迅寺址塔)(1022년 건립)내 청자요지 출토품은 해무

29) 田勝昌, 앞의 논문(윤인시·용인문화원, 2000), p. 11~18.

30) 崔健, 「竊末麗初 韓國 磁器의 系列의 變遷」, 『윤인서리 백자요지의 재조명·변모·유전』(윤인시·용인문화원, 2000), p. 56. 본문내용간의 뉘를 참고.

31) 海剛陶磁美術館, 『佛津의 青磁窯址』(1992), p. 28~29, 장 3.

32) 崔健, 앞의 논문(윤인시·용인문화원, 2000), pp. 53~54.

리굽 이후의 단계를 보이므로 적어도 해무리굽을 보이는 유적층은 그것보다는 이전 단계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³²⁾ 따라서 원산리나 방산동의 경우는 그 중심시기가 10세기경으로, 여기에서는 한국식 해무리굽으로 넘어가는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 반면, 서리의 Ⅲ기층 이후에서는 해무리굽으로의 변화가 확실하므로 서리의 전축요는 일반적인 전축요의 하한(下限)보다 일찍-약 100년 정도- 끝나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 시점에 남서부지역의 토축요양식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리의 가마구조 전환시점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우선 충북 제천 송계리 소재 사자빈신사지탑(師子瀨汎寺址塔 1022년 건립) 주변의 청자요지 파편을 절대편년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³³⁾ 현재 간단한 시굴트렌치 방법등을 동원하여 층위문제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역산(逆算)하여 서리의 Ⅲ기층 시작점을 다른 전축요들과 달리 일찍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는 용인 서리 가마가 다른 전축요보다 유독 일찍 전축요를 폐쇄하고 토축요로 옮겨갔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또 다른 가마에서의 토축요를 폐쇄하고 토축요로 전환해 간 유사한 예를 통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서리 가마의 구조변환이 보다 일찍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시기가 100년정도 일찍 진행되었다고 보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리와 방산동 전축요의 상대적인 운영시기는 시간적 차이를 알 수 있는 변화가 별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같은 시기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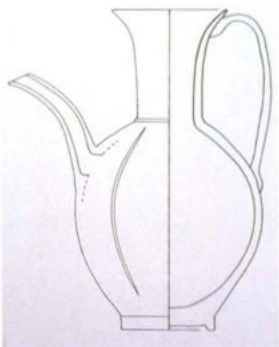
Ⅲ. 전축요(塼築窯)의 운영시기(運營時期) 문제(問題)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전축요의 가마유구나 출토유물은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한 것으로 출토상황이나 개략적인 상대편년(相對編年)에 관한 부분은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편년화하는 부분에서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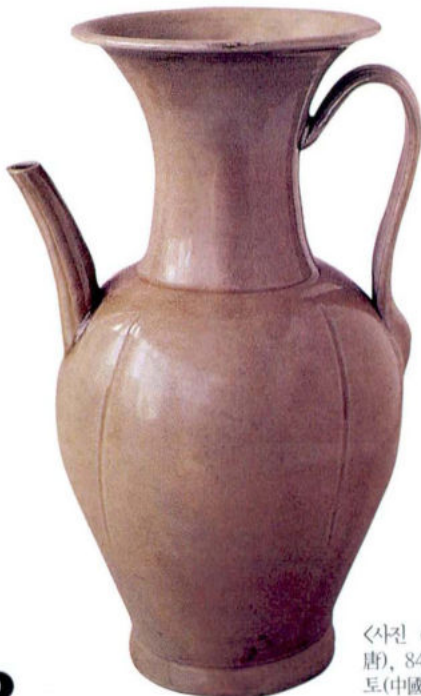
33) 충북 제천 송계리의 師子瀨汎寺址塔(1022년 건립) 주변에는 해무리굽 이후의 양식으로 보이는 퇴적이 발견되고 있다. 건립연대가 알려진 탑 주변에 가마터가 있음으로 해서 현재 가마터의 운영시기에 대한 추정 가능 여부가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간단한 사진자료로는 海州陶磁美術館, 『백돌가마와 초기청자』, 2000, p.36. 사진 20. 참고



〈사진 5〉 청자나팔형구연주자(靑磁喇叭形口緣注子) 9세기 후반~10세기, 시흥 방산동 요지 출토(始興 芳山洞 窯址 出土)



〈도면 3〉 청자나팔형구연주자 복원도(靑磁喇叭形口緣注子 復元圖) 9세기 후반~10세기, 시흥 방산동 요지 출토(始興 芳山洞 窯址 出土)



〈사진 6〉 청자주자, 당(靑磁注子, 唐), 848년, 중국 절강성 영파 출토(中國 浙江省 寧波 出土)

자마다. 주관적인 견해와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양식적(樣式的)인 문제를 절대편년자료(絶代編年資料)와 비교검토하여 개략적인 전축요의 운영시기를 추정해보고 나아가 가마분포 상황을 해석하여 역사지리적(歷史地理的) 관점(觀點)에서 본 운영시기의 문제를 필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유물(遺物)을 통해 본 운영시기(運營時期) 추론(推論)

지금까지 한국의 초기청자(初期靑磁)나 백자(白磁)를 편년(編年)하는 작업은 주로 해무리굽완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그 양식적인 선후관계를 중국의 편년유물과 비교하여 제작시기를 추론하는 방법론이 활용되어 왔다. 그것은 초기 자기요지(磁器窯址)의 출토유물중에서 완(碗)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내외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초기양식을 동반하는 자기가마터에서 예외없이 발견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론의 이면(裏面)에는 한편으로 완의 형식변화 이외에 달리 비교가능한 자료가 부족했었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편년자료가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전축요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으나 배천군 원산리와 시흥 방산동에서의 가마터 발굴조사는 많은 양의 정보들을 제공해 주면서 완 중심의 형식비교를 벗어나 보다 다양한 유물들을 가지고 편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방산동 발굴조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가마터 유적출토품을 활용하여 중부지역 전축요의 운영

34) 李蓮玟, 앞의 논문(韓國美術史學會, 2001.), pp. 65~98.

〈사진 7〉 청자유개주자(靑磁有蓋注子) 9세기 후반~10세기, 始興 芳山洞 窯址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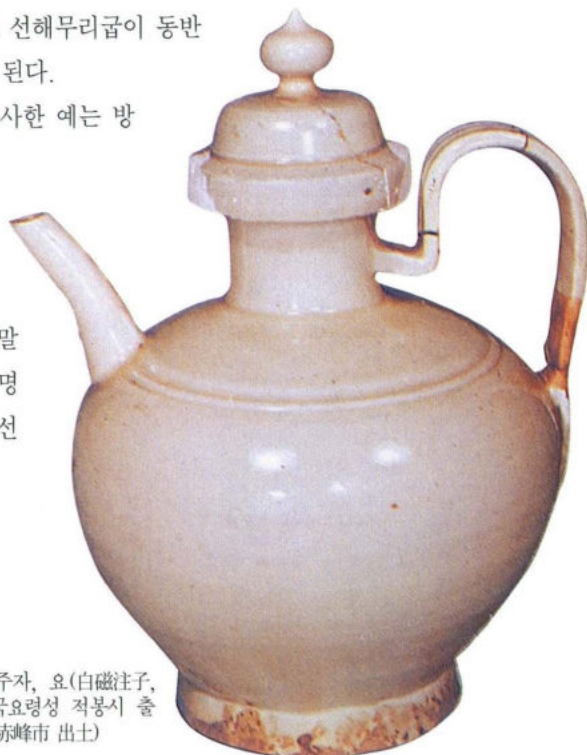
시기를 추론한 바 있다.³⁴⁾ 여기에서는 이를 재론하면서 중서부지역 전축요의 운영시기를 좀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다.

우선 전축요의 운영시기를 추론하는데 있어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서리 요적에서의 퇴적층위상에 보이는 완의 굽형식 변화이다. 용인 서리 발굴에 참여하였던 호암미술관 김재열선생의 최근 논문을 인용해보면 용인 서리에서는 최하층으로부터 선해무리굽 청자시기(I기-a) → 선해무리굽 백자시기(I기-b) → 선해무리굽·해무리굽 혼용시기(II기) → 해무리굽 전성시기(III기) → 퇴화해무리굽시기(III기말) → 윤행(輪形)굽시기(IV기)로 상대편년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³⁵⁾ 그리고 중국에서의 해무리굽 변천과정을 정리한 메이도쿠(龜井明德)선생의 논문을 인용하여³⁶⁾ 우리나라에서 해무리굽이 나타나는 시기는 적어도 중국에서 해무리굽의 제작이 끝나는 870년 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³⁷⁾ 그렇다면 용인 서리의 해무리굽 전성시기층인 III기층은 870년 이전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선해무리굽이 동반되는 층은 적어도 9세기 중반 이전에 해당한다는 말이 된다.

서리 I, II기층에서 보이는 선해무리굽 형식과 유사한 예는 방산동은 물론 원산리에서도 전 시기 걸쳐 골고루 보이고 있으며 해무리굽의 예는 거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점은 방산동이나 원산리가 해무리굽완의 제작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특히 원산리의 경우 10세기말의 폐요시점을 알려주는 2호 4차가마층(‘순화(淳化)’명 청자편 발견층)에서도 선해무리굽이 발견되고 있어³⁸⁾ 선



〈도면 4〉 청자유개주자 복원도(靑磁有蓋注子 復元圖) 9세기 후반~10세기, 始興 芳山洞 窯址 出土.



〈사진 8〉 백자주자, 요(白磁注子, 遼), 959년, 중국요령성 적봉시 출토(中國 遼寧省 赤峰市 出土)

35) 김재열, 앞의 논문(용인시·용인문화원, 1998), p. 230.
 36) 龜井明德, 「唐代玉璧高台의 出現と消滅時期의 考察」, 『貿易陶磁研究』 13집, 1993.
 37) 김재열, 앞의 논문(용인시·용인문화원, 1998), p. 226.
 38)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앞의 책(1992), 사진 656~659 참고.



〈사진 9〉 청자화형발(靑磁花形鉢) 9세기 후반~10세기, 始興 芳山洞 窯址 出土



〈사진 10〉 청자화형발(靑磁花形鉢 : 사진 좌) 10세기, 培川郡 圃山里 窯址 出土

39) 林士民, 『靑磁與越窯』(上海古籍出版社, 1999), p. 22의 사진 76.

해무리굽계통은 10세기말까지 지속된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선해무리굽은 꽤 오랜기간을 두고 제작된 양식이라는 판단도 가능하는데 과연 이것이 백 몇십년을 만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남아 있다.

이제 해무리굽을 떠나 다른 기종(器種)의 비교를 통해 의문점과 편년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용인 서리의 경우는 I기층과 II기층의 출토예가 많지를 않아 그 이후의 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물의 종류가 많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흥 방산동에서는 국외지역(國外地域)의 편년자료와 비교가 가능한 유물의 존재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청자나팔형구연주자(靑磁喇叭形口緣注子)>와 <청자유개주자(靑磁有蓋注子)>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청자나팔형구연주자(靑磁喇叭形口緣注子)>는 구형(口緣)이 나팔처럼 벌어진 주자로 구연외부와 참외형의 골이 있는 둥근 몸체상부(上部)사이에 띠 모양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사진 5, 도면 3) 이와 유사성이 비교되는 중국의 편년자료로는 절강성 영파(浙江省寧波)에서 출토된 '대중2년(大中二年)(848년)' 제작의 주자가 있어 9세기 중반경에 제작되던 양식(사진 6)이 방산동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자유개주자(靑磁有蓋注子)>는 둥근 형태의 몸체에 구



〈사진 11〉 청자화형발(靑磁花形鉢) 949년 이전, 開城市 開豐郡 古南里 安陵 出土

연이 직립해 있고 그 위를 구멍뚫린 왕관형(王冠形)의 뚜껑이 덮고 있는데(사진 7, 도면 4) 이와 가장 유사한 편년자료로서는 959년의 하한(下限)을 갖는 중국 요녕성(遼寧省) 적봉시(赤峰市)에 소재한 요위국왕(遼衛國王) 부마묘(駙馬墓) 출토의 <백자주자(白磁注子)>에서 찾을 수 있다.(사진 8) 이 주자는 재료가 백자라는 점만 다를 뿐 형태

는 방산동 출토의 청자주자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앞에서 언급한 형식과는 다르게 10세기 중반대의 편년자료와 닮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두 주자의 원류인 중국의 주자형태를 보면 연대가 이른 편년자료들이 대체로 세장(細長)한 모습을 갖고 있다가 점차 통통해지며 오대(五代) 말기나 북송(北宋) 초기에 이르르면 몸체가 납작해지고 상부(上部)에 각이 생기며 표면에 문양이 시문되고 있어 방산동 유물은 대략 10세기 중반경의 자료와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⁹⁾

전축요의 운영시기 추정이 가능한 또 하나의 예는 방산동과 원산리에서 각각 파편의 형태로 발견된 <청자화형발(靑磁花形鉢)>에서도 나타난다.(사진 9, 사진 10) 참외처럼 외면에 골을 내고 구연의 상단을 조금씩 오려낸 것으로 보이는 이 발(鉢)은 고려의 3대왕이었던 정종(定宗)의 무덤인 안릉(安陵)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양식을 보여준다.(사진 11) 949년에 돌아간 정종의 안릉 출토의 이 <청자화형발(靑磁花形鉢)>은 구연의 다섯곳을 오려낸 흔적이 있으며 형태가 정연하여 중국산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어찌했든 형태를 비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안릉(安陵)출토의 유물과 비교되는 그 외의 유물로서 내면에 편평한 잔받침 홈이 패여있고 잔대의 끝이 살짝 직립한 잔탁(盞托)의 예도 연대추정이 가능한 자료이다.(사진 12, 사진 13) 이러한 형식의 잔탁은 시흥 방산동에서는 물론 원산리에서도 출토되어 전축요에서 제작이 일반화되었던 기종(器種)일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⁴⁰⁾

전축요의 운영시기를 참고할만한 자료는 요도구류에서도 발견된다. 시흥 방산동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다량 발견되는 고리형받침, 즉 집환(執環=執圈)은 절요접시(折腰碟匙)와 같은 고급그릇을 감발안에 하나씩 넣고 구울 때 사용하는 굽내부 받침대이다.(사진 14) 이 유물은 원산리는 물론 용인 서리에서도 일부 그 예가 발견되어 전축요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번법(燔法)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현재 알려진 편년자료에 의하면 오월국(吳越國)이 망하던 해인 978년,

40)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위의 책(1992), p. 307의 본문 참고.

41) 江西省歷史博物館·豐城縣文物陳列室「江西豐城龍湖窯發掘碑報」,『中國古代窯址調查發掘報告集』(文物出版社, 1984), pp. 79~83. 참고. 본 글의 표정단계에서 입수한 편년자료가 있다. 中國 臨安市 祥里村的 五代 馬氏王后墓 康陵 출토품들은 天禧 4년(939년)에 매장된 것이다. 여러 가지 출토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선해무리공과 유사한 굽형식을 가진 靑磁碗과 굽 내부에 고려를 반추운 흔적이 있는 靑磁花形鉢이다. 『浙江紀年錄』(文物出版社, 2000.), 사진 163번, 191번. 참고.

42) 책 이외에 다른 출토유물들을 가지고 중국의 편년자료와 비교하여 전축요의 운영시기를 추정한 글은 李鍾政, 앞의 논문『한국미술사학회, 2001』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에서는 운영시기를 살펴보기 위한 양식비교에서 대상의 유물이 증보되는 관계로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진 12〉 청자잔탁(靑磁盞托) 9세기 후반~10세기, 始興 芳山洞 窟址 出土



〈사진 13〉 청자잔탁(靑磁盞托) 949년 이전, 開城市 開豊 郡 古南里 安陵 出土

중국 절강성(浙江省) 자계지방(慈溪地方)에서 오월국 생산품으로는 마지막으로 구웠으리라 추정되는 완들의 굽 내면에 ‘태평무인(太平戊寅) (978년을 의미)’을 음각한 유물들이 남아 있어 집권의 사용시기를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사진 15)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이미 당대(唐代)의 가마중에 하나인 강서성(江西省) 풍성나호요(豐城羅湖窯)에서도 확인

된 예가 알려지고 있어 그 기원은 시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¹⁾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은 시흥 방산동 요지의 운영시기를 대략 10세기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 상한(上限)에 대하여는 자세한 언급이 불가능하나 적어도 하한(下限)에 관해서는 출토양상이 흡사한 배천 원산리의 경우와 비교하여 대략 10세기 말경,

혹은 늦게 보더라도 11세기 초반경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⁴²⁾ 이 과정에서 용인 서리 요지의 I, II기층 출토품들은 완의 굽변화 이외에 비교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정확하게 단계별로 방산동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알기는 역부족이었으나 전반적인 제작상황을 다른 전축요들과 다르게 볼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용인 서리 전축요단계의 중심시기 역시 10세기대(世紀代)로 보는데 더 비중을 두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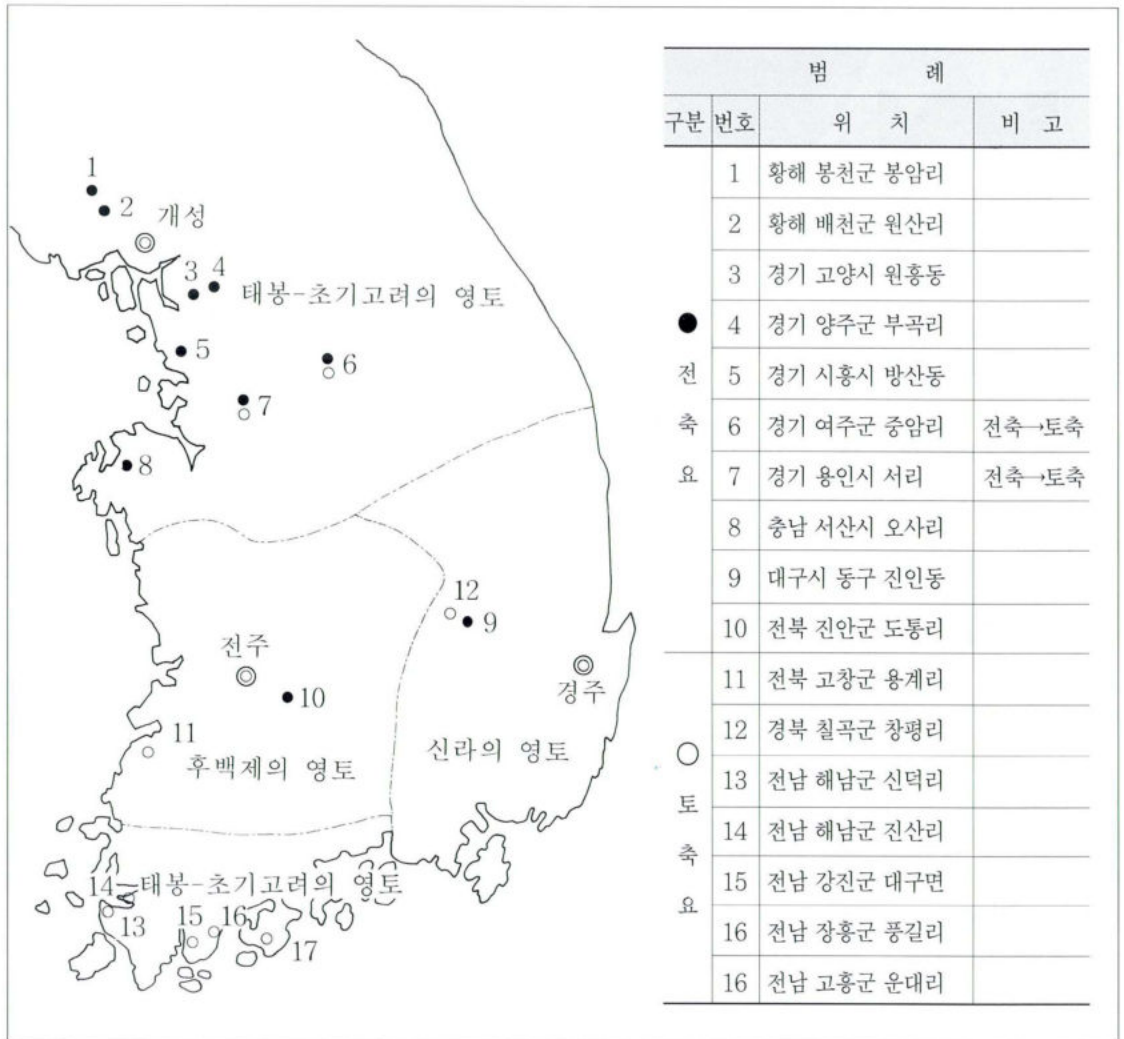
〈사진 14〉 「靑磁折腰標匙 및 執環 사용예」 9세기 후반~10세기, 始興 芳山洞 窟址 出土

2. 가마의 분포상(分布狀)을 통해본 운영시기(運營時期) 추론(推論)

지금까지 청자의 발생시점을 언급하는 문제에 있어 제작배경의 하나로 주목받아왔던 시기는 크게 장보고(張保臯)가 활동하



〈사진 15〉 청자「태평무인」명완편 (靑磁「太平戊寅」銘碗片) 978년, 中國 浙江省 慈溪市 出土



〈지도 1〉 埴築窯, 土築窯의 分布狀況과 後三國의 領域圖

던 시기인 9세기 전반, 나말려초(羅末麗初)의 정치적 전환기인 9세기 후반, 고려사회가 안정기로 접어드는 10세기 후반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견해는 당시까지 조사가 축적된 유물자료를 가지고 양식적으로 판단한 것이었으며 이를 시대적 상황과 함께 결부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연구 경향이었다. 시대사(時代史)와 양식론(樣式論)이 짜임새있게 연결되지 못했던 것은 유물의 편년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한계였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도 많았다. 그러나 도자기의 제작배경을 시대사 속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유물의 편년과 접목하는 시도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어느정도 접

근이 가능하기도 하다.

필자는 앞에서 출토상황이나 유물을 가지고 살펴 본 전축요의 운영시기는 대체로 10세기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였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시각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보아도 타당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가마의 분포상황을 분석하여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에 분포해 있는 전축요의 분포상황을 보면 위로는 황해도 남부의 봉천, 배천, 아래로는 전라북도 진안, 경상북도 중부의 팔공산 유역 등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중심권은 대개 용인, 시흥, 여주, 고양, 양주 등 경기도지역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⁴³⁾ 이와는 다르게 초지청자를 생산하고 있는 토축요들은 주로 남서부지역인 전남 강진군 지역을 위시하여 해남, 고흥, 장성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북의 고창, 경북 칠곡 등지에도 분포한다. 이들의 분포관계를 자세히 보면 각자의 중심권은 상당한 거리차이가 있으나 크게 경북지역과 전북지역에서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지도 1)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가지 의문점이 든다. 하나는 통일왕조의 틀 안에서 요업이 진행되었다면 비록 사회가 혼란하였다 하더라도 성격과 체계가 전혀 다른 가마가 어떻게 공존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또 하나는 성격이 다른 두 유형의 가마중심 지역은 거리의 차이가 꽤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에 동일한 시기에 공존하였다면 그것은 운영주체나 제작체계가 달랐다는 점이 될 것이고, 공존이 아니라면 시간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최근의 연구추세는 전축요와 토축요가 일정기간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⁴⁴⁾ 그런데 이렇게 전축요와 토축요가 각각 중심지역을 달리 하면서 공존한다는 설정은 적어도 안정된 한 국가의 틀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을 준다. 양자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선후관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 공존한다는 의미인데 정치적인 혼란을 겪었던 통일신라말이나 후삼국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조심스러우나 선후관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그

43) 1982~1983년 원광대학교의 미반·백제문화연구소에서 전라북도의 고창군 이신면 읍계리(가마터)를 분포할 때 토축요 밑에서 벽토가마가 발견되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보고서에서는 이점 기술하고 있지 않다.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高敞雅山田 水汲地區發掘調査報告書』(1985)

44) 청지기마터의 계보와 유물속성에 대하여는 崔健,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미술사연구』12호 (미술사연구회, 1998), pp.3-20.; 李薰寬, 崔健, 『高麗初期 靑磁生産體制의 變動과 그 背景』, 『美術史研究所』232(韓國美術史學會, 2001)pp. 21-55를 참고한 것.

45) 이에 관하여는 차후 다음 통하여 구체적인 의견유 비합 계획이다.

근거는 출토유물의 고고학적 층위조사를 통해 표준유물의 양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축요가 조금이라도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토축요의 초기단계는 생산품이 전축용 비해 덜 중국적이며, 번법(燔法)의 방식을 보더라도 전축요에 비해 요도구(窯道具)가 단순화되어 있고, 초벌과정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 등은 토축요가 전축요보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것이거나 다음 단계일 가능성으로 본다.⁴⁵⁾

그렇다면 전축요의 생성과 전개과정을 분포상황과 관련지어 본다면 언제쯤으로 비정할 수 있을까? 앞에서 전축요의 분포범위는 중서부지역이 중심을 이룬다고 하였다. 아울러 전축요의 중심지가 개성을 위시한 경기도 일대 주변인 점은 적어도 전축요가 고려라는 국가의 틀에서 전개된 것임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까지 전축요의 남방한계지역으로 볼 수 있는 진안(鎭安)과 대구(大邱) 팔공산(八空山) 유역에 대한 해석이다. 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지역은 모두 다 전축요와 토축요의 특징이 공존하고 있으며 보고된 자료들은 요업기간이 짧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⁴⁶⁾ 이 두 지역은 후삼국시기에 전투가 치열했던 곳과 가깝기도 하고 서로 다른 나라의 영역에 속해 있던 곳이다. 그렇다면 진안과 팔공산 유역의 가마들이 전화(戰禍)에 시달렸던 후삼국시기에 요업을 지속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⁴⁷⁾

또한 서리 가마나 여주 중앙리 요업후반기에 전축에서 토축으로 전환한 가마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남서부지역 토축요의 집중지는 전라도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시기적 선후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두 유형의 가마분포를 정치사적인 상황과 맞추어 보면 한 지역에서 전축, 토축이 공존 가능한 시기는 통일신라 말이거나 후삼국 직후의 고려초가 해당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축요가 고려의 중심세력이 몰려있는 개성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전축요가 선행하는 가마구조라는 가정하에서 볼 때) 통일신라 말기라

46) 대구 팔공산유역은 김구근, 「대邱近郊의 初期南磁窯址에 대하여」, 『벽돌가마와 초기옹자』(海別南磁美術館, 2000.), pp. 37-53. 참고: 全北 鎭安郡 聖壽面 道通里에 대한 지표조사결과는 崔淳雨, 『鎭安의 南磁窯址』(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년), pp. 42-48. 참고: 진안 성수면 느름리는 최근 『사자 권지담사』를 통해 확인한 바 많은 부분이 유실되어 그 상황을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으나 전축요와 토축요가 공존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47) 지표조사라는 원론적인 조사방법의 한계로 수습유물을 활용하여 자세한 양식적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로는 이국 지역의 전축요류는 중서부지역의 전축요보다 한단계 뒤로 이어지는 전축요 확산기의 메달이 아니기 한다.

48) 김갑봉, 「後百濟 靑堂의 龍崎과 鎭土의 變遷」, 『후백제 권원정권과 전주』(전북전통문화연구소, 2001), p. 198. 이외에 공예발원 후백제의 영역을 부여-연산-문의-도은-상주-웅궁-예천-영천을 연결하는 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津田友右吉, 『後百濟磁域考』, 津田友右吉全集11(岩波書店, 1934), pp.224~225. 김갑봉, 위의 논문(전북전통문화연구소, 2001), p. 198의 수 13에서 재인용)

49) 김갑봉, 위의 논문(전북전통문화연구소, 2001), p. 200.

50) 김갑봉, 위의 논문(전북전통문화연구소, 2001), p. 209.

는 상황설정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문헌사(文獻史)의 도움을 받아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자. 후삼국시기의 영역권을 다룬 관련 논문⁵¹⁾에 의하면 917년 후백제의 영역은 대략 현재의 대천 - 논산 - 대전 - 옥천 - 영동 - 선산 - 김천 - 거창 - 함양 - 구례 - 순천을 따라 이어지는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⁵²⁾ 견훤은 태봉주 궁예와의 영역권다툼에서 위에 언급한 라인을 따라 수 많은 전투를 벌였으며, 919년 고려 성립이후에는 왕건과 견훤이 대치하면서 예산 - 아산 -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방어전선을 구축하기도 하였다.⁵³⁾ 견훤정권의 전성기였던 927년부터 929년 사이에는 대구 팔공산 유역에서 고려군을 대패시키고 서해안의 대천 - 청양 - 공주 - 대전 - 보은 - 문경 - 예천 - 의성 - 군위 - 성주 - 고령 - 함천 - 진주로 이어지는 영역권이 확보되면서 나주일대를 제외한 전라도와 충남 중부지역, 경상도의 서부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⁵⁴⁾

이와같은 상황을 보면 후삼국시기에 영역권 확보를 위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가늠할 수 있으며 경계지역에서 요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성을 중심으로 한 중서부지역 이외의 전축요는 통일된 이후 시기적으로는 한 템포 늦게 요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⁵⁵⁾

이러한 시각에서 가마터의 분포상황을 보면 전축요는 후삼국 시기경의 고려의 중심지인 중서부지역에서 개시되고 고려의 통일 이후 전국으로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도면 3)⁵⁶⁾ 그러나 이러한 전축요가 전라남도의 토축요가 중심을 이루는 지역까지 파급되지 않고 마치 일정한 한계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현상은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힘들다.

51) 전축요중 중서부지역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대구 팔공산 유역의 진인동 기마는 전형적인 전축요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장국식'의 器形과는 차이가 있는 생산품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 일대는 927~929년 사이에 견훤과 왕건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전투기간에 가마가 운영되었을 가능성은 적어보이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전축요의 운영기간이 토축요에 비해 긴 것이 확실한 만큼 안정된 상황에서 요업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면 진인동의 경우는 10세기 중반기는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곳의 유물양식에 대하여는 김구근, 앞의 논문(해경도저지미술관, 2000), pp. 38-39, 52-53쪽 참고한 것.

52) 전축요가 고려초기에 경기도일원과 황해도지역에서 확대되었던 것은 太祖 王건의 통일전쟁 이후 지어질 수 많은 寺院의 창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알려져 있다시피 고려초 정치, 혹은 백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수요층은 주로 왕실, 고급관료층, 사절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태조대에는 부처의 힘으로 국가의 基業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중수지리선에 따라 전국에 3000여개의 절이 지어졌다고 한다. 특히 수도 개경에는 태조때의 創壽기 고려전기(개경에 세워진 절의 2/3에 이를 정도로 많았으며 각종 불교행사용 차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종진, 「고려전기 개경 절의 위치와 성격」, 『고려시대 개경의 구조와 기능』 - 한국역사연구회 제 71회 연구발표집, 『한국역사연구회, 2000년』), pp. 45-60, 참고). 현재 전축요 생산품의 수요처에 대하여 많은 공금증이 있으나 이미도 이러한 상황은 수 많은 생산품의 수요처가 어디였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53) 전축요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豪族이 운영하는 私器로 보는 견해가 최근 발표되었다. 그 근거는 大廟用 祭器로 생산했던 원시적 기마의 경우 官器였지만 계속 운영했을 것이나 아예 폐지되었는가에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전축요들이 일정한 시기(의 10세기 말 - 11세기 초경)에 일거에 사라지는 것은 왕권강화와 조직 정비에 따른 일종의 효속정책에서 그들이 경제권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것이었다는 추론을 하고 있다. (李麗實, 『蕃健』 앞의 논문(韓國美術史學會, 2001), pp. 21-56). 그러나 관저의 견해는 약간 다르다. 만약 전축요가 운영하는 주체중의 하나가 후삼국 시기의 왕건 세력이었다면 대축요와 운영한 기마라는 의미에서 私器로 볼 수 있으나 통일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이것을 私器로 전수 있는가 하는 점이 남는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많은 자료의 보완과 용어의 분석이 따른 후에 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통일고려 직후의 전남지역 정치상황이 고려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편입이 되었는데 대하여 밝혀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토착요의 계통이 다른 시기에 다른 발전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전축요의 운영시기는 10세기가 그 중심이며 결국 운영의 주체는 중서부일대, 특히 혈구진(穴口鎭)과 패강진(溟江鎭)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선대(先代)를 포함한 왕건(王建)등의 개국세력(開國勢力)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전축요는 어느 한 개인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보기에는 운영체제나 생산방식이 일사불란(一絲不亂)하여 일정한 통제나 운영의 틀이 있었다고 생각된다.⁵³⁾

결국 중서부지역의 전축요는 9세기 말~10세기 전반경 경기도 서부일대에 중심을 둔 왕건(先代를 포함한)과 같은 해상호족세력에 의해 주도적으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후삼국 통일 직후 중서부지역을 벗어나 내륙과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까지도 확산되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시흥 방산동과 용인 서리의 가마유구 및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중서부지역 전축요의 운영시기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제 앞에서 고찰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맺음말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용인 서리와 시흥 방산동(배천 원산리를 포함하여)의 전축요는 초축(初築)당시 같은 구조와 규모의 가마를 가지고 요업을 시작하여 운영과 폐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동일계 가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조를 전축(塼築)에서 토축(土築)으로 변환시켜갔던 용인 서리의 가마는 변환단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다른 가마와의 상태비교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자기요업사(磁器窯業史)에서 볼 때 전축요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가마의 운영시기는 짧지 않았기 때문에 서리 전축요 단계와 방산동의 가마는 운영시기에서 일정기간 공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흥 방산동은 가마유적의 변화와 폐기물 퇴적과의 관계가 비교적 소상히 밝혀졌는데 그 단계는 크게 Ⅲ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I→III기로의 진행을 염두고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처음에는 청자의 제작비율이 많았으나 서서히 백자의 제작예가 많아지고 있다. ② 청자유색은 올리브그린이 중심이었으나 퇴조기에 암갈색이나 녹갈색으로 변화하고 있다. ③ 완은 선해무리굽 중심에서 해무리굽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④ 화판형(花瓣形) 접시는 외면을 살짝 누른 것과 요철형(凹凸形)으로 누른 것이 공존하나 후기에는 요철형과 표면에 V자형의 홈을 누른 것으로 바뀌고 있다. ⑤ 절요접시(折腰碟匙)와 같은 고급 기명(器名)은 고리형받침, 즉 집환(執環)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 빈도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⑥ 잔탁(盞托)에서는 내면에 원형의 홈이 깊이 패인 예나, 통형(筒形)의 잔받침대를 올린 것들이 제작되나 후기에는 납작하면서도 구연이 외반한 잔대를 가진 유형이 많아지고 있다. ⑦ 보(篋)나 례(篋)와 같은 제기(祭器)는 일정한 시기에 제작이 증가하였다가 줄어들고 있다. ⑧ 주자(注子)는 I기부터 III기까지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⑨ 요도구류(窯道具類)중 갑발은 초기에 발형(鉢形)과 통형(筒形), 투구형이 함께 사용되었으나 후반기에 와서 통형갑발 중심으로 단순화되어간다. ⑩ 갑발받침은 균형(菌形)과 상형(床形)이 함께 사용되었으나 차츰 床形 위주로 바뀌어간다. ⑪ II기까지는 한 갑발안에 평균 두 개 가량의 도자기를 포개어 굽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나 나중에는 한 갑발에 하나의 도자기를 넣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⑫ 전 기간동안 초벌편은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과 과정은 이미 밝혀진 서리의 유물변화단계와 대입해 보았을 때 대략 서리 I, II기층의 유물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서리 I기층의 구연끝을 오려낸 백자화판형접시편(白磁花瓣形碟匙片)의 경우(사진 4) 지금까지 그 전례가 전무(全無)한 양식으로 방산동에 비해 앞선 유형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필자는 한 점의 유물로 개요시기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차후의 과제로 미루었다. 서리 전축요의 폐요시점이 방산동의 유적과 비교하여 어디쯤 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려웠으나 특별히 서리 전축요가 빨리 폐요(廢窯)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하한(下限)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출토상황이 소상한 방산동 유물중 청자나팔형구연주자(靑磁喇叭形口緣注子), 청자유개주자(靑磁有蓋形注子), 청자화형발(靑磁花形鉢), 집환(執環)의 사용에 등은 다른 편년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9세기 중반부터 10세기 후반까지 광범위하게 유사성을 보였으며 특히 10세기 전반, 중반경의 자료와 가장 많이 일치

하였다. 그러나 원산리 2호 4차가마에서 폐요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순화명(淳化銘)' 청자들의 예를 들어 방산동의 하한(下限)은 10세기 후반까지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추정이 서리에도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끝으로 한반도에 퍼져있는 전축요와 토축요의 분포상은 각각 그 중심이 중서부와 남서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들의 중심지를 살펴보았을 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전축요의 초기단계는 후삼국과 같은 정치적 구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파악하였으며 지방으로의 파급 단계는 후삼국 통일 직후일 가능성을 생각해보았다. 결국 가마의 분포상황을 후삼국이라는 시대사(時代史)에 적용해 보았을 때 전축요의 시작은 빨라야 통일신라말에서 늦으면 고려초가 가장 근접한 시기로 생각되었으며 지방으로의 확산은 후삼국 통일 직후인 10세기 중반경, 전축요의 소멸은 10세기말에서 11세기 초경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 중서부지역의 해상호족세력이었던 왕건 등과 고려집권층세력을 염두에 두었다.

이

백

리말려초 한국 자요(磁窯)의 계열과 변천

- 특히, 9~10세기 자요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

최 건(해강도자미술관)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자기문화(磁器文化)의 시작을 가르키는 청자(靑磁)의 발생시기가 통일신라시대 후기 9세기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¹⁾. 그리고 자기문화의 중주국이 중국이며, 또 중국의 여러 자요(磁窯)들 가운데 특히 양자강 하류 남단에 위치하는 월주요(越州窯) 계열의 제작기술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청자 발생에 절대적 조건이 되었다는 것도 밝혀져 있다²⁾.

이러한 사실들은 1980년대 이후 전라남도 강진군에 분포하는 50여개소의 요지군(窯址群)과 경기도 용인군 서리 요지 등 전국에 분포하는 9~10세기의 초기청자(初期靑磁) 요지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자 발생시기를 밝히려는 노력이 우리 도자사 연구의 새로운 관심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³⁾ 특히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문제의 열쇠를 우리 초기청자의 표식적(標識的) 기종(器種) 가운데 하나인 일흔저완(日暈底碗)에 두고, 이것이 중국의 당(唐)시대후기(8세기후기~9세기전기)에 유행했던 양식이라는 점과 관련

1) 처음 청자발생시기를 통일신라시대후기로 추정한 尾崎海盛은, "한국 청자의 모델이 되었던 중국 월주요 청자는 성당대(약 680-750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倣造는 늦어도 약 1세기 이후 興德王代(826-835년)에 이루어 졌다."고 하면서 9세기 통일신라시대후기 발생설을 제기하였다(『高麗海磁の起源に關する問題の考察』, 『陶說』 82.85-88, 1960참조). 이어서 吉岡完佑는, 강진의 초기청자를 대표하는 기종인 일흔저완이 중국의 경우 9세기의 특징으로 보고, 강진이 장보고의 청해진이 설치되었던 완도에 인접해 있으며 특히 중국과 문물의 교류가 활발했던 청해진시대에 중국과 똑 같은 청자를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高麗靑磁の發生에 관한 研究』, 숭선대학교박물관, 1979 참조). 한국 청자 발생에 관한 연구시적 검토는 崔健, 『高麗靑磁의 發生問題 -고려청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미술사논단』 장건호, 1995, pp. 269-294를 참조 바람.

2) 한국에서 처음 만들었던 청자들이 중국 越州窯 청자의 제작기술 및 조형과 유사하다고 보고, 중국의 절대적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다는 월주요 기원설은 小山富士夫가 제기하였다(『高麗의 古陶磁』, 『陶器講座』 22卷, 雄山閣, 1937). 그 이후, 高裕燮(1939), 野守健(1945), 尾崎海盛(1960), 吉岡完佑(1979), 長谷部樂爾(1971), 崔淳雨(1979), 鄭良謨(1979), 崔健(1987), 金載悅(1988) 등이 그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새로운 자료들을 보완하여 월주요 기원설을 지지한 바 있다.

3) 여러 요지를 가운데 강진군 용운리를 중심으로 계율리, 사당리, 삼흥리 등에 밀집 분포하는 초기청자시대의 요지는 50여개소에 이른다. 초기청자의 경우 양식 변천 과정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특성을 갖지만, 표식적 기종인 일흔저완의 형태 변화를 기준으로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崔健, 『韓國初期靑磁의 分類と變遷』, 『東洋陶磁』 Vol 22, pp. 45~50과 두 단계로 구분한, 『康津의 靑磁窯址』, 海陽陶磁美術館, 1992, p.28의 表(Ⅱ-1, 類型分類略解)를 참조 하라).

지으면서,⁴⁾ 늦어도 9세기중기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결과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초기청자의 편년 문제와 관련하여 결정적 근거가 될만한 새로운 자료가 끊이지 않고 발견되었다. 1989년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발굴한 황해도 원산리 청자요지의 유물퇴적 최상층에서 순화3년(淳化三年, 992), 순화4년이라는 절대연대가 새겨진 청자류들이 다량 출토한 사실이 알려지고,⁵⁾ 1992년 해강도자미술관 조사단에 의해 전남 강진에 분포하는 이백여개소의 청자요지에서 수집된 청자들의 조형적 특징과 양식 변천의 순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상대편년자료가 보고되었다⁶⁾ 또 초기청자시대를 상징하는 일흔저완 양식이 소멸한 후 그 뒤를 잇는 양식의 청자가 충청북도 제천군 송계리 사자빈신사탑(師子鬩尼寺塔, 1022년)을 중심으로 한 탑의 영역 안에서 발견되어 초기청자시대의 하한(下限)을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로 등장하였다.⁷⁾

이어서 기존에 발굴된 서리요지와 원산리요지의 규모에 뒤지지 않는 시흥 방산동요지의 발굴조사와 전남 해남군 신덕리에서 강진군의 초기청자요지와 유사하며 청자와 함께 흑자(黑磁)를 제작한 요지가 삼십여개소 발견되고, 또 무덤의 부장품으로 경북 상주 청리, 대전 노은동, 경산 입당 등에서 출토한 초기청자와 동반하는 경질도기, 그리고 전남 영암군 성룡사지탑(聖龍寺址塔) 안에서 탑지(塔誌, 1009년)와 함께 발견된 〈청자유개발(靑磁有蓋鉢)〉 등 새로운 자료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⁸⁾

이러한 새로운 자료의 출현은 초기청자에 대한 연구 관점을 중국의 옥벽저(玉璧底·日射底)형식 완의 전파와 변천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국내의 생산유적지와 소비유적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료를 대상으로 보다 더 입체적이며 구

4) 절대편년이 있는 당·오대·북송사대의 분묘와 탑 등의 유적에서 출토한 시료가 龜井明德에 의해 조사 발표되었다(『唐代玉璧高臺의 出現と消滅時期に考察』, 『貿易陶磁』 12, 1993 참조). 중국에서 조사된 239개소의 유적에서 전대편년 일흔저완 18건과 상대편년 6건은 전도의 건과, 7~8세기기를 명이라고 보고 8세기 4/4분기에 증가한다. 9세기전반을 성형기, 9세기후반을 소멸기이며 874년과 같은으로 다시 발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외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 측의 시료는, 崔健, 『高麗陶磁의 發生問題』 고려청자 연세 어떻게 입증하였나, 『美術史論壇』, 창간호, 1996, pp. 283-284 참조.

5) 원산리 요지는 1989-90년 발굴하여 현장에 복원·전시되어 있다(김영진, 『창해남도봉선굴 원산리청사요지 발굴기(발견보고)』, 『조선고고연구』 1991-2와 『조선도자사연구』 三國~高麗, 춘추리, 1996). 요지 복원 이후 원형유 직선 남사암 南秀雄의 『圓山黑磁跡と開城周の靑磁資料』, 『東洋陶磁』 Vol. 22, 東洋陶磁學會, 1992-94, pp. 105-120가 있으며, 비교적 상태가 좋은 사진 시료는, 『조선유적유물도감』, 12권, 고려(편 3,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에 게재되어 있다.

6) 강진 청자요지의 변천과정에 관한 초보적 연구는 野守謙이 하였다(『高麗陶磁의 研究』, 『清稿』, 1945). 해방이후 자료조사 보고서는, 崔澤雨, 『韓國靑磁陶磁址』, 한국청사문화연구원, 1982에 전국의 청자요지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강진 청자요지에 관해서, 해강도자미술관에서 1991년 정비한 지표조사 자료용 종합 분석한 한 고서가 있다(『康津의 靑磁窯址』, Ⅱ冊, 海康陶磁美術館·康津郡, 1992). 이 보고서에 의하면, 강진에는 189개소의 기마터가 있는데, 출토품의 일식을 기준으로 日射底碗 계통의 輪形底의 隆 隱刻靑磁 계통, 象眼靑磁 계통의 요지 수는 45개소, 130개소, 92개소로 나뉘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약 80개소는 동일한 장소에서 시차 양식이 다른 두기지가 겹쳐있고 있음이 밝혀져 있다.

7) 뒤에 각주 18)을 참고.

8) 1996년 전남 영암군 聖龍寺址五層石塔舍利乳에서 『統和二十七年(1009)銘 塔誌石』과 함께 발견된 『靑磁 聚女 有蓋鉢』으로 통일신라시대 금속제 有蓋鉢과 안일 지물도 陶器有蓋鉢의 형식이 같은 계통으로 초기청자시대의 표식적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이 유개완은 전형적인 원 고산 일흔저완과 광범하는 유개발에 비하면 규모가 작으며, 이러한 형식은 일흔저완의 소멸 단계에 해당하고, '청'으로 판별되고 있다. 이 유개완의 묘사의 도판(서양중앙박물관, 『佛舍利莊嚴』, 1991, p.76) 참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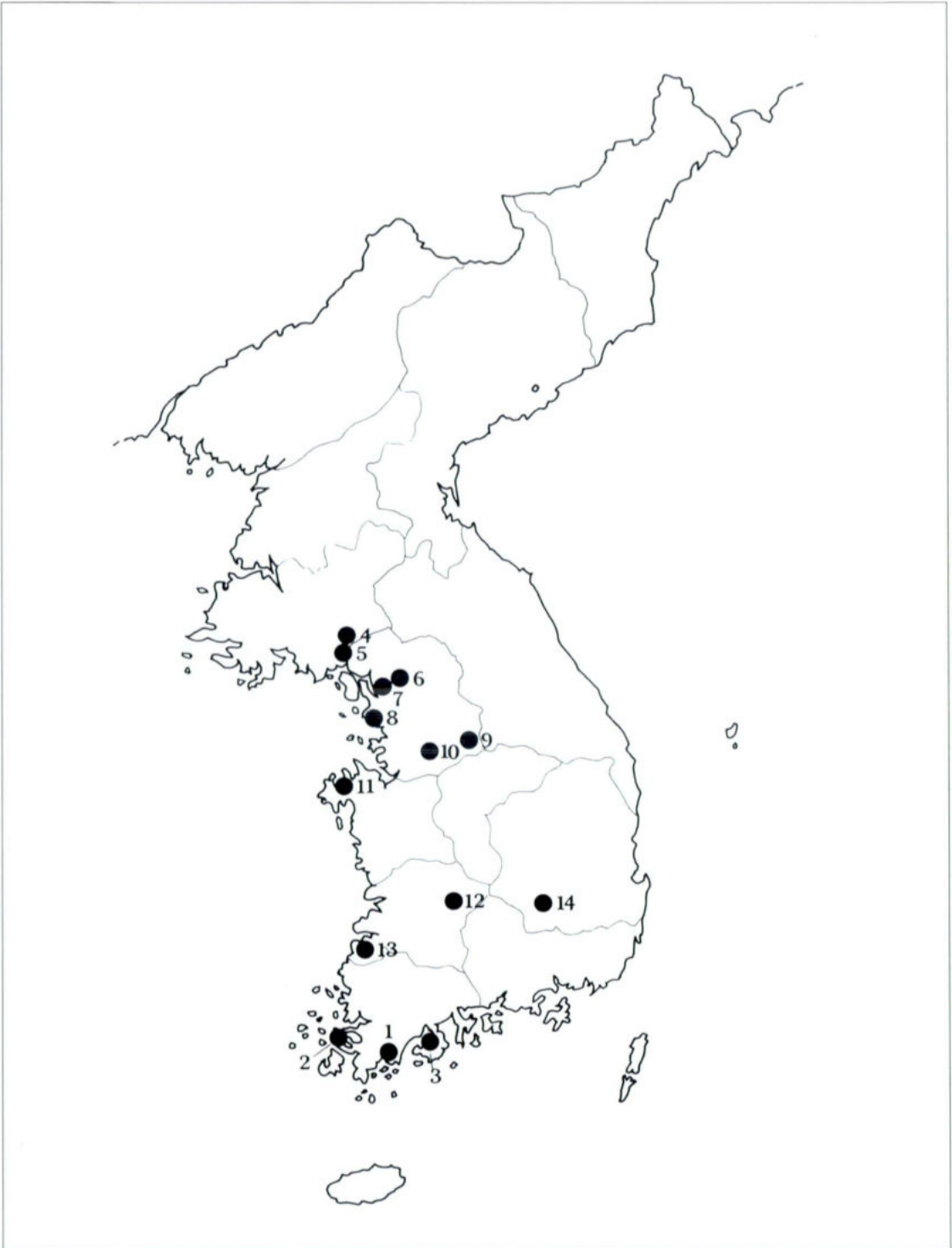
조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근의 연구 관점은 청자의 발생이라는 편년문제를 넘어서 중국의 영향으로 뒤늦게 시작한 우리 자기문화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한국적으로 변모하였는가, 그리고 바로 뒤잇는 시대에 소위 '천하제일(天下第一)'이라고 하는 비색(翡色)청자로 발전하고 세계도자사에서 유례가 없는 상감(象嵌)청자를 창출하게 되었는가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다.

이 글은 청자의 발생기와 발전기에 속하는 9~10세기, 즉 초기청자시대에 일어났던 변화의 과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면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데 있다. 특별히 필자는 11세기부터 12세기전기에 비색청자와 상감청자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창조적 원동력이 바로 초기청자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기문화가 처음 자리잡기 시작한 청자발생 단계에 대한 관심은 아주 각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청자문화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초기청자를 기존에 밝혀져 있는 한국식 토축요(土築窯)계열과 중국식 전축요(塲築窯)계열로 구분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았다.⁹⁾ 이 두 계열의 전개과정에서, 한국적 전통을 바탕으로 중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당시 동남아 세계에서 유행하는 양식을 조화시킨 토축요 계열이 한국청자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중국 것만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던 중국식 전축요가 소멸한 사실은 우리 도자사(陶磁史)에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토축요를 선택한 결과 우리는 비색청자·상감청자·진사(辰砂)청자·분청(粉靑)과 같은 독창적이며 높은 품위의 도자문화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II. 9~10세기 자요(磁窯)의 분류와 특징

라말려초인 9~10세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자기(磁器)가 제작되기 시작하고 기술 및 조형의 방향이 결정되는 발생기와 발전기이다. 이것은 청자의 역사 600년에서 보면 삼분의 일에 해당되며, 전체 변천과정을 셋으로 나눌 때 초기로

9) 塲築窯와 土築窯에 관해서는, 崔健, 「韓國初期青磁의 分類와 變遷」, 『東洋陶磁』, Vol.22, 1992-4와, 「青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미술사연구』 제12호, 1998을 참조하라. 전축요는 일정한 규격의 耐火塲를 써서 쌓았기 때문에 벽돌로 쌓은 가마라는 뜻에서 「塲築窯」라는 표현이 적당하다. 물론 토축요의 경우에도 내화토만을 쓰지 않고 일부 石材와 망송이(가마 쌓기 위하여 마치 큰 참외와 같은 형태로 빚은 내화토 덩어리)를 함께 쓰고 있어서 순수한 토축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축요의 벽돌과 비교되는 '흙으로 쌓았다'라는 점에서 「土築窯」라고 표현하였다.



(지도 1) 한국 초기청자 요지 분포도

구분되는 기간이다. 초기청자시대를 대표하는 표식적 유물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일흔저(日暈底) 형식의 완(碗)이다. 이러한 형식의 완은 전국 14개지역 100여개소의 요지에서 출토하고 있는데, 동반 기종과 장식기법 등 제작기술의 측면에서 볼 때 중기(11~12세기)의 특징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¹⁰⁾ 특히 초기에는 요구(窯構)와 관련하여 내화점토(耐火粘土)로 쌓은 토축요(土築窯)와 내화전(耐火磚)으로 쌓은 전축요(塼築窯)가 공존하면서 우열을 다투게 되지만, 중기에 들어 서면서 전축요가 자취를 감추고 토축요로 일원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초기와 중기는 비교적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초기청자시대에 우열을 다투면서 공존하고 있었던 전국 14개지역의 자요(磁窯)들을 토축요와 전축요 계열로 나누고 그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겠다.

1. 토축요 계열의 자요와 그 특징

토축요 계열의 자요는 남서해안지방 3개지역에 밀집 분포하고 있다.(지도 1 참조)

- ①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리·계율리·사당리, 칠량면 삼흥리 요지(49개소)
- ②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요지(약 30개소)¹¹⁾
- ③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요지(3개소)¹²⁾

토축요 계열의 요지들은 낮은 산비탈에 좁고 가파른 계곡을 따라 소규모 퇴적을 수십개소씩 남기고 있다(사진 1, 지도 2). 초기청자의 요구(窯構)가 발굴된 예가 없어서 단정할 수 없지만, 대체로 중기청자(11~12세기)의 요구(20m×1.2m)와 크게 다르지 않은 소규모로 추측된다. 초기단계의 축요재(築窯材)는 작은 할석(割石; 약 20cm내외의 화강암)과 내화점토를 쓰며 차차 할석 대신 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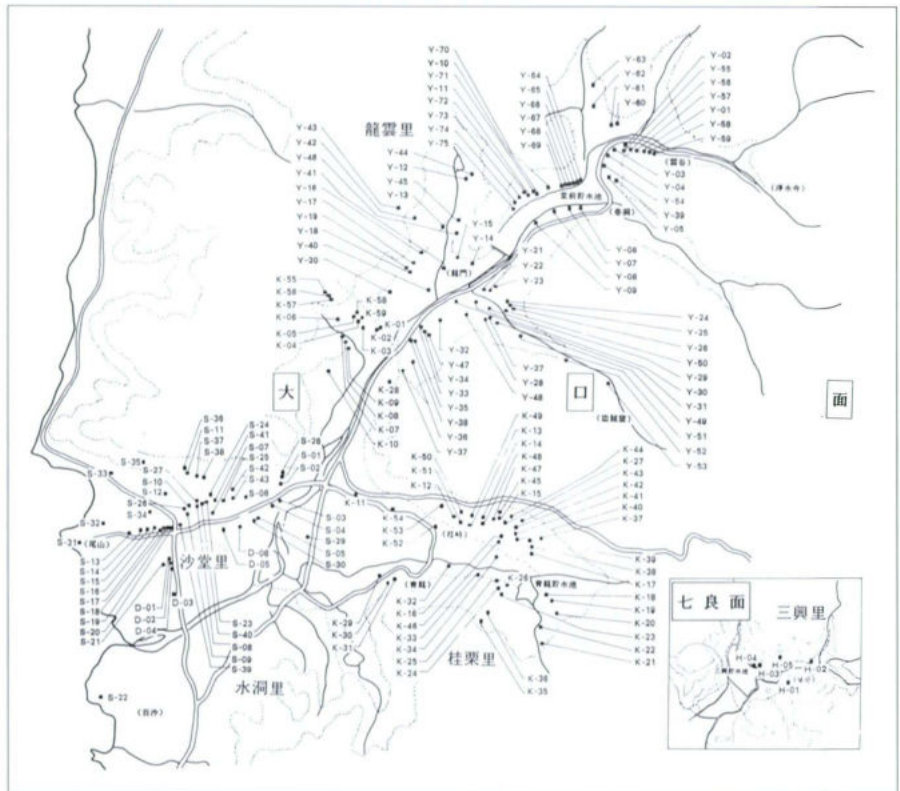
10) 초기청자와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세련기 청자의 구분은 비교적 분명하다. 예컨대, 초기청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운암이 없는 '素文'이라는 점에서 보면, 전축요 계열의 선일흔저완을 동반하는 요지인 원신리·서리 4-2중·오사리·원흥동·방사동 등은 거의 대부분 소문이며, 토축요 계열의 한국식일흔저완을 동반하는 강진군 대구면과 칠량면 요지·해남 화원면 요지, 고흥 운대리 등도 대부분 소문에서 초기청자시대에는 모두 소문이 기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축요계통은 이 단계에서 소멸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고, 계속 이어지면서 변형하는 강진요지의 경우에는 다음 단계와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즉 한국식일흔저가 소멸하면서 예리한 음각의 극화당초문·파도어문·초화문 등이 새로 나타나면서 완전한 輪形底로 전환되어 소위 세련기 청자로 접어들게 된다(崔 健, 『韓國初期南磁の分類と變遷』, 『東洋陶磁』Vol. 22, 1992년; 『康津의 靑磁窯址』, 『海剛院磁美術館』, 1992, p.26의 表(Ⅰ-1, 類型分類略稱)과,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미술사연구』제12호, 1988을 참조).

11) 해남 화원면 신덕리에 분포하는 약 30여개소(추정)의 요는 초기청자의 표식적 유물인 일흔저완을 동반하면서 일부 鼎軸窯도 제작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강진의 초기청자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器種이 다양하지 않고 丸形底碗도 나타나지 않으며 완전한 素文이다. 소위 일흔저 형식의 쇠퇴과정에서 輪形底 형식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덕리요는 1998년 일러지기 시작하여 해남 초등학교 교사 변남주선생이 최초로 보고하였고(『해남신문』 410-419호, 1998), 필자도 변남주선생의 호의로 지표 수집한 자료를 볼 수 있었다. 그 후 광주박물관이 지표조사하였다(『海南新德里靑磁窯窯址精確地表面調査報告書』, 국립광주박물관, 2000).

12) 국립광주박물관, 『전남지방도요지조사보고-Ⅱ-』, 국립광주박물관, 1988참조.



(사진 1) 강진 청자요지 원경 (용운 마을에서 도적굴을 바라보며) 용운리의 계곡과 산 밑을 따라 초기청자요지 50개소가 산포하고 있다.



(지도 2) 강진군 대구면 청자요지 분포도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에서)

기된 갑발(匣鉢)을 쓰거나 (갑발을 사용하지 않는 가마의 경우)내화점토만으로 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사진 2).

요도구(窯道具)는 통형(筒形)갑발과 낮은 찻상 모양의 상형(床形)갑발대 셋트와 원주형(圓柱形) 도침(陶枕), 차돌 조각을 3-4개 박은 받침대가 있다(도면 1). 갑발의 규격이 거의 일정하여 일훈저완을 갑번(匣燻)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발과 대접·접시·항(缸)·병(甁) 등의 기종은 도침을 받쳐 놓고 뚜껑 등 특수한 형태는 차돌 박은 받침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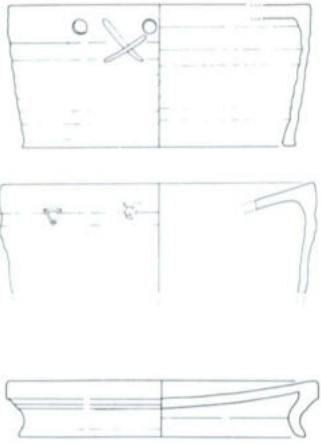
토축요 계열의 요지에서 출토하는 기종(器種)은 상대적으로(전축요 계열과 비교할 때) 다양한 편이다. 구연이 외반된 높은 굽의 상번(常燻) 발과 일훈저완을 중심으로, 옥연(玉緣)접시·화관(花瓣)접시·내만(內彎)접시 세트와 작은 평(平)접시·외반접시·전접시·뚜껑접시 세트가 뒤이어 나타나며, 광구형(廣口形) 구연의 유병(油甁)·광구병(廣口甁)·매병(梅甁)과 항(缸)·잔탁(盞托)



왼쪽 : 토축요의 축요재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10-1호요지)용운리 10호요지 구역에서 3기 이상의 가마가 확인되었으며, 축요재는 내화토가 기본이지만 모두 가마 벽과 천정 축조에 폐갑 발을 골조로 사용하였다.

오른쪽 : 토축요의 구조 (대전시 중구 구원동 청자요지 전경) 요의 구조는 강진지방의 토축요와 대체로 유사하며(18×1.2m) 가마 벽과 천정은 내화토로 쌓았으며 앞과 뒤, 봉통과 굴뚝 부분은 여러 규격의 화강암을 골조로 사용하였다. (海剛陶磁美術館 발굴조사 자료)

(사진 2) 토축요의 構造의 築窯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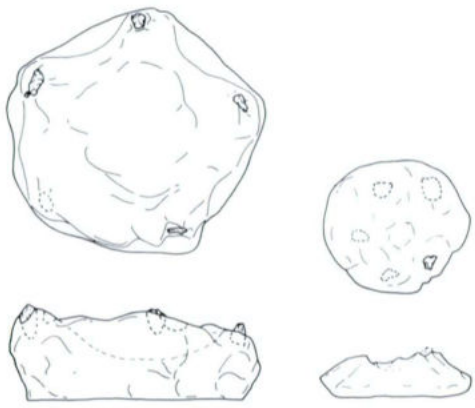
토축요 갑발

토축요의 갑발은 원통형 갑발과 상형 받침대 한 세트이다. 먼저 가마 바닥에 상형 받침대를 놓고 그 위 중앙에 그릇을 놓은 후 원통형 갑발을 씌우는 방법으로 4~5개를 거듭 썰게 된다.



토축요의 도침

낮은 원통형의 내화토 덩이로서 가마 바닥에 이것을 놓고 그 위에 그릇을 놓는다. 전축요에는 이러한 형태의 도침이 없다.



토축요의 받침

완이나 접시 또는 뚜껑 등을 정교하게 받쳐서 굽기위한 장치로서 내화토로 적당하게 빚은 후 돌출부에 어린이 송곳니 크기의 차돌을 박아서 그릇의 밑바닥을 받칠 수 있도록 조작한 것. 전축요의 경우 지원에 해당된다. (海陽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에서)

〈도면 1〉 토축요의 갑발과 요도구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일흔저원과 옥연형 화판형 내만형의 접시와 잔탁 등은 분명히 중국 당·오대 도자에 모델이 있는 중국식의 그릇들이다. 그러나 상반 발과 전접시·뚜껑접시·유병·광구병·매병·항 등의 모델은 통일신라시대의 금속기(金屬器)와 경질도기(硬質陶器)에서 모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전통적 기종으로 생각되는 것이다.¹³⁾

2. 전축요 계열의 자요와 그 특징

전축요 계열의 자요는 중서부지방, 특히 해안과 큰 강가에 분포하고 있다.(지도1 참조)

- ④ 황해남도 평천군 봉암리 요지(2개소)
- ⑤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요지(3개소)
- ⑥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요지(3개소)
- ⑦ 경기도 고양시 원흥동 요지(1개소)
- ⑧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요지(3개소)
- ⑨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요지(1개소)
- ⑩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서리 요지(2개소: ★토축요로 전환)
- ⑪ 충청남도 서산군 성연면 오사리 요지(2개소)
- ⑫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요지(6개소)
- ⑬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요지(2개소: ★토축요로 전환)
- ⑭ 경상북도 칠곡군 창평리, 대구 진인동 요지(2개소)

위와 같은 전축요 계보의 요지를 대표하며 이미 발굴조사된 봉암리·원산리·서리·방산동 요지들은 강하구나 해안을 낀 넓은 평야지대 주변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어서 토축요의 자연 환경과 큰 차이가 있다. 요지의 수는 불과 2~3개소이지만 규모가 큰 것은 직경 50~80m, 높이 3~5m 정도로 마치 작은 동산과 같은 대규모 퇴적층과 장대한 규모의 요구(40×2.2m)로서 남서해안 지방의 소형 토축요와 비교하면 용적이 약 500%가 넘는 경우도 있다(사진 3). 이 요들은 중국의 보편적인 축요법인 내화전(20×20×6cm)으로 쌓은 용요(籠窯)와 거의 유사하여 중국기술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13) 토기의 관련문제는, 崔 健, 『統一新羅時代 硬質陶器의 傳統繼承과 中國陶磁文化의 受容에 關하여』, 『韓國陶器發生에 關한 諸問題』, 第 1回東垣記念學術大會發表要旨, 1980, pp.21~27 참조.



전축요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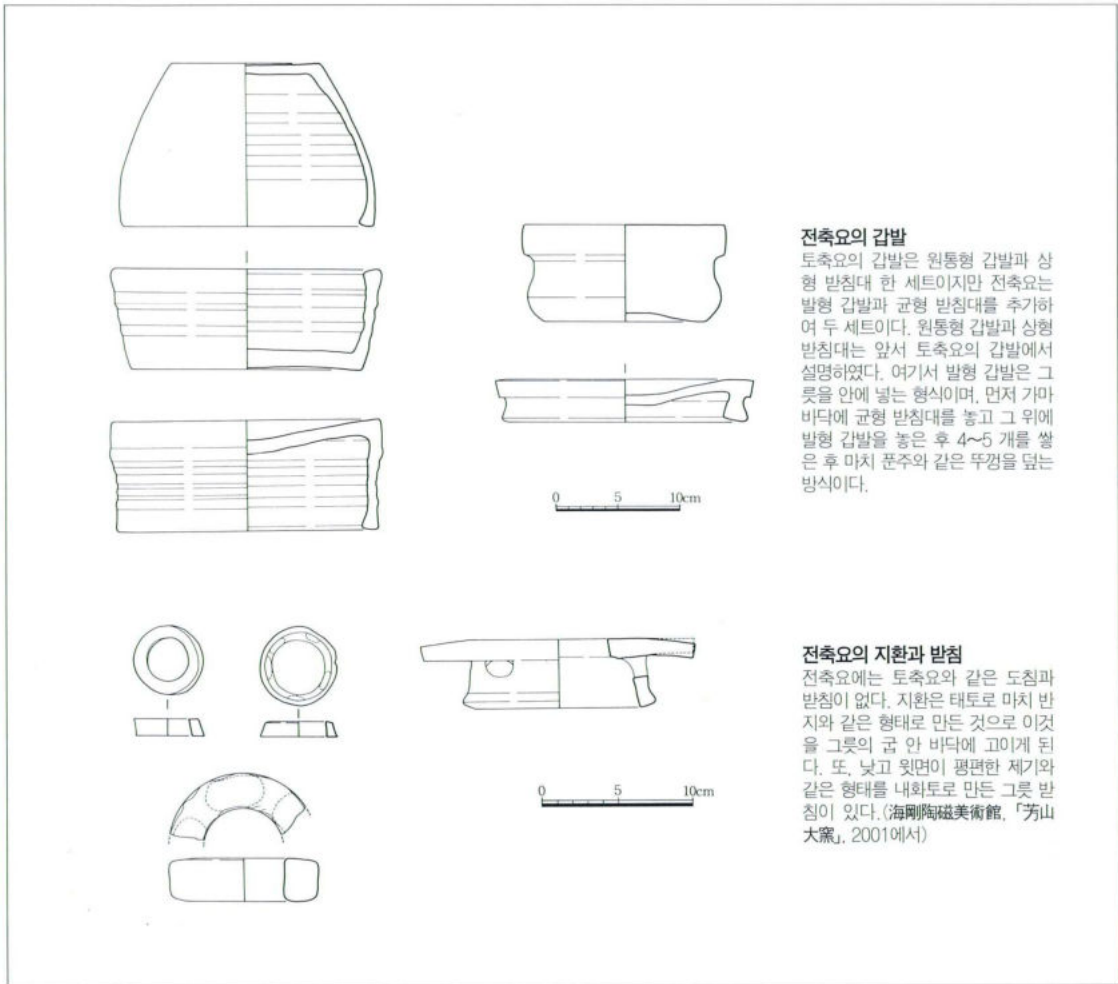
(시흥시 방산동 청자요지 전경)
 요의 구조는 배천군 원산리의 전축요와 대체로 유사하며(40×2.2m) 기마 벽과 천정은 방형 내화전으로 쌓았으며 봉통의 앞 부분만 큰 화강암을 문설주와 같이 사용하였다.



전축요의 축요재

芳山大窯의 굴뚝부분으로 정교하게 만든 방형 내화전을 엮갈려 쌓았고 그 틈새에 마치 몰타르로 붙이듯 내화점토로 붙였다. 내화전은 일차 (연질도기 정도로) 구워 낸 것인지, 또는 굵지 않고 건조만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海身陶磁美術館, 「芳山大窯」, 2001 에서)

(사진 3) 전축요의 構造의 築窯材



전축요의 갑발

토축요의 갑발은 원통형 갑발과 상형 받침대 한 세트이지만 전축요는 발형 갑발과 균형 받침대를 추가하여 두 세트이다. 원통형 갑발과 상형 받침대는 앞서 토축요의 갑발에서 설명하였다. 여기서 발형 갑발은 그릇을 안에 넣는 형식이며, 먼저 가마 바닥에 균형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발형 갑발을 놓은 후 4~5 개를 쌓은 후 마치 푼주와 같은 뚜껑을 덮는 방식이다.

전축요의 지함과 받침

전축요에는 토축요와 같은 도침과 받침이 없다. 지함은 태토로 마치 반지와 같은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이것을 그릇의 굽 안 바닥에 고이게 된다. 또, 낮고 윗면이 평면한 제기와 같은 형태를 내화토로 만든 그릇 받침이 있다. (海剛陶磁美術館, 「芳山大窯」, 2001에서)

〈도면 2〉 전축요의 갑발과 요도구

있다.

전축요의 갑발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토축요와 거의 같은 형태의 통형갑발과 상형갑발대 세트와, 다른 하나는 전축요에서만 쓰는 발형(鉢形)갑발과 버섯모양의 균형(菌形)갑발대 세트이다. 또, 여기서는 토축요식의 낮은 원주형 도침 대신 상형갑발대를 변형시킨 것을 쓰고, 역시 토축요식의 규석 박은 받침대 대신 월주요식의 반지형 받침을 사용하고 있다(도면 2).

전축요 계열의 요지에서 출토하는 기종은 상대적으로(토축요 계열과 비교할 때) 단순한 편이다. 소위 선일흔저(先日暈底) 형식의 발과 완을 중심으로, 옥연접시·화판접시·내만접시 세트가 나타나며, 외반 구연의 유병·잔탁·병·주

자 등이 있다. 이 형태들은 대부분 중국 당·오대 도자를 모델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며 토축요에서 보는 굽 높은 발과 전접시·뚜껑접시·유병·광구병·항·배병 등 통일신라시대의 금속기와 경질도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한국적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점은 중국식 형태와 한국식 형태가 공존하는 토축요와 명백하게 구분되는 특징이다.¹⁴⁾

3. 토축요와 전축요 계열의 차이점과 그 의미

도자사 연구에 있어서 요구(窯構)와 축요법·요도구·번법(燻法)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¹⁵⁾

이들은 제작기술의 전파 과정과 계통을 파악하는 결정적 요소이며 제작체제를 재구성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내용들은 토축요와 전축요의 제작기술이 계통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게 해 준다. 요구의 구조 및 규모, 축요재는 물론 요도구, 기종과 형태, 그리고 유태(釉胎)의 색까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은 이 두가지 계열이 각각 다른 계통과 전파 과정을 갖고 있음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토축요는, -당시 중국이 대규모 전축요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요구의 구조는 중국의 용요(龍窯)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축요법은 전통적 방법을 응용하여 소형화 시킨 '한국형 요구(窯構)'라고 부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전축요는 '중국형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갑발과 요도구가 각각 다른 점도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중국 축의 요도구에 대한 상세하며 신뢰도 높은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여 확신할 수 없지만, 한국 초기청자의 전축요의 경우는 대체로 당·오대의 경향과 유사해 보인다. 전축요에는 중국 월주요(越州窯)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반지형 받침이 있다. 이것의 기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완과 발을 고급화시키기 시작하는 당후기(8세기후기)부터라고 알려져 있으며 오대 월주요에 같은 형태의 받침을 놓고 외반한 굽의 발을 받치는데 사용하고 있어서 한국 전축요와의 영향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이

14) 崔健, 『韓國初期青磁의 分類と變遷』, 『東洋陶磁』Vol. 22, 1994.

15) 이 문제들에 관해서 편지의 간략한 해설이 있다. 『原津의 青磁窯址』, 海剛陶磁美術館, 1992과, 『青磁窯址의 系譜의 展開』, 『미술사연구』, 제12호, 1998을 참조 바람.

것 대신 토축요에는 차돌 박은 받침대가 있다. 이 받침대는 점차 기능과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고급청자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중에서 작은 원반 형태의 받침대는 중기청자시대(11, 12세기)부터 13세기까지 크게 성행하는 대표적인 요도구로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도구라고 생각된다. 토축요의 낮은 도침(陶枕)과 전축요에서 도침의 대용으로 사용했던 상형갑발대도 계열에 따라 각각 나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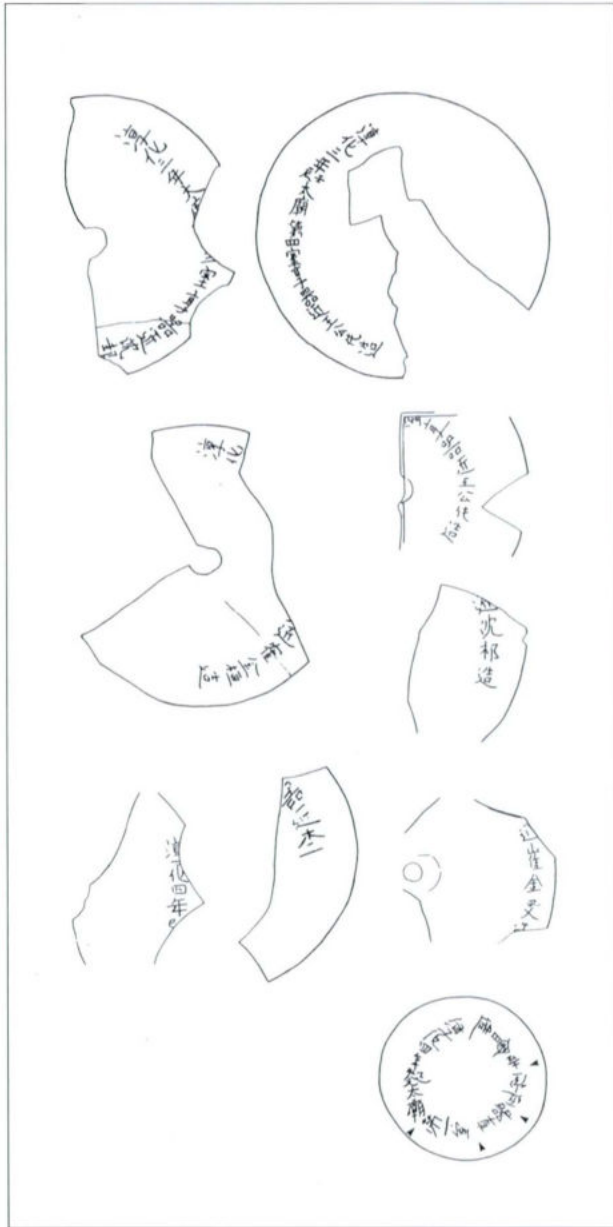
기종(器種)과 형태에 있어서, 일훈저형식의 완과 옥연접시·화판접시·내만접시와 같이 당시 동아시아적으로 유행했던 기종들은 양 계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연외반의 높은 상변발과 뚜껑접시·전접시·유병·광구병·매병 등 한국적 기종들은 오직 토축요에서만 제작되며, 갑변발·외반구연의 유병과 병·주자 등 중국 당·오대의 기종과 유사한 것들은 전축요의 전유물이다.

사실 이러한 판단은 요구와 기종 등 여러 요소를 살필 필요도 없이 단지 유태의 색 하나만 보아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청자의 특징중에 하나인, 소위 비색(翡色)으로 불리는 맑고 투명한 담녹색(淡綠色)을 띠는 회청색 유태의 초보적 상태를 이미 9~10세기의 토축요 계열의 청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그렇다.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전축요 청자의 유태 색은, 그들의 모델이 중국 청자인 것과 같이, 중국 청자의 색인 올리브-그린 색이며, 후기의 양식적 특징을 갖는 경우에 약간 밝은 회청색이 잠시 나타나지만 대체적인 것은 역시 황녹색에서 녹갈색 계통에 가깝다.

이렇게 보았을 때, 토축요는 한국적 전통을 바탕으로 중국의 첨단기술과 당시 동아시아의 유행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재구성한 창조적인 것이며, 전축요는 중국의 것을 그대로 한반도에 이식시킨 모방적인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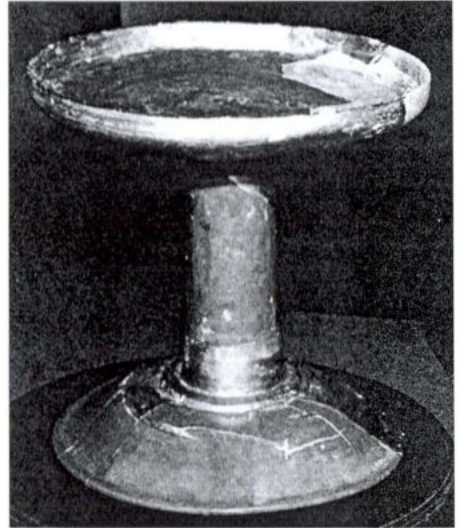
Ⅲ. 한국 자요의 변천과 흥망성쇠

앞에서 토축요와 전축요의 요구와 요도구 및 생산품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라말려 초 9~10세기에 전국적으로 우후죽순과 같이 난립하여 있던 두가지 계열의 자요들은 대부분 일정기간 동안 공존하다가 일시에 쇠퇴, 소멸하고 고려 지배계층의 취향에 맞는(또는 지배계층이 선택한) 전라남도 강진군의 토축요만 유



〈도면 3〉 원산리요지 출토 銘文

원산리 2호요지 최상층에서 출토한 절대연대가 있는 청자편들로서, 순화3년(992)과 순화4년(993)을 가리키는 자료이다. 여기에는 이화여대박물관소장의 〈청자『순화사년』(명항기)〉의 명문과 똑 같은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라는 명문도 포함되어 있다.



〈사진 4〉 원산리요지 출토 〈青磁『淳化三年』銘 豆形享器〉 배전
군 원산리 2호요지 출토 (南秀雄, 『圓山里窟蹟と開城周邊の青磁資料』, 『東洋陶磁』 Vol. 22, 1994, pp.113, 114에서)

일하게 남게 된다. 즉 전국의 중국형 전축요가 소멸하고 한국형 토축요가 유일한 적통을 계승하여 한국의 자기문화를 이끌게 된다는 말이다. 만약 중국자기를 그대로 모방했던 전축요가 적통을 계승했다면 고려의 비색청자·상감청자와 분청(粉靑)이라는 말은 세계도자의 역사에서 지취를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에 자요가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양대 계열의 자요가 공존하는 시기, 그리고 전축요가 소멸하고 토축요가 중심으로 등장하는 시기와 그 의의에 대해 살펴 보겠다.

먼저, 양대 계열의 자요가 공존하는 시기의 상한(上限)은 앞으로 자료를 보완하여 규명해야 할 문제이지만, 하한(下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각 계열마다 알려져 있는 절대편년자료를 양식 변천 과정에서 파악된 상대편년에 대입하여 추적한다면 납득할만한 하한을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전축요의 소멸시기를 가르키는 절대편년자료는 황해남도 원산리제 2호 요지 제 4층(최상층)에서 출토한 <『순화3년(淳化三年, 992)』명 청자>들이다(도면 3, 사진 4). 발굴 보고자는, 이 요지의 퇴적층 제 1·2층에서 유대가 우수한 청자와 화판형(花瓣形)접시가 출토하고, 제 3층에서 정종(定宗: 946~949년)의 안릉(安陵) 출토 청자와 유대 및 조형이 유사한 발과 화형접시, 그리고 최상층에서 이 절대연대가 새겨진 청자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¹⁶⁾ 그리고 해강도자미술관이 발굴조사한 전축요 계열의 시흥 방산동요지의 경우 요구와 유물의 형식이 대체로 이것들과 유사하여 방산동도 원산리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⁷⁾ 특히, 원산리 3, 4호요지 유물이 갑자기 조질화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방산동요지에서 최상층 유물이 조질화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며, 이 두 요지의 청자에 10세기 후반 이후의 새로운 중국청자 양식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10세기 후반에 급속히 쇠퇴하여 11세기 초 이전에 소멸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다. 보고자는 이 절대편년자료가 제 2호요지 퇴적의 최상층이며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양식을 보이는 전국의 전축요들의 소멸시기도 대체로 '순화3년(992)'이 가르키는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16) 원산리 요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성과는 비교적 풍부하다. 북한 사회과학원의 김영진은, 『황해남도봉천군 원산리정자요지 발굴간략보고』, 『조선고고연구』 1991-2와 『조선도자사연구』 三國~高麗, 춘추각, '93에서 편년자료의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7) 海州陶磁美術館, 『芳山大窯』學術叢書 第12冊, 2001 참조.

로 생각된다.

토축요의 경우 11세기전기의 절대편년자료가 2건 있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는, 전남 영암군 성풍사지(聖風寺址) 오층석탑 사리공에서 나온 <탑지석(塔誌石: '統和二十七年' 1009)>과 동반한 <청자유개발(靑磁有蓋鉢)>로서, 통일신라시대의 금속기를 모델로 한 강진 초기청자의 표식적 기종 중에 하나인 유개발과 유사하다(사진 5). 이 탑에서 발견된 유개발은 규모가 작아지고 양감이 크게 줄어든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강진요지의 일훈저완의 말기(10세기후기)형식과 동반하는 유개발의 특징이기도 하다. 물론 일훈저완의 말기형식은 유태가 조질화되고 소형화되는 경향 - 이 경향은 다른 표식적 기종인 발과 화판접시·전접시·광구병 등에서도 같다 - 이 나타나는데, 이와 동시에 중국 오대(五代)·북송(北宋) 도자와 같은 새로운 기종이 출현하고 음각기법으로 국당초문·연판문·파도어문·앵무문 등 다양한 문양 소재들이 등장하여 소문(素文)을 특징으로 하는 초기청자시대는 끝나게 된다¹⁸⁾.

(사진 5) 청자소문 유개발
전남 영암군 聖風寺址 오층석탑 사리공에서 나온 『統和二十七年(1009)』銘 塔誌石과 동반한 靑磁 薰文 有蓋鉢. 통일신라시대의 금속기를 모델로 한 강진 초기청자의 표식적 기종 중에 하나인 유개발과 유사하다.



다른 하나는 충북 제천 송계리 사자빈신사지탑(師子瀨迅寺址塔: 1022년 건립)이 있는 청자요지와 그 출토품으로 추정할 수 있는 초기청자의 하한이다.¹⁹⁾이 탑의 주변에서 구연 밑에 음각선이 있는 발과 음각 앵무문과 음각 연판문이 새겨진 발과 접시 등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식은 일훈저완의 말기형식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후 오대 월주요 청자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진 7). 이 자료들을 검토하면, 강진에서 11세기에 시작되었다고 추정해 왔던 중기청자가 지방에서도 1022년경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근거

18) 이러한 현상은 강진의 청자요지 조사에서 상대편년자료를 활용하여 밝혀진 것이다(海陽靑磁美術館, 『康津의靑磁窯址』, 1992 참조).

19) 이 사자빈신사지 주변에 청자편이 흩어져 있고 요지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원광대학교 김정희 교수님과 충북대학교 박은순 교수님이 전해 주셨다. 깊이 감사드린다. 필자는 이 곳을 몇 차례 조사하면서, 가마터를 정지 작업하고 그 영역 안에(가마터의 폐기물을 건너낸 다음) 탑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이 곳에 요지 폐기물(가마벽 조각, 불에 익은 흙, 도침, 녹아 붙어있는 청자 조각과 흙)이 탑을 중심으로 15m 안 지표상에 밀집분포하고 있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탑의 하층 기단 중대석에는 1022년(顯宗13年, 太平 2年 4月)에 조성했다는 명문이 있어서, 청자가마 운영시기와 탑의 조성시기가 어떻게든 연관된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따라서 세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청자가마가 폐쇄된 이후 1022년에 동일구역 안에 탑을 조성했을 경우, 둘째는 탑을 조성한 1022년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운영되었을 경우, 세번째는 청자가마 운영기간과 관련 없이 다른 장소에서 1022년에 조성되었던 탑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이 장소로 이전되었을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 탑이 조성된 1022년에 사찰 내부에서도 가장 중심인 탑 바로 옆(15m 이내)에서 청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할 수 있지만, 세 번째의 경우 가능성을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교원대학교 정영호 교수님과 동국대학교 문영대 교수님께 문의한 바, 한결같이 탑을 이전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 찾을 수 없으며 탑과 청자가마가 동일한 시기에 운영되었을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보아 오면, 첫째 경우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 즉 청자가마가 운영되고 있던 시기나 아니면 폐쇄된 후 1022년에 탑을 조성한 것이 되며, 따라서 이 가마 출토 청자의 하한은 1022년이 된다.



〈사진 6〉 사자빈신사탑

충북 제천 송계리 師子彌吼寺址塔은 하층 기단 중대석에 ‘… 中州 月岳 獅子 彌吼寺 …’라고 있고, 끝에 ‘… 太平二年四月日謹記’라고 썼다. 탑을 중심으로 15m 안에 가마벽 조각·도침·청자편이 산재하고 있어서 청자요지일 가능성이 높다.



〈사진 7〉 사자빈신사탑 요지 출토 청자편

구연 밑에 음각선이 있는 발파 음각 앵무문과 음각 연판문이 새겨진 발파 집시 등, 그리고 단순한 초화문의 철화청자편이 발견된다. 강진 청자와 비교할 때 11세기 전반 양식으로 추정된다.

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토축요에 있어서 초기청자시대의 하한이 늦어도 10세기말기로 좁혀진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양대 계열의 편년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늦어도 11세기초기까지는 토축요와 전축요가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축요에서 중국의 11세기 양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오히려 이 때에 와서 중국과 교류관계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원산리요의 하한을 가르키는 시기(淳化三年: 992)를 고려한다면, 전축요 계열이 10세기말기에 와서 급속히 중심에서 벗어나 조질화하면서 쇠퇴하고 곧 소멸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IV. 토축요의 승리, 그 의미

이제까지 라말려초 9세기부터 10세기 사이에 한국 자기문화의 초창기를 열었던 대표적 자기요(磁器窯)들의 양상을 살펴 보았다. 초창기 자기요들은 생산시설과 규모는 물론 생산품 등 전반적 성격이 토축요 계열과 전축요 계열로 분명하게 양분되어 있는데, 토축요가 중국 도자의 첨단기술과 한국적 전통을 조화시킨 한국형 자기라고 한다면, 전축요는 중국 도자를 그대로 이식시킨 중국형 자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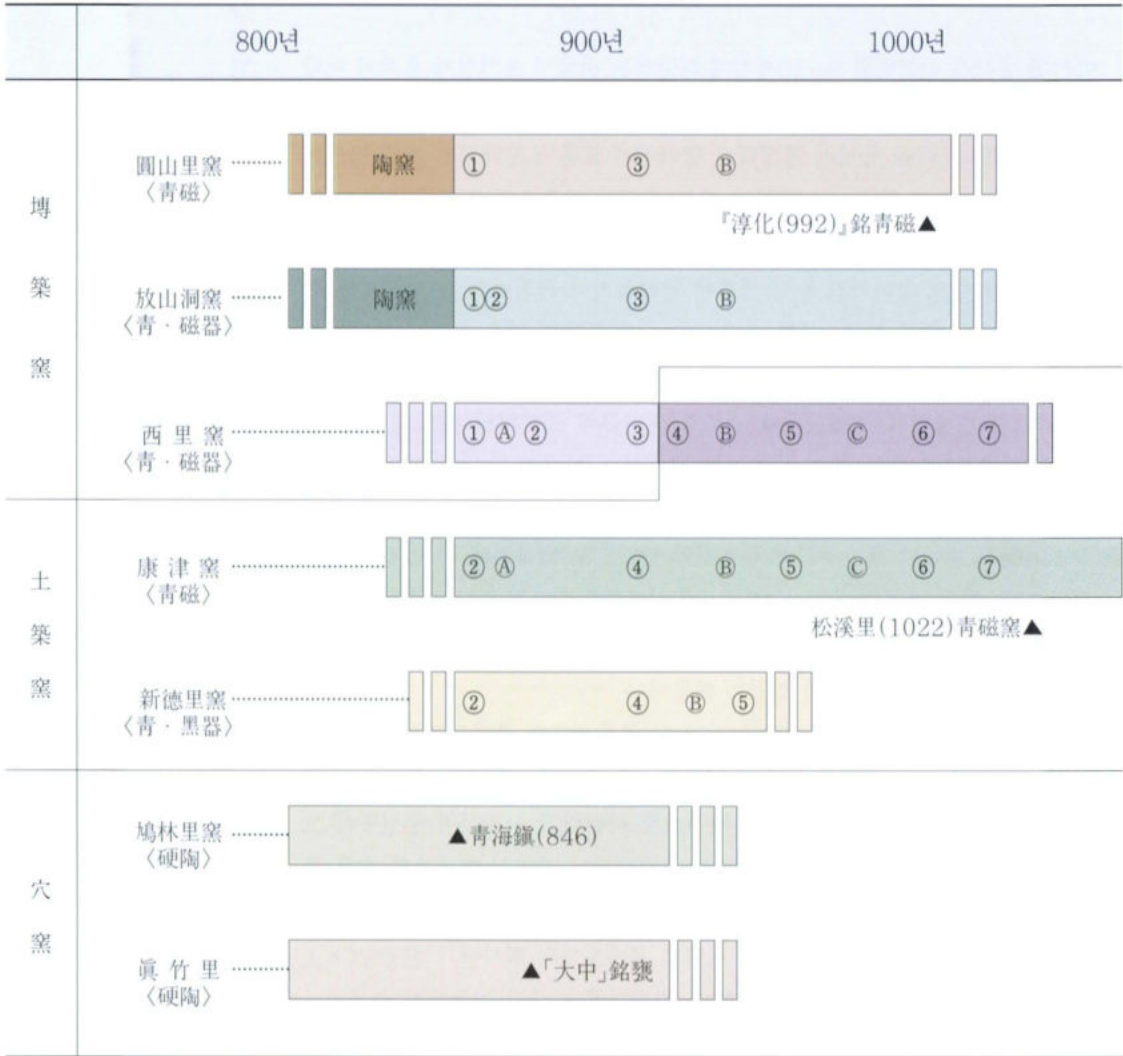
그런데, 자기문화 초창기의 수요여건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십여개소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전축요들과 규모는 작지만 백여개소의 토축요가 한반도 안에 공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추측은 고려시대 강진요지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선시대 관요인 사옹원 분원의 규모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사실이다. 조선시대 500년간 경기도 광주에 백자요지가 약 300개소이며, 고려시대 500년간 강진 청자요지는 약 200개소이다. 이 요지 수를 고려하면, 백년동안에 약 40~60개소의 요가 운영되었고 10년을 주기로 일정한 구역 안에 대체로 5개소 정도의 요가 공존하였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초기청자시대 중에서 -초창기인 9세기를 제외하고- 발전기인 10세기 100년동안에 강진과 사옹원 분원과 같은 소규모의 요를 기준으로 할 때, 40~50개소의 요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관련하면 9~10세기에 해당하는 전국의 초기청자 요지가 지나치게 많으며, 결과적으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들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들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특히 한국적 관습이나 기능과 다른 중국식 전축요의 청자가 소멸된 것은 마치 정해진 순서와 같이 자연스런 결과라고 생각된다.

고급청자의 주요 소비처인 수도 개경에 인접하거나 근거리에서 있는 수많은 전축요산 청자들을 둘러 놓고, 가장 원거리에 있고 규모도 작은 강진의 토축요산 청자를 선택했던 고려의 지배계층은 다름아닌 자기생산의 주체이며 소비의 주체였다. 이러한 주체들의 조형감각과 구조적 여건들이 소비처인 개성과 가장 먼 거리의 한반도 끝에 있는 강진요 청자를 선택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 선택의 사건, 즉 토축요의 승리는 한국의 청자가 중국의 기술적 영향에서 재빨리 벗어나 독자적이며 창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되었으며, 불과 백여년이 지난 12세기전기 자기문화의 종주국인 중국의 상류 사회에서, '고려 청자가 천하제일'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고려인의 수준 높은 조형감각과 과감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선택의 시기는 고려의 문물제도와 중앙집권화가 구체화되는 10세기말부터 11세기초 사이에 있었다. 이 때부터 강진요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중앙 지배계층의 취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명실공히 고려의 대표 자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만약 이 주체들이 중국식 전축요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자기문화에 있어서 고려의 위치는 영원히 중국의 변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운의 연속이 되었을 것이다. 당연히 세계도자의 역사에서 천공술(天工術)이라고 평가하는 비색청자와 상감청자, 진사기법에 대한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역시 세계도자에서 독특한 별개의 장르인 분청사기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韓國 磁窯의 系列과 變遷表



▲ 〈灰色硬陶「大中12年(858)」銘大甕片〉, 彌勒寺址 출토품

▲ 〈青磁「淳化2년(992)」銘豆形祭器〉外, 황해도 원산리窯址 2호-4차가마 출토품

▲ 충북 제천 송계리 獅子瀕迅寺塔(1022)址 磁窯 青磁類(완전한 輪形底의 碗, 除刻蓮瓣)

★ 日暈底碗

① 先日暈底: 內低曲面/底徑廣幅

② 中國式일훈저: 內저곡면/底徑 廣幅

③ 中國式일훈저: 內저곡면/底徑 峽幅

④ 韓國式日暈底 初期型式: 內低圓刻

⑤ 한국식일훈저 中期형식: 內저원각

⑥ 한국식일훈저 末期형식: 內저원각

⑦ 輪形底의 碗

★ 花瓣形皿

㉑ 花形口緣/橫斷面 曲面花瓣

㉒ 直線口緣/橫斷面 凸字形花瓣

㉓ 직선구연/횡단면 八字形花瓣



2부

磁器 發生問題와 日本에서의 研究의 過去와 現狀 / 기리 후미오

磁器發生問題と日本における研究の過去と現狀 / 吉良文男

高麗 靑瓷의 探索 / 林士民

對高麗靑瓷的探索 / 林士民

“唐宋 越窯 窯道具와 瓷器에 대한 初步的 認識” / 金英美

唐代 玉璧底의 變遷과 韓半島 해무리굽 磁器의 出現 / 朴淳發

9~11세기 龍仁 西里 白磁窯와 지방세력 / 김난옥

이

백

磁器 發生問題와 日本에서의 研究의 過去와 現狀

기라 후미오(吉良文男)

I. 第2次世界大戰 以前の 研究狀況

日本人에 의한 한반도의 考古 및 美術에 관한 近代의 研究는 1910년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陶磁와 관련된 研究로는 全羅南道 康津郡 大口面 일대의 窯址가 末松熊彦(李王家博物館) 등에 의해 발견된 1914년경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初期靑磁와의 關聯에서 말하면, 1937년 小泉顯夫(平壤府立博物館長) 등에 의해 京畿道 高陽郡 元堂面 元興里窯址, 平安南道 江西郡 荊次面 二里窯址 등이 조사되었고, 또 다음해인 1938년에는 全羅北道 鎭安郡 聖壽面 道通里窯址가 調査된 바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반도의 磁器發生을 어떻게 把握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研究가 구체적인 단서를 얻은 것은 1930년의 越州窯 發見 以來로, 이 때 처음으로 越州窯와 소위 '高麗靑磁'의 器形, 釉色, 文樣 등의 類似性이 강하다는 것이 의식되었다. 이것은 『高麗圖經』 등의 文獻을 바탕으로 高麗靑磁의 發生이 越州窯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物證的 측면에서 강하게 지지하는 것이었다. 當時의 代表的인 研究者 중 한 사람인 中尾萬三은 그 저서 『朝鮮高麗陶磁考』(1935) 本文에서 大口面의 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越州靑磁의 製陶方法이 移植되었음에 틀림없다고 한 후, 註에서 本文 執筆後에 입수한 餘姚上林湖의 破片이 高麗靑磁와 製造技術 면에서 酷似하고 있었음을 再確認하였다. 다만 당시에는 아직 越州窯靑磁의 연대관이 漠然하였으므로 靑磁가 唐代까지 소급된다는 것을 詩文 등에서 推定하였을 뿐 高麗靑磁의 시작연대에 대해서는 明確한 議論을 展開시키지 않았다. 그 한 원인으로서 問題意識 즉, 當時의 관심이 磁器의 發生 자체가 아니라 주로 靑磁의 發生에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作陶家이면서 中國陶磁를 중심으로 東洋陶磁를 폭넓게 研究한 小山富士夫 또한 高麗靑磁와 餘姚窯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인듯 보아서는 이들을 區別하기 어려울 정도로 近似한 것이 있다'고 하였다. 또 그는 '淳化四年 銘壺(當時 서울 在住 伊東橫雄 소장, 現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소장)를 調査하고 이것이 靑磁의 일종이라고 인정하며, 10世紀의 어느 단계에 오면 靑磁가 發生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高麗의古陶磁』『陶器講座22』, 1937).

第2次世界大戰 終結 以前의 高麗靑磁研究로서 가장 重要하고 또 하나의 歸結을 이루는 것이 野守健의 연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朝鮮總督府의 委託에 의해 各地의 窯址를 調査한 野守의 연구는 『高麗陶磁の研究』(1944)에 정리되어 있다. 이 글에서 野守는 高麗古墳에서 출토되는 蛇川高臺(玉甕高臺, 해무리굽)碗이 越州窯碗과 강한 類似性을 띠는 것 등에 언급하면서 '越州窯이야말로 高麗窯의 淵源이 되었음이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龍雲里窯址 등 全羅南道 康津郡 大口面의 一部, 全羅北道 鎭安郡 聖壽面 道通里窯址, 京畿道 高陽郡 元堂面 元興里窯址, 平安南道 江西郡 荊次面 三里窯址 등에서 해무리굽이 있는 것, 素文의 기형이 주류를 이루며 象嵌이 없는 점 등에 주목하여 '아마도 靑磁 最盛期 以前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단 연대관에 대해서는 第一期로 太祖19년~肅宗代(936~1105)를 設定하였으나, 淳化四年銘壺 以前에는 靑磁가 燒成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穆宗代(998~1010)경에 와서 本格的인 靑磁時代에 들어갔다고 推定하였다.

以上, 第2次世界大戰 終結 이전의 日本人들의 주요한 研究狀況을 대강 살펴 보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는 研究 자체가 거의 日本人에 의해 獨占된 상태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高裕燮이 自國의 陶磁器에 대한 깊은 愛情과 研究의 결실로서 『朝鮮의靑磁』(1939)를 저술한 것은 이 주제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특별히 銘記해 두고 싶다. 이 글에서 그가 당시 잘 알려져 있던 자료들을 고찰하고 또 여러 설을 소개하면서 '朝鮮靑磁의 發生問題는 파악되어야 하지만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매우 흥미진진한 문제인데, 現狀으로 볼 때는 斷定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 것은 아주 冷靜하고 客觀的인 태도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先學들의 견해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던 當時의 상황 가운데서 파악된 것이므로,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 연대관이 많이 曖昧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第2次世界大戰 前에 행해진 이들 研究에서 古文獻의 紹介, 淳化四年銘壺의 存在, 해무리굽碗이 中國越州窯와 관계가 있는 古式이라는 認識 등이 提示된 점은

戰後 研究의 基盤을 마련한 것이며, 또 問題提起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단계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나타나 있었음을 지적해 두고 싶다.

II. 第2次世界大戰後의 主 研究動向

敗戰後 日本에서는 한국과의 國交가 단절된 것도 한 원인이 되어 한 동안 새로운 研究가 進展되지 못하였다. 그 가운데서 주목되는 것은 尾崎洵盛가 1960년에 발표한 '9世紀前半發生說' 이다(『高麗青磁の起源に關する問題の考察上·中·下1~3』『陶說』 82 85~88, 1960). 이것은 文學史나 社會史 研究에서도 출된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었는데, 當時 唐, 新羅, 日本에 걸치는 新羅人의 活動에 주목하는 등 現在의 研究情況을 생각할 때 假說의 하나로서 先見性을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5年 한일 간의 國交가 정상화됨에 따라 兩國 研究者의 交流도 다시 시작되었는데, 韓國의 高麗青磁研究의 새로운 동향이 日本 研究者들에게 인식되고 또 中國陶磁研究의 進展에 따른 資料의 재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견해가 發表되게 된 것은 대체로 1970年代 중반부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當時의 代表的인 見解로서 長谷部樂爾의 견해가 있다. 그는 越州窯의 研究成果를 援用하면서, 新羅末 한반도 西南部의 狀況, 특히 後百濟의 甄萱이 吳越國의 錢氏와 通行한 점에 착안하여, 9世紀末이나 그 전에 '高麗青磁' -정확히 말하면 '新羅青磁' -가 存在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陶磁大系29 高麗の青磁』, 1977).

이를 前後하여 日本 研究者에게 큰 影響을 끼친 것은 崔淳雨와 鄭良謨 등에 의한 窯址調査의 情報과 견해였다. 日本語로 된 것으로는 최순우와 小山富士夫의 對談「高麗·李朝の陶磁を語る」(『東洋陶磁』 3號, 1976), 小學館版『世界陶磁全集18 高麗』(1978)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龍仁窯址에서 採集된 해무리굽 白磁碗이 匣鉢과 함께 걸러사진으로 紹介되었고, 이 窯址가 가지는 重要性이 日本에서도 認識되는 契機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무렵 吉岡完祐는 韓國에 유학와 林炳泰, 鄭良謨의 指導를 받으면서 磁器發生 問題 研究에 힘쓰고 있었다. 그 성과를 崇田大學校大學院 卒業論文으로 정리한 것이 『高麗青磁의 發生에 關한 研究』(1979)이다. 日本人의 研究이기는 하지만 韓國에서 韓國語로 發表된 것인 만큼 그 內容은 오히려 韓國에서 잘 알려져

있지도 모른다. 이것은 9世紀前半에 康津郡 龍雲里에서 靑磁가 發生하였다는 假說을 窯址調査을 통하여 立證하고자 한 것이며, 앞서 서술한 尾崎說·長谷部說의 脈絡에 이어지는 것으로 위치지을 수 있는데, 실제로 窯址 踏査, 그리고 韓國研究者와의 交流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의 研究는 韓日 간의 陶磁史研究로는 特記할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吉岡는 中國에서 海무리굽이 10世紀中葉에는 消滅한 점, 日本에서는 9世紀中期後半에 越州窯의 技術이 移入되어 있는 점, 康津郡에서 볼 수 있는 狀況은 9世紀의 越州窯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또 張保阜의 근거지가 龍雲里와 가까운 점도 감안하여 '新羅靑磁'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三上次男는 한반도의 磁器는 9世紀後半~10世紀前期에 걸쳐 수입된 越州窯靑磁·白磁·長沙窯黃釉磁를 모방하여 高麗初期 즉, 916年으로부터 十數年 사이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였다(「高麗陶磁の起源とその歴史的背景」『朝鮮學報』, 1981).

이상이 1970年代~80年代初에 나타난 日本人에 의한 주요 研究들인데, 當時에 判明되어 있던 논의들에 대한 問題點은 이 때 모두 제기된 감이 없지 않으며, 연구사적 측면에서 한 동안 큰 전개양상이 없는 시기가 계속되어 갔다.

Ⅲ. 日本의 陶磁考古學 進展과 高麗靑磁

한편 1970年代에는 후대 陶磁史研究의 큰 흐름의 하나가 되는 方法論이 점점 확대해 갔다. 그것이 바로 貿易陶磁의 研究인데, 그 最大의 契機가 된 것이 1975年 長谷部樂爾, 林屋晴三, 矢部良明 등의 노력에 의해 東京國立博物館에서 개최된 '日本出土의 中國陶磁' 展이었다. 이것이 훗날 '貿易陶磁研究集會' 등의 결성을 촉진시킨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貿易陶磁研究가 新羅·高麗初期靑磁研究에 寄與한 점은 크게 두 가지 方向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矛盾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다.

하나는 中國陶磁의 編年, 그 중에서도 越州窯를 비롯한 海무리굽에 관한 것인데, 日本各地의 遺跡調査를 통해 본 결과, 이들이 주로 9世紀段階까지의 것이었음이 判明된 점이다. 이와 같은 海무리굽에 대한 관심은 그 후 龜井明德에 의한 中國本土 出土의 海무리굽研究까지도 도출시켰는데, 그 성과로서 「唐代玉壁

高臺の出現と消滅時期の考察」(『貿易陶磁研究』13, 1993)이 있다. 이에 의하면 9世紀前半기가 中國에서의 해무리굽의 最盛期이며, 9世紀後半이 되면急速히 消滅되어 가는 様相이 엿보인다. 이 사실은 韓半島産 해무리굽의 시작시기에도 示唆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龜井는 日本의 綠釉陶器의 消長도 아울러서, '高麗靑磁란 <新羅靑磁>가 그 참 모습이 아니었을까' 라고 서술하였다.

또 하나는 日本에서 出土된 高麗靑磁 自體의 研究이다. 이를 검토한 山本信夫는, 해무리굽을 포함한 初期高麗靑磁가 11世紀後半의 遺構에서 (北宋타입인 中國陶磁와 함께) 出土되기 시작하며, 日本의 出土例만으로 본다면 앞의 연대를 소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11・12世紀の貿易陶磁器 -1980年代の編年研究を中心として-』『貿易陶磁研究』10, 1990). 이처럼 고려청자가 '늦게' 日本에서 출토되는 傾向은 初期靑磁뿐만 아니라 象嵌을 포함한 日本에서 出土되는 高麗靑磁 모두에 해당되는 듯하다. 따라서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時間差를 고려하더라도 生産地・消費地의 編年觀이 각각 차이가 나는 점은 아직까지 解消되지 않고 있다(東京國立博物館 「日本出土の舶載陶磁 朝鮮・ベトナム・タイ・イスラム」 1993, 同研究圖錄 2000).

이와 관련, 최근 하나의 견해가 제시된 바 있으므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九州 후쿠오카(福岡)市の 出土品을 再調査한 森本朝子・片山まび 「博多出土の高麗・朝鮮陶磁の分類試案 -生産地編年を視座として-」(『博多研究會誌』8, 2000)이다. 이 글에서 '11世紀: 過去에는 日本에서 出土된 靑磁에서 高麗靑磁의 初現問題가 논의된 적도 있으나, 적어도 지금까지 하카타(博多)에서 檢出된 高麗靑磁에는 內底圓刻을 형성하지 않은 해무리굽碗을 主體로 한 最初期の 高麗靑磁는 전혀 없다. 博多에서 出土된 高麗靑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①類는 生産地의 變遷에서 볼 때 第2段階의 末期에 相當한다. 따라서 博多의 出土例를 통하여 高麗靑磁自體의 初現年代를 議論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말하는 I-①類란, 海剛分類・崔健分類의 第II C類型, 國立中央博物館 「康津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의 10號窯第1層, 太宰府分類의 I類를 포함한 것이다. 今後 消費地遺跡에서 分類할 때, '初期靑磁'의 概念規定과 보다 精確한 형식학적 記述이 要求되겠지만, 消費地의 見解와 年代觀는 아직까지 生産地의 그것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日本 陶磁考古學에서 初期靑磁를 생각할 때, 參考가 될 수도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앞의 龜井說 部分에서 말한 日本製品과 中國製品의 關係이다. 日本의 綠

釉·三彩와 灰釉陶器가 器形·裝飾 면에서 同時代의 中國陶磁과 깊은 관련이 있음은 檜崎彰一을 비롯하여 研究家들이 늘 指摘한 바이다. 이 綠釉, 灰釉陶器 중에는 數는 많지 않으나 해무리굽을 가진 것이 있으며, 灰釉陶器로 된 것은 그 出現이 9世紀後半이라고 추정되고 있다(齋藤孝正 『越州窯青磁と綠釉·灰釉陶器』, 2000). 綠釉陶器로는 9世紀라고 생각되는 窯址에서 해무리굽 또는 그에 準한 疊付(接地面)가 넓은 굽을 가진 碗이 出土되고 있다. 이로 인해 日本에서는 中國陶磁의 자극 아래에 9世紀段階에 해무리굽 碗이 生産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日本과 한반도에서 도자기를 생산하는 상황이 반드시 병행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越州窯와 관련시켜서 생각해 볼 때,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실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V. 近年의 生産地調査 進展과 日本에서의 研究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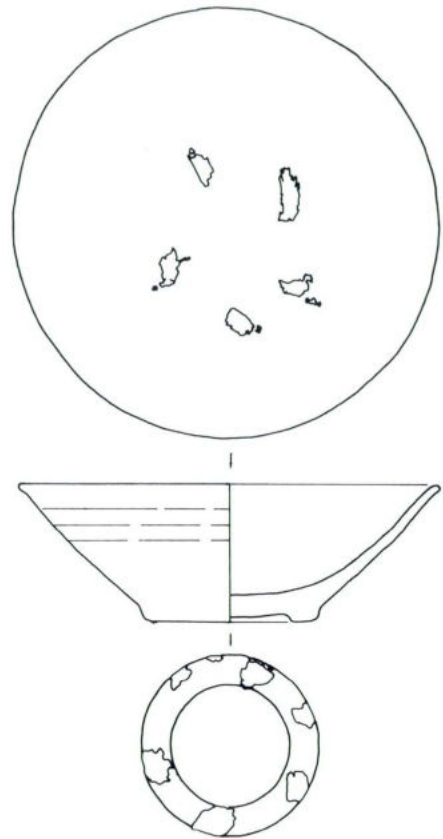
1980年代 이래 韓國에서는 鄭良謨에 의한 慶州遺跡出土青磁의 再檢討, 또 그 외에도 窯址調査, 再調査가 進展되었으며, 특히 湖巖美術館에 의한 龍仁西里窯址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행해진 黃海南道 平川郡 圓山里窯址의 發掘調査는 初期青磁를 연구하는데 晝期的인 새 展開樣相을 보였다. 이 양상은, 日本側의 입장에서 볼 때 當然한 것이지만, 生産地의 研究發表를 전해들어야 만이 見解를 피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또 한국어에 익숙한 研究者層이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自體的으로 研究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狀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生産地에 대한 새로운 情報과 그 解釋이 日本研究者에게 어느 정도 전달·인식되게 된 데에는 두 가지의 큰 계기가 있었다.

하나는 1990年 國立中央博物館에서 열린 韓國考古美術研究所主催 『韓國磁器發生에 관한 諸問題』라는 學術大會이다. 이 때는 日本에서 檜崎彰一, 龜井明德가 참석하였으며, 각각 日本古代의 施釉陶器와 越州窯의 編年에 관한 發表를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金載悅의 「龍仁初期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가 극히 중요한 提言을 내포한 것이었음은 여기서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1992年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日本의 東洋陶磁學會大會이다. 이 때 韓國에서는 鄭良謨, 尹龍二, 崔健이 참석하였으며, 伊藤郁太郎가 高麗陶磁史 研究의 문제점을 총괄하였다. 初期青磁에 대해서는 崔健이 窯構造, 製作技術,

製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編年觀을 발표하였고, 日本·韓國 研究者간의 討論이 이루어졌다. 또 圓山里窯址와 그 出土品을 實見해 온 小田富士雄가 슬라이드와 함께 緊急報告를 하였다. 이 대회의 발표 및 토론은 『東洋陶磁』 22 (1992-94)에 수록되어 있다.

圓山里窯址에 관해서는 이 大會 직후에 南秀雄가 현지를 가서 口頭發表를 한 후 논문으로 발표하였고(「圓山里窯跡と開城周邊の靑磁資料」 『東洋陶磁』 22, 1992-94), 그 외에 吉良文男도 1997年 現地 및 平壤의 國立中央歷史博物館에서 保管되어 있는 出土品을 實見하여 黃海南道 峰泉郡 鳳岩里 窯址, 韓國西部의 諸窯址 出土品과 함께 口頭發表한 바 있다(「朝鮮半島中西部の高麗陶磁」 東京國立博物館における東洋陶磁學會研究會, 1998).¹⁾(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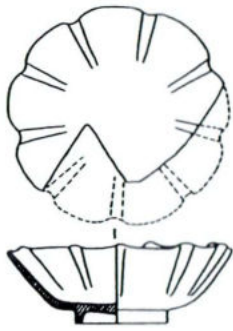
<도면 1> 靑磁碗
(圓山里窯址 堆積層에서 採集)

V. 多葉花形접시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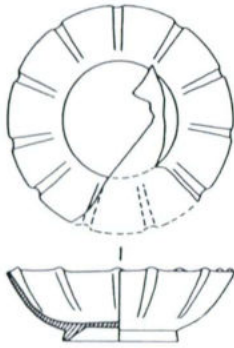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발굴된 龍仁 西里, 圓山里, 始興市 放山洞과 表面調査가 이루어진 全羅南道 海南郡 花源面 新德里 등의 조사를 통해서 새로 제기된 諸問題 중 특히 두 가지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塼築窯와 土築窯의 관계이다. 또 하나는 多輪花形皿(多葉花形접시)의 존재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崔健 등이 상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후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私見을 간단히 피력하고자 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磁器 發生問題를 논할 때, 器形 면에서 처음 주목된 것은 해무리굽 碗이며, 越州窯와의 관계에서 戰前부터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밖에도 盤口瓶, 水注, 花形鉢 등의 器形이 주목받았으나 해무리굽碗만큼 논의가 심화되지 않았으며, 연대문제에 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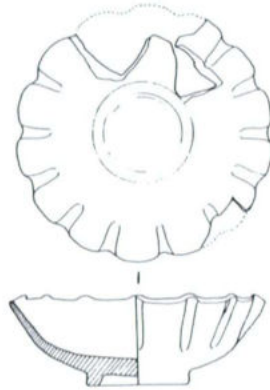
1) 여기서는 '한반도 중서부' 라는 개념으로 京畿灣을 둘러싼 분포를 보여주는 諸窯를 개괄 하며, 이들이(仁川 景西洞 窯를 제외하면) 開城이 首都가 된 것을 계기로 증대한 畿內 인 구와 器皿의 수요에 대응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主旨를 假說的으로 지적하였다.



〈도면 2〉 靑瓷花形접시
陝西省黃堡窯址 五代層出土
(陝西省考古研究所, 『五代黃堡窯址』, 文物出版社, 1997에서)



〈도면 3〉 靑瓷花形접시
陝西省黃堡窯址 五代層出土
(陝西省考古研究所, 『五代黃堡窯址』, 文物出版社, 1997에서)



〈도면 4〉 白瓷花形접시
遼寧省朝陽北塔地宮出土
(朝陽北塔考古勘察隊 『朝陽北塔天宮地宮清理簡報』 『文物』(1992-7에서))

않고 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상기의 여러窯에서 형식적인 차이를 보이면서도 공통적으로 10葉 전후의 화형접시가 확인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기형은 종래 중국

唐代的 대표적인 기형 중 하나로 알려진 5葉 전후의 화형접시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화엽의 수적 차이에 그치지 않고 造形 感覺 면에서도 차이를 느끼게 한다. 특히 아가리는 山 모양으로 된 부분이 낮거나 직선적이며, 꽃잎 모양을 만들 때 側壁을 가는 선으로 陰刻하는 것이 아니라 폭이 넓은 홈으로써 器壁에 凹凸이 나도록 만드는 방법이 사용된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방법은 화형을 이룬 다른 기형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成形法의 계통을 달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器形, 造形法 면에서 그것들과 공통적인 것을 생산한 것이 분명한 것은, 중국에서는 陝西省黃堡窯(北宋 이후의 耀州窯)뿐이다.²⁾ 여기서는 폭이 넓은 홈으로 구획되는 多葉花形小鉢, 접시類가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보고에 의하면 대체로 五代中葉~末에 걸친 시기가 同 양식의 盛行期였다고 한다.³⁾(도면2, 도면3) 한반도의 여러窯에서 출토된 多葉花形접시는 현재 3 내지 4 가지 型式으로 분류되어 있으며,⁴⁾ 앞으로 각 형식의 대응관계를 검증해 갈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이 五代黃堡窯의 제품과 공통된 양식이라는 파악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窯址 이외의 유적에서도 이와 같은 양식의 접시가 출토되고 있는 지도 문제가 되겠으나, 내가 본 자료 중에는 거의 없다. 다만 그 계통에 이어서

2) 陝西省考古研究所 『五代黃堡窯窯址』 文物出版社 1997. 필자는 1999년에 陝西省考古研究所를 방문, 多輪花形 그릇을 몇 점 實見할 수 있었으나, 撮影은 물론 실측·메모리지도 허가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한반도 제품과의 자세한 비교·검도를 하지 못하였다.

3) 報告에서 지적인 年代觀을 어느 정도 믿을 것인가 하는 점은 항상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그런 면에서 보면 필자가 出土品 하나하나에 대해 상세한 검증을 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遼代 墳墓의 出土品 등과 비교할 때는 年代觀에 큰 誤差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는 것으로 생각되는 자료가 2 사례 있다. 하나는 遼寧省 朝陽의 遼代 塔地宮에서 발견된 白瓷라고 하는 14葉을 가진 것이며, 重熙13年(1044) 전후에 施入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⁵⁾(도면4) 또 하나는 北京市의 遼墓에서 出土된 菊花形 白瓷로 생각되는 20엽 정도를 가진 접시로, 墓誌에서 볼 때 그 연대가 重熙22年 이전으로 상정된다.⁶⁾ 이들은 모두 여기서 말하는 10엽 전후의 多葉形보다 많은 꽃잎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五代 양식의 後裔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五代 黃堡窯의 出土品은 靑磁인 반면, 이 두 사례가 白瓷라는 점이다. 다만 설명에 의하면, 전자는 灰胎의 黃綠釉로 질이 조잡하다고 한다. 어쨌든 黃堡窯産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舊遼域內的 窯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가 상상되기도 하다.⁷⁾

이상, 이 多葉 花形접시 樣式은 중국에서도 아직 사례가 적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은 피해야 하겠으나, 器壁에 가는 선을 새겨 菊花 모양으로 만든 화형접시, 이른바 일반적인 北宋 양식과도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일단 연구 가설로서 五代 양식의 하나로 설정해 놓고, 금후 자료의 축적을 기다려보고자 한다.

한편 한반도에서 多葉 花形접시가 출토된 窯 중 圓山里 2號窯에서는 주지하다시피 4次窯(最終層)에서 '淳化三年(992)'이라는 절대편년 자료가 발견되었다. 多葉 花形접시가 나온 것은 1次窯라고 하므로 이 窯의 첫 層의 終末이라고 할 수 있다.(사진1) 여기서 圓山里 2號窯 전체의 稼動期間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지만,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多葉 花形접시를 五代的 양식이라고 가정해 놓고 黃堡窯의 편년을 고려해 볼 때, 1次窯의 稼動期는 10세기 중엽으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多葉 花形접시는 崔健이 分類한 B, 田勝昌이 分類한 B·C型式인데, 같은 型式이 출토된 放山洞, 西里, 康津龍雲里, 新德里 등의 窯들은 적어도 10世紀 중엽의 일정기간, 같은 시기에 가



〈사진 1〉靑磁花形접시 圓山里2號窯址出土(朝鮮中央歷史博物館 所藏)

4) 崔健「羅末麗初韓國磁窯의 系列과 變遷—특히 9~10世紀磁窯의 興亡盛衰를 中心으로—」(『第2回龍仁市史學藝大會 龍仁西里高麗白磁窯址의 再照明 發表論文集』龍仁市 2000)의 附表에 의하면 A, B, C라는 3分類, 田勝昌「龍仁西里窯址出土遺物의 檢討」(同上)에 의하면 A, B, C, D라는 4分類을 하고 있다.

5) 朝陽北塔考古勸察隊「遼寧朝陽北塔天宮地宮清理簡報」『文物』1992-7.

6) 北京市文物管理處「近年來北京發現的幾座遼墓」『考古』1972-3.

7) 中國北部에서는 唐代 이래로 邢窯나 定窯의 白磁가 일어났는데 遼 국내에서도 內蒙古自治區 赤峯市 林東, 乾瓦 등의 窯가 알려져 있다. 林東窯를 조사한 小山富士夫의 收集資料 중에는 白磁해무리굽 碗이 1點이 있으며, 同窯가 遼 上京府(918年建設開始)에 관계된 것이라면 10世紀의 사례로 볼 수 있다. (弓場紀知「遼上京府林東窯址의 再檢討—1944年の小山富士夫의 調査」『出光美術館研究紀要』第6號, 2000). 상술한 龜井의 연구 등을 볼 때 越州窯 등에서는 9世紀 때 해무리굽이 쇠퇴했던 것은 사실 이었지만, 중국 隸邊部에서는 그 제작이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하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즉 예를 들어 龍仁 西里의 경우, Ⅱ期層의 稼動期는 10世紀 중엽을 포함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型式의 접시와 공반된 碗의 年代觀에도 앞의 편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⁸⁾ 圓山里 2號窯를 보면 多葉 花形접시와 공반된 碗은 量産을 지향한 포개 굽기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또한 이 窯의 存在理由를 示唆하기도 하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역할이 高麗大廟에 관계된 器物 燒造였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圓山里 2號窯와 같은 型式의 碗을 유사한 기술로 구웠던 京畿道 楊州郡 長興面 釜谷里·高陽市 元興洞, 忠清南道 瑞山郡 聖淵面 梧沙里 등의 窯도 어느 시기 圓山里 2號窯와 병행하여 가동하였으며, 일정한 역할을 하고 10世紀 말경에는 소멸된 것으로 생각된다.

VI. 맺음말

한반도의 磁器 發生에 관한 연구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龍仁 西里 窯의 발굴조사를 비롯한 근년의 窯址 調査는 기존 연구에 대해 生産地 측에서 많은 實物資料를 제공해 준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窯址 調査에 입각하지 않은 논의는 성립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實地 調査에 참석하지도 못했던 필자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한 마디 덧붙여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중국, 한반도, 그리고 일본의 陶磁史를 개관할 때, 해무리굽 碗 속에 9世紀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모든 해무리굽 碗이 9世紀에 만들어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반도나 일본 등 중국에서 볼 때 緣邊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어떤 形式이 오래 잔존될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에서 '先해무리굽' '中國式 해무리굽' '韓國式 해무리굽' '해무리굽 第Ⅰ形式'

8) 圓山里 2號窯의 碗類가 전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地積中の 것도 포함하여 관찰이 가능했던 자료를 볼 때는 主體를 이루는 碗의 特徵은 다음 몇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器形: 器高가 낮고 側壁이 직선적으로 벌어지며, 굽의 직경이 크며, 접지면 폭은 5~10mm 前後의 것이 중심인데 輪 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胎土: 胎土는 緻密하고 釉는 부드럽게 녹은 것이 많았으나, 약간 斑이 생긴 것도 있다. 發色은 모두 褐色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窯 내부가 酸化된 霧圍氣였음을 보여주는 데, 가끔 파란색을 띤 것도 있다.
施釉·燒成法: 總釉이며, 경단 모양의 내화도비집받침 5~7개를 그릇의 접지면에 붙이며, 그 그릇을 몇 개 포개어 匣鉢에 넣는다.
이 특징들은 京畿道 楊州郡 長興面 釜谷里·高陽市 元興洞·始興市 放山洞, 忠清南道 瑞山郡 聖淵面 梧沙里 등 京畿灣을 둘러싼 모양으로 신채된 窯址의 出土品에 공통되어 있어 주목된다. 龍仁 西里의 碗에 대해서는 금후 자세한 보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것을 기다려보고자 한다.

'해무리굽 第Ⅱ形式' '準해무리굽'⁹⁾ 등등의 개념이 初期的 碗의 形式 名稱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 중 '準해무리굽'에 圓山里 2號窯나 釜谷里窯에서 주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포개굽기의 碗類가 포함된다면, 아마 이들은 한반도 最初期인 1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高麗時代의 初期의인 碗이라는 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또 그렇다면 新羅時代 磁器는 바로 이들을 제외한 '해무리굽 第Ⅰ形式'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 내에서는 敬稱, 敬語를 생략하였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 : 시노하라 히로카타(고려대학교 박사과정)

9) 韓國國立中央博物館『康津翰雲里青磁窯址發掘報告』, 1937년에는 '해무리굽 第Ⅰ形式'에 '中國式해무리굽'과 '準해무리굽'이라는 두 類型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두 類型에 대해서는, 민의 유자가 圓山里 2號窯 등에서 출토된 포개굽기로 만들어진 제품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면, 선자와는 다른 계통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식상 따로 구분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백

磁器發生問題と日本における研究の過去と現状

吉良文男

I. 第2次世界大戦以前の研究状況

日本人の朝鮮半島に関する考古ないし美術に対する近代的な研究は1910年ごろから始まった。陶磁関係では、全羅南道康津郡大口面一帯の窯址が末松熊彦(李王家博物館)らによって発見された1914年あたりがその出発点であるといえる初期青磁との関連でいえば、その後1937年には小泉顯夫(平壤府立博物館長)らによって京畿道高陽郡元堂面元興里窯址、平安南道江西郡苧次面二里窯址が、翌1938年には全羅北道鎭安郡聖壽面道通里窯址が調査されている。

ところで、朝鮮半島における磁器發生をどのように把握するかという日本での研究が具体的な手がかりを得たのは、1930年の越州窯の発見以来で、このときはじめて、越州窯といわゆる「高麗青磁」との器形、釉色、文様の強い類似性が意識された。これは、『高麗圖經』などの文獻を基とする、高麗青磁の發生が越州窯と関係があるであろうという推定を物證の面から強く支持するものであった。当時の代表的な研究者のひとりである中尾萬三は、その著『朝鮮高麗陶磁考』(1935)のなかで、本文において、大口面の地理的條件からして越州秘色瓷の製陶方法が移植されたに違いない、と述べたあと、註において、本文執筆後に入手した餘姚上林湖の破片が高麗青磁と製造技術の點で酷似することを再確認している。ただ、そのころはいまだ越州窯青磁の年代觀が漠然としていたため、秘色青磁が唐代にさかのぼるであろうことは詩文から推定したものの、高麗青磁の始まりについては明確な議論を展開しなかつた。その理由のひとつには、當時の關心が主として翡色青磁の發生にあつて、磁器の發生そのものではなかつたという問題意識のありかたがあつたと思われる。

一方、中國陶磁を中心に東洋陶磁を広く研究し、自身作陶家でもあつた小山富士夫は、やはり高麗青磁と餘姚窯との類似に着目し、「一見これを區別し難いまで近似したものがある」と述べている。また彼は「淳化四年」銘壺(當時ソウル在住伊東 楨雄藏、現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藏)を調査し、これを一種の青磁と認め、10世紀のある段階には青磁が発生していたことを指摘した「高麗の古陶磁」『陶器講座22』1937)。

第2次世界大戦終結以前の高麗青磁研究として最も重要で、またひとつの歸結をなすものは野守健のそれであることは周知のとおりである。朝鮮總督府の委嘱により各地の窯址を調査した野守の研究は「高麗陶磁の研究」(1944)にまとめられている。このなかで、野守は高麗古墳から出土する蛇目高臺碗が越州窯碗との強い類似性をもつことなどに觸れ、「越州窯こそ高麗窯の淵源となつたことが認定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述べている。そして、龍雲里窯址など全羅南道康津郡大口面の一部や、全羅北道鎮安郡望壽面道通里窯址、京畿道高陽郡元堂面元興里窯址、平安南道江西郡苧次面二里窯址で蛇目高臺(玉壁高臺、ヘムリクブ)のあること、素文の器が主であつて象嵌がないことなどに注目し、「恐らく青磁最盛期以前に屬すべきものと認められる」としている。ただ年代観としては、第一期として太祖19年から肅宗代まで(936~1105)を設定したが、淳化四年銘壺以前には青磁は焼成されてい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穆宗代(998~1010)ごろ本格的な青磁の時代に入つていったと推定した。

以上、第2次世界大戦終結以前の日本人の主な研究状況をかいつまんで述べた。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當時は研究そのものが日本人によってほとんど獨占されている状態であつた。そのなかにあつて、高裕燮が自國の陶磁器を深く愛しつつ研究し、『朝鮮の青瓷』(1939)を著したことは、この主題とは直接関係しないかもしれないが、特に銘記しておきたい。このなかで高が、當時知られていた資料を考察し、また諸説を紹介したうえで、「朝鮮青瓷の發生問題は把まるべくして未だ握まれてゐない甚だ興味ある問題であるが、現状としては斷定されない問題」としているのは、まことに冷靜、客觀的な態度であるといつてよいであらう。

さて、これらの先學の見解は、當時の限られた資料のなかでのそれであるので、現在の日でみると、年代観には多分に曖昧なところがあることは當然である。しかし、第2次世界大戦前に行われた。それらの研究のなかから、古文獻の

紹介や、淳化四年銘壺の存在、蛇目高臺碗が中國越州窯との関わりをもつ古式のものであるとの認識などが示されたことは、戦後の研究の基盤をなしたものであり、問題提起という点では基礎的なものがこの段階ですでにかなり示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を指摘しておきたい。

Ⅱ. 第2次世界大戦後の主な研究動向

敗戦後の日本では、韓国との國交が閉ざされたこともあり、しばらくは新しい研究の進展はなかった。そうしたなかにあつて注目されるのは、尾崎洵盛が1960年に発表した「9世紀前半發生説」である（「高麗青磁の起源に關する問題の考察 上・中・下1～3」『陶説』82, 85～88, 1960）。これは文學史や社會史の研究から導かれた可能性を述べたものであるが、當時の唐、新羅、日本にまたがる新羅人の活動に目を向けるなど、現在の研究状況を考えるとき、ひとつの假説として、先見性を含むものであつたといえよう。

1965年に日韓の國交が正常化すると、兩國の研究者の交流も再開したが、韓国における高麗青磁研究の新しい動向が日本の研究者に認識され、また中國陶磁研究の進展に伴う資料の見直しを通じて、新しい見解が發表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だいたい1970年代のなかごろからであるといつてよいであろう。當時の代表的な見解として長谷部樂爾の考え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長谷部は越州窯の研究成果を援用しつつ、新羅末の朝鮮半島西南部の狀況、特に後百濟の甄萱が吳越國の錢氏と通行したことにも着目し、9世紀末ないしそれ以前に「高麗青磁」、正確には「新羅青磁」が存在した可能性を示唆した（『陶磁大系29 高麗の青磁』1977）。

これに前後して、日本の研究者に大きな影響を與えたのは崔淳雨や鄭良謨による窯址調査の情報や見解である。日本語で表現されたものとしては崔淳雨による小山富士夫との對談「高麗・李朝の陶磁を語る」（『東洋陶磁』3號, 1976）、小學館版『世界陶磁全集18 高麗』（1978）など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後者において龍仁窯址で採集された蛇目高臺白磁碗が匣鉢とともにカラーで紹介され、當窯址のもつ重要性が日本でも認識される契機となつ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このころ、吉岡完祐は韓國に留學し、林炳泰、鄭良謨の指導を受けつつ磁器

發生の問題に取り組んでいた。その成果を崇田大學校大學院卒業論文としてまとめたのが『高麗青磁の發生に關する研究』(1979)である。韓國において韓國語で發表されたものであるので、日本人の研究ではあるが、内容についてはむしろ韓國内でのほうがよく知ら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これは9世紀前半に康津郡龍雲里で青磁が發生していたという假説を窯址調査を通じて立證しようとしたもので、先の尾崎説や長谷部説の脈絡につながるものと位置付け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が、實際に窯址を踏査し、また韓國研究者と交流しつつ研究したことは、日韓の陶磁史研究のなかでは特記されるべきことであつたと思う。ここで吉岡は、中國における蛇目高臺が10世紀中葉には消滅していること、日本では9世紀中期後半には越州窯の技術が移入されていること、康津郡で見られる狀況は9世紀越州窯に類似する點が多いことなどから、張保阜の根據地が龍雲里に近いことも加味して、「新羅青磁」の存在を主張した。

これに對して三上次男は、朝鮮半島における磁器は、9世紀後半から10世紀前期にかけて輸入された越州窯青磁・白磁・長沙窯黃釉磁の模倣として高麗朝の初期、すなわち916年から十數年の間に作られ始めたものではないかと推定した(「高麗陶磁の起源とその歴史的背景」『朝鮮學報』1981)。

以上が1970年代から80年代初めに現れた日本人による主な研究であるが、當時までに判明していたことからすると、ほぼ問題點が出盡くした感があり、しばらくは大きな展開のない状態が續くことになる。

Ⅲ. 日本における陶磁考古學の進展と高麗青磁

1970年代には、一方で、その後の陶磁史研究の大きな流れのひとつとなる方法論が廣まってくる。貿易陶磁の研究がそれで、最大の契機をなしたのが1975年に長谷部樂爾、林屋晴三、矢部良明らの努力によって東京國立博物館で開催された「日本出土の中國陶磁」展である。これが、のちの「貿易陶磁研究集會」などの結成をうながす直接のきっかけになった。この貿易陶磁研究からの新羅ないし高麗初期青磁研究に關する寄與は、大きくふたつの方向があり、相互に矛盾する結果を生んできたように見える。

ひとつは中國陶磁の編年、なかでも越州窯をはじめとする蛇目高臺に關する

もので、これらが主として9世紀段階までのものであろうことが、日本各地の遺跡の調査から判明したことである。この蛇目高臺についての関心は、その後、龜井明德による中國本土で出土した蛇目高臺の研究をも導き出したもので、「唐代玉璧高臺の出現と消滅時期の考察」(『貿易陶磁研究』13, 1993)はその成果である。これによると、9世紀前半期が中國における蛇目高臺の最盛期で、9世紀後半になると急速に消滅していく様相がうかがわれる。このことは、朝鮮半島産の蛇目高臺の始まりについても示唆を與えるものと思われ、龜井は日本の綠釉陶器の消長とも併せ、「高麗青磁とは(新羅青磁)が眞の姿ではなからうか」と述べている。

もうひとつは、日本出土の高麗青磁それ自體の研究である。これについて検討した山本信夫は、蛇目高臺を含む初期高麗青磁が11世紀後半の遺構から(北宋タイプの中國陶磁とともに)出土し始め、日本出土例に限れば、その年代をさかのぼらないとする(「11・12世紀の貿易陶磁器 - 1980年代の編年研究を中心として」『貿易陶磁研究』10, 1990)。この高麗青磁が「遅れて」日本で出土する傾向は、初期青磁にとどまらず、象嵌を含めた日本出土の高麗青磁全般にいえるようで、生産と廃棄との間にある時間差を考慮に入れても、生産地の編年観と消費地での編年観との相違として現在まで解消されていない(東京國立博物館『日本出土の舶載陶磁 朝鮮・ベトナム・タイ・イスラム』1993, 同研究圖録 2000)。

これに関連して、最近ひとつの見解が出されているので紹介しておきたい。それは九州福岡市の出土品を再調査した森本朝子・片山まび「博多出土の高麗・朝鮮陶磁の分類試案 - 生産地編年を視座として」(『博多研究會誌』8, 2000)である。このなかで、「11世紀: 過去には日本出土の青磁から高麗青磁の初現の問題が議論されたこともあるが、少なくともこれまで博多で検出された高麗青磁には、内底圓刻をつくらない蛇ノ目高臺碗を主體とする最初期の高麗青磁は皆無である。博多出土の高麗青磁の最初期にあたるⅠ - ①類は、生産地の變遷では第2段階の末に相當する。したがって、博多の出土例から高麗青磁自體の初現年代について議論することは不可能である」と結論づけている。ここでいうⅠ - ①類は、海剛分類・崔健分類の第ⅡC類型、國立中央博物館「康津青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の10號窯第1層、太宰府分類のⅠ類を含んでいる。今後の消費地遺跡での分類において、「初期青磁」の概念規定とより正確なタイポロジーの記述が求められるということであろうが、なお生産地での見解とかなりの年代差が

あるように思われる。

日本の陶磁考古學から初期青磁を考える場合、ひとつの参考になるかもしれないのは、先の龜井説のところでも觸れた日本製品と中國との関係である。日本の緑釉・三彩や灰釉陶器が器形や裝飾において同時代の中國陶磁と強い關連を有することは、檜崎彰一をはじめとする研究家のつとに指摘するところである。この緑釉、灰釉陶器のなかに数は多くないが蛇目高臺をもつものがあり、灰釉陶器ではその出現は9世紀の後半と推定されている(齋藤孝正『越州窯青磁と緑釉・灰釉陶器』2000)。緑釉陶器においても9世紀と考えられる窯址から蛇目高臺またはそれに準ずる疊付(接地面)の廣い高臺の碗が出土している。このことから日本では、中國陶磁の刺激のもとに、9世紀段階に蛇目高臺碗の生産が行わ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日本と朝鮮半島の陶磁生産の状況が並行するとは必ずしもいえないが、越州窯との関係でいえば、後者のほうが前者よりはるかに直接かつ濃密であったことは考慮されるべきであろう。

IV. 近年の生産地調査の進展と日本における研究状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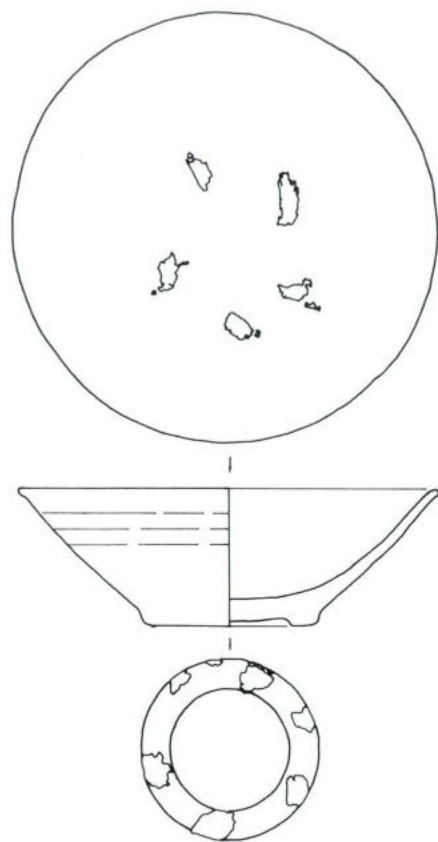
1980年代以降、韓國においては鄭良謨による慶州遺跡出土青磁の再検討のほか、窯址の調査、再調査が進展し、ことに湖巖美術館による龍仁西里窯址や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での黄海南道平川郡圓山里窯址の發掘調査は、初期青磁研究のうえで畫期的な新展開をみせることとなった。このことは逆に、日本側からすると、當然ながら生産地での研究發表を受けて初めて見解を述べるしかなく、また日本ではハンゲルを解する研究者の層が薄いことも災いして、自前の研究が進みにくい状況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もある。このような生産地の新しい情報とその解釋が日本の研究者の前にある程度明らかになったことについては、ふたつの大きな機会があった。

ひとつは1990年に國立中央博物館で開かれた韓國考古美術研究所主催「韓國磁器發生に關する諸問題」という學術大會である。この折には日本から檜崎彰一、龜井明德が参加し、それぞれ日本古代の施釉陶器と越州窯の編年に關し發表した。これを通じて當時の最新の研究状況や各發表者の見解を知ることができたが、特に金載悅による「龍仁初期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がきわめて重要な

提言を含むものであったことはここで説明する必要はないであろう。

もうひとつは1992年に大阪で行われた日本の東洋陶磁学会大会である。このとき韓国から鄭良謨、尹龍二、崔健が参加し、伊藤郁太郎が高麗陶磁史研究の問題点を總括した。初期青磁に関しては崔健が窯構造、製作技術、製品等を総合的に考察した編年観を發表し、日韓の研究者による討論が行われた。また圓山里窯址とその出土品を實見してきた小田富士雄がスライドを交えて緊急報告を行った。この大会の發表および討論は『東洋陶磁』22(1992-94)にまとめられている。

圓山里窯址に関しては、この大会の直後に南秀雄が現地に行き、口頭發表ののちに論文化している(「圓山里窯跡と開城周邊の青磁資料」『東洋陶磁』22, 1992-94)ほか、吉良文男も1997年に現地およびピョンヤンの國立中央歴史博物館保管の出土品を實見し、黃海南道峰泉郡鳳岩里窯址、韓國西部の諸窯址の出土品とともに口頭發表した(「朝鮮半島中西部の高麗陶磁」東京國立博物館における東洋陶磁学会研究會, 1998)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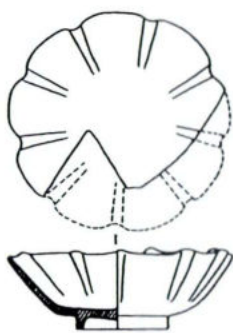


〈圖面 1〉青磁碗
(圓山里窯址 堆積層에서 採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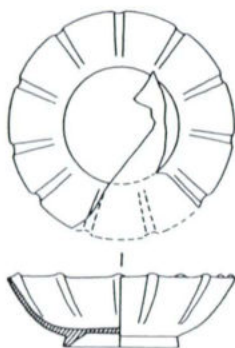
V. 多輪花形皿の位置

1980年代後半以降に發掘された龍仁西里、圓山里、始興市放山洞や表面調査が行われた全羅南道海南郡花源面新德里などの調査を通じて、新たに提起された諸問題のなかで、特に2つのことが注目される。ひとつは博築窯と土築窯との関係である。もうひとつは多輪花形皿(花形碟匙)の存在である。前者については本書で崔健らが詳細に論じるはずである。ここでは後者のもつ意味の一端について、簡単に私見を述べてみた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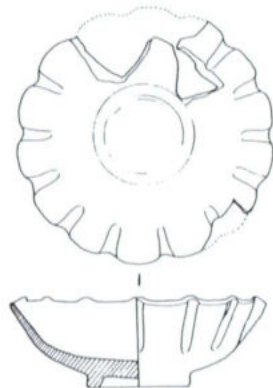
先述したように、朝鮮半島における磁器發生について、器形のうえで最初に着目されたのは蛇目高臺碗であり、越州窯との関係で戦前から多くの論議がな



〈圖面 2〉青瓷花形皿
陝西省黃堡窯址 五代層出土
(陝西省考古研究所, 『五代黃堡窯址』, 文物出版社, 1997)



〈圖面 3〉青瓷花形皿
陝西省黃堡窯址 五代層出土
(陝西省考古研究所, 『五代黃堡窯址』, 文物出版社, 1997)



〈圖面 4〉白瓷花形皿
遼寧省朝陽北塔地宮出土
(朝陽北塔考古勘察隊「朝陽北塔天宮地宮清理簡報」『文物』, 1992-7)

されてきた。そのほかの器形では盤口瓶、水注、輪花鉢などにも注意が拂われてきたが、蛇目高臺碗ほど議論は深められず、年代決定の決め手とはなっていない。そこ

に上記の諸窯で、型式の差異を含みつつも共通して10輪前後の輪花形皿が認められ、注目されるのである。この器形は、従来、中國唐代の代表的器形のひとつとして知られる5輪前後の花形皿とは明らかに違っている。それは単に輪花の数が違うということに留まらず、造形感覚においても違いを感じさせるものである。特に口縁部は山形が低いか直線的で、輪花に作る際に側壁を細線で刻むのではなく、幅廣い溝によって器壁に凹凸をつける方法を用いていることが特徴である。このような方法は、輪花形をなす他の器形には見られないもので、成形法の出自を異にする可能性を示唆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現在のところ、これらと器形、造形法で共通するものを生産したことがわかっているのは中國では陝西省黃堡窯(北宋以後の耀州窯)のみである²⁾。ここでは、幅廣の溝によって區畫される多輪花形の鉢、皿類が多く、多くの型式で作られており、報告によれば、ほぼ五代中葉から末にかけてがこのような様式の盛行期であったことが窺われる³⁾。朝鮮半島の諸窯で出土した多輪花形皿は現在3乃至4型式に分類されており⁴⁾、各型式の對應關係を今後檢證していく必要があるが、それらが五代黃堡窯の製品と共通の様式で捉えうるものという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一方、中國の窯址以外の遺跡において、このような様式をもつ皿が出土しているかどうか問題であるが、管見の資料のなかではほとんどない。ただ、その系統を引くかと思われる資料が2例ある。ひとつは遼寧省朝陽遼代塔地宮から發見された白瓷とされる十四輪花のもので、重熙13年(1044)前後に施入されたと考えられる⁵⁾。もうひとつは北京市遼墓出土の菊花形白瓷とされる。二十輪花ほ

どのもので、墓誌により重熙22年以前の年代が與えられる⁶⁾。いずれもここでいう10輪花前後の多輪花形よりも多くの輪花で構成されており、五代様式の後裔と捉えるべきものかと考える。ここで留意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五代黃堡窯で出土したものは青磁であつて、これら2例が白瓷とされている點である。ただ前者は、説明によると、灰胎の黃綠釉で粗質のもののものである。いずれにせよ黃堡窯の産ではなく、舊遼域内の窯の製品かと想像される⁷⁾。

以上のように、中國においてもなおこれら多輪花皿の様式は類例が少なく、結論を急ぐべきではないが、北宋様式として一般的な器壁に細線を刻して菊花状にした輪花皿とも異質であるところから、作業假説としては五代様式のひとつとして設定し、今後の資料の蓄積を待ちたいと考えている。

ところで、多輪花形皿を出土した朝鮮半島の窯のなかで、圓山里2號窯からは、週知のようにその4次窯(最終層)から「淳化三年(992)」という絶対編年資料が発見されている。多輪花形皿が出たのは、その1次窯であるというので、同窯の最初層の終末ということになる。圓山里2號窯全體の稼動期間をどうみるかが問題となるが、上記のように多輪花形皿を五代的様式と假定し、黃堡窯の編年を考慮するとき、10世紀中葉に1次窯の稼動期を置きうる可能性が高いように思われる。ここでいう多輪花形皿は崔健分類のB、田勝昌分類のB・C型式であるが、同型式を出土する放山洞、西里、康津龍雲里、新德里などの諸窯は少なくとも10世紀中葉の一定期間、同時期に稼動していたであろうと推定される。すなわち、龍仁西里でいえば、Ⅱ期層の稼動期は10世紀中葉を含んでい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當然ながら、この型式の皿と共伴する碗の年代観にもまたそのことが考慮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⁸⁾。圓山里2號窯でみると、多輪花形皿に伴う碗は重ね焼きによる量産を志向したもので、この窯の存在理由を示唆している。そして、その最後の役割が高麗大廟に關わる器物の焼造であつた。

このように考えると、圓山里2號窯と同じ型式の碗を類似の技術で焼いていた京畿道楊州郡長興面釜谷里・高陽市元興洞、忠清南道瑞山郡聖淵面梧沙里などの窯も、ある時期、圓山里2號窯と並行して稼動し、一定の役割を果たして10世紀末ころまでに消滅した窯であつたと考えられる。



〈寫眞 1〉 青磁花形皿 圓山里2號窯址出土(朝鮮中央歴史博物館 所藏)

Ⅶ. おわりに

朝鮮半島における磁器の發生に關する研究は、すでに長い歴史がある。龍仁西里窯の發掘調査をはじめとする近年の窯址調査は、これまでの研究に生産地の側から多くの實物資料を提供するものであつて、すでにこれらの窯址調査に立脚しない論は成り立たないといつてよい。その意味では、實地の調査に参加することもなかつた筆者がここで贅言を費やす必要はまったくないのであるが、一言付け加えて結語としたい。

中國、朝鮮半島、日本の陶磁史を概観するとき、蛇目高臺碗のなかに9世紀の様相が現れていることは否定できない。ただし、これはすべての蛇目高臺碗が9世紀の産であることを意味しない。特に朝鮮半島や日本のような中國からいけば縁邊に當たる地域では、ある形式が長く殘存する例は多い。現在、韓國において「先ヘムリクブ」「中國式ヘムリクブ」「韓國式ヘムリクブ」「ヘムリクブ第Ⅰ形式」「ヘムリクブ第Ⅱ形式」「準ヘムリクブ」⁹⁾という概念が初期的な碗の形式名稱として使われている。このうち、「準ヘムリクブ」のなかに圓山里2號窯や釜谷里窯で主體的に見られる重ね焼きの碗類が含まれるとするならば、おそらくそれらは朝鮮半島における最初期の1群に屬するのではなく、高麗時代の初期的な碗に位置付けられるのではないか、そして新羅時代の磁器は、それらを除外した「ヘムリクブ第Ⅰ形式」のなかにこそ求められるであろう。

(文中では敬稱、敬語を省略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 1) ここでは「朝鮮半島中西部」という概念で京畿圏を取り囲むように分布する諸窯を概括し、それらが(仁川・西海の窯を別にすると)開城が首都となつたことを契機に増大した畿内の人口と器皿需要に應ずるものではなかつたかと、假説的に述べた。
- 2) 陝西省考古研究所「五代黃堡窯窯址」文物出版社1997。1999年に陝西省考古研究所を訪ね、數點の多輪花形器を見賞することができたが、撮影はおろか採寸やメモ書き等も許可されなかつたので、朝鮮半島製品との細かな検討ができなかつた。
- 3) 報告の年代観をどこまで信ずるか、ということは常に検証が必要であらうが、その點で、筆者が個個の出土品についての詳細な検証を行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しかし、遼代墳墓の出土品等との比較においては年代観に大きな誤差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る。
- 4) 崔健「羅末麗初韓國磁器の系列と變遷 - 特に、9~10世紀磁器の興亡盛衰を中心に」(『第2回龍仁市史學大會 龍仁西里高麗白磁窯址の再照明 - 發表演文集 -』龍仁市2000)の付表によるとA、B、Cの3分類、田勝昌「龍仁西里窯址出土遺物の検討」(同上)によるとA、B、C、Dの4分類となっている。
- 5) 朝陽北塔考古勘察隊「遼寧朝陽北塔天宮地宮清理簡報」《文物》1992-7。
- 6) 北京市文物管理處「近年來北京發見的幾座遼墓」《考古》1972-3。
- 7) 中國北部では唐代以來、邢窯や定窯の白磁が知られるが、遼國內でも内蒙自治區赤峯市林東や乾瓦などの窯が知られている。林東窯を調査した小山富士夫收録資料のなかに白磁蛇目高臺碗が1點含まれており、同窯が遼上京府(918年建設開始)に關わるものであるならば、10世紀の例と考えられる(『場記知「遼上京府林東窯址の再検討」- 1944年の小山富士夫の調査、『出光美術館研究紀要』第6號、2000)。上述の龜井の研究などで、越州窯等では9世紀で蛇目高臺が衰退したことは事實であらうが、中國遼邊部ではその製作が繼續していた可能性がある。
- 8) 圓山里2號窯の碗類の全物はわからないが、堆積中のものも含めて観察した限りでは、主體を成す碗の特徴として次のような諸點があげられる。
器形：器高が低く、脚壁が直線的に開き、高臺徑が大きく、疊付幅は5~10ミリ前後のものを中心であるが、輪高臺としてよいものもある。
釉胎：胎土は緻密で、釉は滑らかに溶け付いているものが多いが、多少斑を生じたものもある。
発色は總じて褐色みが強く、室内で酸化雰囲気であつたことを示すが、ときに青みの強いものもある。
施釉・焼成法：總輪で、疊付に耐火土を團子状に丸めた目を5~7個程度つめて數枚を重ねて匣鉢に入れる。
これらの特徴は、京畿道楊州郡長興面釜谷里・高陽市元興洞・始興市牧山洞、忠清南道瑞山郡聖恩面梧沙里など、京畿圏を取り囲むように散在する窯址の出土品に共通することが注目される。龍仁西里の碗については、詳細をまちたい。
- 9) 韓國國立中央博物館「龍仁龍雲里青磁窯址發掘報告」1997年においては、「ヘムリクブ 第Ⅰ形式」に「中國式ヘムリクブ」と「準ヘムリクブ」との2型式を含めている。この2型式は、もし後者が圓山里2號窯などから出土する重ね焼きタイプをも含むとすると、前者とは別系である可能性が高く、形式上、分離しておいたほうがよ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る。

高麗 靑瓷의 探索



林士民 (中國 寧波市 文物考古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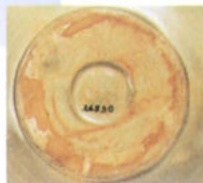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도자 생산 기술 교류는 오랜 역사를 가진다. 고려 청자의 역사와 절강 월료(浙江 越窯)의 상호교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자는 한국 청자발원지이자 고향인 강진의 요업에 관해 초보적이거나 대비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다. 연구 중 성과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그 중 성숙 자기(成熟 瓷器)의 제작 연대 문제, 고려 청자의 전성기, 한국 “옥벽저(玉璧底)”의 연대 문제, 절강 월료와 고려 제자업(制瓷業)의 교류 등, 여러 문제들을 발견하였으니, 학자들의 연구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I. 성숙 자기의 제작연대 문제

절강(浙江)의 영파와 소흥(寧·紹)지역 요지 발굴 자료를 통해 보면, 중국은 기원전 春秋戰國시대에 이미 용요(龍窯)를 사용해 原始 瓷器를 만들기 시작했다¹⁾. 東漢 시기 절강의 영파, 소흥지역 대부분 요지는, 처음에는 도기와 자기를 함께 번조하다가 후에는 성숙된 자기를 생산한다. 그들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印花 硬陶와 原始 磁器를 함께 번조하는 단계, 둘째, 원시자기를 번조하는 단계, 셋째, 원시자기와 성숙자기를 함께 번조하는 단계, 넷째, 단일한 성숙자기를 번조하는 단계이다²⁾. 唐 五代 (즉 9-10세기), 浙東 연해의 용요 기술과 청자 번조 공예기술이 한반도에 전파되었고, 한반도의 도공들은 매우 짧은 시간에 기술을 익혀 도기에서 자기로 발전 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자기 수입국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려 청자의 신기원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기 소성 기술의 도입은 두 나



〈사진 1〉 越窯玉璧底碗(唐)



라 사이의 축적된 문화 교류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라와 당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장보고를 손 꼽을 수 있다³⁾. 그는 완도를 거점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하였으며, 나아가 중국의 절동 명주항과 일본 열도의 하카다市(博多市)에 이르기까지 활동하였고, 한 때 이 지역의 무역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그의 貿易 船들은 해류와 계절풍을 이용하여, 항주만의 연해

명주항에 순조롭게 다다를 수 있었다. 唐 會昌元年(841)이전, 장보고의 무역선이 명주항—완도(청해진)—하카다(博多)항의 동아시아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취급한 물품들 중에는 자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주 배리에서 출토된 唐 玉璧底碗은 발굴 당시 “元和十年(815)”기년 명문이 새겨진 신라 도기와 함께 출토되었다⁴⁾. 그리고 錦江 南岸의 부여에서 출토된 15건의 월요 옥벽저완, 익산 미륵사에서 출토된 월요 옥벽저완, “大中二十年(858)”명문의 도기와 함께 출토된 월요 옥벽저완⁵⁾, 장보고 주재지에서 출토된 執壺, 항아리, 옥벽저완등의 월요청자들⁶⁾, 안압지 궁전에서, 唐邢窯白磁, 定窯白磁등과 함께 출토된 월요 옥벽저완⁷⁾ 등이 있다. 이들 월요 옥벽저완은 의심할 것 없이 장보고의 무역집단과 관계가 있다. 당시 장보고는 자기무역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월요 도공을 데리고 한반도로 건너갔다⁸⁾. 그러나 당시 한반도의 자기 소성은 그다지 빨리 진행되지 못했다. 즉 절동의 용요 축조와 자기공예 기술이 한반도로 전파되었으나, 반세기 이상이 지나고 반복되는 실험을 거친 후, 唐末 五代初 貞明朝(915~921) 전후에 와서야 비로서 성숙한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⁹⁾. 이러한 성숙 자기 제작 성공은 도기에서 자기로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도자사상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II. 고려 청자의 전성기

신라말, 성숙한 자기 제작의 성공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도자 기술은 고려시대에 들어 더욱 성숙해 졌다. 가마와 제작 기술 등의 개선을 거친 고려 청자는 북

송말 宣和(1119~1125)에 이르러 이미 전성기에 도달하였다. 예를 들어, 靑瓷 玉環底 敞口碗 과 靑瓷 花形 圈足盤¹⁰⁾, 이들은 고려청자 중 시기가 비교



〈사진 2〉 越窯玉璧底碗(唐)



적 이른(약 10세기 후반) 작품이다. 그리고 靑瓷 陰 刻菊花碗, 靑瓷 陽刻蓮瓣紋有蓋碗, 靑瓷 刻菊花碗, 靑瓷 陰刻菊花紋碗¹¹⁾ 등은 1123년 宋 徽宗의 사신 徐兢이 고려에서 보았던 바로 그 청자들이다. 그는 그의 저서 『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말하기를, “도자기의 푸른 빛을 고려 인은 翡色이라 한다. 근래에 와서 제작이 정교하고, 색상과 광택이 아름다워졌다.” 수려한 이들 청자는, “高麗 宮室에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宋 王室과 遼 王室에 까지 進貢 되었다”. 월요의 “秘色瓷”와 유사한 고려 청자의 “翡色”은 남송 『袖中錦』의 “天下第一” 장에서, “천하제일”로 평가 받았다. 따라서, 고려청자가 왕성하게 발달한 시기는 마땅히 10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사이로 보아야 한다.

고려청자의 전성기 때, 고려의 장인들은 순청자 외에도 아름답고 정치한 고려 상감청자를 창출해 내었다. 그 중 精品을 예로 들면, 내벽에 靑瓷 陰刻牡丹唐草紋이 있고 외벽에는 象嵌童子紋이 있는 碗¹²⁾과 靑瓷 象嵌牡丹折枝小口鼓腹瓶, 靑瓷 象嵌龍紋盒, 靑瓷 象嵌 菊花折枝紋花形蓋托, 靑瓷 花形象嵌 접시¹³⁾ 등이 있다. 특히 남송 咸淳5년(1269), “己巳” 간지명의 청자 상감 기물들 중 전형적인 花卉鳥蟲紋碗, 柳蘆水禽紋碗, 蓮花唐草紋碗, 雲鶴紋碗 ; 菊花紋盤 ; 菊花紋四耳高足罐¹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柳蘆水禽紋 “庚午”銘 완, 화훼, 조충문, 운학문 “壬申”銘 碗, 高足杯, 국화문 “壬申”銘 盤, 유로수금문, 운학문, 국화문 “癸酉”銘 碗, 盤¹⁵⁾ 등이 있다. 이들의 각종 기형과 문양들이 있는 청자 상감 제품은 고려청자 중 꽃 중의 꽃으로, 이웃 일본 등으로 수출되기도 하였다. 한반도는 자기 수입국에서 일약, 자기 수출국이 되었던 것이다.

Ⅲ. 한국 “玉璧底碗”의 연대 문제

일반적으로 古 陶瓷을 研究할 때 유형학적 분류 방법이 많이 쓰이지만, 간혹



〈사진 3〉 越窑葵口碗(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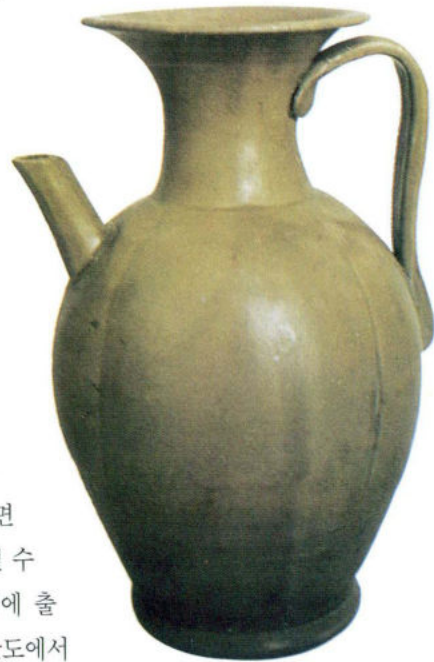
예외적으로 이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고 도자기가 시간이나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수 년 혹은 수 백년 후 고대 도자의 풍모와 유사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시간관념적으로 비약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종종 연구자를 당황하게 만든다. 따라서, 각국, 각 지역

의 古陶磁 비교연구에서는 단순한 출토물의 외관 비교가 아닌, 각종 주객관상의 조건과 요소로부터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야만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접해본 한국의 수많은 古陶磁 研究 학자들은, 한국 옥벽저의 연대문제와 제작 공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上林湖 越窯와의 생산시기 일치 등 일련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사실상, 현재 紀年墓에서 출토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중국 옥벽저 완의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唐 貞元十年(794)¹⁶⁾이고 唐末¹⁷⁾에는 거의 사라지게 되며, 오대에는 이미 玉環底로 대체된다. 두 세기 동안 유행했던 옥벽저 완은 1. 敞口, 斜腹, 2. 斂口, 弧腹의 형태등 두 종류가 있다. 이들의 소성 방법은 唐 元和 이전에는 갑발이 사용되지 않은 포개 구이가 주류를 이루며, 유약이 끝까지 잘 안 발라져 있고, 안팎에 균일하게 내화토 눈으로 받친 흔적이 있다. 唐 元和 때 갑발이 발명된 후에는, 어떤 지역 가마에서 생산된 완들 중에 유약을 전체에 바르고, 내화토 눈 흔적이 완 내지에는 없고, 외저에만 있는 것이 있다. 따라서, 확실한 연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편년자료 수집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옥벽저가 한반도로 전해진 것이 어느 시대인가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靑磁와 越窯』의 저서에서, 考古 類型學과 地層學에 근거해 월요를 월요 청자¹⁸⁾, 월요계 청자¹⁹⁾와 월요 풍격의 청자²⁰⁾라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의 개념으로 분류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월요 청자의 옥벽저 완의 조형, 유색, 소성공예 및 장식 풍격상, 그 연대의 하한선이 唐代에 그친다는 것은 십분 명백하지만, 월요계 청자의 옥벽저 완은 송대 까지 계속하여 모방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흘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전에 어떤 한국 학자가 해남 산이면 녹청자 도요지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시대가 비교적 이른 요지로, 옥벽저와 유사한 완이 출토될 뿐 아니라, 중국 黃堡 銅川窯 혹은 湖南 長沙窯와 같은 기물도 있어, 그것의 제작시기가 唐代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층상 圈足碗이 하층에 있고 옥벽저 완은 오히려 상층에 있다면서 이해가 어렵다고 하였다.

사실, 중국 월요 굽 부분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假圈足(즉, 餅形足), 玉璧底, 玉環底, 圈足.²¹⁾ 조형과 장식을 살펴보자. 이 녹청자 요지 중 鐵繪唐草紋, 鐵繪白堆花紋의 腰鼓形器, 鐵繪牡丹唐草蝶紋梅瓶, 牡丹唐草紋陰刻線紋盒, 白繪唐草紋, 鐵象嵌紋등의 彩繪²²⁾는 중국 古陶磁 산품과 비교해 본다면, 도저히 唐末 오대까지 올라갈 수 없다. 오히려 송대의 생산품에 가깝다. 이 풍부하고 다채로운 채회법은, 중국의 송대에 주로 성행하였고, 오히려 연해지역, 즉 福建에서 수출하던 자기와 비슷한 생산품들이 많다. 해남 산이면, 영산강 녹청자 요지 발굴보고²³⁾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생산 기종이 완이었고, 완 중에는 餅形足, 玉環底과 圈足の 세 종류가 있었다. 도판에서²⁴⁾ 알 수 있듯이 敞口 완이 많으며, 腹部가 깊은 것과 얇은 것 두 형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侈口碗, 敞口盤, 반구병, 壺, 執壺, 腰鼓形器 등이다. 요도구는 餅形 도검과 받침대 등이 있었다²⁵⁾. 발굴 된 물품 중에는 청자 淳化(990-994)銘 享器와 함께, “원풍통보”(1078-1084), “정화통보”(1111-1117) 등이 있었다. 그리고 진산리 고려 청자 요지 c14 측정에 의한 연대가 900±80과 920±70년²⁶⁾로 나타났다. 상술한 기년명문과 c14수치에 의거해 이 녹청자 생산 연대를 중국의 북송 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자 고고 유형학에 의한 시대구분도 중요하나, 동시에 전면적인 비교와 研究를 가해야만 합리적인 시대 구분을 얻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표준²⁷⁾ 옥벽저는 도대체 어느 시대에 출현한 것인가? 내가 보기에 가장 이른 연대는 마땅히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자기를 굽기 시작한 이후라고 생각된다.



〈사진 4〉 越窯 瓜形執壺(唐)

IV. 월요와 고려청자의 교류

원시청자로부터 따지자면, 중국의 청자를 굽는 기술은 한반도보다 적어도 2500년은 앞선다. 성숙자기가 東漢때에 출현했다고 봐도, 한반도보다는 8세기 이상 빠른 것이다²⁸⁾. 唐代 월요 청자는 대량으로 세계 각지로 운반되어 나갔다²⁹⁾. 唐말 오대초, 한반도에서는 월요 제자 기술을 유입하는 과정에서 용요 축조와 공예, 요구 따위의 일체와 시설 등이 함께 도입되었다. 필자는 강진 국제 학술 토론회에서 발표한 「중국 절강 월요가 한반도 제자업에 끼친 영향」에서 가마 구조, 소성 도구, 생산품 형태 등을 비교해 보았다. 특히, 가마 소성 공예는 과학 기술상의 직접적인 도입 혹은 전수였다고 생각된다³⁰⁾. 어떠한 형식이든, 절동 월요의 제자 공예는 이미 고려 장인들에게 받아들여졌고, 또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절동 월요의 자기 소성 기술은 당대에 이르러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니, “秘色瓷”가 바로 그 예이다³¹⁾. 좋은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경쟁의 관건은 가마 축조의 합리성, 소성 과정에서 공기를 조절하는 것 외에도, 가마 내부의 설계와 공간의 이용이 특히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갑발을 쓰지 않고 포개 구이를 했을 때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은 기물 유면에 가마 내의 재가 달라붙어 제품 유면이 깨끗치 못하고, 또한 제품을 포개서 구웠으므로 중량의 증감에 따라, 종종 일정 수량의 기물에 변형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월요는 唐 元和 즉 9세기 초, 소성 공구인 갑발과 선진적인 소성 공예를 창조한 후, 제품의 빛깔과 품질이 대폭 향상되었다³²⁾. 특히 갑발이 가마

공간 내에서 혁신적 기능을 감당해 냄으로 유면에 광택이 나며, 제품이 정치하게 되고,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켰다³³⁾. 경제적 효율과 이익의 각도에서 본다면, 확실히 “품질 의식”, “생산비 의식”과 “경쟁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하여, 제자업에 종사하는 업주와 장인들은 시종 가마 내 유효공간의 이용을 매우 중시하게 된다.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었던 한반도의 고대 가마터 자료를 통해 보면, 절동 제자업



〈사진 5〉 越窯 碗托(五代)



〈사진 6〉 越窯 金粟孔卷葉紋香薰(北宋)

기술이 직접 한반도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장인들의 지식수준, 받아들이는 정도와 고려인들의 심미안에 따라, 정서상 맞지 않는 것은 도태되었고, 적합한 것은 받아들여져 고려화 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한반도의 갑발 사용 기능 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자. 고려 초의 가마 터와 유적지에서는



〈사진 7〉 靑磁素紋盤(高麗)



〈사진 8〉 靑磁陰核菊唐草紋盤(高麗)

“월요식”의 M형의 갑발 파편이 대량으로 출토되나, 후기에 이르면, M형 갑발의 용량은 크게 감소한다. 갑발의 사용도 제한적으로 일부분의 기물에 쓰였고, 일반적으로 3층 정도로 포개 구웠다. 그리고 소성실 수직 공간의 삼분의 일이나 사분의 일 밖에 차지하지 않고, 요실 대부분이 空燒의 상태로 있다. 이미 작고한 중국 남경대학의 熊海堂 교수는 17세기 즉, 명대 萬歷 년간 까지 이런 상황은 연속되었다고 했다. 이 사실은 당대의 선진적인 월요 제자 공예가 한반도에 유입되어, 일정한 시간을 지나 자연히 퇴화되었음을 말한다.

월요와 고려 청자의 과학 기술적 교류 외에 제품의 조형, 장식 예술의 문양 상의 교류 또한 뚜렷하다. 예를 들어, 한국 학계가 12세기로 보는 靑磁牡丹折枝紋盒, 雲鶴紋敞口碗, 蓮瓣紋罐, 鸚鵡紋碗, 菊花紋蓋托 등³⁴⁾은, 시대로 볼 때, 중국의 북송에서 남송 慶元(1195~1200) 때에 이르는 시기이니, 연대의 차이가 매우 크다. 사실상, 북송 말기의 월요와 고려 청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로써 볼 때, 월요와 한반도의 자기 제작 교류 시기는 북송의 초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전형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 대비하고자 한다.

먼저, 靑磁素面碗의 경우, 조형상 敞口, 斜腹, 玉環底³⁵⁾이며, 유색이 푸른 비취 색이다. 이는 중국의 오대 월요의 전형적인 기형이고, 한국에서 출현한 것은 중국의 오대에서 북송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간 상의 차이는 매우 정상적이다. 이 기물의 외형상 고려적 특성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월요의 흔적이 역력하다(사진 7).

靑磁陰刻菊花紋碗³⁶⁾, 이 기형은 북송 시대에 많이 볼 수 있는 종류이나 이 완의 내저에는 작은 원이 있어, 남송 시대의 풍격에 가깝다. 중국 남송 기타 요지에서 균일하게 발견되는 이러한 풍격은, 월요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양으로 보면, 국화를 線刻하는 것은 월요의 경우 당, 오대에는 보이지 않고 북송때에 주



〈사진 9〉 青磁陽核蓮瓣紋有蓋盃



〈사진 10〉 青磁陰核牡丹折枝紋盒

로 출현한다. 월요의 국화문은 합류의 뚜껑에 많이 그려지고, 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데, 한국의 국화문은 기물의 내벽에 많이 있고, 또한 상하의 공간이 있어 넓은 띠 모양의 국화문을 이룬다. 이런 조합은 耀州窯의 풍격으로, 요주요의 刻花도 월요의 영향하에 이룬 독특한 장식 기법이다(사진 8).

青磁蓮瓣紋蓋碗³⁷⁾은, 실제로 高圈足碗과 圈足盤이 한 세트(set)이다. 이러한 기물들은 上林湖 가마터에서 생산된 북송 후기의 기형과 비슷하다. 받침 흔적으로 볼 때, 갑발을 쓰지 않은 포개 구이로, 완의 내,외지에 균일하게 받침 눈의 흔적이 있다. 유색 또한 균일하지 않은 한 등급 낮은 기물에 속한다(사진 9).



〈사진 11〉 青磁陰核雲紋油瓶

12세기의 器皿에 속하는 青磁線刻牡丹折枝紋盒³⁸⁾은 조형면에서 상림호 북송시대盒과 매우 비슷한데, 매우 정치하게 만들어졌으며, 유색도 좋고, 유면에 빙얼이 있으며, 모란문은 월요와 매우 흡사하다(사진 10). 蓮瓣紋雲紋油瓶³⁹⁾, 이러한 기형은 월요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으나, 송대 기타 지역 가마에서 비슷한 기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線刻된 문문과 연판 문이 완전히 월요 線刻의 풍격이다(사진 11). 雲鶴紋碗⁴⁰⁾, 그 조형이 이미 남송의 斗笠碗 풍격이지만, 운학의 선각은 월요 문양의 풍격을 가지고 있다

(사진 12). 蓮瓣文盤의 造型은 송대 월요 조형에 가깝다. 그 蓮瓣紋의 형태가 매우 깔끔한. 이러한 기물의 문양은 차라리 절강 남송 용천요와 비슷하다(사진 13). 鸚鵡紋盤⁴¹⁾은, 조형상 월요와 비슷하며 그 선각된 앵무는 월요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사진 14). 菊花紋 托具의 조형 역시 월요와 비슷하며, 특히 托器의 托盤과 托臺 조형이 거의 일치한다(사진 15).



〈사진 12〉 青磁陽核雲鶴紋盤



〈사진 13〉 青磁陽核蓮瓣紋碟

강진군 대구면 160여 곳의 요지에서 출토된 기물 가운데 90% 이상이 “옥환저식” 기물인데, 운용리 유적에서 출토된 옥환저기는 전국에서 으뜸이다. 전

라남도 고창군 아산면 유적⁴²⁾에서도 상당한 수량의 옥환저완, 반 등의 기물이 출토되었다. 이들 요지 유물 가운데 線刻 연판 문, 운학 문 등은 월요식 풍격이 강하다. 이 외에 함께 출토된 것으로 筒形 갑발과 “太平壬戌二年”(1022년)도기 파편이 있으니, 이는 이 가마에서 생산된 제품의 연대가 1020년대 전후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예를 들었던 이러한 자기의 기형과 문양으로부터,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고려는 월요의 알맹이를 먼저 받아 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인의 심미안을 가미하여 독특한 고려 청자를 재 창조 해냈다는 사실이다.

번역: 김영미(북경대학교 고고학과 박사 연구생)



〈사진 14〉 靑磁陰核點減紋大椀



〈사진 15〉 靑磁陰核菊花紋花形托蓋

1) 2) 9) 18) 19) 20) 21) 28) 29) 32) 33) 林士民, 『靑磁와 越窯』, 上海古籍出版社, 1992년 12판.
 3) 林士民, 『東亞細亞大商人—新羅 張保皋』, 2000년 中國 山東 靑島 海洋大學 海洋文化研究所, 中韓文化 교류센터등이 개최한 “장보고 해양 경영사 국제 학술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임.
 4) (日)三上次男, 『조선 반도에서 출토된 중국 당대 도자의 역사적 의의』, 『貿易陶磁史研究(上)』, 東京中央公論美術出版, 昭和62年 pp143.
 5) 17) 27) 30) 42) 林士民, 『중국 절강 월요가 한반도 제자업에 끼친 영향』, 『조선대학』 1999년 8월 논문집 pp11~14.
 6) 林士民, 『唐 오월 시기 절동과 한반도 통상 무역과 문화 교류 연구』, 『唐오월과 신라의 문화 우호 교류』, 한국 문화체육부 출판 pp67.
 7) (韓國)崔健, 『통일 신라 시기 硬質土器의 전통 계승과 중국 문화의 교류』, 『한국 청자 발생에 관한 몇 가지 문제』 pp24.
 8) (한국)국사편찬위원회 박영석등, 『장보고의 신연구』, 『원도문화원』 1992년 4월, 시사문화사 재판 pp105.
 10) 11) (한국)해강도지미술관 총서 제9집, 1999년 pp10~12, pp16~18.
 12) 13) 34) 35) 36) 37) 38) 39) 40) 41) (한국) 해강도지미술관 『해강도지미술관도록』 一輯 pp27~32.
 14) 15) (한국) 해강도지미술관 『干支銘象嵌靑磁』, 1991년, pp9~30.
 16) 연대가 제일 빠른 것으로 절강성 諸暨市 牌頭塢 紀年墓에서 출토된 자료에 의하면 唐貞元十年(794)이다.
 22) (한국) 曹基正, 『북청자 소고』, 『해남 산이면 북청자 도요지를 중심으로』, 1987년 무등 도자문화 연구원.
 23) 24) 25) 26) 목포대학교 박물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 진산리 북청자 요지』, 1992년 pp111~145, pp59~72, pp86~87, pp53~55.
 31) 林士民, 『越窯靑瓷中的秘色瓷』, 『越窯 秘色瓷』, 上海古籍出版社 1996년 pp7.

이

백



對高麗青瓷的探索

林士民（中國寧波）

中韓是友好 幫，有着悠久的交往歷史。就古代陶瓷生產而論，雙方交融與影響也是十分明顯，爲了了解高麗青瓷的歷史與浙江越窯的相互交流情，作者曾對韓國康津青瓷發源地故鄉等窯業進行了極粗淺的對比性的研究探索，在研究中獲益不少，從中也發現一些問題，現對高麗創燒青瓷的年代，高麗青瓷興旺發達的時期，關於韓國“玉璧底”年代問題以及浙江越窯與高麗制瓷業交融問題，略作論述，供學者研究參考。

I. 成熟瓷器燒造的年代問題

浙江的寧紹地區，從清理的窯爐證明，早在公元前春秋戰國時代，已經在江南使用龍窯燒制原始瓷(1)。在東漢時期，浙江的寧波，紹興地域就有一批從陶瓷合燒演進到單一的造制成熟瓷器發展的作坊，們的發展是這樣的：印紋硬陶與原始瓷合燒窯—燒原始瓷爲主的窯—原始瓷與成熟瓷合燒窯—燒單一的成熟瓷窯四 階段，并對上述四 階段作出相對的年代(2)。浙東這些燒造成熟瓷器的科學技術，到了唐代，即從9~10世紀浙東沿海的工匠將龍窯技術和燒制青瓷工藝技術傳到韓半島，使韓半島的陶工在 短的時間內就完成了由陶向瓷技術發展更新換代，從而結束了以往 從中國進口瓷器的歷史，開創了高麗青瓷生產的新紀元。這 科學技術層面上的引進傳入，也是經過 代人的努力而達到的。從新羅與唐朝交往看，關鍵的人物，可算東亞貿易圈中杰出的人物張保皋有直接的關係(3)，他以莞島爲据点，拓展海上貿易，活躍在太平洋西岸的浙東明州港與日本列島的博多港（日本博多市）之際，一度控制了這 貿易圈的主動權。他的貿易船隊利用海流和

季風，可順利到達杭州灣的沿海明州港。唐會昌元年(841)以前，張的貿易船不但來回于明州港—莞島(青海鎮)—博多港這一東亞貿易圈中，在經營中瓷器的貿易也是一項內容。

慶州拜里出土的唐玉璧底碗，該碗作為罐(長沙窯)的蓋使用，伴出有新羅制造的陶器，陶器上書中文“元和十年(815)”紀年銘文(4)；錦江南岸的扶餘出土15件玉璧底碗；益山彌勒寺遺址，出土玉璧底碗，與中文“大中十二年(858)”銘文的陶器共存(5)，張保皋駐地出土唐執壺，罐，玉璧底碗等一批越窯青瓷(6)，這當然是張直接使用的器物，輸入韓半島最遲一批玉璧底碗，是雁鴨池宮殿出土的玉璧底碗等器，伴出還有唐邢窯白瓷，定窯白瓷等器(7)，時代考證在唐末天佑四年(907)以前，這些玉璧底碗等出土，無疑與張保皋貿易團有關，張不但從事瓷器貿易，而且“還帶領越窯陶工去半島(8)”。在封建社會中，雖然把浙東的龍窯構築技術和裝燒瓷器工藝傳到半島，但在半島經過半多世紀，反復多次的實踐，才于唐末吳越初，即貞明朝前后，終於創造了真正成熟的青瓷(9)，韓半島燒制成功青瓷是由陶向瓷發展的飛躍，有時代的意義。

II. 高麗青瓷興旺發達的時代

由新羅末創燒成功的成熟青瓷，進入到高麗時代逐步走向成熟，經過近二世紀在窯爐裝燒工藝上不斷改進，到了北宋末的宣和朝時，高麗青瓷燒造已達到相當的成熟水平。例如青瓷玉環底敞口碗和青瓷花形圈足盤(10)，都是高麗青瓷中時代較早(約十世紀后期)作品，十二世紀初青瓷陰刻菊花碗，青瓷陽刻蓮瓣紋蓋碗，青瓷刻菊花碗，青瓷陽刻蓮瓣紋蓋碗，青瓷陰刻菊花紋碗等(11)，這些精制的高麗青瓷，當是公元1123年，宋徽宗使臣徐兢在高麗所見到的高麗青瓷。當時徐兢由明州港起航出使高麗，在他《宣和奉使高麗圖經》中云：“陶瓷器色之青者，麗人謂之翡色，近年以來，制作工巧，色澤尤佳，猊香爐亦翡色也，上為獸，下有仰蓮以承之，諸器惟此物最精絕。”這些精制的青瓷，“不僅供高麗宮廷使用，也進貢于宋王室和遼王室”。其“翡色”與越窯“秘色瓷”相類同，南宋《袖中錦》在“天下第一”條中，高麗青瓷被評為“天下第一”。因此說高麗青瓷興旺發達的時代應在10世紀后期至12世紀。

高麗青瓷燒造興旺發達時期，其產品除了青瓷外，高麗的工匠們還創造出美麗

而精致的高麗象嵌青瓷。青瓷陰刻牡丹唐草紋于器內，外壁則象嵌童子紋碗(12)。12~13世紀精品中的青瓷象嵌牡丹折枝小口鼓腹瓶，青瓷象嵌龍紋盒，青瓷象嵌菊花折枝紋花形托蓋，青瓷花口象嵌洗等(13)。尤其在南宋五年(1269)，支干爲“己巳”銘文器的青瓷象嵌器物一批，其中典型的花卉鳥紋碗，柳芦水禽紋碗，蓮花唐草紋碗，云鶴紋碗；菊花紋盤；菊花紋四耳高足罐等(14)。柳芦水禽紋“庚午”銘文器碗，花卉，鳥紋，云鶴紋“壬申”銘紋碗，高足杯，菊花紋“壬申”銘盤，柳芦水禽紋，云鶴紋，菊花紋“癸酉”銘紋碗，盤等(15)。這類青瓷象嵌的各種器型與紋樣的制品可算是高麗青瓷中的一鮮艷的物，并大量的輸向 國日本等，從此韓半島由瓷器的輸入國一躍成爲瓷器的輸出國。

Ⅲ. 關於韓國“玉璧底”年代問題

在古陶瓷研究領域中按照考古器物的類型學(標型學)分類來判斷 們的時代早晚，這是正確的，但是絕對不能忽視所存古陶瓷之物，可能不受時間，地域的限制，在若干年或百年后被后人 制或改造，使文物以舊的面貌或 相似的面目出現在新時代，或者在時間觀念上實現了飛躍，這種情 往往造成研究者認識上的混亂。因此，各國，各地區在對古陶瓷比較研究中，單從出土物外觀進行對比研究是不 的，還要考慮到在封建社會中，科技層面的技術傳播中，由于種種主客觀條件與因素，都要進行實事求是的，科學的剖析，才能得出較正確的結論。我在接觸許多韓國研究古陶瓷的學者中，包括有 著名的學者，交流中對於玉璧底器的年代，制作工藝問得更具體，還提出是不是年代與上林湖越窯生產的時代一致等一連串問題。

事實上對於玉璧底器碗一類，從目前紀年墓中出土的情 看，最早的時代是在唐貞元十年(794)(16)，一直延伸至唐末止(17)，五代時已爲玉環底所代替，這樣延續的時間有一百年之久，而在這百年中，僅以玉璧底碗而論，其造型只有敞口，斜腹(直腹)和斂口，弧腹二大類；論裝燒，則可分爲唐元和朝以前多爲明火迭燒，施釉不到底，內外均有泥点支燒印痕，唐元和朝發明匣鉢后，有的窯燒的器物就有滿釉，器內無支燒印痕，外底則有泥点支燒印痕。因此，要判定確切的年代，就要按紀年編年才較正確；而這種玉璧底傳至韓半島究竟是什 時代，更

要具體的分析了。我在《青瓷與越窯》著作中，對於越窯科學的，按照考古類型學與地層學分法，越窯青瓷(18)越窯系青瓷(19)與越窯風格的青瓷(20)，這三 完全不同的概念，以玉璧底器舉例，玉璧底碗越窯青瓷，其造型，釉色，燒制工藝以及裝飾風格，不僅地域有限，而且年代下限截止唐是十分明顯的；而越窯系玉璧底碗，一直延續到宋時還在 制。

韓國學者曾對海南山二面綠青瓷陶窯址作過調查，認為是比較早的窯址，不但出有似玉璧底的碗，而且還有象中國耀州銅官窯或湖南長沙窯的器物，提出 們燒造的時間是否可能到唐代？但又告訴我，從地層上圈足碗在下層，而玉璧底碗反而在上層，表示不能理解。

其實按照中國圈足變化的一般規律：假圈足(即 形足)—玉璧底—玉環底—圈足器的發展階段(21)。

從造型與裝飾，這批綠青瓷窯址中有通體鐵繪唐草紋，鐵繪白堆花紋的腰鼓形器，鐵繪牡丹唐草蝶紋梅瓶，牡丹唐草紋陰刻線紋盒，白繪唐草紋，鐵象嵌紋等彩繪(22)。這組器物就中國古窯產品推斷無論如何也到不了唐末五代時的制品，應當是宋代之產品。因為這類 富多彩的彩繪，在中國則盛行于宋代，而且大多在沿海地區，福建外銷瓷中就有不少類似的產品。海南山二面，榮山江綠青瓷窯址，從發掘報告知道(23)，以生產碗為主，在碗中有 形足，玉環足和圈足三類，從線圖中知道(24)以敞口碗為多，有深腹和淺腹二式，其次是侈口碗。再次是敞口盤，盤口瓶，壺，執壺以及腰鼓形器等，窯具僅見，支座等(25)。在發掘中有共存的青瓷淳化(990~994)銘享器，還有“元 通寶”(1078~1084)，“政和通寶”(1111~1117)等，從珍山里高麗青瓷窯址中木炭，經過 c14測定，年代為(1950年前)900+-80與920+-70年(26)。從上述紀年銘文和 c14數據均證明這批綠青瓷生產年代應在中國的北宋時代為妥。所以說對於窯址的斷代，從陶瓷考古類型學是十分重要的，但必須進行全面的考慮比較，才能得出較合理的斷代。那 韓國標準的(27)玉璧底究竟什 時代出現？我認為最早的年代應在韓半島焙燒成真正的瓷器以後的時代為？

IV. 越窯與高麗青瓷的交融

中國焙燒青瓷技術，如從原始瓷時期算起，至少比半島早2500多年，從東漢出

現成熟瓷器算起，也比韓半島早達800多世紀(28)。大唐國越窯青瓷大量運輸至世界各地(29)，也包括新羅在內，這為唐末五代初，韓半島引進越窯制瓷技術打下了基礎，而龍窯構築與工藝，窯具的一整套配套設施也相隨而去。所以我在《中國浙江越窯對韓半島制瓷業的影響》在康津國際學術討論會上發表中，論述與對比了窯爐結構，裝燒工具，產品形制等。尤其是窯爐，裝燒工藝是屬於科學層面上的直接引進或間接傳授(30)，不管那一種形式，將浙東越窯的制瓷工藝，已為高麗工匠所接受，而且已經開花生根。

浙東越窯的窯爐構築技術，到了唐代已相當完善，燒制的“秘色瓷”，就是例證(31)。要使制品燒得好，競爭的關鍵，除了窯爐構築合理，工匠們在掌握燒造過程中能好的控制氣、等技術水平外，極為重要的就是窯爐內裝燒技術的設計和空間的利用。眾所周知，以明火迭燒為主裝燒時期，最大的缺點，不但使器物釉面被窯爐中烟灰的粘附，造成制品釉面不淨，而且因為制品迭燒，隨着重量的增加，迭得過高往往也造成一定數量器物的變形，有時還要出現多次倒，致使廢品率增加。越窯自從唐元和朝(32)，即九世紀初創造匣鉢這一先進焙燒工具與裝燒工藝后，使越窯的制品呈色質量大大提高，也由于利用匣鉢，使制品規整，釉面光潤，特別是匣鉢對窯爐空間的利用進行了突破，可以充分地利用窯爐內有限的空間，使制品的產量大為提高(33)，從經濟效益角度考慮，明顯地反映了“質量意識”，“成本意識”與“競爭意識”。因此，制瓷業中的業主，工匠們始終十分重視窯爐中的有效空間之利用。

韓半島從大量考古調查的古窯遺存表明，浙東制瓷業燒造技術，首先是直接引進，然后工匠們根據知識水平，接受程度，把那些認為不適用的部分“淘汰”了，適用部分已變為高麗化，在這些遺存中明顯的作了反映。例如從匣鉢使用功能變化上作一考察，就發現屬於高麗初期一類的窯場，遺存中可以見到“越窯式”的m型匣鉢殘件大量存在，但是到了略后階段，這一類的窯場，遺存中這種m型匣鉢的用量且大幅度地明顯地減少；從遺迹和遺物遺存也反映了“使用匣鉢也只限小部分器物，一般只迭三層左右，占窯室空間高度三分之一或四分之一，因此窯室大部分處於空燒狀態。”這種狀 據已故的南京大學熊海堂教授在考察中，日韓窯爐發展史中認為一直延續到17世紀，即明代萬曆年間。這一歷史事實，告訴我們，那就是唐代先進的越窯制瓷技藝，中韓交融后，一度是退化了。

越窯與高麗制瓷業除了科學層面上交融外，在制品的造型，裝飾藝術的紋樣上交融也是明顯的。例如韓國學者定為生產十二世紀的青瓷牡丹折枝紋盒，云鶴紋

敞口碗、蓮瓣紋碗、鸚鵡紋、菊花紋蓋托等(34)，從時代上看即中國北宋至南宋慶元朝，年代寬容度大。事實上北宋的晚期越窯已消亡，所以說越窯與韓半島在制瓷這一領域的交融，大多應在北宋的早期階段。現在舉一些典型的例子加以對比。

首先從造型的比較，青瓷素面碗，特征是敞口，斜腹，玉環底(35)，釉色青翠。按照中國時代看可在五代，韓國出現則在五代到北宋時代，這在時間上差異也是正常的，交融後成為高麗的器皿了，但“越窯式”的烙印是明顯的。

青瓷陰刻菊紋碗(36)，這種造型是北宋時代常見的一種，但是這類器皿內底有一小圓圈，屬於南宋時代的風格了，在大江南北的南宋窯址中均有這一特征，而越窯是不存在有這種小圓圈風格。從紋樣上看，線刻(陰刻)菊花在唐、五代未見，北宋才出現，實有相同之處，但是越窯菊紋多施于盒類的蓋面上，碗內實不多見，而韓國的菊紋多在內壁，而且上下有成為一寬帶狀菊紋，這種組合出現已是耀州窯的風格了，耀州窯的刻花也是從越窯移植過去的。

青瓷蓮瓣紋蓋碗(37)，實際上是一高圈足碗與一圈足盤配套組成。這類器物在上林湖窯場屬於北宋晚期的造型，從支燒印痕看屬於明火迭燒，所以器內圈足均有支燒的印痕，因此釉色不是單色，也是屬於差一類的器物。

屬於十二世紀的青瓷線刻牡丹折枝紋盒(38)從造型上則與上林湖北宋盒一致，制作也十分規整，釉色也可以，釉面有裂，所施的牡丹紋也十分相似；蓮瓣紋、云紋油瓶(39)，這類造型在越窯中未見，而在宋代其他窯口中近似的器形也有，其線刻的云紋與蓮瓣紋十分流利，完全是越窯線刻風格；云鶴紋碗(40)，其造型已是像南宋的斗笠碗風格了，但線刻云鶴常保留了越窯紋樣之風格；蓮瓣紋盤，造型似宋代越窯造型，但其刻突蓮瓣紋規整，這類器物紋樣，實已與浙江南宋龍泉窯蓮瓣紋相似了；鸚鵡紋盤(41)造型似越窯，其線刻的鸚鵡與越窯可以說完全相似，無疑是屬於越窯風格；菊花紋托具，造型與越窯一致，尤其是托具的托盤與托台造型也相同，可以說越窯風格未變。

我們再從康津郡大口面160余座窯址中，百分之九十以上器物屬於“玉環底式”制品，云龍里遺址出土玉環底器達到全國之冠，全羅南道高敞郡雅面山窯址(42)，也出土了相當數量的玉環底碗、盤等器皿，這些窯址中遺存，有一部分造型是“越窯式”的，線刻紋樣多，例如蓮瓣紋、云鶴紋等也是“越窯式”的，與這些遺存共存的有筒形匣鉢和“太平壬戌二年”(1022年)陶片，從一側面說明這窯場生產的制品應在十一世紀二十年代前後，相當于大宋朝的北宋乾興元年前後。

從時代、造型、紋樣我們都可以看到中韓制瓷文化交融后，不僅吸收了越窯的精華，而且也按照高麗的實際情況進行創造。

- (1) (2) (9) (18) (19) (20) (21) (28) (29) (32) (33)：林士民《青瓷與越窯》上海古籍出版社1998年12月版，第12頁《古代龍窯的清理》，第10頁《瓷窯遺址的分期》，第293頁關於朝鮮半島創燒成功成熟青瓷，《導論》陶瓷考古中關於《越窯從制品類型學可分有三種不同的時...》第2~3頁，《唐瓷飾工藝分期》第246頁，《年代與器物演變》第7頁，《國際市場的拓展》第309頁，《匣鉢出現與使用》第277~278頁。
- (3)：林士民《東亞商團中杰出人物—新羅張保皋》2000年由山東青島海洋大學海洋文化研究所、中華文化交流中心等單位舉辦的《張保皋海洋經商史國際學術研討會》上發表。
- (4)：(日)三上次男《朝鮮半島出土的中國唐代陶器的區史意義》，《貿易陶瓷史研究(上)》東京中央公論美術出版，昭和62年第143頁。
- (5) (17) (27) (30) (42)：林士民《中國浙江越窯到朝鮮半島制瓷業的流變》，《朝鮮大學》1998年8月論文集第11~14頁等。
- (6)：林士民《青吳越與新羅時期浙東與朝鮮半島通商貿易和文化交流之研究》刊《唐吳越與新羅的文化友好交往》韓國文化體育部(韓文)出版第57頁。
- (7)：(韓國)崔健《統一新羅時期甌甌陶器的傳統繼承與中國文化的容融有關一些問題》，《韓國青瓷發生的若干問題》，第24頁。
- (8)：(韓國)《張保皋的傳記研究》國史編纂委員會委員長朴永錫等撰文，《苑島文化院》1992年四月(株)時事文化社再版第105頁。
- (10) (11)：(韓國)海剛陶器美術館叢書第九期1999年九月刊第10~12頁，第16~18頁。
- (12) (13) (34) (35) (36) (37) (38) (39) (40) (41)：(韓國)海剛陶器美術館《海剛陶器美術館圖錄》第一冊1980年4月版第27~32頁。
- (14) (15)：(韓國)海剛陶器美術館《支干銘象紋青瓷》圖錄第二冊1981年四月版第9~30頁。
- (16)：根據浙江省諸市縣縣志記載年表出土年代最早的是唐貞元十年(794)。
- (22)：曹基正《越青瓷小考》—海南山二面嶽青瓷陶窯址的中心，1987年2月無等陶窯，土陶文化研究所。
- (23) (24) (25) (26)：木浦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海南郡心海南珍山星線青瓷窯址1992年10月學術叢書第27冊圖版第111~145頁，第59~72頁，第86~97頁，第53~85頁。
- (31)：林士民《越窯青瓷中的秘色瓷》，《越窯秘色瓷》上海古籍出版社1986年12月出版第7頁。

이

백

“唐宋 越窯 窯道具와 瓷器에 대한 初步的 認識”¹⁾

金 英 美(북경대학교 고고학과 박사 연구생)

I. 序言

越窯는 中國 古代 靑瓷의 고향이며, 한 시대를 風靡했던 名窯이다. 唐宋 時期, 中國의 각 지방에서는 앞을 다투어 越窯를 모방했으며, 그 瓷器가 국외로까지 대량으로 수출될 정도로 당시 越窯에 대한 명성은 대단한 것이었다.²⁾ 越窯가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되기까지 여러 歷史와 社會 文化的 背景이 있겠지만, 越窯의 技術的 背景을 중심으로 越窯 靑瓷의 歷史를 살펴보는 것도 意義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本稿는 筆者가 1998, 1999년 두 해에 걸친 中國 浙江省 慈溪市 寺龍村 越窯 窯址 發掘과 調査에 참가하고 遺物을 整理하는 가운데 構想된 것이다. 本文에서 사용되는 資料는 이미 발표된 發掘, 調査 자료와 墓에서 출토된 紀年銘 자료가 중심이며, 類型學的方法을 사용해 窯道具를 정리하고, 각 시기 窯道具의 변화와 瓷器와의 관계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II. 唐宋 時期 越窯 窯道具의 分期

唐宋 時期 越窯의 窯道具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³⁾, 본문에서는 瓷器 가운데 碗,

1) 요 도구의 명칭 사용에서 갑발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나, 瓷器 소성시에 瓷器 사이에 받치게 되는 일 군의 요 도구 명칭이 없어서 墊具(받침 도구)라고 우선 칭한다.

2) 三上次男: 『陶磁の道』, 岩波新書 1977年. 馬文寬, 孟凡人: 『中國高陶窯在非洲的發現』, 紫禁城出版社, 1987년에 의하면, 唐宋 時期 越窯 靑瓷은 가깝게는 한반도와 일본을 비롯해, 멀리는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까지 수출되었다 한다.

3) 월요의 窯道具는 그 기능에 따라 匣鉢(蓋), 墊具, 支具 등의 三大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匣鉢과 墊具는 본문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支具에 대해 약간의 소개를 하겠다. 支具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마에 들인 坯件(혹은 坯物, 즉 燒成되기 이전 상태의

盤 등의 造型 변화와 관련된 窯道具 즉, 匣鉢, 墊具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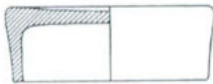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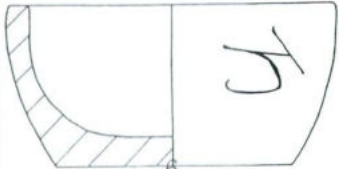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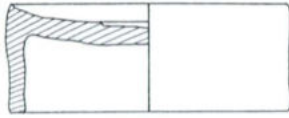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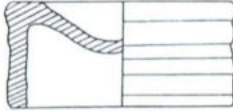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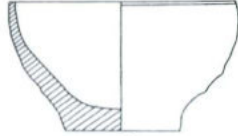
1. 窯道具의 分類

① 匣鉢

越窯 匣鉢의 초기 형태는 어떠했고,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문제는 9세기에서 12세기까지의 匣鉢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면 일목요연해질 것이다.

唐宋時期 越窯의 匣鉢은 크게 세 개의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 세 類型의 匣鉢은 다시 몇 가지의 式으로 나누어진다.

◎ A形: M形. 위 바닥면이 안으로 들어가 있고 복부가 수직으로 내려온다. 이는 다시 3式으로 나누어진다.

| 匣鉢 | | | |
|-----|---|---|---|
| 第一期 |  |  |  |
| 第二期 |  |  |  |
| 第三期 |  | |  |

〈도면 1〉 越窯 窯道具 分期圖(1)

1식: 위 바닥면의 오목한 부분이 비교적 얇으며, 기벽이 두꺼운 편이다. 굽의 접지면과 상부 구연 부분에 한 바퀴 내화토 눈의 흔적이 있다. 표본: 白洋湖 Y12 하층 출토⁴⁾, 面徑19.6, 底徑20.4, 高7.6cm(도면 1-1)

2식: 1식에 비해 위 바닥면의 오목한 부분이 깊다. 표본: 黃鱸山 Y26 상층-38, 태토가 치밀하며, 외면이 회색 빛을 띤다. 오목한 부분에 내화토 눈 흔적이 있다. 面徑18, 高7cm(도면 1-2)

3식: 위 바닥면의 오목한 부분이 매우 깊다. 표본: 郭家峙 Y1 상층-1, 외면이 회색으로, 태토가 곱다. 口徑12, 底徑12, 高6cm(도면 1-3)

◎ B形: 桶形. 直口, 平底이다. 다시 2식으로 나누어진다.

1식: 기벽이 두텁고 둔탁해 보인다. 표본: 上林湖 遊湖山 Y73, 외면이 회색을 띠며, 거친 모래로 제작되었다. 口徑20, 底徑20, 高8.2cm(도면 1-4)

2식: 기벽이 얇아지고, 깊이가 깊다. 표본: 郭家峙 Y1 하층-5, 口부에 유약으로 밀봉한 흔적이 있고, 외면이 회색 빛이며, 태토가 고운 편이며, 내저에 細長 내화토 눈 흔적이 있다. 口徑10.8, 底徑10.8, 高8.2cm(도면 1-5)

◎ C형: 鉢形. 口部가 底部보다 크다. 복부가 약간 불룩하고 평저이다. 다시 3식으로 나누어진다.

1식: 기벽이 두껍고, 복부가 얇으면서 거의 통형에 가깝다. 표본: 黃鱸山 Y26 하층-2출토(도면 1-6)

2식: 기벽이 얇고 복부가 1식보다 얇으며, 복부가 S형을 이루면서 굽 나리도 연결된다. 표본: 郭家峙 Y1 하층-20, 구연부에 유약으로 밀봉한 흔적이 있다. 외면이 홍색을 띠며 태토가 곱다. 口徑12.2, 底徑6.8, 高4.2cm(도면 1-7)

3식: 기벽이 약간 두텁고, 복부가 깊어지면서 굽 부분의 크기가 더 작아지고 높아진다. 표본: 郭家峙 Y1 상층-51, 외면이 회색이며 고운 태토, 내저에 길고 가는 내화토 눈 흔적이 있다. 口徑15.3, 底徑7.8, 高9.2cm(도면 1-8)

器물을 발원지 기마비리의 低溫帶에서 완전히 구워지지 못해 폐기되는 것을 막아주고, 둘째, 기마비리의 코라 먼지 등이 유면에 붙지 않게 보호해 주며, 셋째, 기물을 가장 이심적인 온도에서 소성될 수 있게 기물 혹은 김발류 반어준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면, 지금의 출현은 墊具보다 조금 늦다. 浙江 德清縣에서 발견된 西周~春秋時期의 원시 청자요지에서 지금까지 가장 이른 시기의 墊具가 발견되었으며, 같은 곳에서 조금 후인 戰國 中期의 支具가 발견되었다(『浙江 德清原始青瓷窯址調查』, 『考古』 1983年 3期). 支具의 造型과 쓰임에 따라 크게 M字匣鉢형, 칠구형, 圓柱形으로 나눌 수 있다. 필자가 1988, 1990년 寺 旆村 발굴 현장에서 확인한 칠구, M字匣鉢형과 칠구형의 支具는 소성할 때에 가마 안 밑바닥에 놓고 그 위에 坯件을 담은 匣鉢을 얹게 된다. 대개 M形匣鉢의 경우 V字匣鉢형 支具를, 鉢形 匣鉢의 경우 칠구형 支具를 받치게 된다. 그리고 圓柱形 支具의 경우는 碗 盤 瓶 등을 匣鉢을 쓰지 않고 노출 소성할 때 주로 쓰인다. 圓柱形 支具는 匣鉢 출현 이전부터 있었으니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쓰였을 뿐 아니라, 가장 오래 쓰인 支具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3세기 이전 자기류 생산할 때, 고급품과 저급품의 구분이 있었으며, 고급품은 대개 匣鉢을 썼고, 저급품은 노출 소성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4) 白洋湖 Y12, 郭家峙 Y1, 上林湖 遊湖山 Y73, 窰棚 Y8, 茅子山 Y16, 黃鱸山 Y26, 窰裏 Y9, 小洞裏 Y1의 자료는 林士民: 『青瓷與楚窯』 上海古籍出版社, 1990에서, 재인용할 출토를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는 필자의 발굴기 조사 자료를 참고로, 종류를 인위적으로 나눈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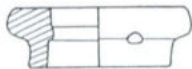







② 墊具(점구)

墊具란, 도자기 소성 과정 중 坯件과 坯件간에 유약이 흘러서 서로 붙는 것을 방지하며, 가마 내의 공간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窯道具로서, 내화토 눈(받침 눈), 墊圈형, 墊餅형(도지미), T자형, 盤형, 鋸齒형(王冠形)등의 유형이 있다. 墊具는 施釉 技術이 發展하면서 출현하게 된 것으로, 匣鉢 보다 훨씬 빨리 출현한다.⁵⁾

9세기에서 12세기까지 월요의 墊具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A形:내화토 눈 形. 주로 굽 다리의 접지면에 받쳐지는 소성 도구로 하얀색의 부드러운 내화토로 만들어진다. 형태의 차이에 따라 3式으로 나눈다.

1式: 원형 혹은 잣 모양으로 크기가 일정하다. 지름이 0.5~0.7cm 사이이다

| 墊 具 | | | |
|-------------|---|---|---|
| 第
一
期 |  |  | |
| 第
二
期 |  |  |  |
| 第
三
期 |  |  |  |

〈도면 2〉 越窯 窯道具 分期圖(2)

5) 「浙江德清原始青瓷窯址調查」, 『考古』1989年 9期에서 浙江 德清縣에서 발견된 西周에서 戰國時代의 원시 청자 요지에서 이 방면의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보고자에 의하면 "최소한 春秋 早期보다 이를 것으로, 당시 이미 포개구이 밥이 쓰였고, 굽은 모래(砂埵), 가마 찌끼(窯渣), 받침 눈(墊珠)등을 써서 기물과 기물이 붙는 것을 방지하였다".

(도면 6-1)

2式: 가늘면서 긴 형태로 碗의 경우 대개 외저에 4~5개를 놓게 된다. 長 1~1.3, 寬0.3~0.5cm정도. 표본: ㉠遼韓佚墓 出土 執壺 底部⁶⁾(도면 6-2), ㉡上林湖출토 “太平戊寅”銘盤 底部⁷⁾(도면 6-3)

◎ B形: 墊圈形. 형태의 차이에 따라 2式으로 나눈다.

1式: 높이가 낮고, 직경이 크며, 세밀한 瓷土로 만들어지고 붉은 갈색을 띠고 광택이 있다. 표본: 紹興 上竈官山 越窯 採集⁸⁾(도면 2-1)

2式: 아래 부분이 나발형, 높이가 1式 보다 높고 직경이 작으며 외면이 회색을 띠고, 광택이 없다. 표본: 窯棚Y8-52, 面徑7.6, 底徑4.8, 高2.2cm(도면 2-2)

◎ C形: “T”字 墊環形. 외면 윤곽선은 “T”字形으로 보이거나 環形으로 되어 있다. 형태의 차이에 따라 3式으로 나눈다.

1式: 기형이 크고 둔탁한 편이며 외벽이 곡선을 이룬다. 표본: 黃鱸山Y26하층-2. 위 바닥면과 아래 굽 부분 중간쯤에 구멍이 있다. 굵은 모래 성분의 태토이며, 황색을 띤다(도면 2-3)

2式: 외벽이 중부에서 꺾여 내려오며 내벽은 곧다. 1式보다 매끈하며 기벽이 얇아지고 높이가 낮아졌다. 白洋村Y12상층-25, 面徑8.6, 底徑11.2, 高2.2cm(도면 2-4)

3式: 2式보다 높아지고, 內外壁이 直斜線이다. 표본: 窯輿Y9-58, 面徑7.6, 底徑6.8, 高4.2cm(도면 2-5)

◎ D形: “T”字形. 형태의 차이에 따라 3式으로 나눌 수 있다.

1式: 외벽이 곡선으로 내려오며 내벽이 밖으로 살짝 빼친다. 형체가 크고 투박하며 위 중앙 부분이 거의 평평하다. 굵은 모래가 섞인 재료를 주로 쓴다. 표본: 上林湖 Y51 하층 출토⁹⁾, 面徑12.4, 底徑10, 高2.6cm(도면 2-6)

2式: 외벽이 중부에서 꺾여 아래로 내려오며 내벽은 곧다. 白洋村Y12상층-

6) 北京市文物工作隊: 「遼韓佚墓發掘報告」, 『考古學報』1984年 3期.

7) 林士民: 「青瓷與越窯」, p237.

8) 紹興市文物管理委員會: 「紹興上竈官山越窯調查」, 『文物』1981年 10期.

9) 謝純龍: 「高麗早期上林湖越窯」, 『東南文化』1999年 4期.

26. 홍색을 띠며, 고운 태토로 만들어 지고, 위 부분에 9개 굽 부분에 7개의 내화토 눈 흔적이 있다. 面徑9, 底徑7, 高2.1cm(도면 2-4)

3式: 내벽이 안으로 약간 수렴되고, 전체적으로 2式 보다 길다. 표본: 栗子山 Y16-44, 面徑5.2, 底徑6.4, 高4.4cm(도면 2-5)

2. 分期와 特徵

이상의 유형 분석을 통해 각각의 기물은 지층과 유적지 단위 가운데 공존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유적 단위와 출토 유물의 유형은 아래 表1과 같다.

〈표 1〉 遺蹟 單位와 出土 遺物 類型表

| 번호 | 유적 단위 | 출토 窯道具 유형 |
|----|-------------|--------------|
| 1 | 上林湖 Y51甲 하층 | A1 匣鉢, C1 墊具 |
| 2 | 上林湖遊湖山 Y73 | B1 匣鉢 |
| 3 | 黃山 Y26 하층 | C1 匣鉢, D1 墊具 |
| 4 | 白洋湖 Y12 하층 | C2, D2 墊具 |
| 5 | 紹興 上龍宮山 | B1 墊具 |
| 6 | 白洋湖 Y12 상층 | A1 匣鉢 |
| 7 | 黃山 Y26 상층 | A2 匣鉢 |
| 8 | 郭家峙 Y1 하층 | B2, C2 匣鉢 |
| 9 | 遊湖伏墓 | A2 墊具 |
| 10 | 窯棚 Y8 | B2 墊具 |
| 11 | 窯輿 Y9 | D3 墊具 |
| 12 | 栗子山 Y16 | C3 墊具 |
| 13 | 郭家峙 Y1 상층 | A3, C3 匣鉢 |

위에서 분류한 窯道具들은 층위 간의 공존 관계와 기형을 근거로, 그리고 같은 지층에서 출토된 瓷器의 기형과 문양을 참고하여 3개의 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즉 1~5를 第一組로, 6~9을 第二組로, 10~13을 第三組로 묶을 수 있다. 이상의 각 요지들은 지층 관계가 명확하며, 墓에서는 紀年銘 자료가 출토되었다. 이들에 근거해 세 개 組의 시기 순서를 설정할 수 있다. 第一組의 시기가 제일 빠르고, 第三組가 가장 늦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시기의 순서에 따르는 세 개 組의 전형적인 기물의 공존 관계를 얻어 낼 수 있다.

이를 圖表化하면 다음 表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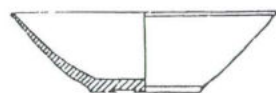
〈표 2〉 각 窯道具와 分組表

| | 匣鉢 | | | 墊具 | | | |
|-----|----|----|----|----|----|----|----|
| | A形 | B形 | C形 | A形 | B形 | C形 | D形 |
| 第一組 | 1式 | 1式 | 1式 | 1式 | | 1式 | 1式 |
| 第二組 | 2式 | 2式 | 2式 | 1式 | 1式 | 2式 | 2式 |
| 第三組 | 3式 | | 3式 | 2式 | 2式 | 3式 | 3式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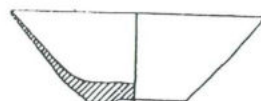
세 개 組의 窯具는, 기물 조합 및 型式의 증감과 기형의 演變 등, 각 方面의 눈에 띄는 변화로, 이미 선명한 발전 서열을 형성하고 있어, 唐宋時期 越窯 窯具의 세 개 발전 시기를 대표한다. 즉 三期로, 第一期는 中晚唐, 第二期는 五代, 第三期는 宋代이다.

유적지 발굴 시에 얻어지는 지층 관계 및 紀年 墓에서 출토되는 瓷器 등의 자료를 근거해서 各 期의 연대와 특징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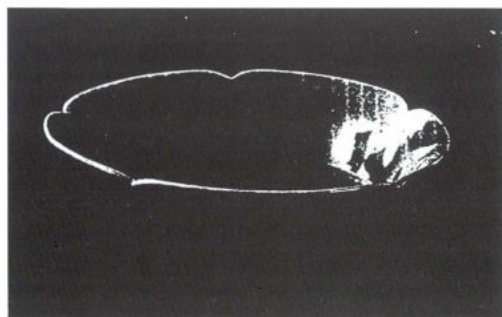
第一期: 이 시기의 匣鉢은 주로 모래가 많이 섞인 내화토를 쓰며,¹⁰⁾ 기벽이 두꺼우며, 둔탁해 보인다. M形 匣鉢의 오목하게 들어 간 부분이 비교적 얇으며,



1. 浙江寧波和義路出土
口徑 15.8, 底徑 5.8, 高 5.2cm.



2. 浙江寧波和義路出土
口徑 15, 底徑 6.2, 高 4.8cm.



3. 陝西扶風法門寺出土
口徑 24.5, 底徑 9.5, 高 6.2cm.



4. 臨安縣唐水坵氏墓出土
口徑 16.7, 底徑 8.3, 高 8.5cm.

〈도면 3〉 유적지 출토 第一期 越窯 瓷器



〈사진 1〉 上林湖窯址出土 越窯玉璧底碗(唐貞元十年, 794년)



〈사진 2〉 扶風法門寺出土 越窯平底盤(874년)



鉢形 匣鉢의 경우도 깊이가 대체적으로 얇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T字形, T字墊環形 墊具¹¹⁾도 唐代의 造型은 투박하며, 기벽이 두툽고 모래가 섞인 태토를 쓴다.

初唐 때의 비교적 불규칙적인 圓形의 내화토 눈이 中晚唐에 이르면 내화토목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잣 모양의 일정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런 소성법이 쓰인 예를 들면, 洛陽 唐 大曆十四年(779년)墓¹²⁾와 浙江 象山 唐 元和十年(817년)墓¹³⁾에서 출토된 撇口 玉璧底碗 그리고 浙江 寧波 和義路에서 “大中二年”(848년)銘 碗과 함께 출토된 玉璧底碗이 있다¹⁴⁾(도면 3-1.2, 사진 1). 陝西省 扶風 法門寺 地宮¹⁵⁾에서 출토된 월요 秘色瓷碗, 盤(도면 3-3, 사진 2)도 당시 皇家에 진상되었던 瓷器로 이런 방법으로 빈조 된다. 浙江 臨安 唐 天復元年(901년)墓¹⁶⁾에서 출토된 花形 碗등의 예도 있다.(도면 3-4, 사진 3) 그러므로 第一期의 시기를 中晚唐代 즉 9세기 초 전후에서 10세기초까지로 본다.

第二期:이 시기에 이르면 匣鉢의 형태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桶形 匣鉢의 수량이 줄어들었고, M형 匣鉢이 현저하게 늘어난다. 형태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M형 匣鉢의 경우 위 바닥면이 더 깊어지며, 鉢形과 桶形 匣鉢의 경우도 깊이가 더 깊어진다. 또한 匣鉢의 기벽이 唐代의 것보다 얇아진다. 이 시기의 T字形, 墊環形 墊具 瓷土를 원료로 제작되었으며, 기벽이 얇아지며, 굽이 윗면에서 꺾여져 수



〈사진 3〉 臨安 唐水邱氏墓出土 越窯花形碗(901년)

10) 謝純龍:「隋唐早期上林湖越窯」,『東南文化』1999年 4期.

11) T字形, T字墊環形 墊具는 월요의 독특한 요 도구로 당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匣鉢이 출현하기 전에는 주로 기물과 기물 사이에 받쳐 쓰이다가, 匣鉢이 쓰이면서, 匣鉢의 불규칙 형태를 보완하기 위한 도구로 썼으리라 생각된다. 발굴 현장에서 T字形, T字墊環形 墊具 위에 내화토 눈의 흔적이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12) 河南省文物工作隊第二隊:「洛陽16工區76號唐墓清理簡報」,『文物參考資料』1956년 5期.

13) 符永才等:「浙江南田海島發現唐宋遺物」,『考古』1990年 11期.

14) 寧波市文物考古研究所:「浙江寧波和義路遺址發掘簡報」,『東方博物』1期, 1997年.

15) 陝西省法門寺考古隊:「扶風法門寺唐代地宮發掘簡報」,『文物』1988年 10期. 출토된 유물은 월요청자 14건으로 13건이 碗과 盤이며, 1건이 八 瓶이다. 동시에 출토된 磚文에 13건 碗盤을 畫絨 匣鉢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들 碗盤의 외저에는 내화토 눈이 받쳐진 흔적이 있으나, 내저에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아, 하나의 匣鉢에 하나의 기물을 넣은 상태로 소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16) 明堂山考古隊:「臨安唐水邱氏墓發掘報告」,『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第一輯, 文物出版社, 1981年.



〈사진 4〉 臨安 康陵出土 越窯 玉環底 碗(939年)



〈사진 5〉 臨安 康陵出土 越窯 花形 碗(939年)

직 상태로 내려온다. 내화토 눈으로 받쳐 소성하는 방법은 碗의 底部가 玉璧底에서 玉環底로 옮겨지는 五代 前期까지 계속 사용되며, 五代 後期에 이르면 내화토 눈의 형태가 가늘면서 길어진다.



〈사진 6〉 蘇州 七子山墓 出土 越窯 碗(五代)

이 시기의 墓에서 출토된 瓷器의 예로, 內蒙古 遼 會同五年(942년)墓¹⁷⁾에서 출토된 敞口碗(도면 4-1,2)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外底에 “太平戊寅”年銘이 있는 盤, 北京 遼 應歷八年(958년)墓¹⁸⁾ (도면 4-3), 蘇州 虎丘 雲巖寺塔¹⁹⁾(北宋 建隆二年인 961년에 세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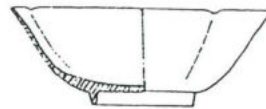
1. 遼耶律羽墓出土
口徑 17.7, 底徑 7, 高 6.9cm.

2. 遼耶律羽墓出土
口徑 21.4, 底徑 8.4, 高 9.2cm.

3. 北京南郊遼趙德鈞墓出(1/5)



4. 蘇州虎丘雲巖寺塔出土
口徑 17.7, 高 6.3cm.



5. 洛陽高繼蟾墓出土
口徑 17.4, 高 6.5cm.

〈도면 4〉 유적지 출토 第二期 越窯 瓷器

17)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遼耶律羽之墓發掘簡報」,『文物』1996年 1期.

18) 北京市文物工作隊:「北京南郊遼趙德鈞墓」,『考古』1962年 5期.

19) 蘇州市文物保管委員會:「蘇州虎丘雲巖寺塔發現文物內容簡報」,『文物參考資料』1957年 11期.



〈사진 7〉 內家古 陳國 公主墓
出土 越窯 盤(1018年)



졌다함)에서 출토된 碗(도면 4-4), 河南 洛陽 高繼蟾(909년)墓²⁰⁾에서 출토된 盤(도면 4-5), 臨安 康陵에서 출토된 玉環底 碗(사진4)과 花形 碗(사진5)²¹⁾, 蘇州 七子山 五代 墓에서 출토된 碗(사진6)²²⁾ 등이 있다. 따라서 第二期의 시기를 五代, 즉 907년에서 960년 前後로 본다.

第三期: 이 시기의 匣鉢로는 鉢形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桶形 匣鉢은 거의 보이지 않고, M形 匣鉢은 매우 알아져서, 작은 기형을 소성 하는데 쓰이거나 匣鉢의 뚜껑으로 쓰일 뿐, 역시 도태된다. 鉢形 匣鉢은 瓷

土로 만들어지며, 기벽이 매우 얇아지고, 복부가 불룩하게 나온 형태가 대부분이다. 造型을 보면, 입 지름이 굽 지름 보다 크기 때문에 “對口合燒”의 방법으로 소성 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T字形, T字墊環形 墊具 높아지고, 윗면에서 굽까지 꺾임 없이 연결되며, 굽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져 내려온다. 이 시기에는 내화토 눈은 거의 사라지고, 墊圈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北宋前期에는 주로 낮은 형태의 것을, 後期이후와 南宋 때에는 높은 형태의 것을 많이 쓴다.²³⁾

이 시기의 紀年 자료가 있는 越窯 靑瓷 碗의 예를 들면 河北 定縣 5號 宋塔²⁴⁾(北宋 太平興國 二年, 즉, 977년에 지어졌다함)(도면 5-1), 北京 遼 統和十三年(995年)墓²⁵⁾(도면 5-2), 河南 北宋 咸平三年(1000年)墓²⁶⁾, 內蒙古 陳國 公主墓에서 출토된 盤(사진7)등의 자료가 있고, 寧波에서는 北宋 “政和”(1111~1118)紀年이 새겨진 撇口 高圈足 碗(도면 5-3)이 출토되었으며²⁷⁾, 河南 密縣 馮京 夫婦 墓(1094)에서도 高足碗이 출토되었다(도면 5-4). 이상의 자료들에 근거해 第三期를 北宋代에서 越窯가 소멸된 南宋 初期²⁸⁾, 즉, 960년부터 1162년 전후로 본다.

20) 洛陽市文物工作隊: 「洛陽後梁高繼蟾墓發掘簡報」, 『文物』1995年 8期.

21) 杭州市文物考古研究所等: 《浙江臨安五代吳越國康陵發掘簡報》, 『文物』2000年 第 2期.

22) 蘇州市文管會等: 《蘇州七子山五代墓發掘簡報》, 『文物』1981年 2期. 23) 河南省文物研究所: 「密縣五虎廟北宋馮京夫婦合葬墓」, 『中原文物』1987年 4期.

24) 定縣博物館: 「河北定縣發現兩座宋代塔基」, 『文物』1972年 8期.

25) 北京市文物工作隊: 「遼韓佚墓發掘報告」, 『考古學報』1984年 3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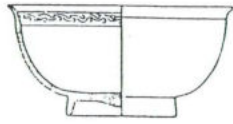
26) 河南省文物研究所等: 「宋太宗元德李后發掘報告」, 『華夏考古』1988年 3期.

27) 鄧建華: 「越窯靑瓷裝奩工藝的初步總結」, 『東方博物』第二輯, 1999년에 그 직접적인 예가 있고, 林士民: 「上林湖窯場里社湖區調查報告」, 『東方博物』第二輯, 1999년에 보면 北宋 瓷中에서 채집된 高足碗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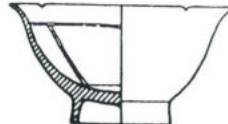
28) 唐: 「唐宋越窯初步研究」, 2000년, 北京大學校 碩士卒業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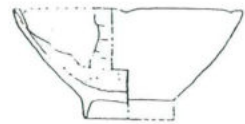
1. 河北定縣宋塔墓出土
口徑 11.8, 高 4.9cm.



2. 遼韓佚墓出土
口徑 18, 高 8.5cm.



3. 上林湖北栗子山窯採集
口徑12, 底徑5.6, 高6cm.



4. 密縣馮京夫婦墓出土
口徑17.1, 底徑6.4,
高8.1cm.

〈도면 5〉 유적지 출토 第三期 越窯 瓷器

Ⅲ. 窯道具와 瓷器의 關係

1. 匣鉢과 瓷器

匣鉢은 瓷器를 번조할 때 쓰이는 窯道具로써, 내화토를 원료로 만들어진다.

瓷器 생산 중 匣鉢의 기능에 대해, 清代 唐英은 『陶冶圖說』에서 “자배를 가마에 넣을 때 청결에 특히 유의해야하느니, 작은 흠덩이가 붙어 얼룩이 생기기도 하고, 가마 안의 화기가 충천해, 자기의 모양이 손상되기 쉬우니, 이것이 자배에 갑발을 덮어 씌우는 까닭이다”²⁹⁾라고 했다. 즉, 자기를 匣鉢 안에 넣고 소성하게 되면, 가마 천정에서 떨어지는 불똥이 釉面에 붙는 것과 연기 혹은 불이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고, 瓷坯에 열이 고르게 전달되어, 소성 후 유면이 매끈하고 영롱해지는 것이다. 匣鉢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여러 층으로 올려 쌓을 수 있어, 가마 내의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匣鉢이 언제부터 만들어 졌는가? 문헌상 제일 빨리 등장하는 것은 南宋때 蔣祈의 『陶記』³⁰⁾이며, 이로써 불 때 우리는 그 이전에 匣鉢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考古 資料에 의하면 현재까지 제일 이른 시기의 匣鉢은 江西

29) (清)唐英:『唐英集』,遼沈書社,1991년. “瓷坯入窯最宜潔淨,一露泥渣便成斑駁,因窯風火氣冲,易于傷坯,此坯胎之所以用匣鉢套裝也”.

30) 白根校註本,『景德鎮陶瓷』第10期,『陶記』研究專刊,1981년에 보면 蔣祈:『陶記』에서 말하기를 “土坯既匣,燥而別之,審厥窯位,以布置,謂之 障窯,……比壬坑,高砂,馬鞍山,磁石堂,厥土,赤石,盡加碼匣,模,工而雜之以成器,則皆散惡不良,無取焉,……陶工 匣工,土工之有其局;利坯車坯軸坯之有其法;印花,畫花,雕花之有其技,秩然規制,名不相紊”이라 했다.

31)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等:『江西豐城洪州窯遺址調查報告』,『南方文物』1995年 2期.

省 豊城 洪州窯에서 출토되었다³²⁾. 1992년 발굴에 참가했던 북경대학 고고학과 權奎山교수는 “東晉에서 南朝晩期로 생각되는 지층에서 대량의 匣鉢 파편이 발견되었다”라고³²⁾ 하고 匣鉢이 출현하기 전에 ‘罐套燒’라는³³⁾ 匣鉢 기능에 상당하는 소성 방법이 존재했다고 했다. ‘罐套燒’(도면 6-4)의 당시 원래 목적은 罐 내의 공간을 활용해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소성이 끝나고서 罐 내에 두었던 자기의 釉面이 불에 직접 노출된 그것 보다 훨씬 맑고 영롱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匣鉢 개발에 대한 착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월요에서 匣鉢을 채용해 자기를 소성하기 시작한 것은 江西省 洪州窯 보다 거의 3세기가 늦은 9세기 전반이다³⁴⁾. 중국 청자의 고향인 절강성 越窯의 匣鉢 사용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 어떤 학자는 당시 중국 전체 青瓷 시장을 지배하던 월요 장인들의 보수적 성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³⁵⁾.

越窯 또한 匣鉢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匣鉢을 대응하는 某種의 방식이 있었다. 이에 관한 자료로 두 가지의 예를 들 수 있다. 필자가 1998년 浙江省 慈溪市 越窯 유적지 조사를 실시할 때 唐代 早期 지층 퇴적물 가운데 ‘罐 안에 碗과 盤이 포개져 있는 덩어리 파편’을 발견한 적이 있다³⁶⁾. 그리고 어떤 연구자는 上林湖一帶 越窯 유적지를 조사 하다가 唐代 早期 지층에서 ‘對口合燒’의 방법으로 소성했을 것이라 추측되는 파편을 수습하고 개념도를 그려 보였다(도면 6-5)³⁷⁾. 이 두 자료를 놓고 볼 때 월요의 경우도 ‘罐套燒’와 ‘對口合燒’의 과정 등을 거쳐서 匣鉢의 단계로 옮겨갔을 것으로 예측된다.

匣鉢이 쓰여지기 이전, 越窯 瓷器의 造型의 특징은 기형이 크고 둔탁한 편으로, 기벽은 두껍고, 굽 다리의 직경이 큰 편이며, 平底혹은 假圈足³⁸⁾이다. 이러한 굽 다리 형태는 포개 구울 때 받치는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 선택된 제작 기법이라 생각된다. 釉色과 釉面은 전체적으로 담회색을 띠고, 시유 상태가 고르지 않으며, 응축 현상을 많이 보인다.

9世紀 初葉으로 여겨지는 匣鉢의 발명 이후, 越窯는 양과 질적으로 혁신적인 발전 단계를 맞게 된다. 匣鉢 사용 후 유면이 훨씬 윤기가 있고, 유약이 뭉치는 현상도 거의 볼 수 없게 된다. 당시 匣鉢의 형태는 비교적 낮으며, 투박한 편이

32) 「洪州窯址調查發掘獲重大成果」, 『中國文物報』1993年 5月2日.

33) 權奎山: 「從洪州窯遺址出土資料看匣鉢的起源」, 『文化的龍龍』考古學卷, 漢學研究國際會議論文集, 北京大學出版社,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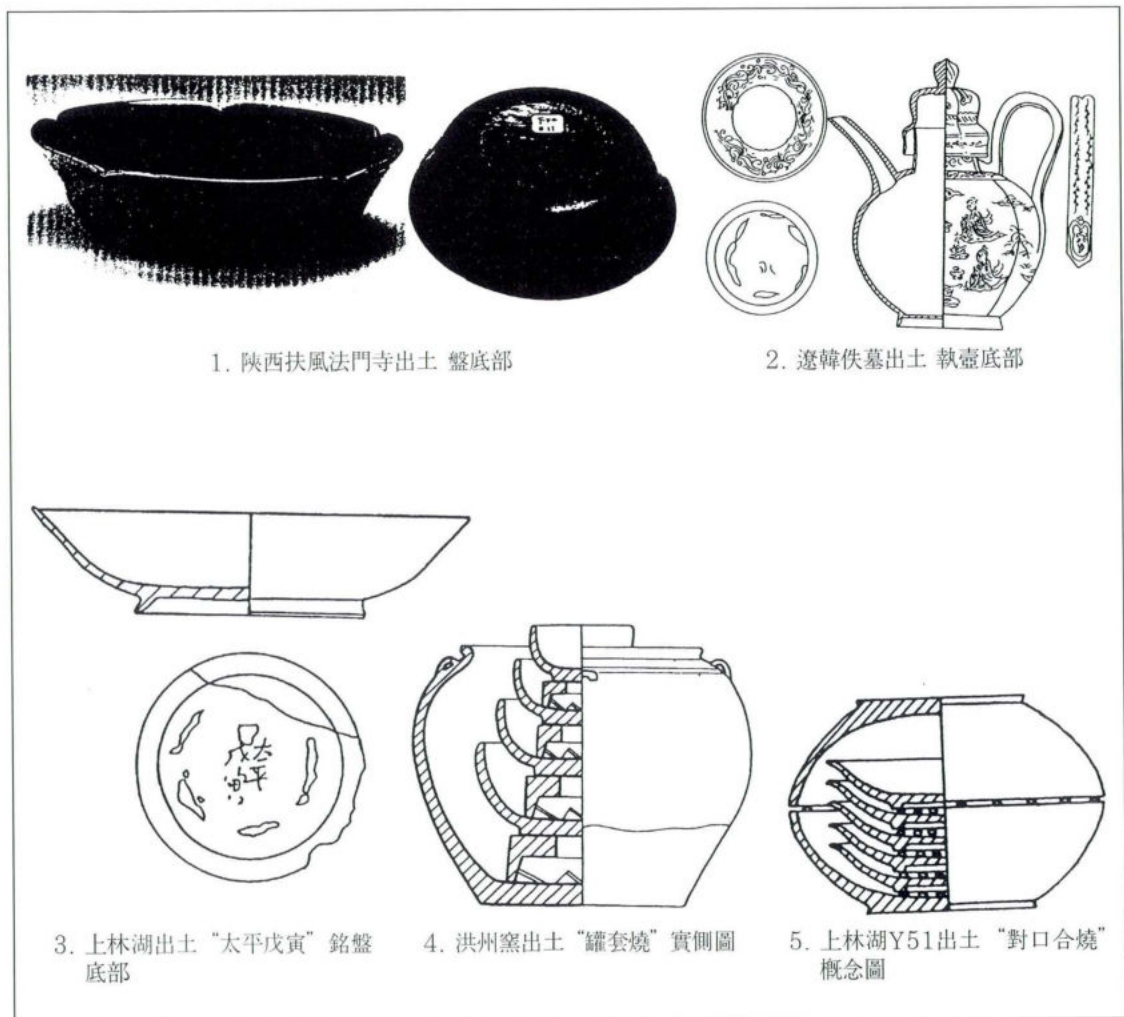
34) 林士民: 「匣鉢的出現與使用」, 『青瓷與越窯』, 上海古籍出版社, 1999년 12月.

35) 熊淳堂: 「東亞窯業技術發展與交流史 研究」, 1995년, p.180.

36) 金英美: 「浙江慈溪越窯遺址調查報告」, 1993年 未發刊(37) 謝純龍: 「隋唐早期上林湖越窯」, 『東南文化』, 1993年 4期.

38) 假圈足이란 걸 모양을 보아서는 圈足같이 보이지만 사실 위저 안쪽으로 오목하게窪인 굽다리의 형태를 말한다.

다. 이는 당시 유행했던 瓷器의 형태와 긴밀한 관계를 보인다. 즉 당시 유행하던 敞口(直口)玉璧底碗의 造型을 살펴보면, 깊이가 얇으면서 굽이 넓은 기형이 유행한다. 이런 형태의 기물은 燒成 時에 유리한 점이 있다. 첫째, 기형 자체가 낮아서 坯件을 서로 겹쳐 포개는데 유리하며, 둘째, 굽 다리 부분이 玉璧底로서 두텁고 무거워서 겹쳐 쌓을 때 압력에 잘 견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형태의 碗을 소성할 때, 한 갑발에 한 기물의 소성 방법을 선택한다면, 기물 복부의 깊이



〈도면 6〉 越窯 燒成法과 관련된 출토 자료

가 얇고,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갑발의 높이가 높을 이유가 없다.

당말 오대 초에 비교적 많이 등장하는 M形 匣鉢은 瓷土로 만든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匣鉢에 하나의 坯物을 넣은 후 匣鉢과 匣鉢 사이의 접해지는 부분에 유약으로 발라 밀봉시킨 후 가마에 들인다. 이런 匣鉢은 자기의 坯物과 같은 유약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가마 내의 온도가 상승될 때 坯物과 같은 통기성을 가져, 還元 상태의 불길에 匣鉢과 坯物에 충분히 접촉하게 된다. 냉각될 때는 匣鉢도 이미 구워진 상태로, 유약이 匣鉢과 匣鉢 사이를 밀봉시킨 상태여서 공기가 匣鉢에 들어가 조성되는 二次 氧化가 자기 유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게 되는 것이다³⁹⁾. 이런 匣鉢로 소성한 자기는 일반적으로 유색이 순정하고 질이 우수하나, 出窯할 때 필히 匣鉢을 부셔야 하므로,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이로써 불 때 당시 월요가 '秘色瓷'로 불려진 것은 이러한 소성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있는 후에야 가능한 것이었다.



〈사진 8〉 上海博物館藏 越窯 罐(北宋)



五代에 이르면 越窯의 품질은 더욱 정교해져서, 中國 中原의 관심을 받게 충분하였다. 문헌상에 吳越이 後唐 同光二年(924년)에서 後漢 乾祐三年(950년)까지 中原에 貢納했던 기록이 15번이나 되는데 그 중 越窯를 받쳤다는 기록이 6번이 있다⁴⁰⁾. 唐代의 玉璧底碗은 이 시기에 이르러 굽 다리 부분이 玉環底로 바뀌면서, 腹部가 좀더 깊어진다. 우리는 앞에서, 이런 자기 형태의 변화와 함께, 匣鉢도 전체적으로 더 깊어지고, 匣鉢의 坯物을 넣는 자리가 깊이 파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宋代에 이르면 작은 굽을 가진, 복부가 볼록한 碗, 盤의 유행과 함께, 볼록한 복부의 鉢形 匣鉢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렇듯 각 시대의 匣鉢은 당시 유행하던 瓷器의 器形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匣鉢의 모양은 특히 瓷器의 口部와 腹部의 변화에 민감하게

39) 李家治: 『中國科學技術史·陶瓷卷』, 科學出版社, 1998年, pp116-137.

40) 『宋史』, 『十國春秋』, 『宋會要輯稿』, 『冊府元龜』 등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그 중, 『冊府元龜』에 卷一六九 帝王部 納貢獻에 의하면, ① 後唐莊宗同光二年(924年), “九月, 兩浙錢 鏐遣使貢方物, 銀器, 越鏡, 吳絹, 龍鳳衣……秘色瓷器……”, ② 後唐明宗長興二年(931年), “是月, 杭州錢元璣進銀 鏡, 絹各五千兩, 疋……秘色瓷器二百事”, ③ 後晉天福六年(941年), “十月己丑吳越王錢元璣……辛卯又進象牙……金銀 棹, 瓷器, 細茶, 法酒事件萬餘”, ④ 後晉天福七年(942年)十一月, “兩浙錢弘佐遣使進……秘色瓷器……”, ⑤ 後漢乾祐二年(949年)十月, “甲寅兩浙錢弘道遣使判官貢奉御衣……秘色瓷器……”, ⑥ 後漢乾祐三年(950年)三月十一日乙亥, “兩浙錢弘假貢謝恩……香藥, 瓷器, 銀裝甲仗, 法酒, 海味等” 등의 기록이 있다.

대응해 나감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볼 때 각종 匣鉢의 변화는 瓷器에 대한 각 시대의 審美觀과 貨用 機能에 대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소성 조건이 瓷器의 造型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匣鉢의 출현은 陶工들의 끊임없는 경험과 탐색, 그리고 소성 기술의 개선이 빚어낸 자기 수공업 발전의 쾌거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2. 墊具와 瓷器

中晚唐代에 들어 飲茶 풍속의 유행으로 자기에 대한 요구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이에 따라 陶工들은 외형미를 고려해, 소성 후 기물의 외관에 영향을 덜 주는 墊具 재료와 방법을 모색하거나 선택하게 된다. 당대 이전부터 써왔던 내화토 눈은 주로 굵은 모래, 가마찌끼 등으로 굽다리 접지면에 받쳐졌는데 소성한 후 자기로부터 쉽게 떼어낼 수 없었고, 자기에 흔적을 남기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中晚唐代에 匣鉢을 쓰기 시작하면서 부드럽고 잘 부서지는 내화토를 사용해, 눈의 크기 또한, 작고 규칙적인 형태로 만들게 된다.

浙江 寧波 和義路에서 “大中二年”(848년)銘 碗과 함께 출토된 옥벽저완⁴¹⁾과 편을 통해 敞口(直口) 옥벽저완의 소성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M形 匣鉢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에 6~7개 내화토 눈을 받치고 3~5건의 坯件 사이 底部 접지면에 6~7개 내화토 눈을 받쳐 겹쳐 포건 후 匣鉢 위에 놓는다⁴²⁾. 맨 위의 기물은 유약이 전체에 입혀져 있고 그 밑의 기물은 하반부가 施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맨 위의 기물은 外底에만 내화토 눈 흔적이 있으나, 그 밑의 기물은 外底 接地面과 內底 모두 흔적이 남게된다. 撇口(입이 벌어진)碗은 기물의 형체가 크나, 복부가 역시 얇으며, 底部 접지면이 敞口 玉璧底碗 보다 좁다. 일반적으로 노출 소성 포개 구이로 기물 사이에 작고 밀집된 형태의 내화토목을 많게는 10개 이상을 쓴다.

北宋前期에 이르면 내화토 눈이 가늘고 긴 형태로 변한다. 이런 細長 형태의 내화토 눈은 우선 압력을 고르게 받아서, 底部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받치는 내화토 눈의 개수가 적어져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41) 寧波市文物考古研究所:「浙江寧波和義路遺址發掘報告」,『東方博物』1期,1997年.

42) 鄭建華:「越窯青瓷裝燒工藝的初步總結」,『東方博物』第二輯,1999年.

宋代에 이르러 墊圈이 내화토 눈을 대신해 瓷器 底部에 받쳐진다(사진8). 墊圈은 내화토 눈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점에서 진보된 窯道具이다. 우선, 반복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내화토 눈은 기물의 外底 접지면에 받치기 때문에 굽 다리가 깨끗하지 못하나, 墊圈은 기물의 外底에 받쳐지기 때문에 굽 다리 전체에 施釉할 수 있어 외관상 美를 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墊圈을 씌우으로써, 匣鉢과 기물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므로, 서로 눌러 붙어 폐기되는 경우가 적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北宋 후기부터 碗, 盤 등의 굽 다리가 높은 것이 유행했던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IV. 結論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몇 가지의 새로운 인식에 접근하게 되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唐宋 時期 越窯 窯道具의 발전은 세 段階의 發展 過程을 거친다는 점이다. 一段階인 中晚唐 때, 匣鉢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越窯의 瓷器 品質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이 때부터 越窯 靑瓷은 中原의 관심을 받으면서 發展에 박차를 가하였다. 二段階인 五代에는 匣鉢을 비롯한 각각의 窯道具도 瓷土를 사용했으며, 匣鉢과 匣鉢 사이를 釉藥으로 縫해서 燒成할 정도로 功을 들인다. 그의 결과로, 五代의 혼란한 政局에도 불구하고 吳越의 越窯는 계속해서 中原에 貢納되었다. 三段階인 宋代의 越窯는 瓷器의 大衆化를 맞아 大量 生産 段階에 접어든다. 이는 발굴 당시 엄청난 퇴적층 폐기물의 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 北方 名窯들의 다양한 彩色法과 紋樣 技法등이 개발되어 큰 환영을 받게 된다. 반면 비교적 소박하고 單調로운 풍격의 越窯는, 새로운 스타일의 創造에 소홀함으로써 衰退의 길을 걷게 된다.

둘째, 窯道具와 瓷器의 關係에 대한 것이다. 匣鉢 出現 以後의 瓷器는 質的, 量的 면에서 비약의 발전을 했으며, 이는 陶工들의 끊임없는 實驗과 挑戰 精神의 結果物이라 할 수 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窯道具의 變化 過程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의 발전 과정은 당시에 유행했던 자기의 造型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았다. 특히 匣鉢은 자기의 口部와 腹部의 形態에 敏感하게 反應을 보였으며, 각종의 墊具는 瓷器의 굽 부분과 緊密한 關係가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즉 이런 關係 혹은 反應은 당시 瓷器에 대한 審美觀과 實用意識의 反映이라는 것이다.

43) 예를 들면, 용인 서리 묘지에서 출토된 M형 갑발의 변화가 눈에 띈다. 쇠 갑발은 기벽이 얇고 다소 고운 내화토를 사용해 만들었고 위 바닥면에는 내화토 눈 흔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위 바닥면의 깊이가 얇은 편이다. 쇠의 경우는 기벽이 쇠에 비해 두꺼웠으며, 내화토에 굵은 石粒이 많이 섞여 있다. 위 바닥면을 보면 쇠보다 더 깊이가 파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碗, 鉢, 大椀 등의 기물이 시대가 위로 내려올수록 복부도 깊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湖巖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發掘調査報告書』, 1987년, pp.176~179.)

셋째, 앞으로의 과제로 越窯의 窯道具와 初期 高麗靑瓷 가마에서 출토된 窯道具와의 比較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⁴³⁾. 初期의 高麗靑瓷가 中國 越窯의 影響 아래 誕生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否定할 수 없다. 이는 窯道具의 造型을 比較해 보면 더욱 確信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이를 통해 高麗靑瓷와 越窯의 發展 形態가 어떤 共通點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本稿에서 이 부분은 文脈上 좀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언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發掘 資料가 아직 發表되지 않아 그 자료를 公開적으로 引用할 수 없어, 思路를 展開해 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難關에 부딪치게 되었음을 말하고 싶다. 아쉬운대로 이미 발표되었던 다른 자료들로 맞추다 보니, 標本으로 쓴 圖面이 억지스런 부분이 없지 않다. 不足한 부분은 뒷날을 期約하고자 한다.

이

백



唐代 玉璧底의 變遷과 韓半島 해무리굽 磁器의 出現

朴 淳 發 (충남대 고고학과)

I. 序

한반도 자기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국 당대 器皿의 굽처리 방식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假圈足'(平굽)→'玉璧足' 혹은 '玉璧底'(해무리굽 ; 蛇目高臺)→'細圈足'(輪形굽 ; 輪高臺)으로 변천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이 가운데 '玉璧底'는 한반도 자기의 출현시점에 초현하는 해무리굽(혹은 日暈底)과 동일한 형태로서, 해무리굽 제작시점의 特定이 곧 한반도 자기생산의 개시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여러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그 간의 연구성과도 적지 않다.¹⁾

당대 옥벽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龜井明德(1993)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에 따르면 최근까지 알려진 紀年資料 共伴 옥벽저 碗의 출토에는 모두 18건에 달하며, 가장 이른 것이 748년이고(劉家琳1984) 가장 늦은 예가 874년(韓偉 외1988)이다. 그리고 대략 9세기 3/4분기 중에 옥벽저로부터 윤형굽으로 이행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다(龜井明德1993).

본고에서는 그러한 선행 연구성과를 토대로 당대 옥벽저 자체의 변화상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관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물자료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요구되나 그것이 여의치 못하므로 우선 보고된 도면자료를 통하여 그 대략적인 변화의 정형성만을 추구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한반도에서 출토된 輸入 옥벽저 기명들의 연대를 추정해보고 나아가 그러한 唐瓷 옥벽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는 한반도 해무리굽 자기의 제작시기 및 그를 통해 한반도 자기 생산의 출현시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최근까지의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는 崔健1995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II. 唐代玉壁底의 變遷

옥벽저의 출현과 소멸에 대한 전반적인 시간범주는 龜井의 연구를 통해 이미 명확해졌다. 여기서는 약 130여년에 달하는 이 기간 동안의 옥벽저 형태 자체의 변화에 어떤 정형성이 내포되어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해 본다. 옥벽저가 윤행급으로 변화되었음은 분명하므로 전자의 변화는 아마도 점차 굽의 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리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년자료를 공반한 옥벽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아울러 굽의 형태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기년자료 공반 예들에 대한 실물관찰을 보고된 도면자료로 대체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옥벽저의 여러 속성 가운데 직경이나 굽폭 등 규격과 관련된 속성만을 관찰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 역시 정확한 관찰이라 하기 어려우나 도면자료의 특성상 여타 속성에 비해 비교적 정확을 기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는 많지 않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예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 기년자료를 공반한 당대 옥벽급 자기는 763년부터 858년에 걸쳐 모두 16예가 있다. 이들은 모두 당대의 무덤에 부장된 것들로서 공반된 墓誌의 기년에 의해 그 하한연대가 정확한 것들이다. 완 또는 접시인 이들 기명은 일상용이었으므로 묘지에 나타나는 피장자의 사망시점 또는 장례시점으로부터 가까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제작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묘지의 기년을 자기의 제작시점으로 간주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도면 1).

<표 1>을 보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옥벽급의 굽폭이 점차 작아지고 있음이 감지된다. 굽폭을 제작시점, 즉 묘지의 기년에 대비하여 보면 <도면 2>와 같다. 그런데 <표 2>의 분포정형이 과연 옥벽급의 제작시기와 굽폭 변화 사이의 有意한 相關性을 내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작시기, 즉 묘지상의 피장자 사망년도와 부장 자기의 굽폭의 크기를 대상으로 回歸分析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2) (表 1)의 紀年과 굽폭의 크기를 알 수 있는 16개 샘플을 대상으로 線型回歸分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Y(추정 제작시점 : 단위 1년) = 870 - 29X(굽폭 : 단위 cm)
相關係數 $r = -0.575$
決定係數 $r^2 = 0.330$

〈丑 1〉唐代 紀年資料 共伴 玉璧底 器皿 屬性 一覽表連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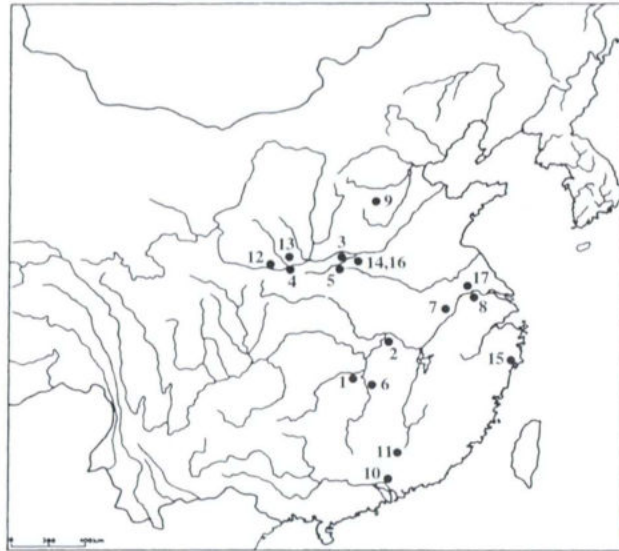
| 連番 | 紀年 | 出土遺構 | 玉璧底 器皿 屬性(cm) | | | | | 出典 | 備考 |
|----|--------------|---------------|---------------|-----|-----|-----|-------|--------------------|---------------|
| | | | 口徑 | 高 | 底徑 | 굽폭 | 굽폭 비율 | | |
| 1 | 763
寶應2年 | 湖南 益陽 鄧俊公墓 | 15.0 | 4.0 | 8.2 | 2.3 | 0.28 | 盛定國1981 | 南方白瓷 |
| 2 | 804
貞元20年 | 湖南 武昌 唐墓 M164 | 13.0 | 4.4 | 5.2 | 1.6 | 0.31 | 全錦云1986 | 南方青瓷
(銅官窯) |
| | | | 14.8 | 3.6 | 5.4 | 1.4 | 0.26 | | |
| 3 | 814
元和9年 | 河南 偃師 鄭紹方墓 | 14.5 | 4.0 | 7.0 | 2.3 | 0.33 | 徐殿魁
1986 | 北方(?)青瓷 |
| 4 | 817
元和12年 | 浙江 南田海島 沈二公墓 | 15.2 | 4.8 | 5.2 | 1.2 | 0.23 | 符永才 顧章
1990 | 南方(?)瓷 |
| 5 | 819
元和14年 | 陝西 西安 李文貞墓 | 12.7 | 3.6 | 5.7 | 1.1 | 0.19 | 陳國英
1981 | ? 白瓷 |
| 6 | 824
長慶4年 | 河南 伊川 齊國太夫人墓 | 14.2 | 3.5 | 7.4 | 1.8 | 0.24 | 麗輝 楊海欽
1995 | 北方白瓷 |
| | | | 15.5 | 4.3 | 8.4 | 2.2 | 0.26 | | |
| 7 | 832
大和6年 | 湖南 長沙 王清墓 | 15.6 | 3.5 | 4.5 | 1.1 | 0.24 | 周世榮1982;
1985 | 南方青瓷
(長沙窯) |
| | | | 13.2 | 4.5 | 5.1 | 1.3 | 0.25 | | |
| 8 | 842
會昌2年 | 安徽 巢湖 伍鈞墓 | 14.5 | 3.7 | 5.8 | 1.8 | 0.31 | 張宏明1988 | 北方白瓷
(邢窯) |
| | | | 14.5 | 3.6 | 6.8 | 1.2 | 0.18 | | 北方白瓷
(邢窯) |
| | | | 13.5 | 4.5 | 4.5 | 1.3 | 0.29 | | 南方青瓷
(長沙窯) |
| 9 | 848
大中2年 | 江蘇 鎮江 王叔寧墓 | 14.4 | 4.2 | 6.4 | 0.7 | 0.11 | 劉建國1985 | 南方白瓷 |
| 10 | 856
大中10年 | 河北 臨城 劉府君墓 | 16.3 | 5.4 | 6.7 | 1.3 | 0.19 | 李振奇외1990 | 北方白瓷
(邢窯) |
| 11 | 858
大中12年 | 廣州 姚潭墓 | 13.6 | 4.7 | 5.7 | 1.2 | 0.21 | 廣州市文物管
理委員會1956 | 北方白瓷
(邢窯)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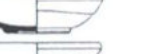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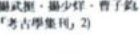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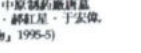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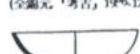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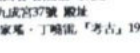

- * 옥벽저의 규격 계속성은 원칙적으로 보고서의 계속치를 따랐으나,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축척에 의해 도상 계속하였음.
- * 굽폭비율은 전체 저경에서 굽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옥벽굽의 폭에서 저경을 나눈 값을 취하였음.

상관계수에 대한 t-檢定 :

t(위험수준 5%, 자유도14)=2.14 < 샘플 t = 2.63

이상의 결과는 굽폭과 제작시기 사이에는 眞의 線型 함수관계가 있으며, 그 상관의 정도는 위험수준 5% 범위내에서 유의한 수준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형 함수의 접합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가 0.330이므로 연대차이의 變量 약 33% 가량이 굽폭의 크기 변량으로써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 | | | | |
|---|--|---|--|--|
| <p>[1] 河南省 登封市 蘇山廟 763年
(盛定風『考古』1981-4)</p>  | <p>[6] 河南省 長沙縣 唐王陵墓 832年
(周世榮『考古學報』1982-4)</p>  | <p>[11] 廣東省 始興市 唐墓 赤南M25
(謝武聖、鄒少輝、曹子武
『考古學集刊』2)</p>  | <p>[14] 河南省 鄭州市
中原制約唐墓
(周軍、蔣江星、于安偉
『文物』1995-5)</p>  | <p>[15] 浙江省 衢州市 青磁窯址
(金祖明『考古』1991-7)</p>  |
| <p>[2] 湖北省 武昌市 唐墓 804年
(全顯元『考古』1990-12)</p>  | <p>[7] 安徽省 巢湖市 唐代磚室墓 842年
(張安明『考古』1988-6)</p>  | <p>[12] 陝西省 麟游縣 新鎮區
唐九武宮37號 殿址
(安家篤、丁曉嵐『考古』1995-12)</p>  | <p>[13] 陝西省 華川市 鄭州宮
(王小蒙『考古與文物』1994-4)</p>  | <p>[16] 河南省 鄭州市
地質醫院唐墓
(顧萬發、丁蘭坡、張供
『華夏考古』2000-4)</p>  |
| <p>[3] 河南省 滎陽市 合園村
唐縣城方壘 814年
(徐殿魁『考古』1986-5)</p>  | <p>[8] 江蘇省 鎮江 唐王叔字墓 848年
(劉建民『考古』1985-2)</p>  | <p>[17] 江蘇省 揚州市 老城區 唐代綠水溝
(王勳金『考古與文物』1995-5)</p>  | | |
| <p>[4] 陝西省 西安市 唐墓 819年
(陳顯英『考古與文物』1981-2)</p>  | <p>[9] 河北省 魏城縣 唐墓 856年
(李振奇、史元征、李蘭河『文物』1990-5)</p>  | <p>[10] 廣東省 廣州市 唐墓 858年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
『文物參考資料』1986-5)</p>  | | |
| <p>[5] 河南省 伊川市
唐帝國太夫人墓 824年
(嚴輝、嚴海欽『文物』1995-11)</p>  | | | | |



〈도면 1〉 中國唐代主要 青磁器 磁器 分布

다.²⁾ 즉, 제작시기가 이룰수록 굽폭이 넓고 늦을수록 굽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분석 대상 옥벽굽의 공간적인 분포가 광범위하고 그에 따라 제작 기술의 계통 역시 단일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임에도 제작시기와 굽폭 사이에 이처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이는 唐代의 옥벽굽의 변화가 제작집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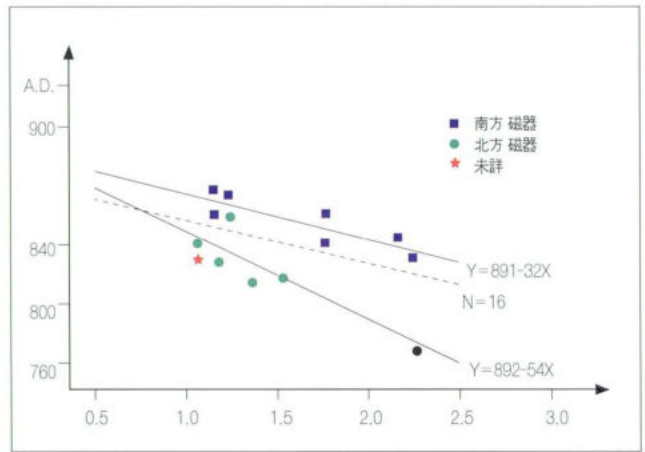
그렇다면 비교적 좁은 지역 또는 동질성이 비교적 높은 제작집단들의 산품을 대상으로 한다면 옥벽굽의 변화 정형성은 더욱 뚜렷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자료에 대한 보고서의 견해를 근거로 하여 크게 남방 제작집단 또는 제작지역 및 북방제작집단 또는 제작지역으로 세분하여 보았다.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남방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는 모두 8개의 옥벽굽이 있으며, 북방집단은 모두 7개의 옥벽굽이 있다. 그리고 西安 李文貞墓 출토품은 구분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南方群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옥벽굽의 예는 <표 1>의 1, 2, 4, 7, 9 및 8의 3점 가운데 1점등 모두 8점의 자기들이다. 이를 대상으로 옥벽굽의 굽폭과 제작시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보기 위하여 回歸分析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Y(제작시기 : 단위 1년) = 892 - 54X(굽폭 : 단위 cm)
 相關係數 $r = -0.918$
 決定係數 $r^2 = 0.842$
 상관계수에 대한 t-檢定 : $t_s = 5.69 > t(\text{위험수준}1\%, \text{자유도}6) = 3.71$

이는 굽폭과 제작시점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제작시기상의 차이(Y 변량)는 약 84% 가량 굽폭(X 변량)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이렇하다. 상관계수는 0과 1사이의 수치로 나타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는 0이 되며, 완전한 상관관계에 있으면 1이 된다. 그러므로 분석



(도면 2) 唐代 紀年資料 共伴 玉璧底의 變化定型

결과 산출된 0.918이라는 값은 거의 완전상관에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관정도에 대한 신뢰수준은 99%(위험수준 1%)로 나타났다. 한편, 결정계수는 주어진 샘플들이 도출된 회귀함수 모델에 어느 정도 일치되는냐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그 값이 0.842라는 것은 Y값, 즉 제작연대상의 변량의 약 84%가 X값, 즉 굽폭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상관의 구체적인 형태는 상관계수 수치 앞의 + 와 - 로 표시되는데, 이 경우 - 이므로 負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대가 늦을수록 굽폭이 줄어들고 연대가 이룰수록 굽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굽폭의 넓이가 2.0cm 인 당대 남방자기의 옥벽굽은 위의 함수에 대입하여 782년경에, 굽폭이 1.0cm 인 것은 837년경에 각각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약 84%) 것이다.

북방군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이와 거의 같은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Y(\text{제작시기 : 단위 1년}) = 891 - 32X(\text{굽폭 : 단위 cm})$$

$$\text{相關係數 } r = -0.885$$

$$\text{決定係數 } r^2 = 0.783$$

$$\text{상관계수에 대한 } t\text{-檢定 : } t_s = 4.25 > t(\text{위험수준1\%, 자유도5}) = 4.03$$

상관계수가 -0.885이므로 높은 負의 상관관계에 있고 상관정도에 대한 신뢰수준 역시 99%이다. 다만 결정계수는 남방군에 비해 조금 작아 0.783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회귀함수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X 앞의 수치가 남방군에 비해 작은 것이다. 이는 동일한 제작시점이라도 남방군에 비해 굽폭이 그 만큼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810년경에 제작된 옥벽굽의 경우 남방군의 것은 굽폭이 1.5cm 인데 비해 북방군은 2.5cm 가량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동일한 굽폭을 가지고 있더라도 북방군의 옥벽굽은 남방군의 옥벽굽에 비해 제작시기가 늦다는 의미가 된다. 비록 叢誌와 같은 기년자료를 공반한 예들이 아직 그다지 많지 않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상으로는 분명히 이러한 경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의 여지도 없지 않다. 남방군 옥벽굽이 북방군의 그것에 비해 제작시기가 이르게 나타나고 있는 본 분석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면, 옥벽굽의 제작기법은 남방에서 등장하여 북방으로 확산 수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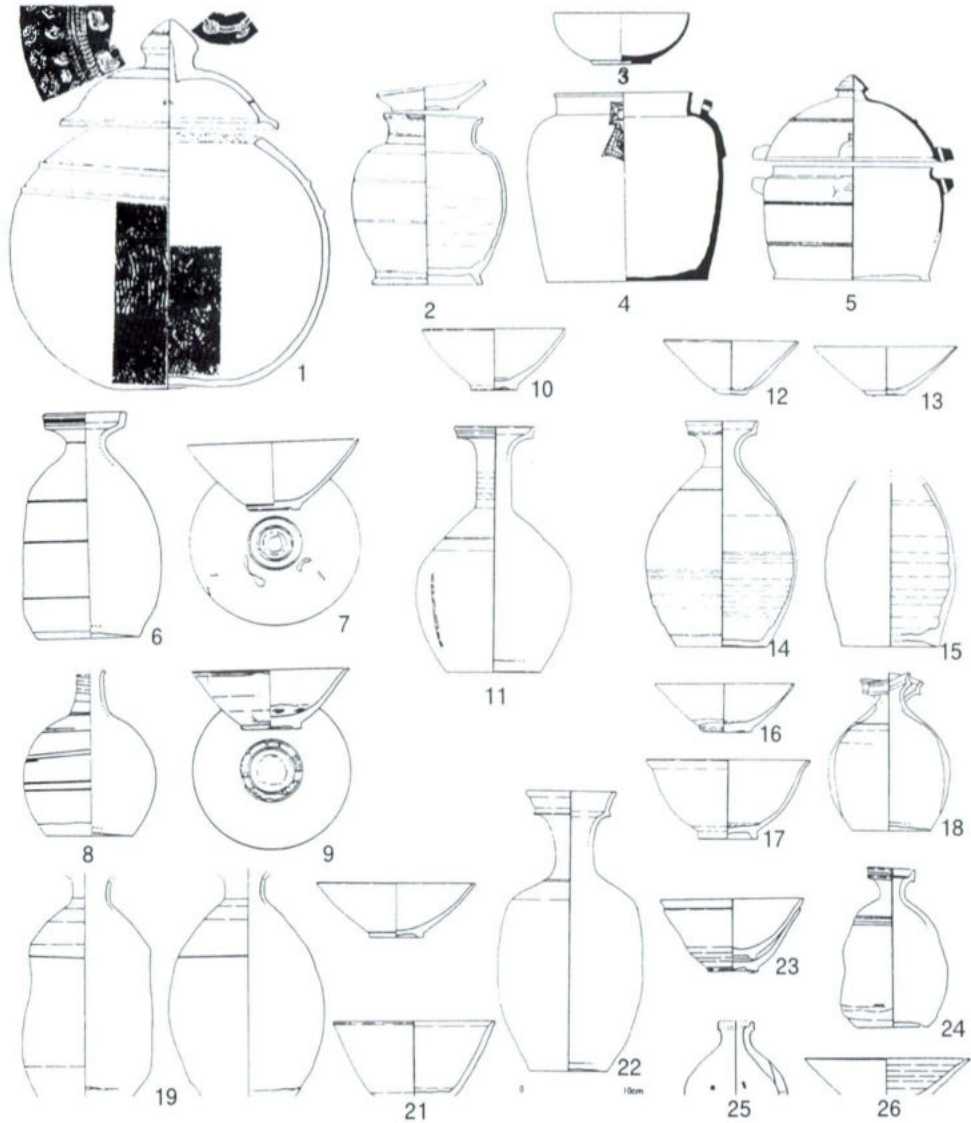
지금까지 唐代 옥벽굽의 변화 경향을 기년자료 공반예를 통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기년자료는 모두 墓誌銘에 기록된 피장자의 사망시점 또는 매장시점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부장된 옥벽굽 자기 기명들의 제작시점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부분 碗이나 접시 등 일상 기명들이므로 부장시기가 제작 또는 사용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묘지명의 기년을 부장 자기의 제작시점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 분석의 결과는 당대 옥벽굽 자기들의 제작시기 변천에 따른 옥벽굽 굽폭의 변화 경향이라 하여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용납된다면 기년자료를 공반하지 않은 대다수의 자료들 특히, 한반도 및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당대 옥벽굽 자기들의 제작시점을 비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각지에서 출토되는 당대 옥벽굽 자기들은 수입되어 사용되다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을 것이므로 현지의 고고학 편년자료 또는 기년자료와 공반되더라도 그것에 의해 옥벽굽 자기의 제작시점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당대 옥벽굽 자기의 제작시점을 옥벽굽의 굽폭과 같은 속성을 통하여 그 자체로써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의 모색은 절실하다. 이하 한반도 출토 옥벽굽 자료를 대상으로 본 분석 결과를 활용해 그 제작시점을 추정해보므로써 그 유용성을 검증해 보기로 하자.

Ⅲ. 韓半島出土 해무리굽 磁器의 年代

한반도에서 출토된 중국제 옥벽굽 자기완의 예로는 경주 雁鴨池, 皇龍寺 등 왕실 및 大刹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던 것들이 있으나 이와 공반된 국내 고고학 편년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여기서의 검토대상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당시의 토기 등 고고학편년자료와 공반된 예들로는 익산 彌勒寺址 출토 越州窯系 청자완 및 邢窯系 백자완, 경주 拜里 출토 월주요계 청자완(姜敬淑1987), 경주 錫丈洞 출토 청자완(李熙濬1992) 등이 있다.

경주 배리 출토 월주요계 옥벽저 청자완은 저경 6.0cm, 굽폭 2.0cm, 그리고 굽폭비율은 0.33이다(도면 3-3). 월주요는 남방군이므로 전술한 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보면 그 제작시점은 782년경으로 추정된다. 이 청자완은 골호의 內壺로 사용된 長沙窯系로 추정되는 청자호(도면 3-4)의 뚜껍으로 전용되었는데, 내호를 넣은 外壺(도면 3-5)는 신라토기이다. 이 외호의 형태는 傳閔哀王陵 봉분



1·2:경주 석장동 동국대 교내출토 藏骨器(李熙濟 1992), 3~5:경주 배리(姜敬淑 1987), 6·7:대전 노은동 월드컵부지 A-1-46호분(한남대학교박물관 1998), 8·9:대전 노은동 월드컵부지 A-1-48호분(한남대학교박물관 1998), 10·11:경산 임당 A-6호분(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a), 12~15:경산 임당 D-Ⅲ-11호분(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b), 16~18:경산 임당 D-Ⅳ-12호분(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b), 19·20:상주 청리 A가19호분(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c), 21·22:상주 청리 A나56호분(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d), 23:고흥운대리 청자1호가마, 24~26:시흥 방산동요지

(도면 3) 羅末麗初 土器와 해무리굽 磁器의 共伴 例(S:1/7, 23~26:參考資料)

에서 출토된 “元和十年”(815년)銘 골호(鄭良模·李健茂·崔鍾圭1985)와 유사하여 대략 9세기 초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얼마간의 형태적 차이도 있다. 원화10년명 골호의 뚜껍은 배리의 것에 비해 높이가 낮으며, 본체도 약간 높아져 전반적으로 날렵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세부 형태의 차이가 제작 시점상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지금 자세하지 않으나 원화10년명 골호에 비해 배리 골호는 다소 앞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아무튼, 적어도 배리의 골호를 원화10년 무렵으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호의 뚜껍으로 전용된 월주 청자의 제작추정 시점과는 약 30년의 시차가 있게 된다. 청자완이 골호의 뚜껍으로 전용되기 이전에 실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므로 이러한 시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용 청자완이 과연 30여 년 동안 파손되지 않은 채로 사용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의문도 있을 수 있으나 외호로 사용된 토기호의 제작시점이 815년 이전으로 얼마간 소급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청자완의 제작시점 역시 딱히 782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시차는 다소 좁혀질 수도 있다.

아무튼, 중국 당대의 남방자기군의 옥벽굽 변화정형에 토대를 둔 회귀방정식의 유용성이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며, 오히려 이를 통해 제작시점 또는 수입시점부터 골호의 뚜껍으로 전용되어 최종폐기될 시점 사이의 보다 구체적인 시간 폭을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그 유용성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경주 석장동 출토 청자완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 역시 장골기의 내호 뚜껍으로 전용된 것이다(도면 3-1, 2). 이 청자완은 월주요계이므로 당대의 남방군 옥벽저에 분류될 수 있다. 옥벽저의 지경은 7.0cm, 굽폭은 1.6cm, 그리고 굽폭비율은 0.23이다. 이를 앞서본 회귀방정식에 대입해보면 804년이 청자완의 제작시점이 된다. 폐기시점이 9세기 중엽전후로 비정되는 일본 平城京 출토 청자완과의 형태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석장동 청자완의 연대를 9세기 중엽으로 비정하는 한편 공반된 신라토기의 편년적 위치도 이 무렵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견해(李熙濬1992)가 제시되었다. 필자도 이러한 연대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완의 제작시점을 9세기 중엽이전으로 생각하는 한편, 그 전세기가를 감안한다면 9세기 전반 이전으로 올려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기한 바(朴淳發 1998 : 557) 있다.

석장동 청자완의 연대추정은 폐기시점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것도 일본 평성

경의 예를 인용한 것이므로 불안한 부분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반된 토기 자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자완이 뚜껑으로 사용된 장골기의 내호 토기(圖 3-2)는 형태적으로 “永泰二年”(766년)銘 蠟石製骨壺의 內壺와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도 있다. 영태2년명 장골기 내호 표면에는 點列文이 지그재그상으로 시문되어 있는 데 비해 석장동 내호는 등체에는 문양이 없고 목부분에만 파상선문이 음각되어 있다. 이러한 시문기법의 차이는 시간적인 추이와 관련이 있다. 전자의 기법이 출현시점 및 성행시기가 선행하는 것이다(朴淳發2000). 그리고 전체 기형상으로도 석장동 것은 영태2년의 것에 비해 최대동경이 中腹部 이상으로 상향되고 있어 시문기법상의 차이와 대응되고 있다. 그러므로 석장동 내호 토기는 영태2년명 장골기의 내호보다는 얼마간 늦은 시점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토기호는 羅末麗初土器의 제2단계(750-850)를 벗어나지는 않는다(朴淳發2000). 그렇다면, 석장동 내호는 크게 보아 766-850년 사이에 해당되는 분명하다 할 것이다. 전술한 옥벽굽 굽폭에 의해 산정된 804년의 결과와는 모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토기의 연대가 9세기 중엽이라면 청자완의 제작 및 수입시점과는 약 40여년의 시차가 있는 셈인데, 석장동의 것은 파손된 것을 재가공해 골호의 뚜껑으로 전용한 것인 만큼 상정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다. 그러므로 석장동 청자완의 경우에서도 회귀분석의 결과는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륵사지 출토품은 자세한 보고가 없어 여기에서 검토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실물관찰의 기회를 통하여 보충하고자 한다.

이상을 통해 당대 옥벽저 굽폭 변화 정형 회귀방정식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셈이다. 이제 이를 근거로 聖住寺址 출토 중국제 옥벽굽 자기완의 제작 및 수입시점을 추정하는 데에 실용해보기로 한다. 성주사지 출토 당대 옥벽굽 자기는 모두 6점으로서 그 가운데 邢窯系 백자완편이 2점이고 나머지는 모두 越州窯系 청자완편이다. 옥벽굽의 속성 및 굽폭에 의한 추정 제작시점은 <표 2>와 같다.

성주사지 출토 당 자기들의 추정제작 시점은 810 - 849년경으로 짐작됨을 알 수 있다. 성주사에서 이러한 당 자기를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었을 정도의 寺勢는 아무래도 聖住寺의 開創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朗讚가 중국으로부터 돌아와 사세가 기울었던 兪 烏舍寺를 맡아 駙錫한 연후 文聖王이 “聖住禪院”을 賜名한 시점은 847년이므로 이들 당 자기들은 바로 이 무렵을 전후한 시점에 제작

〈표 2〉 聖住寺址 出土 中國製 해무리굽 磁器 屬性 一覽表

| 連番 | 產地 및 材質 | 玉璧底 屬性 | | | 推定 製作時點 |
|----|---------|--------|-----|------|---------|
| | | 底徑 | 굽폭 | 굽폭비 | |
| 1 | 邢窯系 白瓷 | 6.6 | 1.5 | 0.23 | 843년 |
| 2 | 邢窯系 白瓷 | 6.5 | 1.3 | 0.2 | 849년 |
| 3 | 越州窯系 靑瓷 | 6.4 | 1.5 | 0.23 | 810년 |
| 4 | 越州窯系 靑瓷 | 7.2 | 1.4 | 0.19 | 816년 |
| 5 | 越州窯系 靑瓷 | 6.5 | 1.1 | 0.17 | 833년 |
| 6 | 越州窯系 靑瓷 | 5.7 | 1.0 | 0.18 | 837년 |

수입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는데, 그러한 당시의 사정과 옥벽저의 굽폭에 의해 추정한 제작 시기는 거의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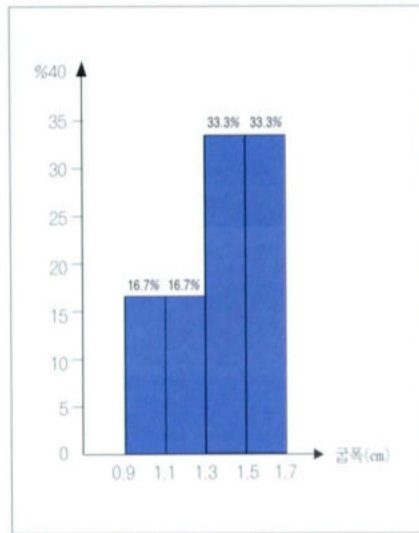
한편, 성주사지에서는 이러한 수입 唐瓷 이외에 한반도에서 중국계의 요업기술에 의해 현지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자기와, 이와는 기술계통이 또 달라 한반도 토착계의 해무리굽 자기들도 출토되었다(朴淳發1998 : 547-556). 이들은 일단 중국현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전술한 굽폭에 의한 제작시점 추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기술집단들의 기본적인 바탕은 역시 중국의 요업기술임은 분명하고 특히 그 가운데 越州窯系와 관련될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異論이 없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요업을 개시할 무렵의 중국 남방 요업군의 요업기술과 단절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기술집단의 산품을 통해 역으로 그들이 한반도에서 각기 요업을 개시한 시점을 추정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일본의 경우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자기의 옥벽저를 충실히 모방한 토기 기명들이 현지에서 제작되고 있으므로(龜井明德1993) 한반도 생산 옥벽저 자기 역시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따라서 필자는 한반도 자기생산 요업기술 계통을 중국 남방군과 같은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가 옥벽저 굽폭 변화의 정형 역시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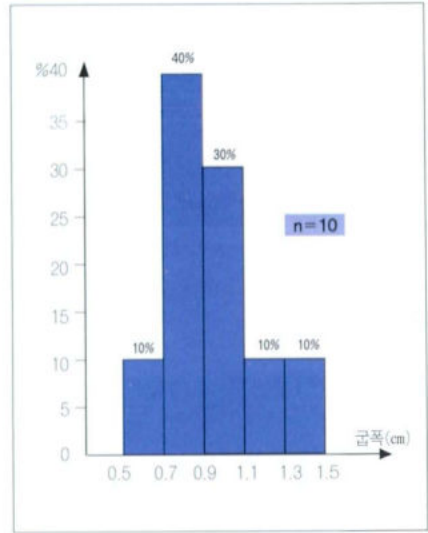
이제 성주사에서 출토된 한반도산 해무리굽³⁾ 자기의 제작시점을 당대 남방군 옥벽저 굽폭 변화정형에 근거한 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추정해보기로 한다.

먼저, 중국계 기술집단에 의한 현지산 자기들에 대해서다. 이들은 최근 始興

3) 본고에서 “玉璧底” 또는 “玉璧굽”으로 표기한 것은 中國製를 말하며, “해무리굽”으로 표기한 것은 한반도 現地產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국계는 중국의 用字에 따라 “靑瓷”, “白瓷” 등으로 표현하였으나 한반도산의 경우는 우리측의 용지에 비추어 “靑磁”, “白磁” 등으로 표기하였다.



〈도면 4〉 保寧 聖住寺址 出土 中國製 해무리굽 磁器 굽폭 분포 百分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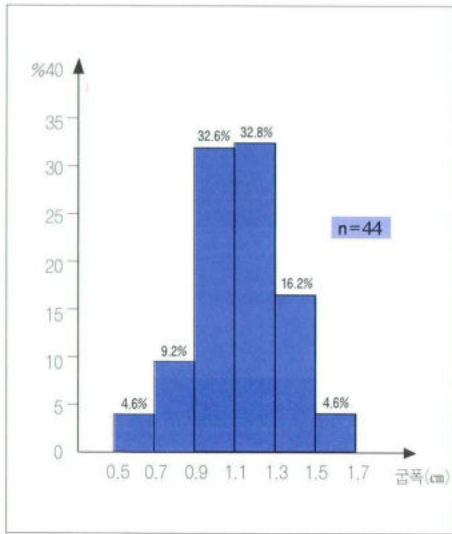
〈도면 5〉 保寧 聖住寺址 出土 中國系 해무리굽 磁器 굽폭 분포 百分率

放山洞 窯址 조사 결과 벽돌로 만든 가마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량생산을 위한 疊燒를 즐겨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주사지 출토 중국계 해무리굽 자기는 모두 靑磁들로서 10점이 있으며, 굽폭의 분포는 〈도면 5〉와 같다. 가장 넓은 것은 굽폭 1.3cm, 굽폭비율 0.22이며, 가장 좁은 것은 굽폭 0.6cm, 굽폭비율 0.12이다. 그에 따라 제작시기를 추정해보면 822-860년 사이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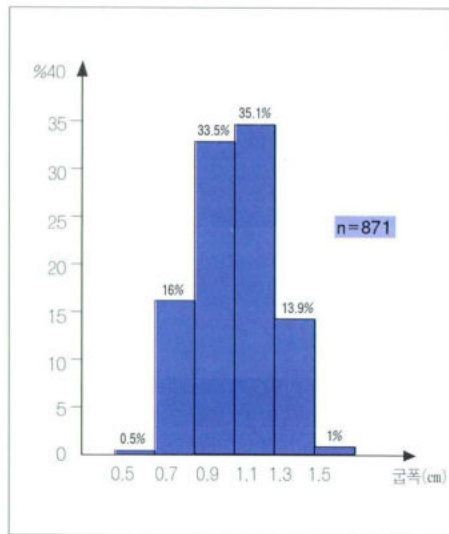
다음은 토착계 기술집단에 의해 생산된 해무리굽 자기들이다. 성주사지에서 출토된 것은 모두 44점으로서 굽폭의 분포양상은 〈도면 6〉과 같다. 가장 넓은 굽폭은 1.6cm, 굽폭비율 0.27이며, 가장 좁은 것은 굽폭 0.5cm, 굽폭비율 0.14이다. 굽폭에 의한 추정 제작시점은 804-865년 사이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9세기 전반경에 이미 한반도에서는 당대 자기 요업기술을 답습한 현지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당시의 자기 생산경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는 성주사지 출토품을 통하여 보는 한 중국계 자기의 수입은 주로 9세기 전반경에 집중되며, 9세기 중엽경부터는 현지산품 일색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계 기술집단에 의해 생산된 해무리굽 자기들은 대략 860년경을 고비로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소비유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생산유적인 龍仁 西里 白磁窯址 출토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서리에서는 해무리굽 백자에 앞서 “先해무리굽”으로 命名된 輪形굽을 가진 일련의 기명들이 먼저



〈도면 6〉 保寧 聖住寺址 出土 國產 해무리굽 磁器 굵폭분포 百分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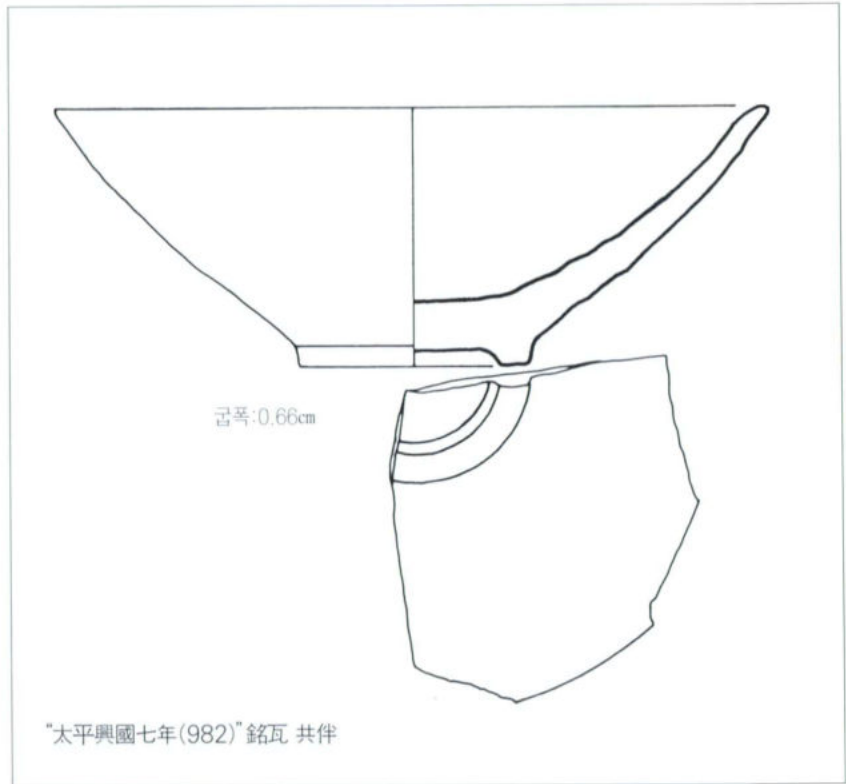


〈도면 7〉 龍仁 西里 窯址 出土 國產 해무리굽 磁器 굵폭분포 百分率

생산되고 있었음이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율형굽 기명을 생산하던 가마는 벽돌로 만들어진 점으로 보아 전술한 중국계 기술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업집단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해무리굽 백자를 생산한 가마는 土築窯로서 전술한 토착계 기술집단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용인 서리 요는 최초 중국계 기술집단으로부터 토착계 집단으로 기술계통이 교체된 것으로도 이해된다(崔健2000).

중국에서의 굵형태변화는 冒頭에서 본 것처럼 옥벽저에서 율형굽으로 이행되며, 그 시기는 대략 9세기 3/4분기 무렵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미 율형굽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龜井明德1993) 옥벽저와의 공존기간이 존재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용인서리의 사정은 율형굽 중심의 기명을 제작하던 집단으로부터 해무리굽 백자를 주산품으로 하는 집단으로의 교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교체시점은 해무리굽의 굵폭의 분포로 보아 대략 9세기 전반-중엽경으로 판단된다. 〈도면 7〉을 보면 제 1차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전체 871개체의 해무리굽 완의 약 85% 이상이 굵폭 1.2cm 이하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무리굽 백자 생산의 시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당대의 백자는 주로 북방군과 관련되나 용인 서리의 백자 생산 집단의 기술계통이 南方群인지 北方群인지는 지금 확실하기 어렵다. 만약 당대 북방군 옥벽저 굵폭변화에 대입시켜 보면 대략 853년경이 중심이 되고 남방군 굵폭변화에 대입하면 827년경이 된다.

한반도 생산 해무리굽 자기의 하한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이



〈도면 8〉永同 稽山里遺蹟 出土 해무리굽 靑磁 碗(S:1/3)

와 관련해 참고 될 수 있는 자료 가운데 永同 稽山里 유적 출토 청자완이 있다. 이 완은 “太平興國七年”(982)銘 기와가 사용된 건물지에서 출토되었으므로 대략 10세기 후반경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면 8〉에서 보는 것처럼 굽폭이 좁은 해무리굽 또는 초기의 윤형굽 형태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해무리굽의 하한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결코 10세기를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IV. 結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 唐代 紀年資料를 共伴한 玉壁底 기명들에서 관찰되는 옥벽저의 굽폭의 변화 정형성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옥벽저의 굽폭변화는

제작시점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확인가능한 자료를 대상으로 남방군과 북방군으로 세분하여 본 결과 굽폭의 크기를 통해 신뢰할 만한 수준의 구체적인 제작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回歸方程式을 導出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唐代 南方群 玉璧底 製作時點 = 892 - (54 x 굽폭 : 단위 cm)

唐代 北方群 玉璧底 製作時點 = 891 - (32 x 굽폭 : 단위 cm)

다음으로는 이러한 회귀방정식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에서 출토된 당대 수입자기를 대상으로 그 제작시점을 추정해보고 이를 공반된 편년자료와 대비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긍정적인을 알았다. 이는 폐기시점의 편년자료만을 근거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로서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중국 당대 옥벽저 자기 생산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반도산 해무리굽 자기의 제작시점을 당대의 옥벽저 굽폭 변화정형을 원용하여 추정하여 보았다. 소비유적의 하나인 聖住寺址 출토품을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9세기 전 반경에 이미 2계통의 요업기술집단이 한반도에서 자기를 생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본고의 검토결과는 토기와 공반된 해무리굽 자기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朴淳發1998)와도 부합되고 있다(도면 9). 博築窯에서 壘燒를 주로 하는 대량생산체제의 중국계 요업집단과 土築窯를 사용하는 토착계 요업집단이 그것이다. 전자는 대략 9세기 중엽경 이후 소멸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비해 후자는 이후 한반도 자기생산의 주류를 점하면서 고려시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무리굽의 소멸 시점은 永同 稽山里 출토예로 보아 대략 10세기 후반경으로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끝으로, 龍仁 西里에서 해무리굽 白磁에 선행하는 이른바 “先해무리굽”의 존재는 9세기 중엽경 唐瓷 器皿에서도 玉璧底와 함께 輪形굽이 점차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아 특이한 것은 아니며, 아마도 그 무렵 중국계 기술의 벽돌가마에서 유행굽을 생산하던 요업집단에서 土築窯에서 해무리굽 백자를 생산하던 요업집단으로의 변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에 사용된 도면은 충남대학교 박물관 조교 李亨源과 연구원 金美京의 도움으로 작성되었다.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 구연 형태 | 700년 | | 750년 | | | | 800년 | | | | | | | | 850년 | | | | 출토 유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단계 | 2 단계 | A1 | E1 | D1 | A2 | A3 | B1 | C1 | B2 | C2 | D2 | F1 | D4 | G1 | G2 | E2 | E4 | | E3 | E5 | I1 | I2 | G3 | H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본동경박물관소장 : 1 | 경주 안압지 : 2,3,8,17,26,
51,70,78,82,88,91-94
永寧2년(766)명 남식재호
반출 : 4 | 경주 직장동 동국대 구내
출토 장광기 : 5,66,104
보령 진곡리요지 : 6,7,8,
10,13,14,16,18,33,40,41,
44-50,52-54,57,79,87,90
보령 상주서지 : 15,43,61,
63,77,100,101,105-109,
112,113,116,119-123,
125-128
익산 비희서지 : 12,23,24,
25,29,30,31,34,55,58,59,
60,62,72,73,74,76,80,85,95
대전 노은동힐드립부지
A-1-48호분 : 19,114
대전 노은동힐드립부지
A-1-46호분 : 38,115
경산 일당 A-6호분 :
30,124
경산 일당 D-IV-12호분 :
21,120
경산 일당 D-III-11호분 :
22,130
영암 구림리요지 : 27,86
상주 철리 A-가-19호분 :
28,118
홍원도 천부동 2호분 :
32,35,36,84
시흥 명산동요지 : 37,117
시흥 서당동요지 : 39,81
부여 부소산성 :
42,67,68,69
경주 황왕서지 : 56,71,75
仁 仁(永)원(原) 동(東) 주(州) 변(邊) 출(出) 토(土)
元和十年(815)명(銘) 광(光) 호(呼) : 64
경주 배리 : 66, 103
시흥 한우림 제2유물서지 :
83,89
고령 운대리 4호요지 :
96,98,111
고령 운대리 1호요지 :
97,131
고령 운대리 2호요지 :
110,132,133,134
요인 서리요지 : 99
상주 철리 A-나-56 : 136
인산 읍대리 : 1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기
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기
접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산철지
(해무리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국제
철지
(해무리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산철지
(해무리굽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면 9〉 羅末麗初 土器 및 해무리굽 磁器의 綜合編年表

【參考文獻】

- 姜敬淑 1987, 「慶州 拜里出土 土器骨壺 小考」, 『三佛 金元龍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II』, 一志社.
- 朴敬源·丁元卿 1983, 「永泰二年銘蠟石製壺」, 『年報』6, 釜山直轄市立博物館.
- 朴淳發 1998, 「羅末麗初 土器와 해무리굽 磁器의 共伴關係 檢討」, 『聖住寺』, 忠南大學校 博物館.
- 朴淳發 2000, 「羅末麗初 土器 編年 豫考」, 『韓國考古學과 古代史-鶴山 金廷鶴博士 頌壽紀念 論叢』, 學研文化社.
- 李鍾宣·金載悅·朴淳發 1987, 「龍仁西里高麗白磁窯」, 湖巖美術館.
- 李熙濬 1992, 「慶州 錫丈洞 東國大 構內出土 藏骨器-中國青磁가 伴出된 例」, 嶺南考古 學』11.
- 鄭良模·李健茂·崔鍾圭 1985 「傳聞哀王陵周邊整備報告」, 國立慶州博物館.
- 崔健 1995, 「고려청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美術史論壇』1.
- 崔健 2000, 「羅末麗初 韓國 磁窯의 系列과 變遷」,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龍仁市.
- 龜井明德 1993, 「唐代玉壁高台の出現と消滅時期の考察」, 『貿易陶磁研究』13.
-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 1956, 「三年來廣州市古墓葬的清理和發見」, 『文物參考資料』1956-5.
- 徐殿魁 1986, 「河南偃師杏園村的六座紀年唐墓」, 『考古』1986-5.
- 盛定國 1981, 「湖南益陽縣赫山廟唐墓」, 『考古』1981-4.
- 麗輝·楊海欽 1995, 「伊川甄齡唐齊國太夫人墓」1995-11.
- 劉建國 1985, 「江蘇鎮江唐墓」, 『考古』1985-2.
- 劉家琳 1984, 「兩件反映道教內容的卽窯瓷碗『文物』1984-10.
- 李振奇·史元征·李蘭珂, 「河北臨城縣七座唐墓」, 『文物』1990-5.
- 張宏明 1988, 「安徽巢湖市唐代磚室墓」, 『考古』1988-6.
- 全錦云 1986, 「武昌唐墓所見銅官窯瓷器及其相關問題」, 『考古』1986-12.
- 周世榮 1982, 「長沙唐墓出土瓷器研究」, 『考古學報』1982-4.
- 周世榮 1985, 「略談長沙棠王清墓與出土瓷器的窯口問題」, 『考古』1985-7.
- 陳國英 1981, 「西安東郊三座唐墓清理記」, 『考古與文物』1981-2.
- 韓偉鈞 1988, 「扶風法門寺塔唐代地宮發掘簡報」, 『文物』1988-10.

이

백



9~11세기 龍仁 西里 白磁窯와 지방세력

김 난 옥(고려대 강사)

I. 머리말

유적의 발굴·조사는 생생한 당시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방법이다. 전래되는 문헌이 많지 않은 고려시대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유적지 및 출토 유물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백자요는 1930년대 淺川伯教에 의해 발견된 이후, 국내 유일의 초기 고려백자요지로서 이미 1960년대부터 그 중요성이 학계에 널리 인식되어져 왔다. 이후 1980년대 3차례에 걸친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과 초기 제작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유적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사적 329호로 지정되었다.¹⁾

이후 西里 窯址를 통한 陶磁史 연구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선해 무리굽완과 해무리굽완의 제작시기와 변화과정에 관심이 집중되었다.²⁾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기 발생과 초기 상황에 대한 획기적인 단서가 제공되었다. 종래 고려백자의 발생시기는 대체로 10세기초 내지 중엽 이후로 파악되어 왔다.³⁾ 그러나 서리 요지의 開窯 시기가 늦어도 9세기 전반기의 말엽경으로 추정됨에 따라 1세기 이상 고려백자의 편년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종래 중국에서의 수입품으로만 여겨왔던 雁鴨池 등의 古式靑磁 出土品들이 우리나라 자

1) 이상의 설명은 金載悅의 「龍仁西里高麗白磁窯址掘 概要」(『龍丘文化』 第14號, 龍仁文化院, 1988, 3)와 田勝昌의 「龍仁西里窯址 出土遺物の 檢話」(『제2회 용인시사학술대회—용인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발표논문집)』, 용인문화원, 2000, 12) 참조.
 2) 金載悅, 「龍仁西里高麗白磁窯址掘 概要」 『龍丘文化』 第14號, 龍仁文化院, 1988, 3.
 3) 崔健, 「고려청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韓國美術史論叢』, 창간호, 1995.
 金載悅, 「龍仁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고려시대의 용인』, 학연문화사, 1998.
 3) 姜敬叔, 「高麗白磁의 研究」 『考古美術』 171·172, 1986, 22~23쪽.

체적으로 생산되었을 가능성에 확신을 더해 주었다는 점⁴⁾, 벽돌가마와 진흙가마의 중첩, 83m 대형가마의 모습 등에서 보여지는 가마유구의 중요성⁵⁾ 또한 서리요지의 역사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이처럼 백자요의 출토상황과 특징 등이 자세히 규명됨에 따라 고려시대 陶磁史 연구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다.

한국 도자사 연구에서 서리 백자요지의 위치와 의미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반면, 이 시기 백자요의 생산자 계층과 수요층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백자요를 둘러싼 지역세력의 대한 신분적 측면에서의 고찰도 의미 있는 주제가 될 것 같다. 이 글에서는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陶工을 비롯한 백자요 수공업자와 이들을 보조한 계층, 所民 내지 部曲民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생산계층과 호족 등과 같은 지방세력과의 연관성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窯와 지역세력의 양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료가 별로 없고, 더구나 도자사에 문외한인 필자로서는 상당 부분 추론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II. 백자요 생산계층의 신분

용인 서리 백자요에서 도자기가 활발하게 생산되던 시기는 9~11세기이다. 유적발굴을 통해 시기를 달리하는 3기의 가마유구가層을 이루면서 중첩되었음이 밝혀졌다. 가마유구는 돌가마(石造가마)→벽돌가마→진흙가마로 이어지는데窯業 기술상의 발전 내지는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중 돌가마유구는窯 구조 중에서 가장 앞선 시기의 가마였으며, 출토되고 있는 해무리굽 이전의 이른時期에 燒成된 백자편을 중심으로 일부 해무리굽片도 포함하고 있어 해무리굽 초기의 가마였을 가능성이 짙다. 그리고 벽돌가마의窯床砂堆積에는 오직 해무리굽時期의 磁片만이 출토되고 있다. 또한 西里窯址에서의 최종가마인 진흙가마에서 출토된 磁片은 모두 해무리굽 다음 단계의 것들이다.⁶⁾

한편 가마의 좌우측에 형성된 퇴적구릉 조사에서 4개의 자연층위가 확인되었는데, 이곳 퇴적층에서 출토된 유물의 분석을 통해서도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4) 全載悅, 「龍仁西里高麗白磁窯址掘 概要」, 『龍丘文化』 第14號, 龍仁文化院, 1988, 3, 32쪽.

5) 全載悅, 「龍仁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고려시대의 용인』, 학연문화사, 1998, 230~233쪽.

6) 全載悅, 「龍仁西里高麗白磁窯址掘 概要」, 『龍丘文化』 第14號, 龍仁文化院, 1988, 3, 26~27쪽.

있다. 최하층인 I기에서는 청자와 백자가 함께 출토되었고, II기층에서는 질이 좋은 백자와 청자가 제작되었다. III기와 IV기층에서는 백자가 제작되었는데, 이전에 비하여 기종과 기형이 다양해짐과 아울러 질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⁷⁾

진흙가마가 앞 시기에 비해 釉·胎의 質이 현저하게 底下된 粗質品들로 구성된 사실은 당시 사회 경제적인 要因을 큰 변수로 생각해볼 수 있다.⁸⁾ 아울러 진흙가마의 규모가 80m를 넘는 대형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고려 전반에 磁器文化의 大衆化 추세가 地方에까지 보편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견해⁹⁾ 역시 지방세력의 추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점들과 검증을 통해 西里 窯址의 활동시기는 9~11세기로 추정되고 있다.¹⁰⁾

용인 백자요의 연대가 9~11세기의 오랜 시간에 걸쳐있으므로 여기에 관련된 생산계층 및 지방세력가에 대한 분석은 시기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羅末~高麗前期라는 시기에 유의하면서 서리 백자요 존속기간 동안의 지방세력의 동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백자요의 생산계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생산계층은 전문적인 수공업자(工匠·匠人)와 이들을 보조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자기를 공급하는 所가 존재하였다.

가) 지금 살펴보면, 新羅에서 州郡을 설치할 때 그 田丁과 戶口가 縣이 되지 못할 것은 曠 鄉을 두고 曠 部曲을 두어 所在한 邑에 속하게 하였다. 高麗 때에 또 所라고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金所·銀所·銅所·鐵所·絲所·紬所·瓦所·炭所·鹽所·墨所·糞所·瓷器所·魚梁所·薑所의 구별이 있어 각각 그 생산물을 공급하였다. ... 위의 諸所에는 모두 土姓과 吏民이 있었다.¹¹⁾

7) 뒤적의 출토 상황과 특징에 대해서는 田勝昌의 「龍仁 西里窯址 出土遺物の 檢討」(『제2회 용인시사학술대회—용인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새즈명(발표논문집)』, 용인문화원, 2000, 12) 참조.

8) 金載悅, 「龍仁 西里高麗白磁窯址掘 概要」, 『龍丘文化』 第14號, 龍仁文化院, 1988, 3, 27쪽.

9) 金載悅, 앞의 논문 31쪽.

10) 金載悅, 「龍仁 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고려시대의 용인』, 학연문화사, 1998, 230~231쪽. 金載悅은 서리 요지를 I 단계(古式青磁)→II 단계(古式青磁)→III 단계(海무리靑白磁)→IV 단계(粗質白磁)의 단계로 移行하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海무리靑白磁는 출토 유물의 특징과 퇴적의 두께 등을 참조할 때 9세기 전후이며, 덕동가마는 전형적인 海무리靑 靑을 생산한 것으로 보아 10세기경에 比定하였다. 그리고 최종가마인 進崇가마는 古地磁器 年代測定 결과와 T·C dating 측정치를 적용해 이 窯址에서의 폐업시기를 대략 12세기말로 추정하고 있다(『龍仁 西里高麗白磁窯址掘 概要』, 『龍丘文化』 第14號, 龍仁文化院, 1988, 3, 31~32쪽). 그런데 이 논문은 서 3차 발굴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발표된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연구성적을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11세기중엽을 서리 요지의 下限으로 보고자 한다.

11) 「今按 新羅建州郡時 其田丁戶口 未滿爲縣者 或置部 或置部曲 屬于所在之邑 高麗時 又有稱所者 有金所·銀所·銅所·鐵所·絲所·紬所·瓦所·炭所·鹽所·墨所·糞所·瓷器所·魚梁所·薑所之別 而各供其物·右諸所皆土姓吏民爲」(『新羅東國輿地勝覽』, 卷 7 羅州牧 靈神莊條).

가)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금·은·철·소금·자기·떡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所가 따로 있었다. 용인 지역에도 특수한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所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世宗實錄地理志』에 옛 處仁의 窯山洞里(가마골)에 磁器所가 있고, 處仁甘岩里(감바위)에도 陶器所가 있었는데, 모두 下品으로 평가되었다는¹²⁾ 기록이 있다. 따라서 당시에 서리 白磁窯와 이들 磁器所 사이에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西里에서 도자기가 생산되던 초기인 9세기부터 졸골 所와 연관지어 이해하기는 어렵다. 고려가 건국되기 이전부터 서리에서 백자가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또 후삼국이 통일된 이후에도 지방제도가 완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용인은 조선 太宗 13년(1413)에 龍駒縣과 處仁縣이 합병된 이후의 지명이며, 고려시기의 용인은 용구현과 처인부곡에 해당한다. 용구현은 본래 고구려 駒城縣으로써 고려 顯宗 9년에 廣州牧의 任內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정식으로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것은 明宗 20년 監務의 임명에서 비롯되었다.¹³⁾ 廣州牧의 관할하에 들어가는 시기부터 중앙의 통제가 가능하였다고 가정하여도 현종 9년(1018)으로써 開窯로부터 한참 지나서이다. 따라서 백자 생산 초기는 신라말의 혼란한 시기와 맞물리고 이후 11세기 초반까지도 중앙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國初에도 중앙의 명령을 받아 租賦의 징수와 보관 및 운반 등을 담당한 今有·租賦¹⁴⁾·轉運使¹⁵⁾ 등의 外官이 있었으므로, 이들을 통해 도자기가 중앙으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최소한 후삼국을 통일하기 이전까지는 호족과 같은 지방세력의 영향하에 놓여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당시의 상황이 이렇다면 용인 지역이 중앙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국가의 감독하에 특수한 물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所의 형태가 아니었을 것이다.

백자가 생산되기 시작하는 9세기부터 후삼국 통일 이전시기의 서리 백자요의 생산계층은 전업적 수공업자인 工匠과 이들을 보조하는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 工匠의 신분은 꽤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층 工匠의 경우이긴

12) 『世宗實錄地理志』京畿 龍仁縣.

13) 『龍駒縣 本高句麗駒城縣一云城爲 新羅景德王敬名巨黍 爲廣州附縣 高麗初更名 顯宗九年仍置 明宗二年置監務 後陞爲縣令官』(『高麗史』卷 56 地理志 1 廣州牧).

14) 『今有租賦 並外邑使者之號 國初有之 成宗二年罷』(『高麗史』卷 77 百官志 2 外職).

15) 『國初有諸道轉運使 顯宗二年罷』(『高麗史』卷 77 百官志 2 外職).

하지만 일반 평민들보다 신분이 높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¹⁶⁾ 5頭品과 4頭品에 해당하는 大奈麻와¹⁷⁾ 大舍의¹⁸⁾ 관등을 가진 공장들의 사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공장들이 평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보다 우월한 신분적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大奈麻나 大舍의 관등을 가진 경우라면 농민보다 높은 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전업적인 공장들은 독자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 못했으리라 생각된다. 제작과정과 작업이 간단한 공예품은 개별적인 제조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백자는 상당한 인원과 비용이 요구되는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했다. 이런 점에서 서리 백자요는 도자기 생산을 충분히 완수해낼 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 장악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국가의 통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야 물론 지방관이나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수공업장을 감독하였을 터이지만, 9~10세기 초반은 후삼국의 혼란한 시기였다. 따라서 서리 백자요는 용인 지역 호족의 손에 들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공장은 호족의 규제를 받는 陶工이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4~5頭品の 관등을 가진 상층공장의 존재도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고려에 들어오면서 공장의 신분은 점차 낮아졌다. 공장들의 호적인 百工案櫃이나¹⁹⁾ 工匠案이²⁰⁾ 작성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사회적·법제적인 처지도 羅末과는 매우 달라졌다. 공장의 일은 賤技로²¹⁾ 인식되었으며, 入仕가 불가능하였다.²²⁾ 賤技에 종사하는 계층으로 사회적 賤待를 받았고, 仕宦權마저 박탈된 계층이었다. 서리 백자요의 초기 생산단계에서 폐업에 이르는 동안 여기에 소속된 공장 계층의 신분은 점점 하락하여 백정농민보다 낮은 賤事良人으로 신분이 규정되어 갔다고 이해된다.²³⁾ 따라서 서리 백자요 초기의 수공업자와 쇠퇴기의 그들의 신분상 격차는 매우 컸다.

용인 서리 백자요가 활동 후반기에 이르러 所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꽤 있다. 백자는 중요한 공예품이었으므로 국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

16) 徐聖錫,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서울대 라시학연구소, 1937, 9쪽.

17) 「大臣大奈末○○○溫表」, 『釋註 韓國古代金石文』, 戴興寺鐘銘.

18) 「成博士 安海○大舍 ○○大舍」, 『朝鮮金石總覽』, 上 蓮池寺鐘銘.

19) 「庚成年兵難 仍以百工案櫃 皆以燒亡 返正後 公獨奏請 與主典 五年之間 中外工匠姓名成籍 各司分附也」, 『高麗靈誌略集』, 26卷 崔士威靈誌略.

20) 「靖宗六年四月判 南班及沈外人吏將校等子 不付工匠案管 依父祖有根各人例 入仕」, 『高麗史』, 卷 75 選舉志 3 限職.

21) 「凡功臣子孫 以賤技 落在工商匠樂者 推明許通 屬南班者 改東班」, 『高麗史』, 卷 75 選舉志 3 銓注 凡功臣子孫 忠宣王即位數書.

22) 「(文宗) 二十七年正月 有司奏 換令典 工商家 執技事上 尋其業 不得入仕與士會 軍器注簿崔忠幸 良醫令同正梁權 並工人外孫 別將羅隱 陰正禮俱 亦皆工人 總孫 自鄒九流 去其所業 已登朝行 不可復充工匠 乞各限時職 不許遷除」, 『高麗史』, 卷 75 選舉志 3 限職. 『高麗史節要』, 卷 57.

23) 金蘭玉, 『高麗時代 工匠의 身分』, 『史學研究』, 88 · 59, 1939.

다. 이에 따라 서리 백자요는 중앙의 통제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羅末~高麗初에 호족의 영향에 놓여있던 수공업자 역시 所民으로 신분이 귀속되었다고 생각된다. 고려의 전형적인 所民으로서의 신분적 처지는 다음의 사료에서 엿볼 수 있다.

나) 睿宗 3年 2월에 判하였다. …銅·鐵·瓷器·紙·墨·雜所의 別貢 물품을 징수하여 구합이 매우 과중하므로 匠人이 교통을 견디지 못하여 도피한다. 해당관청은 各所의 別貢·常貢 물품의 多少를 참작하여 정하여 아뢰고 재가를 얻으라.²⁴⁾

나) 사료에 의하면 銅所·鐵所·瓷器所·紙所 등에 있는 匠人들은 別貢의 징수가 매우 많아 상당히 고통스러워했음을 알 수 있다. 서리 백자요가 중앙정부에 의해 所로 편제되었다면 이와 상황이 비슷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所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분 구성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다. 所 주민 전체의 신분을 工匠으로 보기도 하고²⁵⁾ 所의 주민을 일반 所民과 工匠으로 이원화하여 파악하기도²⁶⁾ 한다. 所의 주민을 일반 所民과 工匠으로 나누어 보는 입장에서는 所의 수공업자와 일반 군현에 거주하고 있었던 수공업자를 工匠이라는 동일한 신분으로 파악한 것이다. 아울러 所民이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분적으로는 鄉·部曲人和 더불어 部曲人 身分으로 헤아려지므로 所의 匠人을 工匠 신분과 일단 구별하기도²⁷⁾ 한다. 또한 所의 工匠은 官府에 대하여 常貢 및 別貢 納付의 의무를 안고 있었으므로 지방의 일반 工匠보다는 한층 더 나쁜 조건에 처해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²⁸⁾

所의 주민을 모두 工匠(匠人)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일반 所民과 工匠으로 이원화하여 견해가 타당한 것 같다. 소 전체의 성원이 수공업자의 신분이었다고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공납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工匠과 그 공장을 보조하는 일반 소민이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所를 工匠과 일반 所民으로 이해한다면, 이들의 신분적 처지도 구분하여야 된

24) 「睿宗三年二月判·銅鐵瓷器紙墨雜所 別貢物色 徵求過重 匠人艱苦而逃避 仰所司以其各所 別常貢物 多少酌定 奏裁」(『高麗史』卷 78 食貨志 1 田制 貢賦).

25) 北村秀人, 「高麗時代の所について」『朝鮮學報』50, 1989.

26) 徐聖鎭,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李貞信, 「高麗時代 鑄의 생산 실태와 紙所」『韓國史學報』5, 1998.

27) 洪承基, 「高麗時代의 工匠」『麗澤學報』40, 1975, 64~65쪽.

다. 그중 공장의 경우는 위에서 대략 검토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나)에서 보듯이 집중적인 수탈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제 전문적 수공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계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백자의 완성에 필요한 잡역은 일반 소민이 부담하였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부근 處仁部曲과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더구나 『高麗史』地理志에 의하면²⁹⁾ 지금의 용인 지역은 용구현과 처인부곡이었다. 所가 있었을 개연성은 있지만 확실히 드러나는 바가 없으므로 소민이 잡역에 종사하였을 가능성만 제기해두고, 여기에서는 처인부곡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서리 백자요는 처인성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부곡은 州·府·郡·縣과 같은 행정단위였다. 그러나 부곡은 鄉·所와 마찬가지로 일반 군현과 동등한 지방조직이 아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鄉·所·部曲은 일반 군현과는 차별적인 위치에 있었고, 그 곳에 사는 주민 역시 군현민과는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이 백정농민층으로 형성된 일반 郡縣人과는 달리 部曲人은 良人이었음에도 불구하고 賤役 담당 계층으로 차별되었다.

다-1) 郡縣人과 津·驛·部曲人의 交嫁所生은 모두 津·驛·部曲에 소속시키고, 津·驛·部曲과 雜尺人의 交嫁所産은 中分하되 남은 수는 어머니 쪽을 따르게 한다.³⁰⁾

2) 前朝(高麗)의 五道와 兩界의 驛子·津尺·部曲人은 모두 太祖 때 命을 어긴 자로 모두 賤役에 처해졌습니다.³¹⁾

다-1)에 의하면 部曲人은 군현인과 혼인하여도 그 所生은 모두 부곡인이 된다. 이는 부곡인이 군현인에 비해 신분적으로 한 단계 낮은 계층이었기 때문이다. 다-2)에서 나타나듯이 部曲人이 逆命者 집단에 기원을 둔 賤役 담당 계층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음 기사 또한 부곡민의 신분적 처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29) 姜萬吉, 『手工業』, 한국사, 5, 1976, 131쪽.

29) 『高麗史』卷 56 地理志: 廣州牧.

30) 『郡縣人與津驛部曲人 交嫁所生 皆屬津驛部曲 津驛部曲與雜尺人 交嫁所産 中分之 剩數從母』(『高麗史』卷 84 刑法志 1 戶籍).

31) 『前朝 五道兩界 驛子津尺部曲之人 皆是太祖時逆命者 俱當賤役』(『朝鮮太祖實錄』卷 1 太祖 元年 8月 己巳).

라) (顯宗 15年 春正月에) 都兵馬使가 아뢰어, “西京 畿内の 河陰部曲民 100餘戶를 嘉州 남쪽 屯田으로 徙民하여 佃作에 應當케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³²⁾

라)는 河陰部曲民 100여호를 嘉州 남쪽으로 徙民하여 佃作을 시키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부곡민의 집단적인 徙民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³³⁾ 물론 부곡민 뿐만 아니라 일반 군현인도 국가에 의해 徙民되는 사례가³⁴⁾ 있다. 그러나 라)에서 처럼 특수한 役을 부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부곡민 전부가 屯田의 佃作에 應當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군현인의 徙民과는 성격상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나아가 부곡민의 役이 賤役으로 규정된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³⁵⁾ 다-2)의 기사 역시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

여기에서 부곡민의 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곡민은 군현에 거주하는 백정 농민층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담을 지고 있었다. 백정농민층은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바치는 稅役은 국가 재정의 근원이 되었다. 백정농민층이 부담하는 稅役은 크게 租稅·貢賦·徭役으로 구분할 수 있다. 租稅는 토지의 경작자인 농민이 국가나 혹은 국가가 지정한 私人에게 바치는 田租이다. 貢賦은 여러 종류의 鐵產物·織物類·動植物 및 그 가공품 등의 貢物을 말하는데, 地方州縣으로부터 중앙에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貢賦은 州·府·郡·縣 등의 지방조직에 일괄적으로 부과된 집단적인 稅였으나 결국 그 부담은 농민에게 돌아갔다. 徭役은 都市의 건설, 宮院·官衙의 營造, 城堡·道路의 構築 등 주로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노동력의 징발을 의미한다. 이 역시 백정농민층의 주요한 의무 중의 하나였다.³⁶⁾

부곡민 역시 租稅·貢賦·力役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河陰部曲民의 사례처럼 부곡민들은 특별히 부가적인 役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백정농민층과 다른 어떠한 役에 동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力役 곧 徭役의 부과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32) 『都兵馬使奏 發西京畿內 河陰部曲民百餘戶 徙嘉州南屯田 所以充佃作』(『高麗史節要』 卷 3 顯宗 15年 春正月).

33) 오늘날은 부곡민을 이주시키려는 논의는 당시의 부곡민이 국가감독에 의해 집단이주하여 屯田의 김작에 應當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유 배경으로 한다고 이해함으로써 屯田과 부곡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高麗前期 部曲民에 관한 一說論·田柴科制度·一品軍階의 關係를 중심으로』 『學林』 7, 1986, 15쪽).

34) 『都兵馬使奏 靜州等五城 城大民少 猶徙內州縣民 各百戶 實之從之』(『高麗史節要』 卷 5 文宗 32年 冬10月) 등.

35) 金廣玉, 『部曲人의 身分』 『高麗時代 賤事·賤役與人 研究』, 신서원, 2001, 194~195쪽.

36) 이상의 설명은 韓錫哲, 『農民의 負擔』 『高麗土地制度史研究』, 高麗大 出版部, 1980) 참조.

窯에서 瓷器를 製造하기 위해서는 陶工 이외에도 여러 사람이 분업의 형태로 참여하였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조선후기 官營瓷器手工業場인 廣州分院의 인적구성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分院에는 監官·員役·監考 등 관리부분의 인원과, 邊首·造器匠·磨造匠·乾火匠 등 기술자와, 水土載軍·工抄軍·雲灰軍 등으로 구성된 잡역부가 소속되어 있었다.³⁷⁾ 고려시대의 窯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술자와 잡역부 등이 생산에 참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宋代 瓷器生産場에서 1窯에 보통 10명의 陶工과 아울러 匣匠·土工·窯火匠·柴薪匠·雜役夫가 생산에 참여한 분업형태도³⁸⁾ 참고할 만하다.

서리 백자요의 크기 등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의 노동력이 요구되었다고 생각된다. 도자기의 생산에는 물론 전업적, 전문적 工匠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겠지만, 이들을 보조하는 인원이 상당수 필요하였을 것이다. 처인부곡민은 백정농민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했음은 당연하다. 이들은 요업지와의 지리적인 연관성 때문에 혹 자기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징발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인부곡민에게 부과된 賤役의 실체는 요업장에서의 각종 노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龍駒縣의 일반 농민들을 불러모으기 보다는 신분적으로 낮은 부곡민을 부리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손쉬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의 기록에서 부역에 동원되는 상황을 짐작하여 볼 수 있다.

마) 내가 孟城의 지방관으로 나가서 都督府의 명을 받들어 御墨 5천자 부를 만들어 봄까지는 납부해야 하므로 분주히 孔巖村에 가서 백성들을 몰아 松烟 百斛을 채취하게 하고 良工을 모아 몸소 독려하여 두달만에 끝냈다.³⁹⁾

위의 내용은 먹의 생산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瓷器의 경우에도 비슷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먹을 만들기 위해서는 工匠 뿐 아니라 松烟을 채취하는 사람들의 노동도 요구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자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다. 자기 생산을 위해서는 陶土·釉藥原料와 많은 양

37) 權丙卓, 「廣州分院經營의 研究」, 『西嶽道宣來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92, 254쪽.

38) 愛宕松男, 「宋代의 文化와 陶磁」, 『世界陶磁全集』 12 卷, 小學館, 1977, 153~156쪽(宋聖安, 「高麗前期 瓷器手工業—瓷器所를 中心으로—」, 『慶大史論』 8, 1995, 47쪽에 서 자인용).

39) 『樸世守孟城 承都督府 造供御墨五千挺越春月首納之 乘邊到孔巖村 縣民採松烟百斛 聚良工躬自督役 兩月云畢』(『源朝集』 卷上).

의 장작 등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도자기 원료가 되는 태토와 유약의 준비와 땀 나무를 베어오는 등 잡다한 일은 주변지역민의 요역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이해된다.

요컨대 용인 백자요에서 도자기를 생산한 계층은 전문적인 공장과 보조적 역할을 하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중 후자는 일반 소민으로 구성되었을 듯도 하지만 대부분 주변 처인부곡민이 요역의 형태로 부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 생산자층의 신분적 지위는 開窯 초기에 비해 점점 낮아져갔다고 판단된다.

Ⅲ. 백자요와 지방세력

용인 서리 백자요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시기에 따라 생산양식이나 종류가 차이가 있을뿐 아니라 그 품질에도 꽤 다른 점이 나타난다. 西里 高麗白磁窯址는 돌가마→벽돌가마→진흙가마로 기술상의 발전 내지 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이러한 추이와 白磁窯의 경영 주체도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백자요의 연대를 9~11세기로 비정해 볼 때, 호족 등과 같은 지방세력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서리 요에서의 생산품이 중앙으로 공납되었다면 물론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상주하는 지방관의 파견은 成宗 2년(983) 12牧의 설치에서 비롯되었다. 國初에도 중앙의 명령을 받아 租賦의 징수와 보관 및 운반 등을 담당한 듯한 今有·租藏·轉運使 등의 外官이 있었으나, 당시의 정세로 보아 여기에는 주로 豪族들이 임명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고⁴⁰⁾ 파악되어 왔다. 더구나 용인은 明宗代에 가서야 監務가 파견되었다. 廣州牧의 관할하에 들어가는 것도 顯宗 9년(1018)의 일이었다. 따라서 용인은 11세기 전반까지는 중앙의 행정력이 깊게 침투될 소지가 적었으므로 토착세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9~11세기 용인지역 세력가의 전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선 호족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용인은 고려전기의 상당 기간 동안 중앙의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다. 중앙 통치력의 침투

40) 李基白, 「高麗 地方制度의 整備의 州縣軍의 成立」, 『趙明基華甲記念 佛敎史學論叢』, 中央圖書出版社, 1965;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183쪽 및 邊大燮, 「高麗 前期의 外官制—地方機構의 行政體系—」, 『韓國史研究』 2, 1968;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119쪽 등 참조.

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대개 그 지역 호족들의 영향권에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가)를 보면, 군현이나 부곡·소할 것 없이 모두 土姓·吏民의 존재가 있다. 그 중 土姓은 지방세력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서리요 초기 단계에서의 소유자 내지 수요층은 소위 호족으로 불리는 지방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窯와 호족과의 관계는 입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靑瓷窯址의 경우이긴 하지만, 대개 요지는 입지적인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康津·高興·高敞·瑞山의 청자 요지는 서남해안 혹은 서해안가에 자리하고 있으며, 楊州·高揚의 요지는 漢江 변에 있어 강을 따라 西海로 연결될 수 있다. 龍仁의窯址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지만 振威川과 安城江을 따라 서해의 南陽灣과 통할 수 있다.⁴¹⁾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요지와 해상세력을 연결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즉, 康津地域의 瓷器生産은 靑海鎭 張保臯 세력과,⁴²⁾ 羅州와 가까운 곳에 있는 高興·高揚·江西의窯는 羅州 吳氏와 상당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楊州·高揚·江西의窯는 松岳을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 무역활동을 전개한 王建 家門과, 龍仁·瑞山의窯는 唐城鎭의 軍鎭勢力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⁴³⁾ 결국 해상세력들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던 瓷器手工業場들이 瓷器所로 바뀌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龍仁의窯가 장보고세력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⁴⁴⁾ 비록 용인과 청해진이 거리가 떨어져있다 하여도 장보고세력이 해상무역권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용인의 자기 생산과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청해진 세력을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로 파악해야 할 지 의문이 없지 않다. 장보고세력을 당사자가 생존할 때까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이후까지로 규정할지도 좀 애매하다. 장보고가 그야말로 중국·일본을 모두 아우르는 해상무역의 중심에 서 있을 때라면 지리적으로 거리가 좀 멀어도 용인지역과의 상관성을 충분히 상징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살해된 9세기 중반 이후에도 용인의窯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41) 宋聖安, 「高麗前期 瓷器手工業—瓷器所를 中心으로—」, 『慶大史論』 8, 1995, 337쪽.

42) 康津地域의 瓷器生産과 張保臯勢力과의 關係에 對해서는 이미 언급이 이루어졌다(高岡完祐, 『高麗青磁의 發生에 關한 研究』, 崇田大學校 博物館, 1979). 이어, 대개 宋聖安은 장보고세력이 중국 越州鎭에서 제작된 靑瓷을 중개무역하여 얻는 이익이나 그들의 瓷器手工業場에서 만든 靑瓷을 근대까지 인은 0 특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청자를 국내에서 생산한 밀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3) 宋聖安, 「高麗前期 瓷器手工業—瓷器所를 中心으로—」, 『慶大史論』 8, 1995, 35~37쪽.

44) 宋聖安, 앞의 논문 36쪽의 註) 24.

용인의 窯를 당성진의 軍鎮勢力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충분히 공감어 된다. 아울러 또 다른 호족세력을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 용인은 廣州牧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明宗代 龍駒縣에 監務가 파견되기 이전에는 廣州牧의 관할하에 있었다. 용구현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정식으로 예속되기 이전부터 廣州의 영향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광주 지역의 호족이 西里 窯의 수공업장에 관여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여도 서리 요의 생산품을 소비하는 주된 수요층이었을 수도 있다.

羅末麗初 광주 호족의 대표적 인물은 王規다. 왕규는 자신의 딸을 태조에게 第15妃와 第16妃로 들였을 뿐 아니라, 肅宗에게도 納妃한 外戚이었다. 왕규는 혜종을 몰아내고 자신의 외손자인 廣州院君을 세우고자 왕을 암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왕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감히 그 罪를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왕규 일파의 세력은 막강하였다.⁴⁵⁾ 왕권을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용인 지역도 그의 영향권에 포함된 상태로 볼 수도 있다. 백자와 같은 고급 수공업 제품의 생산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규와 같은 호족에 의해 서리 요가 운영되었을 개연성도 있다.

土姓의 존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찍이 大口磁器所와 土姓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례 연구가 있었다.⁴⁶⁾ 비록 고려 후기 陶磁器所에 관한 것이지만, 지방세력과 所의 함수관계에 대해 시사되는 바가 크다. 다음은 고려시대 용인지역의 인물에 관한 기사이다.

바-1) 공의 아내는 龍駒縣夫人 秦氏인데, 內閣門祗候 仲基의 딸이다.⁴⁷⁾

2) (恭愍王 元年) 11月 辛酉에 處仁君 李珍을 원나라에 보내어 千秋節을 하례하였다.⁴⁸⁾

바-1)과 2)에 용인지역 인물로 파악되는 秦仲基와 李珍이 나온다. 內閣門祗候 崔進중기의 딸로서 崔南淳의 아내가 된 秦氏가 龍駒縣夫人인 점으로 보아, 이들

45) 金龍德, 「高麗 光宗朝의 科擧制度 問題」, 『中央大論文集』 4, 1959의 河炫綱, 「高麗憲宗代의 政變」, 『史學研究』 20, 1968 및 李理旭, 「高麗初 940年代의 王位繼承戰과 그 政治的 性格」,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 참조.

46) 崔丙卓, 「高麗後期 陶磁器所의 經營形態」, 『大丘史學』 15·16, 1978, 150~158쪽.

47) 「公之室 龍駒縣夫人秦氏 內閣門祗候仲基之女也」(金龍德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崔南淳墓誌銘, 354쪽).

48) 「十一月 辛酉 遣處仁君李珍如元 賀千秋節」(『高麗史』 卷 39 世家 恭愍王 3年).

진씨는 용구현 출신으로 추측된다. 崔甫淳의 아버지 崔均은 尙書禮部郎中을 역임한 인물이었다.⁴⁹⁾ 崔甫淳은 門下侍郎平章事·判史部事에까지 이르렀으므로⁵⁰⁾ 상당한 가문이었다. 부인 秦氏의 가문도 그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라 2)의 李珍 역시 處仁君에 책봉된 사실로 미루어 처인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⁵¹⁾ 『世宗實錄地理志』에 龍駒의 土姓에 秦·李·宋·龍·嚴이, 處仁의 土姓에 李·徐·池·葉·金·康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진중기나 이진은 龍駒와 處仁, 지금의 용인 출신으로서 고위 관직에 진출한 인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고려후기의 사람으로서 서리 窯에서 백자가 생산되던 9~11세기 지방세력의 실상을 알아보는데 그리 적절하지는 않다. 다만 용인 지역에 이들과 유사한 지방세력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고려전기에도 진중기나 이진과 비슷한 지방세력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이들 지방세력가들은 백자요에서 출토된 고급자기의 주요한 수요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에 의한 지방통치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는 백자 생산이나 수요에도 변화가 생겨났다고 생각된다. 국가의 명령을 받들어 백자를 공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듯도 하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서리 백자요의 활동 시기를 볼 때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컸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서리 백자요는 용구현과 처인이 중앙의 통제를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서부터는 호족의 영향권에서 점차 멀어져 갔다고 생각된다. 다음 기사에 보이는 처인 부곡 출신에 대한 차별도 이와 어느 정도 상관이 있을 것이다.

사) 鄭文의 字는 懿德이며 草溪縣人이다. 아버지 倍傑은 장원급제하였고 벼슬이 禮部尙書·中樞使에 이르렀다. …倍傑의 妻인 崔氏는 어질었으나 자식이 없어 그 族女를 길렀는데, 成年이 되자 倍傑에게 권하여 妾으로 삼게 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 倍傑이 죽고 유복자로 文을 낳았다. (鄭文은) 나이 겨우 15, 6세에 매우 빼어나 老成한 사람 같았다. …登第하여 秘書郎에 제수되었다. 당시 宣宗은 國原公이었는데 文은 그 府의 錄事가 되었다. (宣宗이) 즉위함에 이르

49) 『高麗史』卷 99 列傳 崔均傳.

50) 『高麗史』卷 99 列傳 崔均傳 前譯傳.

51) 秦仲基는 龍駒李氏로, 李珍은 處仁李氏로 파악되고 있다(李栻健, 『高麗後期 支配勢力』; 土姓,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273~274쪽).

러 直翰林院·兼四門助教에 발탁되었고 곧 右拾遺에 轉補되었다.
臺諫에서 論駁하여 아뢰기를, “文의 外祖는 處仁部曲 출신이니 諫
官에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 이에 殿中內給事·知制誥로
고쳐 제수하였다.⁵²⁾

사)에서 鄭文은 外祖가 處仁部曲 출신이라는 이유로 諫官에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가 높은 관직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인부곡과의 관련이 문제
시되었다. 처인이 부곡으로 편제된 이후의 그 지역 출신에 대한 신분적 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서리 백자요에 대한 호족들의 영향력도 지방 통치가
견고해짐에 따라 점점 약화되어 갔을 것이다. 서리 요 출토 유물의 품질이 후반
기로 갈수록 낮아진 것 역시 지방세력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지방세력
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줄어들면서 생산품의 질도 저하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백자의 종류와 품질의 시기적인 변화에서 지방세력의 추이를 읽을 수 있다.
앞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서리 요지는 퇴적층에 따라 출토되는 瓷器의 종류와 질
에 차이가 있다. 최하층인 I기층에서 나온 화형접시·선해무리완·대접 등의
백자는 모두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⁵³⁾ 시기적으로 I기층과 큰 차이가 없
을 것으로 생각되는⁵⁴⁾ II기층에서는 발·선해무리완·해무리완·발이 주로 출
토되었는데, 해무리굽완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의 굽 형태와 질은 대체로 유사하
다. III기층에서는 합·합뚜껑·장고·종지·藥硯·祭器 등이 새롭게 제작되고,
해무리완·접시 등이 다량 제작되었다. 그리고 유약과 태토의 밀착상태는 대체
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IV기층에서는 발·대접·완·접시·잔·
합·병·뚜껑·호·종지·藥硯·祭器·반 등 서리 요지에서 가장 다양한 기종
과 기형이 제작되었다. 그런데 유물의 다수는 태토에 모래와 같은 잡물이 소량
포함되어 있으며, 굽은 각음새가 거칠고 세부를 꼼꼼히 다듬지 않은 것이 많
다.⁵⁵⁾

이와 함께 燒成時 耐火土를 고인 해무리굽완은 상류계층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이며, 磁片이 접시류나 종지류로 변하고 제품의 질도 저하된 점을 들어 窯의

52) 『新文字釋德 草溪縣人 父信傑 禮部科 官至禮部尚書中樞使·信傑妻崔氏 賢而無子 養其族女 及笄 勸信傑以爲妾 未幾信傑死 遺腹生文 年甫十五六 毅然若老成·登第拜 禮部 尚書 時重宗爲國原公 文爲其府錄事 及即位 擢直翰林院兼四門助教 轉右拾遺 臺諫駁奏 文外祖系出處仁部曲 不宜兼官 乃改授殿中內給事知制誥。』(『高麗史』卷 95 列傳 鄭文傳)

53) 田勝昌, 「龍仁 西里窯址 出土遺物の 檢討」, 『제2차 통일시사학회(통일·학우)'에서 『1997년 통일시사학회의 제5회(가평·문성)』, 용인문화재단, 2000, 12, 12쪽.

54) 金毅完, 「龍仁 西里 古적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1974년의 통일』, 이인문화사, 1998, 231쪽.

55) 田勝昌, 「龍仁 西里窯址 出土遺物の 檢討」, 『제2차 통일시사학회(통일·학우)'에서 『1997년 통일시사학회의 제5회(가평·문성)』, 용인문화재단, 2000, 12, 12~14쪽 참조.

성격을 밝힌 연구도⁵⁶⁾ 백자요의 시기 변천과 수요 대상의 밀접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옛 處仁의 窯山洞里(가마골)의 磁器所와 處仁甘岩里(감바위) 陶器所의 생산품이 모두 下品이라는 평가⁵⁷⁾ 역시 서리 백자요의 전반적인 퇴락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요컨대 羅末麗初에 해당하는 9세기~10세기 전반 정도까지의 서리 백자요는 국가의 관할에서 벗어난 지방 手工業場이었으며, 廣州 등 인근의 호족 내지 土姓과 같은 세력가에 의해 도자기의 생산과 수요가 좌우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방세력의 퇴조와 함께 서리 백자요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그 결과 도자기의 품질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IV. 맺음말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백자요는 국내 유일의 초기 고려백자요지로서 우리 나라 자기의 발생과 초기의 제작과정에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더구나 용인 지역의 窯業은 꾸준히 조선시대에도 맥이 이어졌다. 고려말~조선초기까지 黑磁器가 생산된 목리 한덕마을 요지, 15세기경 粉靑沙器가 구워진 고안리 도요지가 있다. 또 천리 요지에서는 16세기에 백자가 생산되었다.⁵⁸⁾ 이들은 서리 백자요의 전통이라는 연장선상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西里 窯는 고려시대 陶磁史 연구 뿐 아니라 당시의 수공업자와 지방세력 등의 실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몇 가지 점을 고찰해 보았다. 서리 백자요는 활동시기와 지방제도의 정비과정을 고려해 볼 때, 초기엔 호족들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가 고려의 지방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瓷器所의 형태로 국가에 예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백자요를 신분제적인 측면에서 생산계층과 지방세력과 관련지어 검토해 보았다. 백자요의 생산계층 중 공장은 전문 기술을 가진 계층으로 9세기에는 일반 농민에 비해 약간이나마 신분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점차 賤事者 계층으로 전락하여 갔다. 요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

56) 李仁寧, 『내고장 龍仁 文化遺產總覽』, 龍仁文化院 附設 鄉土文化研究所, 1997, 92~93쪽 참조.

57) 『世宗實錄地理志』, 京畿 龍仁縣.

58) 李仁寧, 『내고장 龍仁 文化遺產總覽』, 龍仁文化院 附設 鄉土文化研究所, 1997, 98~100쪽 및 104~108쪽.

은 瓷器所에 소속된 일반 所民, 혹은 부곡민의 신분으로서 徭役을 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所나 部曲에 편제된 窯의 생산계층은, 일반 군현인과는 차별적인 工匠·所民·부곡민이었으므로 신분상 백정농민보다 낮았다. 그리고 도자기 생산에 동원된 所民과 部曲民의 신분 또한 '賤役'을 부담하는 계층이었다.

용인 서리 요는 용인 지역의 土姓 세력이나 호족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신라말에는 당성진의 군진세력이, 고려초에는 王規와 같은 廣州의 대호족이 서리 백자요를 관할하거나, 적어도 주된 소비계층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서리 백자요에 대한 호족들의 영향력은 고려조정의 지방 통치가 견고해짐에 따라 점점 약화되었다. 서리 요 출토 유물의 품질이 후반기로 갈수록 낮아진 것 역시 지방세력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지방세력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줄어들면서 생산품의 질도 저하되었다고 이해된다.

요컨대 용인 서리 백자요는 9~11세기 도자기 생산의 실태와 변화상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수공업자·所民·部曲民 계층 및 지방세력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백자요에 대한 신분적 접근이 평면적·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측면이 많다. 앞으로 다른 지역 窯의 수공업자를 비롯한 지방세력과의 비교·검토가 이루어진다면 당시 상황을 보다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3부

개회사

축사

용인서리백자요지 종합토론

편집후기

이

백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 장소 : 용인시 문예회관 다목적실

>> 시간 : 2000년 12월 2일 (토) 9:30 ~ 17:30

용인시,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오늘 정양모 전 국립박물관장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한 도자사 연구자 분들과 함께 용인지역 도자문화의 역사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용인 서리 고려백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먼곳에서 용인을 찾아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참석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 세기를 돌이켜보면 세계 각국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과 토지 노동력 등 물질적 요소가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요 문화의 시대입니다.

지식과 문화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인류 문명의 진보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식 정보화와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 역사를 통해 우리만의 독특하고 수준높은 전통 문화를 이어 왔습니다.

앞으로 전통적인 지방문화를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은 21세기 세계화에 발맞춰 한층 더 노력을 하여야 하겠으며, 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여러분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 통일 새시대의 국가 원동력으로 승화시킬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02년 세계 도자기엑스포를 앞두고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이를 재조명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용인 도자사를 재정립하는 한편 용인 향토사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제발표를 위해 깊이 연구해주시고, 또한 토론에 가까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우리시 문화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드리면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00년 12월 2일

용인시장 예 강 환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 예술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민속예술을 복원하여 시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되찾기 위한 용인 고려백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용인도자기 문화의 역사성을 대외에 알리고자 연구와 발표를 하여 주실 발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용인시는 충렬의 고장으로서 각종 우수한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으며, 서리 고려백자 요지도 한국 도자사에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 알려졌지만 발굴과 보존이 극히 일부 뜻있는 몇몇분들에 의해 명맥만 유지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귀중한 유적을 보존하고 발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제창하여 왔지만 유적의 보존이나 발굴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으므로 서두르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문화를 존중하여 향토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성취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용인 고려백자 학술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조상의 슬기와 숨결을 함께 느끼고 우리 지역 고유의 특성이 흠뻑 배어있는 빛나는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용인 도자문화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이 문화적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 세미나를 위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0년 12월 2일

용인시의회 의장 양 승 학

- ▶ 등록 및 개회 9:30~10:30
 09:30 ~ 등록
 10:00 ~ 10:30 개회

- ▶ 기조강연 10:30 ~ 11:30
 한국도자사연구에서 서리 백자요지의 위치 / 정양모(전국립박물관장)

- ▶ 제1부 발표 11:10 ~ 12:20
 사회 : 양정석(용인시사편찬위원회)
 1. 용인 서리요지 출토유물 고찰 / 전승창(호암미술관)
 2. 시흥 방산동과 용인 서리의 가마 및 출토품 비교고찰 / 이종민(해강도자미술관)

- ▶ 제2부 발표 13:30 ~ 15:00
 3. 일본의 동아시아 도자사연구현황과 서리백자의 의미 / 吉良文男(동양도자학회)
 4. 나말여초 한국 磁窯의 계열과 변천 - 특히, 9·10세기 자요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 최건(해강도자미술관)

- ▶ 제3부 종합토론 15:20 ~ 17:30
 좌장 : 정양모(전국립박물관장)
 - 발표자 전원
 - 윤용이 (원광대학교 역사교육과)
 - 박순발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 방병선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마순관 (용인예총 회장)

- ▶ 폐회 17:30



한국도자사 연구에서 용인 서리 백자요지의 위상

<<< 사회 지금부터 용인서리 고려백자요지 재조명에 대한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좌장이신 정양모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정양모 오늘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종합토론은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정도까지, 시간을 엄수해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질의 토론은 발표자에 대해서 토론자가 의문사항을 질문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계신 윤용이 교수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는데, 시간은 가능하면 질문을 요약해서 누구에게 질문하다고 지적해서 시간은 대체로 3분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이 먼저 오늘 처음 개괄적으로 말씀 해주신 정관장님과 최건선생님과 기라선생에게 공동의 질문으로 두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용인서리는 두가지면의 사실이 밝혀져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용인서리의 퇴적층의 층위에 있어서 선해무리굽, 해무리, 내지 원각이 없는 중국식의 해무리굽의 3층과 전형적인 해무리, 변형 혹은 후해무리굽이라고 불리는 4개의 층위는 이후에 해무리나 선해무리의 여러부분들을 나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관장님은 중국의 경우 해무리굽이 8~9세기이므로 한국의 해무리도 적어도 9세기가 아닌가하는 지적과 내화토나 가마연구 등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해무리굽을 9세기로 보는 학설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용인서리의 층위를 보면 선해무리에서 나중에 해무리로 간 것입니다. 이제는 해무리굽이 언제인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해리무굽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서리에서 선해무리는 이종민선생이나 전승창선생의 견해에 의하면 4층 또는 3층에서, 시흥방산동이나 배천 원산리도 4층·3층 층위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용인 서리의 4층과 3층에 해당되는 것이 벽돌가마로서, 선해무리와 내저원각이 없는 중국식 해무리가 출토되는 층위입니다. 그런데 배천 원산리의 2호가마에서 약 40m되는 벽돌가마의 선해무리가 벽돌가마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992년 993년 자료로 본다면 해무리는 992년 993년 보다 더 후대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용인서리의 층위를 기준으로 보면 선해무리에서 해무리로 갔다면 우리가 논의하는 전형적인 해무리굽은 빨라야 11세기 아닙니까. 비록 선해무리와 해무리가 겹치는 3층도 다시말해서 내저원각이 없는 층도 용인서리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편년을 한다면 선해무리굽의 하한이 992년, 993년이 된다면 해무리는 당연히 층위에 의해서 더 후대로 봐야 하는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동시에 해무리가 8~9세기의 중국 도자의 모든 기형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찻잔인 완에서만 보이는 것입니다. 8~9세기에 중국의 전형적인 주전자나 장경병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해무리굽완 한 기형만을 가지고 중국이 8~9세기에 해무리굽이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해무리굽을 9세기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종 장릉에서 출토된 1146년의 청자방형대와 같은 예는 중국 오대 월주요에서 만들어진 942년의 청자장경대가 있습니다. 만약 청자방경대가 인종장릉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중국의 것과 같으니까 10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무문의 경우도 중국에는 10세기 전반의 오대 월주청자에서 보편적으로 보이지만 고려에서는 12세기 비색청자에 흔히 보이는 것입니다. 문양이나 기형도 이렇게 200년의 차이가 나는데, 단지 찻잔에서만 보이는 해무리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천 원산리에서 출토된 선해무리의 992년, 993년 자료만 봐도 해무리굽은 그 이후라고 보는 것입니다.

용인서리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자료는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옮겨지는 층위가 확인된 것입니다. 전승창씨의 발표에 의하면 1층인 최하층에서 벽돌가마가 있고, 그 다음 위층은 대체로 선해무리에서 해무리로 교체되거나 아니면 해무리굽류에서 진흙가마로 변형되어 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해무리굽 이후에는 계속 진흙가마입니다. 이러한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가는 층위가 확인됐는데, 어떻게 벽돌가마와 진흙가마가 같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가는 층위가 확인됐는데, 강진의 경우 지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에서 해무리굽은 4층, 3층, 2층, 1층 이라고 보면 전형적인 2층의 것들이 대부분이고 약간 3층에 해당되는 중국식 해무리류로 보이는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층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당연히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양모 윤교수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선해무리가 원산리의 992년명과 같기 때문에 해무리는 당연히 992년 이후이지 이전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승창선생이 여기에 대해서 용인 선해무리의 정의를 분명히 해주고, 그것이 원산리의 어디와 관련이 되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답해 주세요.

〈〈 전승창 선해무리완이라고 정의드렸던 것은 용인 서리 발굴 결과 4개의 층위가 확인되었습니다. 4개의 층의 중에서 가장 밑바닥층, 즉 시간적으로 제일 오래된 층위입니다. 그 층에서는 해무리굽완이라고 부르는 종류가 출토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해무리완이 출토되기 이전 층에서 출토되는 것을 그보다는 앞선다는 의미에서 선해무리완, 선해무리굽, 선해무리층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윤용이선생님께서 원산리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시기를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리 출토 유물 중에서 최하층인 4층에서 출토된 선해무리굽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최하층과 그 위의 층에서 많이 나오고, 소수가 그 윗층까지 출토되었습니다. 그런데 최하층과 선해무리완과 그 위층의 선해무리완과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굽의 꺾음새나 세부형태의 특징을 보면 최하층에서 출토된 선해무리완이 예리한 것만은 사실입

니다. 이러한 견해는 저뿐만 아니라 실제 방산동과의 유물을 비교해 보면서 다른 분들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층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분적으로 꺾음새의 예리함이 무뎠지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용인 서리의 화형접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용인 서리의 화형 접시의 경우는 원산리에서 출토된 화형접시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양모 그러면 가장 분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 전승창 일단은 선해무리완에 있어서 세부의 다듬새나 꺾음새가 분명히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 정양모 원산리하고 용인의 최하층인 1층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 전승창 예

〈〈 정양모 중국의 해무리굽 계통의 유물이 절강성에서 많이 출토되고, 작년말에 절강성 일대 영파 쪽을 다녀왔는데, 수도 없이 많고 상류호반 근처에는 널려 있습니다. 윤교수는 찻잔 하나만을 가지고 단정지를 수 없다고 하는데, 가마조사에서 병·주전자는 원래 그 수가 극히 적고, 대부분이 대접이나 접시가 주류

를 이루고 있습니다. 찻잔의 수가 수백 만개를 헤아릴 정도로 가마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종은 대접과 완 종류입니다. 병과 주전자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건선생의 의견을 말해 주세요

〈〈 최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10년 전에 동원학술대회에서 했습니다. 당시에는 해무리굽 자체만으로 중국의 절대편년이나 일본 출토유물과 연관시켜서 추정하는 것이었다면 현재는 우리나라 청자 발생시기는 물론이고 그 이후의 우리나라의 전기청자에 대한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시흥 방산동·용인 서리·원산리 요지의 발굴이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해무리굽을 대단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당시 최고 동남아의 유행의 첨단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강진가마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 해무리굽이 반입니다. 용인서리의 경우도 해무리굽을 가진 유물이 발굴자료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용인 서리에서 해무리굽은 나오지만 당시의 중국 오대의 주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무리굽이 당시 가장 유행했거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며, 이런 것은 순환이 빠르고 영향관계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한가지 기종이 200년 이상 갑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에서 잘 나타

나는 것이며,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양모 윤교수의 질문 중에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가는데, 강진의 진흙가마는 후반인데, 왜 그것을 같은 시기로 보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 최건 도자사도 미술사의 한 분류로 양식사입니다.

용인 서리 가마가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바뀌어서 흙가마가 나중이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입니다. 당시 자체에 어떤 양식이 있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변과의 관계를 세밀히 분석해 봐야 합니다. 용인 서리에 들어온 흙가마의 초기 도자기의 양식은 강진의 초기를 약간 지난 10세기 전기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이선생님은 강진지역의 지표조사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지만 증거는 현존하는 자료를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한계 내에서 강진의 200여개 소, 특히 일훈저완을 동반하는 550여개소의 가마의 양식을 구분했을 때 상대편년이 나옵니다. 그 상대편년 가운데 있는 것이 용인의 흙가마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인의 전대의 유물은 흙가마 이전의 것들입니다. 양식적인 그룹을 정하고 그 그룹의 상대적인 변천과정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 정양모 992년과 993년 경에 용인 서리와 원산리가 다르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윤용이 10년 전에는 배천 원산리나 시흥 방산동이 발굴되기 전입니다. 당시에는 해무리굽만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선해무리굽의 문제가 있습니다. 용인서리 요지에서 퇴적층의 6m중에 거의 2m 쯤이 4층, 30cm 정도의 층이 3층, 그리고 그 위에서 해무리굽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해무리굽은 선해무리굽보다 뒤라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해무리굽이 배천 원산리에서는 벽돌가마에서 출토되었고, 그 중에 992년, 993년의 편년 자료가 있다면 그렇다면 해무리굽은 그 뒤가 아닌가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민 선생도 배천 원산리나 시흥 방산동에서는 4층·3층, 용인 서리에서도 4층·3층의 공통된 벽돌가마군의 하한연대가 992년 993년 자료라고 하니까 해무리굽은 그 뒤가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벽돌가마가 먼저이고 진흙가마가 나중인데, 해무리굽이 선해무리굽보다 뒤라면 당연히 가마도 뒤가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축요와 전축요를 같이 둘 것이 아니라 전축요 다음에 토축요인데, 용인서리의 층위에 따라서 가마도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용인 서리 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정양모 이종민씨가 용인의 선해무리굽을 자주 보고, 방산동도 발굴한 분이기 때문에 편이상 최하층 제1기로 시작해서 2기 3기 4기로 보고, 용인 서리의 1기와 시흥 방산동 1기, 원산리 1기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가?

〈〈 이종민 시흥 방산동 유적은 가마주변에 많은 퇴적층이 발견되었습니다. 퇴적층의 시기적인 선후관계는 가마 측면 출입구의 위치나 방향에 따라서 크게 3단계로 나뉘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퇴적층 즉, 최하층에서 용인 서리의 최하층과 같은 소위 접지면의 폭이 넓지 않으면서 굽의 직경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선해무리굽완과 같은 유형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혹 발견되는 선해무리굽에서 해무리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 즉, 완전한 한국식 해무리굽처럼 접지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닌 그 중간형태의 단계를 보이는 것들이 드문드문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단계에서도 선해무리굽이 여전히 주종으로 출토되지만 초기 단계에서의 선해무리굽으로 이행하는 그러한 굽의 형식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시흥 방산동의 경우에는 3층에서 용인서리처럼 굽의 변화단계가 바뀌는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3층단계에서도 선해무리굽의 양식은 공존을 하면서 한국식 해무리굽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드문드문 섞여 있었습니다. 용인 서리의 초기

단계인 1·2층 단계에 해당되는 유형이 막 끝날 때와 같은 스타일로 제작하다가 요업을 마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인 서리 요지의 경우는 약간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하층(1층)에서 선해무리굽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2층에서는 선해무리굽과 더불어서 중국식 해무리굽이 공존하다가 3층에서 한국식 해무리굽으로 바뀌는 층위 단계 구분이 비교적 확실한 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인 서리에서의 굽의 변화과정이 시흥에서는 약간 흐트러진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초기단계에서 선해무리굽의 비율이 확실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2·3층위 단계에서는 중국식 한국식으로 변해 가는 과정이 용인 서리에서처럼 일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섞여 가는 모습으로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배천 원산리의 경우는 사진 자료만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4차 가마까지의 보수단계에서 유물이 어떻게 변하는지의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만 분명히 북한 학자들이 저술한 책에는 일단 선해무리굽 이외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산리에 관한 발표 중에 완의 형식을 보여주는 그 과정 중에 시흥 방산동의 중간단계쯤에서 흔히 나타나는 선해무리굽에서 해무리굽으로 이행하는 양식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원산리의 경우에도 굽의 변화과정이 시흥 방산동과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하는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

<<< 정양모 원산리는 직접 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합니다.

<<< 박순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윤용이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용인서리의 1·2 차 발굴을 마치고 1차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2차 이후에 3차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그 작업을 못했고 제 전공분야가 아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선해무리굽이라는 용어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용인서리에서 유물 수습할 때 선해무굽의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산유적이 아닌 소비유적인 사찰을 조사하면서 과연 어떤 경향이 있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연대를 비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각각의 자기와 토기들을 어떻게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라하대는 토기의 편년도 잘 안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자기와 연관을 지어서 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복사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용인서리 문제를 생각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여기서 보이는 해무리굽이 과연 초기 단계인가 아니면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이



것은 앞서 해무리굽이라고 통칭해 오는 완종류와 토기류가 동반되는 사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토기편년을 시도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토기와 자기와의 동반관계를 토대로 해서 신라하대 토기편년을 700년부터 950년까지 훑어본 결과는 2단계가 시간폭이 긴데, 당시에 토기와 완이 연결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일부 기종에서 청자가 등장합니다. 처음 청자가 등장하는 해무리굽의 완 종류는 재래의 토기전통이 아니고 새로운 것에서 오는 것이고, 이러한 중국제 청백자해무리굽완이 등장하는 시점이 2단계부터입니다. 이같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종래의 인지되어온 것처럼 중국계 내지는 중국제로 내지된 각이 없는 것과 내지된 각이 있는 것은 유태뿐만 아니고 기형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작 방식에 있어서도 대개 중국계는 전부 첩소(疊燒)입니다. 첩소는 대량생산을 전제로, 벽돌가마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토기와 자기의 동반관계를 통해서 나타내 보면 중국제의 직수입품이 9세기 빠르면 전반내지 중엽경부터 등장하고 있고, 대개 2단계 빠른시기에서 3단계부터 일부 벽돌가마 계열이 등장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용운리 9호분을 잘 못 봤는데 기라선생님이 제시하신 唐과 같은 넓은 옥벽굽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유의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강진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건선생님의 토축요라고 하는(요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것과 관련한 시기에 이미 국산화가 시도되었으리라고 보고, 이 시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늦은 시기에 중국제, 즉 첩소방식으로 제작되어 대량생산되는 체제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서리의 위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용인서리 출토에 1차년도 제가 보고서를 작성했던 871개의 자기 편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굽 폭의 변화입니다. 크게 보면 해무리굽의 변화는 굽 직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폭의 변화가 같이 연동되고 있습니다. 대개 짐작하시는데로 굽의 직경이 넓은 것은 굽의 폭 자체도 넓으며, 그런 것에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용인서리는 어느 단계인가 하면 굽의 폭이 넓은 것은 거의 적습니다. 거의 1% 정도이고 아주 좁은 것도 적습니다만 대부분은 0.9cm~1.5cm 정도로 이 부분에 0.7cm 이상에서 0.5cm 이하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60% 이상이 0.3cm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폭이 정확히 시기적으로 연동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속성의 변화는 전반적인 변천을 하지만 양적 빈도 변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단계를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를 보면, 이것은 소비지라고 할 수 있는 성주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로, 중국제로 직수입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주사는 백제의 오합사에서 계속된 사찰이지만 寺勢의 영고성쇠를 보면 성주사라고 이름을 다시 붙인 시기인 848년 이후가 고급질의 중국제품이 수입되어 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성주사의 탐비에 나오는 성주사의 개창과정을 보면 848년 이전에는 고급수입청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중국제 청자내지는 백자들의 전체 수량을 1.0 이상이 직수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계라고 하는 첩소되면서 올리브그린색을 띠는 계통은 굽의 폭이 1.3cm ~ 1.4cm에서 0.6cm 정도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산청자라고 명명한 내저원각이 있는 계통은 대형 직경이며 옥벽 자체가 넓은 것에서 아주 좁은 것까지 일련의 연속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반영하는 것은 여러 요에서 왔다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서리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당시의 청자의 소비처에서는 이와 같이 세 가지 계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용인 서리는 1.3cm에서 0.9cm까지 정도의 단계, 좀 늦으면 0.7cm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계가 문제인데, 선해무리굽이라고 했던 것은 제가 볼때는 '先' 이라기 보다는 계통이 다른 것인데, 중국계라고 본다면 거의 동시대입니다. 용인 서리 같은 경우는 그것이 두 개가 바뀌어서, 전축에서 토축으로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용인 서리의 선해무리굽은 용어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시기적인 선후관계가 아니라 계통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1·2·3·4기층이라는 용어가 아닌 1유형 1가유형·2나 유형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용인 서리의 층위가 그만큼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인 서리에서의 구체적인 층위 자체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추세를 보아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인서리의 선해무리굽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당하지 않으므로 계통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양모 그림 그계 분명히 층위가 다른데 계통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박순발 예, 용인서리에서 가령 가마퇴적이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동도 될 수 있습니다. 용인서리에서 토축가마 이전에 동쪽 퇴적터미 아래에서 나온 벽돌가마층은 극히 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온 고고학 자료의 성격상 현재로는 그것밖에 믿을 것이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변화상 고고학적인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형식이 역전될 수 있는 것은 힘듭니다. 양적인 빈도변천은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선해무리굽이 특정해무리굽보다 선행할 수 있지만 전체의 추세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 정양모 미진한 것은 과제로 남겨두고, 용인 현지에서 오랫동안 가마를 운영하시고 용인의 요지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하신 마순관선생님의 질문을 들겠습니다.

〈〈 마순관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전년도에 용인 전역의 요지조사를 한 결과 총 43기의 요지를 조사하여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서리 가마터와 가까운 곳에 같은 성격·규모·시대라고 추정되는 중요한 가마터가 또 있습니다. 아직 발굴조사가 되지 않았습다만 그것이 조사되면 우리나라 도자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도요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려 초기부터 조선 초기 백자·분청, 조선중기의 철화백자, 후기의 청화백자를 제작했던 가마터들이 용인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어 많은 양의 자기를 구웠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서리가마 유적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보고된 진흥가마의 크기는 40m 정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인 서리 요지는 83m로 보고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규모가 더 컸으리라고 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경우라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산업화 진행되어 외국에 수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 서리가마의 경우, 제작되었던 대량의 자기들의 수요

층의 문제가 궁금합니다.

둘째 질문은 저희가 향토문화를 지키는 지킴이로서의 입장에서 정관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용인 서리가마가 우리나라 도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유적인데, 용인시의 현실은 현장박물관으로서의 보존적·교육적 의미로서의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정양모 제가 60년대 초부터 가마조사를 하고 서리도 그때부터 보아왔는데, 다른 유적에 비해 가마유적이 제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 가마가 도처에서 없어지고, 예를 들어 중부고속도로 건설시에도 많은 백자가마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행히 용인은 산간오지가 많아서 보존이 양호한 편이었지만 용인시도 요즘 많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용인시에서 용인 서리의 가마를 비롯한 수많은 가마를 학술적으로 정밀조사해서 보고서도 내고, 지도를 작성하는 등의 보존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서 발굴을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사업으로서 오늘의 심포지움이 마련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조사·연구하는 것입니다. 지정문화재로 등록한다고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정을 하되 반드시 1개 면에 한두 사람의 보수를 주

는 감시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속한 기동감시반이 감시보호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마을마다 명예감시원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제한된 예산이지만 가능하면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서 땅을 사서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대체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요지 발굴조사와 지정에 관련한 많은 일을 했는데, 전국의 중요한 요지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는데 많은 일을 한 장남원 선생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장남원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 용인 서리 2차 발굴시에 참여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건선 생님께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자가마의 계열을 전축요와 토축요로 나누시면서 그 선후관계 등을 설명하셔서 일목요연하게 도표까지 잘 보았습니다. 전축에서 토축요의 이전은 요업기술·체계·운용상의 문제 등이 기저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단순하게 분류해서 편의상 나누다보면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리의 경우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이전해 가면서, 백자가마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폐요되지 않고 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논리로 설명을 하셨는데, 용인지역은 서리가마

외에도 요가 많이 있고, 용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가령 백토가 많다든지 하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서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표의 마지막 표를 보면 일목요연하지만 원산리 용인 서리와 강진 간의 시기적인 관계가 도표에 제시된 것처럼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서리를 조사하신 선생님께서 용인서리가 토축요로 전환하는 시기에 강진계통의 유형이 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러한 점에는 공감하지만, 기존에 전축요로 존재하던 용인과는 전혀 다른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가마인 강진지역의 토축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전돼서 드러날 수 있었는지, 이러한 강진과 용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청자의 편년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사자빈신사지(1022) 탑이 존재하는 송계리요의 퇴적지역과 그 부근을 보여주셨습니다. 연구자들이 사자빈신사지 탑이 이전된 것이 없고, 1022년이라는 연대가 나와있다면, 아직 그 지역 전체가 유적이 발굴이 되지 않고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1022년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모든 연대를 맞춰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무문과 철화가 동반되는 것들을 1022년 이전이라고 보아야 하는가인데 강진지역에는 그 시기에 이미 철화와 앵무문이 나오는 시기이면 압출, 상감, 퇴화 등의 다양한 기법이 나오는데, 고려청자 모든 절정의 기술이 그 시기에 이전에



이루어져야 결론이 나와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최건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강진에서는 고려청자의 여러 가지 기법이 나오고 있는데, 송계리에서 왜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먼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강진에서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상감기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압출양각도 11세기 이른 전반기에 나왔다는 분명한 근거는 없습니다. 10세기 후기로 추정되는 해무리굽이 끝나는 변형해무리굽 단계에서 철화문과 음각연관문은 같이 나옵니다. 파도문이나 앵무문은 바로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데, 제가 추정하는 연대와 송계리의 하한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 정양모 일반적으로 12세기에 많이 나오는 앵무문과 송계리의 앵무문과의 차이점이나 나중에 보이는 파도문과의 차이점까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최건 지방에서 출토되는 문양들은 대부분이 유치한 수준인데, 송계리의 앵무문도 매우 조잡합니다. 송계리 빈신사지가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상식적인 보편적으로 볼 때, 탑이 폐요된 가마 위에 세워진 상황은 분명합니다. 가마벽조가리, 경사진 도침 등

11세기의 특징적인 것들이 수습되는 범위가 주변의 30m 내외인데, 그 중심에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탑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의뢰한 결과, 여러가지 경우 중에서 현재의 자료로서는 탑이 이전됐을 가능성은 없고 본래 있던 자리에 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22년에 탑이 있었고, 가마를 운용했던 시기는 1022년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축요와 토축요를 요업기술의 체계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의 양식 변화를 보니까 그 사이에 10세기 전기에 해당하는 이른 시기의 전기 한 국식 해무리양식이 용인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진에서는 그 이전시기 즉, 용인 서리가마가 토축요로 변하는 단계 이전에 강진지역에는 토축요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전축요와 토축요는 기술체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선 가마구조, 축조방법, 요도구, 기종 등 모든 것이 다르므로 두 요의 계통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 계통이 다른 것이 중국과 어떤 시기에 맞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원산리나 방산동 등이 끝나는 시점인 10세기 말이 순화명과 비슷한 시기인 것은 연대를 추정하다보니 비슷해 졌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양식변천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강진 계통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는

강진의 2차 확산기라고 합니다. 중서부 지역의 전축요들이 폐요된 것은 당시 도자기 제작체제가 통일신라 후기 고려 초기에 호족들이 운영하던 사요였는데, 고려정부의 중앙집권 체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러한 사요를 직접 폐지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지방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강진지역의 소규모 가마들만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작은 규모의 가마에서 최상류층의 그릇을 제작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진지역의 청자 제작기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국 청자기술의 강진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용인 서리에서 강진의 청자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강진식의 청자를 만들지 못하고 강진식의 백자로 전환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세기 후기들어서 중국의 청자와 백자가 많이 발전되는데, 대개 백자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고급청자와 중국의 백자가 셋트로 나오는데, 어느정도 양의 청자 적은 양이지만 백자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서리가 생존을 위해서 세트화의 일부인 백자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정양모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고려대학교 방병선선생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방병선 이종민 선생이 가마와 번조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전환하면서 자기가 질적으로 하락한다고 했는데, 질적인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토축요로 바뀌어야 했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승창선생에게는 용인 서리가 강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시기적인 문제와 당시 어떤 배경으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종민 이 부분은 저도 추측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중부지역에서 전축요가 쇠퇴되고, 용인서리의 경우에는 토축요로 가마구조를 바꾸어 가면서 자기의 질은 떨어지고 양산되는 상황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축요가 전부 폐요되는 상황이지만 전대까지 자기의 수요자는 계속 존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가마를 운영하는 운영주체의 성향이었던지 또는 그 시대의 요구였던 간에 용인 서리 가마는 토축요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에 수요층을 저급 수요층을 겨냥해서 양산체제의 틀에서 백자를 생산했던 관계로 질이 저하되면서도 계속적으로 요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인은 비단 용인에서 뿐만 아니라 소위 '토축요계'라고 하는 강진의 영향을 받은 다른 지역의 일부 가마에서도 조질화되어가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지방화·양산화되는 과정의 한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승창 서리요지가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바뀐 시기에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전환된 시기에 대해서는 청자 발생시기와 연관해서 상대적인 시기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리에서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전환하는 것은 2기층에서 3기층 사이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기와 3기 사이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인 구멍 뚫린 갑발을 강진 용운리지역의 가마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용운리에서 출토되는 유물들과 용인 서리 3·4기층의 유물들과 기종·기형상의 공통점들을 지적해서 발표했습니다. 용운리의 같은 경우는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유물인 선해무리굽완을 기준으로해서 상대편년을 시도한 시안이 있습니다. 용운리 같은 경우는 크게 가장 앞시기, 중간시기, 다음 시기가 있고 마지막 시기는 계율리, 대체적으로 용운리보다 후대의 가마들이 많은 계율리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가마가 용운리에 일부 존재합니다. 그 경우에 보면, 용운리에서 가장 앞시기는 아니고 두 번째 중간시기에 나오는 유물과 서리의 3기층에 나오는 유물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기, 계율리도 일부 포함되는 시기는 서리의 4기층에서 나오는 유물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시기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연도나 제작시기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용운리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작배경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만 서리 같은 경우는 3기층과 4기층에서는 백자만을 굽는 가마로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용인 지역에는 호암미술관에서 발굴한 중덕의 서리가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반이라는 조금 떨어진 지역에 서리 가마와 거의 유사한 규모의 가마 40m 길이 80m에 달하는 갑발이 쌓여 있는 가마가 한 기가 더 있습니다. 지표조사 결과, 벽돌과 서리 가마의 맨 위층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수습이 됐습니다. 서리는 일단은 4기층만을 놓고 봤을 때 호암미술관에서 발굴한 한 기의 가마가 아니라 대규모의 가마가 2기가 있었다고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양모 왜 강진이 용인 서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전승창 현재 유적으로 볼 때, 백자를 대량 생산했을 것이 분명한데, 강진에서는 제작하지 못했던 백자라는 특별한 그릇을 서리에서 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리만 강진의 영향하에서 토축요를 전환되어 남았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이전에 원산리나 방산 등은 1기층 2기층에서 전축요였지만 청자제작을 그대로 하였고, 서리는 이미 2기층에서 백자로 전환되어 3·4기층에서는 완전히 백자만을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양모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강진 청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강진 토축요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인가요.

《《 전승창 강진의 토축요 뿐만 아니라 그 제작기술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의 토축요에서 제작되던 기종·기형, 갑발 등과 용운리 지역에서만 보이는 굽을 짚은 방법 등의 영향을 서리가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운리의 가마가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서리의 3기층에서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 정양모 서리 4기층의 하한이 언제죠.

《《 전승창 개인적으로 하한은 11세기 전반경으로 생각합니다.

《《 정양모 강경인 교수의 질문을 들겠습니다.

《《 강경인 용인 서리 가마가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바뀌는 과정에서 토축요의 의미를 보면, 전반적으로 도자기의 질이 올라가야 하지만 1·2·3·4기로 나뉘어서 보면 태토의 질이나 유색을 보면 1기층은 태토가 치밀한 백색도의 백색의 유색이지만 3·4기층으로 가면 잡물이 섞인 태토와 담갈색의 유색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질이 하

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전승창 발굴결과가 1기층에서 4기층으로 갈수록 질이 저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경인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의문에 대해 공감합니다.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강진과의 비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용운리의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3기로 나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의 3기층 단계에서는 나중에 제작하는 가마가 많은 계율리가마를 언급했습니다. 계율리 일부 가마에서는 용운리 마지막과 비슷한 류의 자기가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리의 경우, 4기층의 경우는 질이 현저하게 나빠지면서 제작량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가마의 규모가 커지니까, 다량으로 제작하지만 질은 하락하는 점은 강진의 예도 세부적인 점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면은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용운리의 가마가 50개가 있다고 하면 용운리 다음에 이어지는 계율리에서는 용운리가마보다 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계율리 초기 단계의 가마는 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역시 그릇의 질이 용운리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계율리 말이나 사당리 쪽으로 가면 청자의 전성기로 그릇의 질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용인서리에서 1기층에서 4기층으로 가면서 질이 떨어지고 대량생산되는 것이나 강진 지역에서 용운리에서 계율리로 가면서



다량제작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하락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건 사실 자기의 질을 얘기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인 서리가마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자세히 보면 1·2기층의 유물들은 잡티는 없지만 견고성이 떨어져서 자기화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며, 반면에 3·4기층에서 출토되는 자판들은 잡티는 많지만 그릇의 강도는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소성되었습니다. 3기층에서 한국식 해무리굽이 만들어지는 갑발 하나에서 그릇하나를 소성하는 것은 생산체제가 고급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것을 현재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 조절화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진에서 해무리굽이 끝나는 다음시기인 개인적으로 11세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 생산량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질도 하락하지만 그 중에서 최상품이 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세기에 제작된 그릇들 중에는 규석받침을 사용한 그릇들을 최상품으로 보는데, 그 규석받침대가 11세기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릇은 별로 없습니다. 매우 정교하게 특별히 굽기 때문에 성공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즉, 11세기 단계는 조절 청자도 많이 제작되는 반면에 양질의 청자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

다. 더 고급화되는 단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이 더 조절화되는 것은 강진 중심에서 확산되면서 약간 질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단단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정양모 자기의 질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리의 경우는 전축에서 토축으로 가면서 길이가 어떻게 변합니까?

《〈 전승창 처음에는 짧아졌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길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아래의 가마를 옮겨가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두 개를 터서 길이가 83m 되는 하나의 가마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진의 토축요 가마들보다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 정양모 호림박물관에 역사적으로 도자기 연구에 큰 뒷받침을 하는 이희관 선생에게 질문을 들어 보겠습니다.

《〈 이희관 저는 도자기 전공도 아니고 역사에서 경제사를 전공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한국 초기청자의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봉천 원산리 가마 2호 요지 4층에서 발견된 고배처럼 생긴 제기 바닥에서 工匠의 이름이 나오는데, 최길희·심

방·왕공탁이라는 명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工匠들이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신라시대에서도 주종박사라든가 주종차박사는 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성이 심·최·왕씨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최씨는 신라시대 6두품으로 보여지는데, 고려왕조에 넘어와서 최치원을 연상시키는 학문적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왕씨는 신라시대에 보이지 않던 성인인데, 왕씨가 퍼지게 되는 것은 왕건에 의한 賜姓 때문인데, 그 대상이 김순식을 왕순식으로 주는 것과 같이 귀순호족이나 당시 상당히 높은 신분에 수여되는 것입니다. 일개 봉천 원산리에 공장에게 수여되는 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방이라는 사람이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심씨가 하나의 성으로 정착된 것은 적어도 12세기 이전에는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3세기가 넘어가야 이것이 토성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성들을 가진 사람들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이는 시기가 992년 993년인데, 이때 만들어지는 청자가 중국 월주 청자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한 청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갔는데, 만약에 그것이 9세기 전반, 중반 후반에 시작이 됐든 10세기 전반 이건 간에 원산리가마가 운영되던 시기에는 월주요의 장인들이 중국인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자기를 제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본을 낸 사람은 고려의 호족이었고, 자기제조 노동력은 고려인들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초기청자 제작에서 핵심기술을 가졌던 중국 월주요의 장인들이 자기제작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 중서부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청자들이 월주요 청자와 아주 유사하고, 만든 장인도 중국인이며, 자기제작 기술도 중국식이라는 점, 즉 중국식 월주청자를 한국 청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강진과의 관계도 분명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박순발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의 월주요에서 처음 청자가 넘어 오는데, 선해무리굽에서 해무리굽으로, 해무리굽에서 윤형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논리학적으로 모순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자가 월주요에서 처음 넘어왔다면 선해무리굽도 거기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주요에 선해무리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월주요 청자가 넘어왔고 그 시기에 해무리굽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해무리-해무리-윤형굽으로 간 것이 아니고,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넘어와서 계통이 다른 것이죠.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기종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당시 해무리굽을 가진 기종은 완인데, 그 완은 대체로 다완입니다. 초기에는 말차를 마셔서 완이 필요했지만 11세기에는 볶음차를 마시면서 다려야하기 때문



에 다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관이 필요해지면서 다완은 필요가 없어지고 해무리굽도 필요한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해무리에서 해무리, 윤행굽의 문제가 아니고, 크게 보면 계통의 문제이고 세분해서 보면 기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국 초기 청자의 변천과정을 얘기는 것을 고려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양모 그 문제는 용인 서리를 김재열부관장이 발굴했는데, 서리 가마는 고고학적인 발굴로 시작해서 도자사적인 발굴로 방향을 전환한 경우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은 층위를 면밀하게 따지는데, 그 문제는 일리가 있고, 제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왕, 최, 심씨는 우리나라의 성으로 보기 어렵고 중국에서 넘어온 장인들의 성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일교포 학자인 남승우씨의 글에서 원산리 가마는 1기는 9세기 3기는 10세기 중엽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가마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시에 조선에서 데리고 간 도공들이 아리파에서 많이 살았는데, 이마리 근처에서 청자가마를 많이 봤습니다. 청자 가마는 대개 등요이고 가마쪽이 좁습니다. 경사진 도지미, 작은 청자 뼈꾸기가 있고, 그 시기에 작은 바리가 조선과 아주 비슷하지만 10년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일본화되어 조선적인 미감은 전혀 찾을 수 없

는 것과 유사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석백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중국과 한국의 청자를 비교한 논문을 낼 김영미씨에게 소감과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 김영미 북경대학 고고학과에서 도자기를 연구하고 있는 김영미입니다. 한국 초기청자에서 선해무리, 해무리, 후해무리굽의 발전상황에서 한국학자들이 해무리굽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해무리굽의 발생이나 유행시기에 대한 학설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략 옥벽저(해무리굽)의 유행시기를 8세기 말에서 9세기말(당말)까지 보고, 오대로 넘어가면서 옥환저(선해무리굽)라는 유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옥벽저에서 옥환저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민선생에게 집환이라는 요도구의 출현시기를 唐末로 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이종민 중국 『문물』에서 참고한 것입니다. 중국 당대 가마인 강서성의 풍성나호라고 하는 호수 주변의 가마에서 출토된 요도구 편들을 참고한 것입니다. 보고서를 인용해서 사진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당후반기에 운영되었던 가마로 되어 있었고, 방산동의 요도구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굽을 받치는 도구로서 유사한 것으로 보고 참고한 것입니다.

〈〈 이영미 〉〉 제가 98년도와 99년도에 북경대와 절강성고고문물연구소에서 합작한 월요 발굴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발굴결과에서는 집환이라는 요도구는 당대에는 거의 없고, 사실 오대에도 아주 적은 양으로 출토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양모 〉〉 해강미술관에 장기훈씨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장기훈 〉〉 해강도자미술관의 장기훈입니다. 기라선생에게 여쭙보겠습니다. 초기청자연구에서 화판형접시가 최근연구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서리와 방산동에서 발굴된 화판형접시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원산리의 화판형접시와 중국 요주요지 황보요지의 결과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화판형접시와 관련해서 용인서리와 시흥 방산동의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황보요지의 결과와 비교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기라 후미오 〉〉 기본적으로 원산리 가마는 개성에 가까웠기 때문에 수요층은 개성에 살던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특히, 원산리 2호 가마는 개성의 궁궐, 관리, 승려들의 수요를 위해서 자기를 제작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련 부분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원산리청자는 중국적인 것이 많고, 중국인의 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계 도공

이 상주했던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온 중국도공들의 래왕시기가 개성이 고려의 수도가 되었을 때 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원산리가마에서 화형접시는 10세기 전반경이나 아니면 10세기全般에 걸쳐서 생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출토 예에서 부곡리나 방산동의 화형접시는 접지면이 넓지 않은 해무리굽이 나타나고, 용운리의 경우는 중해무리굽이라고 도록에서 봤습니다. 나눠드린 부곡리요편과 원산리요의 출토편을 보면, 거의 동시기에 가마를 운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리에 대해서는 자료를 자세히 본적이 없지만 용인 서리에서 이러한 층들이 대부분 제2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0세기 전반경에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양모 〉〉 윤용이교수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윤용이 〉〉 처음 개론에서부터 네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청자의 기원을 해무리굽완을 근거로 해서 9세기 전·중반, 9세기 후반, 10세기 전반, 10세기 후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944년에 노모리선생이 해무리굽에 주의한 이후로 56년이 지났지만, 해무리굽과 관련되어 동반된 고고학적인 층위에서 출토된 증거유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9~10세기의 고분이나 탐, 부도에서 발견된 예가 있습니까 아니



면 그와 관련된 시기에 동반유물에서 구체적인 증거유물이 나온 예도 없습니다. 해무리굽은 중국과 같은데 방산동과 배천(봉천이 아니다) 원산리 벽돌가마에서 출토된 주전자는 오대·북송대의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집환도 오대·북송대의 것입니다. 그렇듯이 가장 오래된 벽돌가마와 관련된 것이 중국의 10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배천 원산리 2호가마도, 북한의 자료를 잘 보면 배천 원산리가가마가 안으로 3차의 보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39.1m에서 22.8m로 1차 보수, 다시 22.8m로 2차 보수, 세 번째 22.8m로 3차 보수한다면 문제는 2호 옆의 3호가마가 22.8m입니다. 이것을 폐기하고 옆으로 갔고, 그 옆의 4호가마가 10.8m로, 가마의 규모가 계속 축소되어 갔고, 벽돌가마를 단지 10세기 말로 끝났다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벽돌가마는 오히려 더 뒤인, 제 생각에는 배천 원산리는 가마의 운용시기는 빨라야 970년대나 980년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 정양모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해서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순발교수가 고고학적인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발 제 전공이 도자사는 아니지만 도

자사뿐만 아니라 역사시대 유적을 조사하는 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원산리가마가 운용연대가 언제라는 문제를 떠나서, 크게 보아서 최근에 토기와 동반되는 해무리계(첩소되어 대량생산된)의 그릇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단계에서 명문을 가진 토기의 출토 예는 없지만 전체 토기변천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정도입니다. 특히 해무리굽이 유행으로 넘어가는 단계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이 되는 영동 계산리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적은 현재 보고서 작성 중인데, 건물지로 추정되며 태평 홍국7년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청자는 철회청자편, 0.6~0.7cm 정도 폭을 가진 해무리굽편, 굽이 없는 청자 등 3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무리굽은 접지면은 좁지만 기형은 곡선화되었지만 해무리완이고 크기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세기말, 이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982년으로, 대개 이 무렵의 편들로 추정됩니다.

해무리굽에서 굽면의 폭은 특정 기종인 찻그릇에 적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공들이 굽의 폭을 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도공들의 무의적인 변화라는 것이 고고학에서는 후대에 상대편년의 기준이 됩니다. 상대연대를 구축하고 토기와 동반관계에서 보더라도 중국 직수입품과 동반 출토되는 해무리굽완의 접지면은 폭이 넓습니다.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는 토기로 변환됩니다만 한반도

에서의 해무리굽만을 그렇게 본다는 것은 고고학적인 방법론이나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150년 정도의 존속기간이라고 볼 때, 그것이 상향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산리요군 전체의 발굴조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요의 존속기간을 논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량생산되는 첩소된 해무리굽은 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시기적으로 좀 늦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양모 영동 계산리의 해무리굽은 거의 해무리굽이 아니고 해무리굽에서 상당히 지난간 시기이고 거의 해무리굽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양모 용인서리의 해무리굽 C식에서 약간 지난 것입니다.

〈〈 마순관 오늘 대회의 의미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종래에도 이런 학술대회가 있었지만 오늘 대회는 원산리나 시흥 방산동의 가마와 비교해서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대회의 개최지가 용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자사의 중요한 유적지인 용인의 향토문화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현장박물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 방병선 최건선생의 원고 중에 원판에 규석을 박아 둔 것이 한국식 토축요 계열의 요도구라고 했는데, 최근에 11~12세기 베트남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해서 이것도 중국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용인의 이러한 도자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인시 당국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되고, 문제는 현재 21세기에 도자를 제작하는 장인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지역 도자제작자들의 현황과 발전 계획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마순관선생에게 듣고 싶습니다.

〈〈 마순관 내년엔 세계 도자기 엑스포가 열립니다. 도자기 엑스포의 개념이 과거·현재·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한 도요지가 용인에 있는데 이것을 무시한 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용인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양모 사회를 맡은 양정석선생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일을 제일 많이 한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선생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양정석 용인시에서 시사편찬을 맡고 있는 양정석입니다. 저희는 최근 1년여에 걸쳐서 남사면과 이동면의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 그 결과 이동면 서리안에서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4기 정도의 가마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용인 서리라는 넓지않은 지역이 도자기의 발생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요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주변의 남사면에서는 9세기 정도로 편년되는 기와편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굴한 처인성에서도 9세기 경의 당초문이 들어간 와당류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보다 좀 더 내려가는 지역에서는 통일신라기의 전형적인 파도문이 들어간 토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10세기와 11세기에 관련하여 비교할만한 자료들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상태이지만 그 직전 시기의 유물자료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서리지역에서 고려백자요지가 장기간 운영된 배경에 대한 구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양모 통일신라시대의 토기가마는 없나요?

<<< 양정석 예, 남사면 쪽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토기류가 수습되고 있습니다.

<<< 정양모 가마는 아니고..

<<< 양정석 저희는 잠정적으로 가마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릉사면에 걸쳐 있는데

넓게 퍼져있는 상황으로 보아 일단은 토기가마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물줄기가 평택만으로 내려가는데, 이동면 서리가 상류라면 중류쪽에서는 9세기 대의 유물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양모 용인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뜻을 합해서, 지표조사를 해서 발굴을 하고 보존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발표해 주신 여러분과 참석하여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한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라씨가 일본의 녹유관계를 조금 언급한다고 합니다.

<<< 기라 후미오 덧붙여서 당시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10세기 쯤에는 물론 자기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제 자기가 수용되자 회유나 녹유를 통해서 기형을 모방합니다. 그런데 9세기 중후반에 걸쳐서 일본에서는 중국 월주요계의 해무리굽 접시류가 수입되자 그것을 본떠서 만든 회유나 녹유 접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뉘었는데, 접지면이 넓은 것과 좁은 것입니다. 최근에 교토에서 조사된 보

고서에 의하면, 녹유로 제작된 것 중에서 10세기에는 해무리굽 형태의 녹유가 있지만 서서히 소멸되면서 10세기 후반에는 해무리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과 관련해서 중국 해무리굽자기의 도입은 일본의 상황을 볼 때, 역시 해무리굽이 유행했던 시기는 9세기 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슬라이드에서 봤던 용운리의 출토품 중에 접지면이 넓은 것은 9세기로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 정양모 이제 장시간에 걸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요지 보호에 용인이 앞장서서, 앞으로 용인시가 도자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는 햇불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녹취 : 김윤정(용인대 박물관)]

용인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1997년 이래로 용인의 역사상(歷史像)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우선 용인지역을 대표하는 몇몇 유적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범위를 외연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용인지역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주목되었던 것이 '처인성지'를 비롯한 '서리 고려백자요지', '좌향리 고려고분군',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등의 고려시대의 유적·유물이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학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1998년 6월 『고려시대의 용인』이라는 이름으로 제1회 용인시사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때 발표된 논문과 토론의 내용은 그해 12월에 논문집으로 간행되었다.

1999년 부터는 앞에서 다루어졌던 유적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용인의 옛절터』(용인시사총서 2, 1999), 『용인의 도요지』(용인시사총서 3, 1999) 그리고 『용인의 옛성터』(용인시사총서 4, 1999) 등 일련의 지표조사보고서를 간행하게 되었다. 그 중 『용인의 도요지』의 경우에는 용인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요지에 대한 일종의 전수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를 통해 총 41개소의 도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이동면 서리지역에서는 6개소의 도요지를 찾았으며, 2000년도에는 추가적으로 8개소의 도요지를 새롭게 발견하여 이 지역이 도요지 밀집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처인성주변지역 지표조사보고서』, 용인시사총서 11, 근간). 특히 이 지역은 서리 중덕에 위치한 고려백자요지를 통해 학계에 이미 잘 알려져 있던 곳이다. 그러한 곳에서 도자발생기의 요지부터 19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성격의 도요지가 존재하였음은 용인의 역사상을 이해하는 데 뿐 아니라 도자사(陶磁史)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용인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용인지역이 한국도자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구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용인지역의 도요지를 리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어, 그 주제를 서리지역에서 도자기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되는 서리 중덕의 고려백자요지로 한정하였다. 더불어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객관적 위상에 대한 규명하기 위해 시흥 방산동과 강진의 초기청자요지와와의 비교사적인 검토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학술대회의 중심테마는 자연스럽게 초기자기의 발생시기문제로 잡히게 되었다. 본 논문집은 지난 2000년 12월에 열렸던 『제2회 용인시사학술대회 용인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을 통해 발표되었던 논문들과 종합토론 이외에도 새롭게 몇 편의 논문을 추가하여 만든 것이다. 그 구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정양모 경기대 석좌교수가 지난 발표회에서 한 기초강연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한국도자사 연구에서 용인 서리 백자요지의 위상」이라는 일종의 권두논문을 작성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논문집의 중심테마가 된 초기자기의 발생시기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다루고 있다.

각론으로 용인 서리요지를 중심으로 시흥 방산동과 강진의 초기청자요지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졌다. 전승창의 「용인 서리요지 출토유물 검토」, 이종민의 「발굴요적을 통해 본 전축요의 운영시기 고찰」, 그리고 최건의 「라말려초 한국 자요의 계열과 변천」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기라 후미오의 「자기 발생문제와 일본에서의 연구의 과거와 현상」과 임사민의 「고려 청자의 탐색」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사연구자들의 관점에서 한국의 초기자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기존의 연구에서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초기자기 제작을 위한 요도구라든가, 요지가 아닌 다양한 유적에서 출토된 초기자기, 그리고 당시 자기의 생산자층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행한 논문을 실었다. 김영미의 「당송 월요 요도구와 자기에 대한 초보적 인식」, 박순발의 「당대 옥벽저의 변천과 한반도 해무리굽 자기의 출현」, 그리고 김난옥의 「9~11세기 용인 서리 백자요와 지방세력」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발표 당일 이루어진 종합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여기에는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뿐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의 자기 발생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매우 다양한 논의가 실려 있다.

이번 논문집이 나오는데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우선 학술대회의 기본틀을 만들고 섭외까지 해주신 정양모 선생님과 최건 선생님, 김재열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용인지역의 도요지 조사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이남규 선생님, 이종구 선생님, 마순관 선생님, 현문필 선생님, 노대석 선생님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해 준 이종민 선생님, 전승창 선생님, 장기훈 선생님, 밤마다 전화로 연락하였던 중국에 유학중인 김영미 선생님, 원활한 일본어 통역을 해 준 시노하라 선생님, 편집과정에서 같이 고민하였던 한성욱 선생님, 김윤정 선생님, 제작과정에서 노력 해주신 김세연 선생님, 그외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더불어 이러한 학술대회와 논문집의 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용인시와 용인문화원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2001년 5월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용인 서리 고려백사묘지의 재조명

발행 /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편집 / 양 정 석(용인시사편찬위원회)
한 성 옥(국립목포대학교 박물관)
김 운 정(용인대학교 박물관)

발행일 / 1판 1쇄 2001년 2월 28일
1판 2쇄 2001년 5월 28일

제작 / (주) 경기출판사

용인시 ·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